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2년 기준

contents

part 01 전국총괄

01 인구	011	06 근로조건	099
1. 인구 동향	012	1.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100
2. 지역별 인구 동향	019	2.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105
3. 지역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023	3. 사회보험 가입률(고용형태별)	120
02 경제	027	07 노사협력	123
1. 경제 동향	028	1. 노동조합	124
2. 산업 동향	030	2. 노사분규	127
3. 소비 및 물가 동향	033	3. 노사분쟁 사건	130
4. 수출·입 동향	034	4. 근로감독 현황	136
5. 사업체 동향	034	08 산업안전	141
6. 분배 동향	038	1. 산업재해	142
7. 지역별 경제 동향	041	2. 경제적 손실	145
03 고용	045	3. 산재보험	147
1. 노동력 현황	046	09 시도별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비교	151
2. 취업자 및 고용률	049	1. 지역별 인구현황	152
3. 실업자 현황	059	2. 인구이동현황	153
4. 비경제활동인구	061	3. 지역내총생산	154
04 노동이동	067	4. 산업단지분포 현황	155
1. 입·이직 현황	068	5. 고용률	156
2. 워크넷 구인·구직 현황	072	6. 취업자수	157
3. 미충원 인원	076	7. 실업률	158
4.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080	8. 비경제활동인구	159
05 직업훈련	085	9.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160
1. 직업훈련 현황	086	10. 근로조건	161
2. 수료자 취업 현황	093		

part 02 대상별 현황

01 청년	165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166
2.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168
3.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171
4. 청년 근로조건	172
5. 취업 활동 과정	173

02 여성	177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178
2.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180
3. 여성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187
4. 여성 근로조건	189

03 50세 이상	191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192
2. 50세 이상 취업자 및 고용률	194
3. 50세 이상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197
4. 50세 이상 근로조건	198
5. 50세 이상 현황	199
6. 50세 이상층 동태 분석	205

04 비정규직	209
1. 비정규직 취업 현황	210
2. 근로조건	218
3. 고용형태 변화	228

part 03 부록

고용노동관련 OECD국제비교 통계	
1. 인구 및 고용	234
2. 근로조건	246
3. 분배지표	255
4. 기타 고용노동 지표	259

인구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22년 인구추계)

51,628천명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45,260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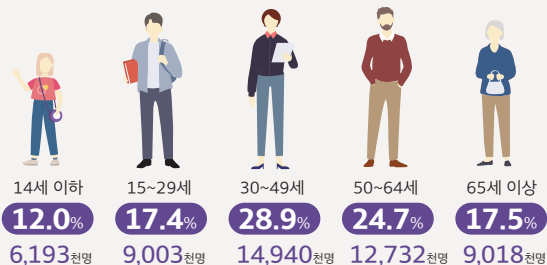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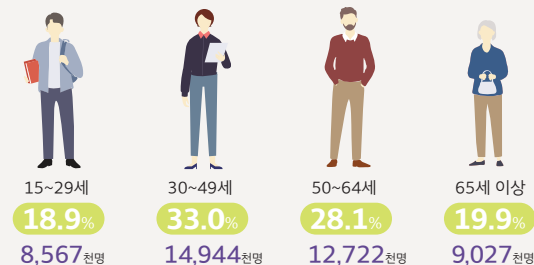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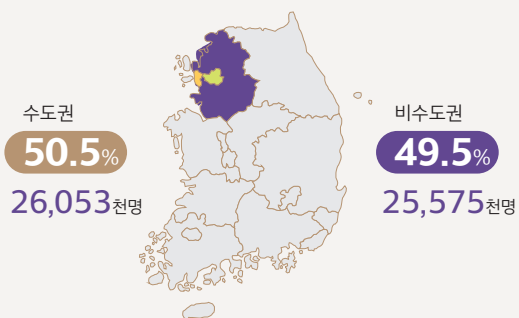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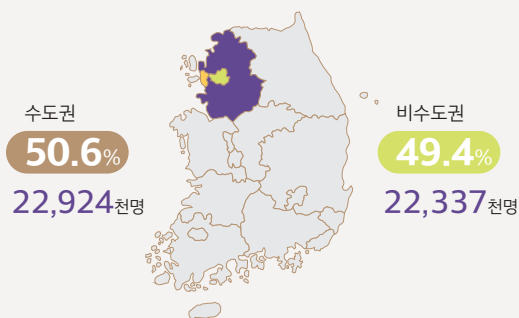
연령별



지역별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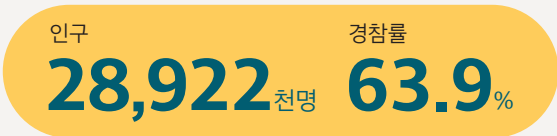
경제활동상태

(2022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22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45,260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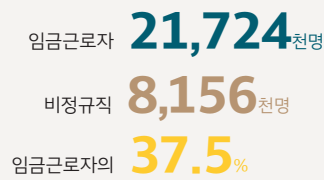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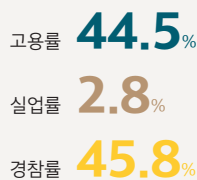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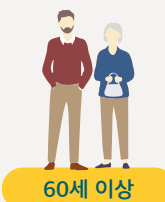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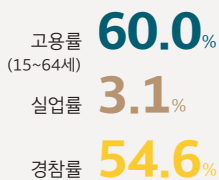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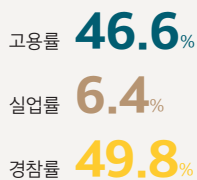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준비는 '재학·수강 등' 중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과 '그 외' 중 학원·기관 수강 외 취업준비의 합계



주요 경제지표

(2022년 기준 OECD, 한국은행)

GDP

16,733 억US\$

(2,162조원, 명목)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9위(1위 미국, 254,627억 US\$)
- 경제성장률(실질GDP증가율)2.6%



1인당 GDP

32,410 US\$

(4,187만원, 명목)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위
(1위 룩셈부르크, 125,558 US\$)



1인당 노동생산성

79,737 US\$

('20년, ppp기준)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2위(1위 아일랜드, 194,803US\$)



고용률

68.5 %

(15~64세)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8위(1위 아이슬란드, 83.3%)



삶의 만족도

5.9 점

('19~'21 평균, 10점만점)

-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6위
(1위, 핀란드 7.8점)

주요 노동시장 지표

(2022년 기준)

사업체 수

6,080 천개

('21년 전국사업체조사)



※ 2020년 부터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조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사업체도 조사대상에 포함

임금근로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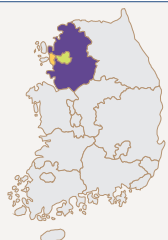
21,502 천명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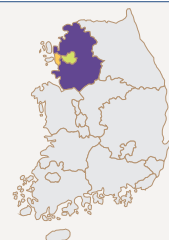
수도권
49.0%
2,978천개



비수도권
51.0%
3,102천개

지역별

수도권
54.3%
11,685천명



비수도권
45.7%
9,817천명

산업별

광공업
9.6%
581천개



건설업
8.0%
485천개

서비스업
80.8%
4,912천개

농림어업
0.2%
13천개

산업별 취업자 수

광공업
16.1%
4,512천명



건설업
7.6%
2,123천명

서비스업
70.7%
19,848천명

농림어업
5.4%
1,526천명

임금 및 근로시간

(사업체노동력조사)



월평균명목임금
387만원

(월평균실질임금 359만원)

월평균근로시간
159시간

(연간근로시간 1,904시간)

노동조합

('21년 전국 노동조합조직 현황)



노동조합수
7,105개소

노동조합조직률
14.2%

노동조합원수

2,932,672명

산업안전

('21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사망만인율
1.07%

(사망자 2,080명)

산업재해율
0.63%

산업재해자수

122,71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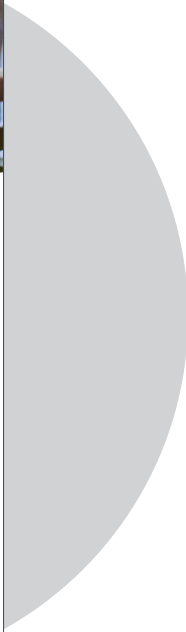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2년 기준



01

전국총괄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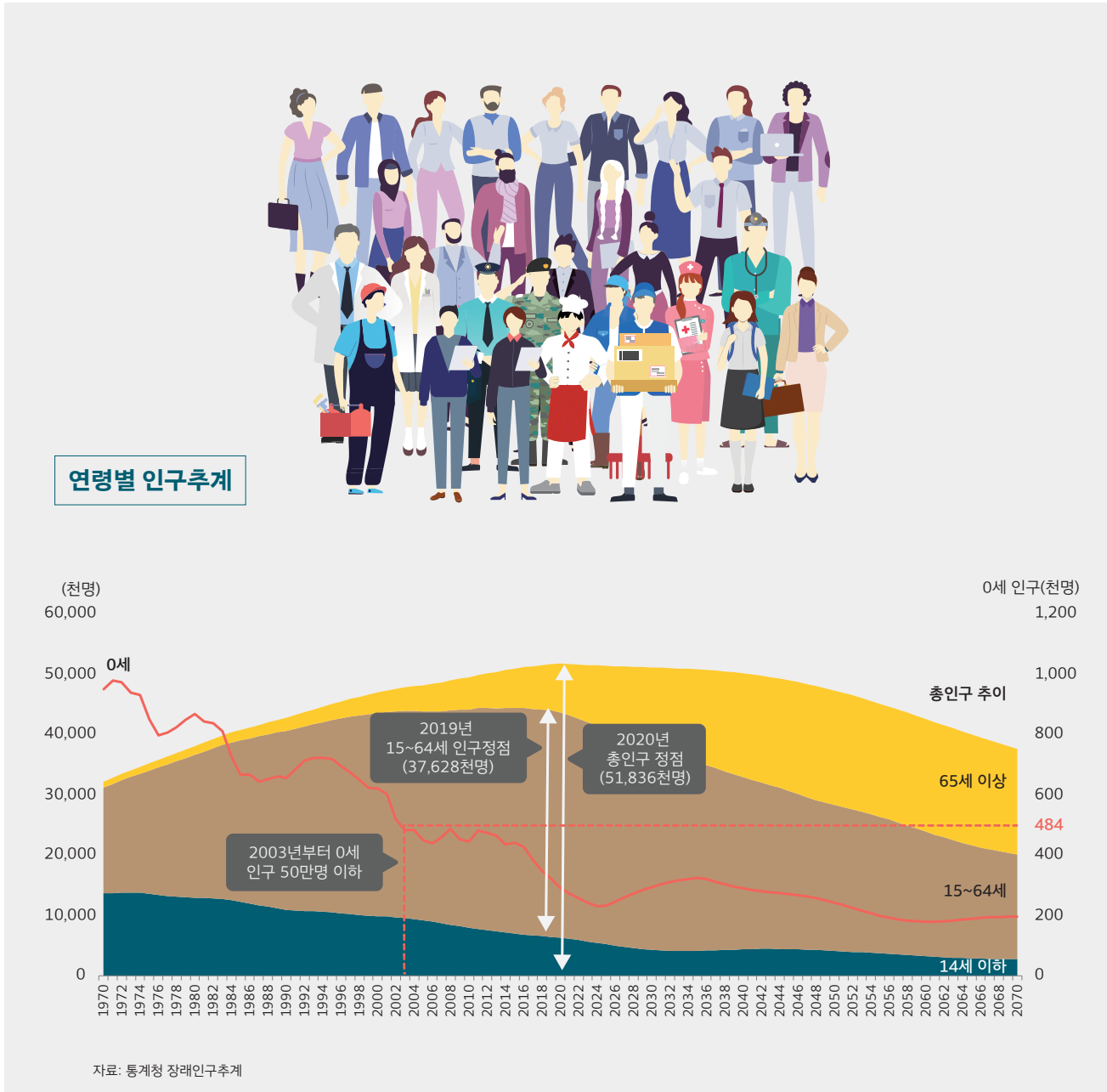
01 인구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 인구동향

총인구

2022년 국내 총인구는 5,163만명으로 1970년에 비해 1.6배 증가하였다.
총인구는 2020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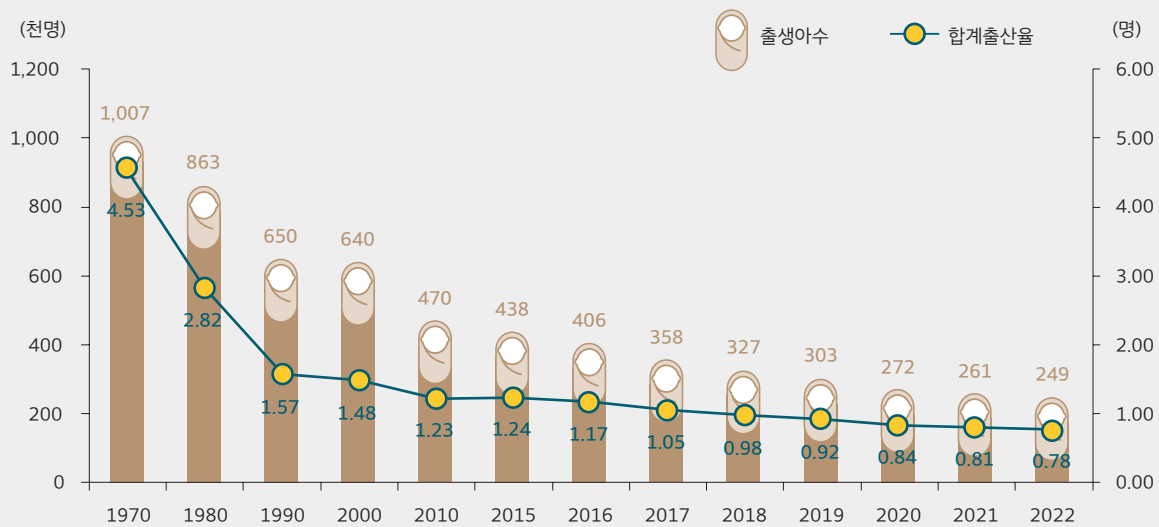
+ 세부적으로 보면 15~64세 인구는 2019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4세 이하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0세 인구는 2003년부터 50만명 이하로 줄었다.

(단위: 천명, %)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총인구	32,241	38,124	42,869	47,008	49,554	51,836	51,628	51,199	50,193	47,359	42,617	37,656
	(100.0)	(118.2)	(133.0)	(145.8)	(153.7)	(160.8)	(160.1)	(158.8)	(155.7)	(146.9)	(132.2)	(116.8)
0세	950	870	656	622	447	292	258	295	290	243	180	196
14세 이하	13,709	12,951	10,974	9,911	7,979	6,306	5,934	4,329	4,427	4,166	3,274	2,815
15~64세	17,540	23,717	29,701	33,702	36,209	37,379	36,675	33,813	28,521	24,189	20,660	17,368
65세 이상	991	1,456	2,195	3,395	5,366	8,152	9,018	13,056	17,245	19,004	18,683	17,473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970년 대비 비율

출생아수 및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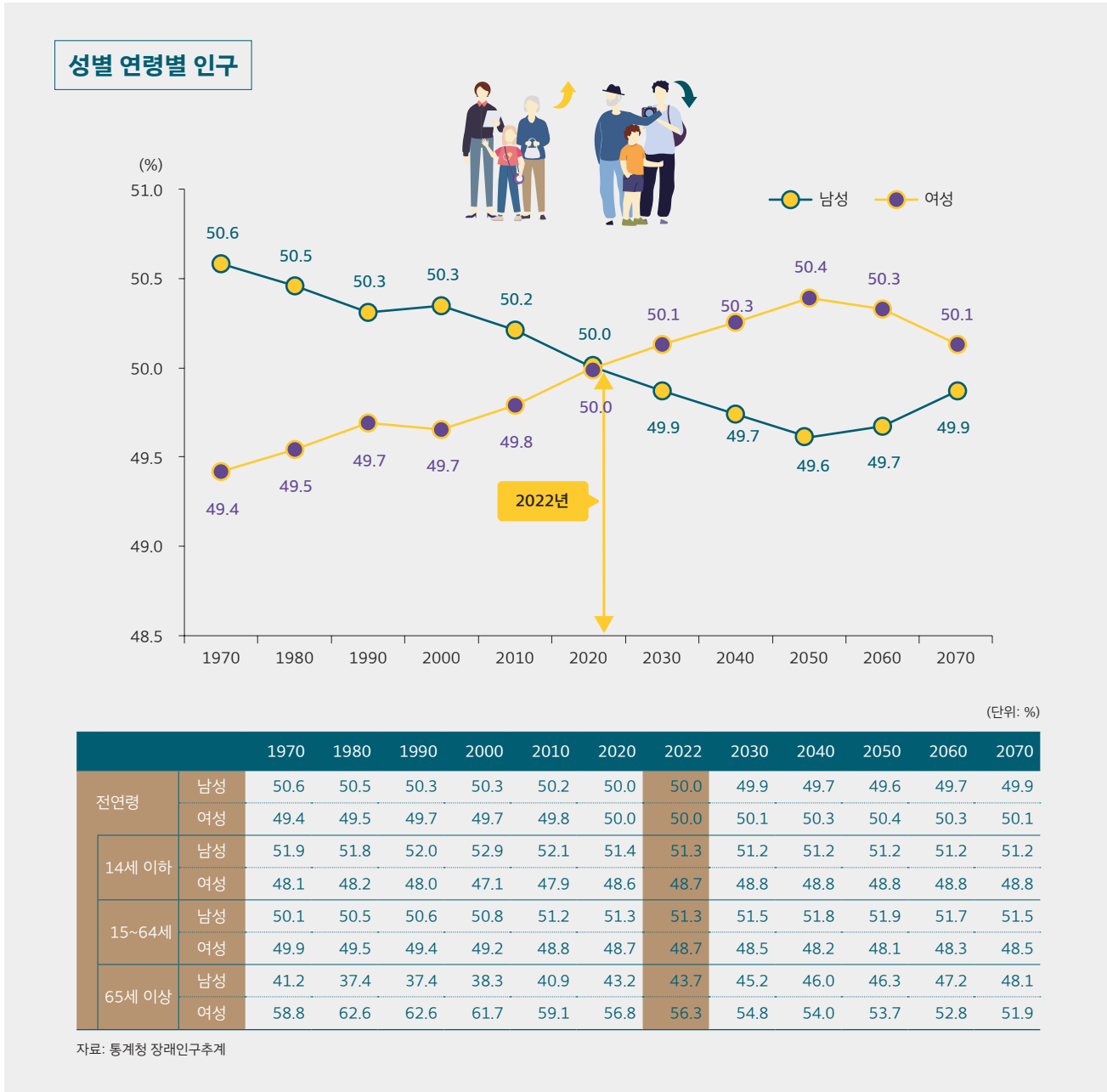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2년은 잠정치
 주)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 2022년 출생아수는 249천명으로 1970년(1,007천명)의 24.7% 수준
- +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970년(4.53명)보다 3.75명 낮음

성별 연령별 인구

우리나라 총인구 중 남성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커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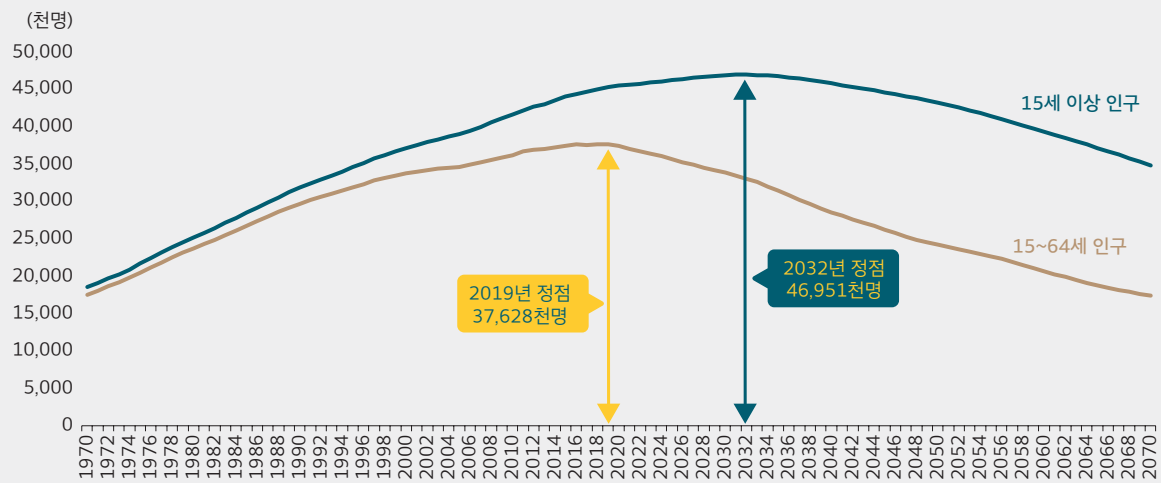
- + 성별-연령별 비중으로 보면 향후 65세 이상의 남성비중은 증가할 전망이다.
- + 여성비중은 64세 이하에서 남성비중보다 낮지만 65세 이상에서는 남성비중보다 높다.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는 2032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다.

* 장래인구추계에서는 15~64세를 "생산연령인구"로 지칭하고 있음

1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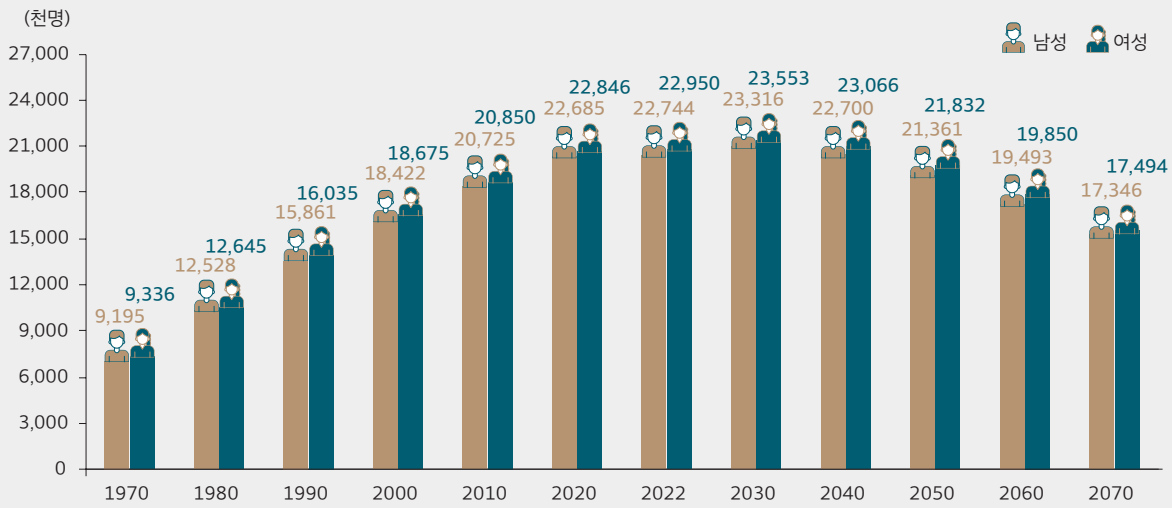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성별 (15세 이상 인구)

여성의 15세 이상 인구는 남성보다 많으며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15~64세는 남성이 지속적으로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성별 (1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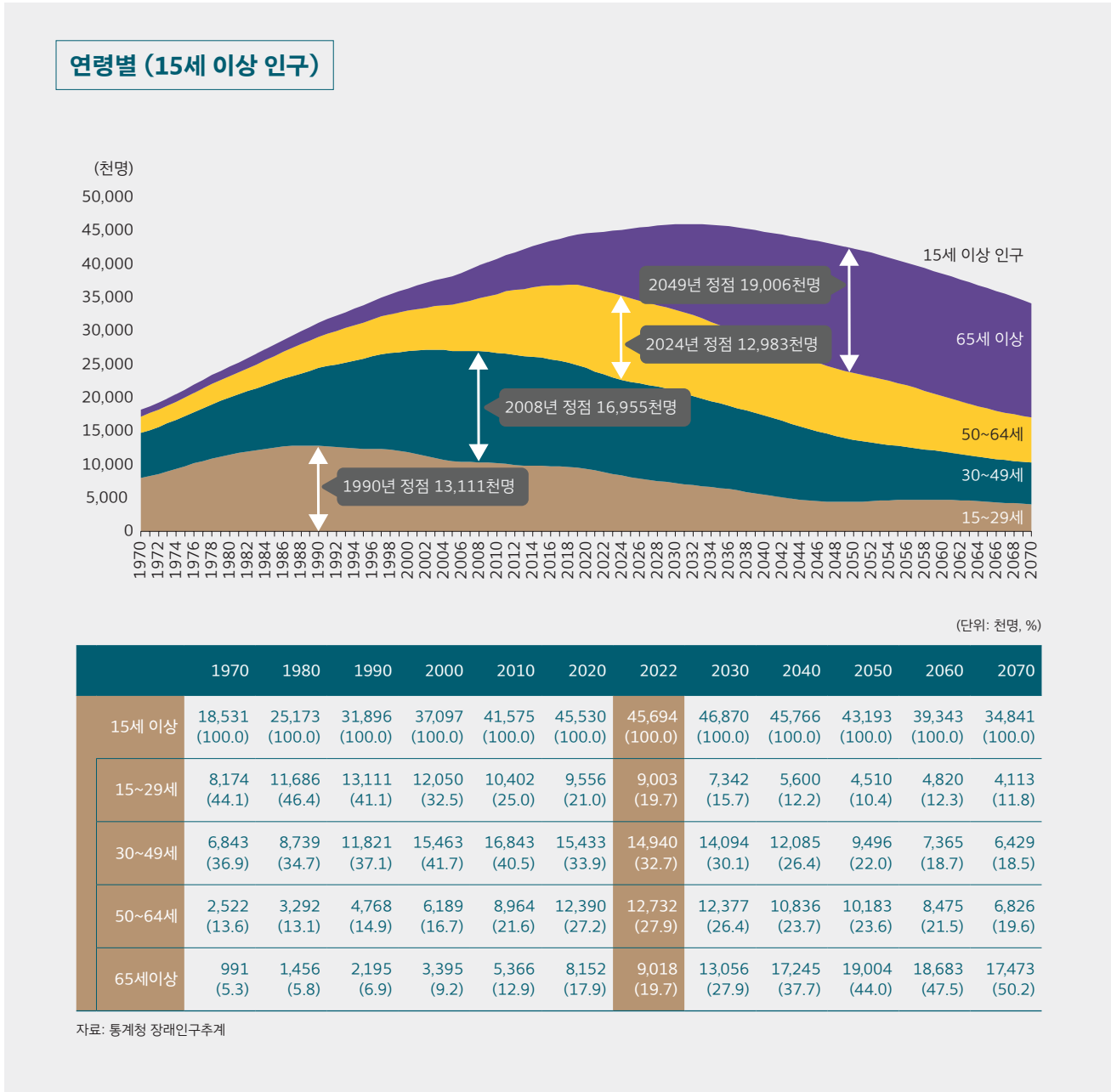
(단위: 천명)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21	2022	2030	2040	2050	2060	2070
15세 이상	합계	18,531	25,173	31,896	37,097	41,575	45,530	45,601	45,694	46,870	45,766	43,193	39,343	34,841
	남성	9,195	12,528	15,861	18,422	20,725	22,685	22,702	22,744	23,316	22,700	21,361	19,493	17,346
	여성	9,336	12,645	16,035	18,675	20,850	22,846	22,899	22,950	23,553	23,066	21,832	19,850	17,494
15~64세	합계	17,540	23,717	29,701	33,702	36,209	37,379	37,030	36,675	33,813	28,521	24,189	20,660	17,368
	남성	8,787	11,984	15,039	17,122	18,531	19,164	18,980	18,805	17,416	14,772	12,566	10,677	8,943
	여성	8,753	11,733	14,662	16,580	17,677	18,215	18,050	17,870	16,398	13,749	11,623	9,983	8,425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연령별 (1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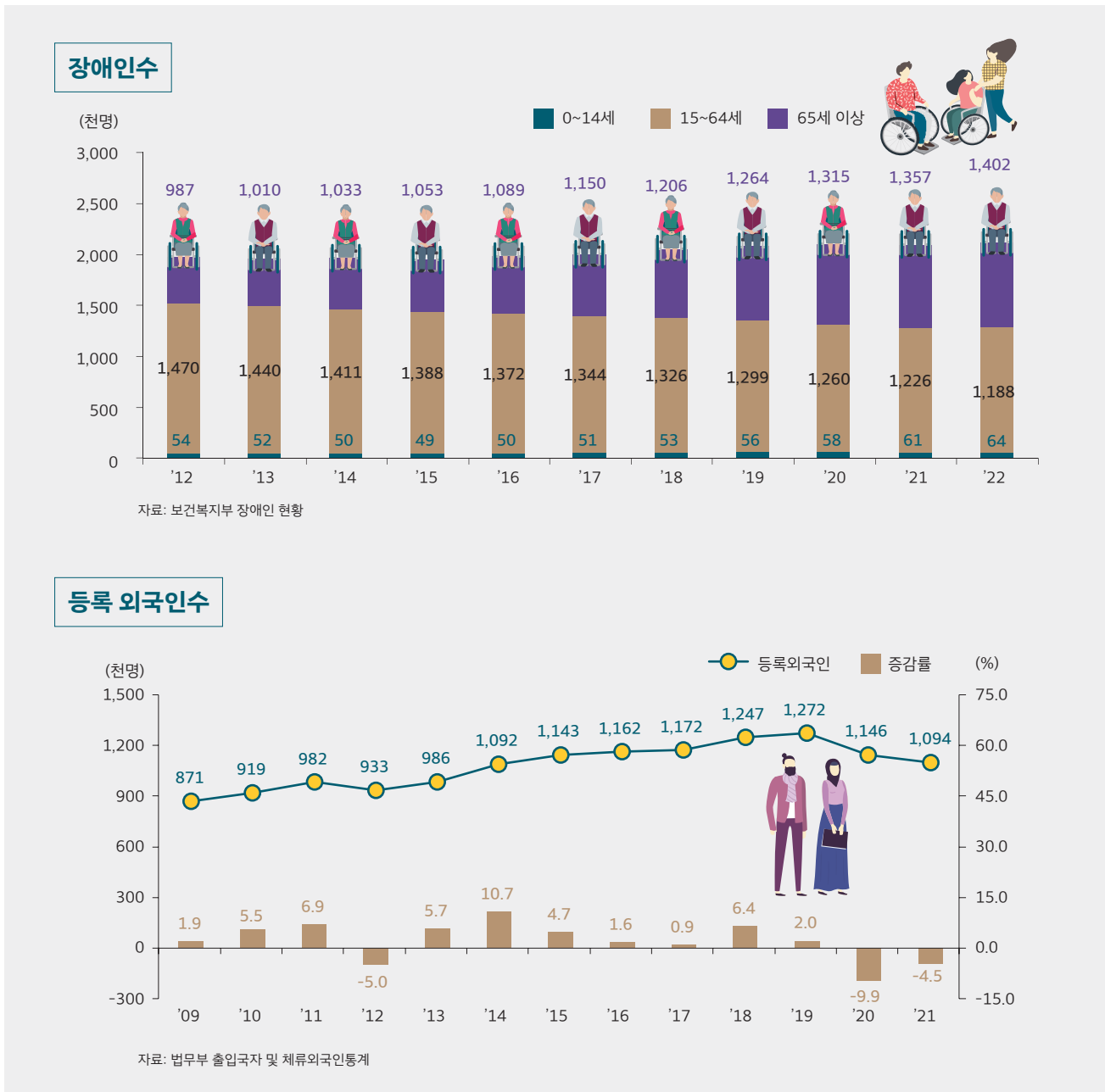
15세 이상 인구 중 연령별 비중에서 15~29세의 비중은 감소하고 65세 이상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층 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중년층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고, 장년층은 2024년을 정점으로, 노년층은 2049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시작된다.

장애인·외국인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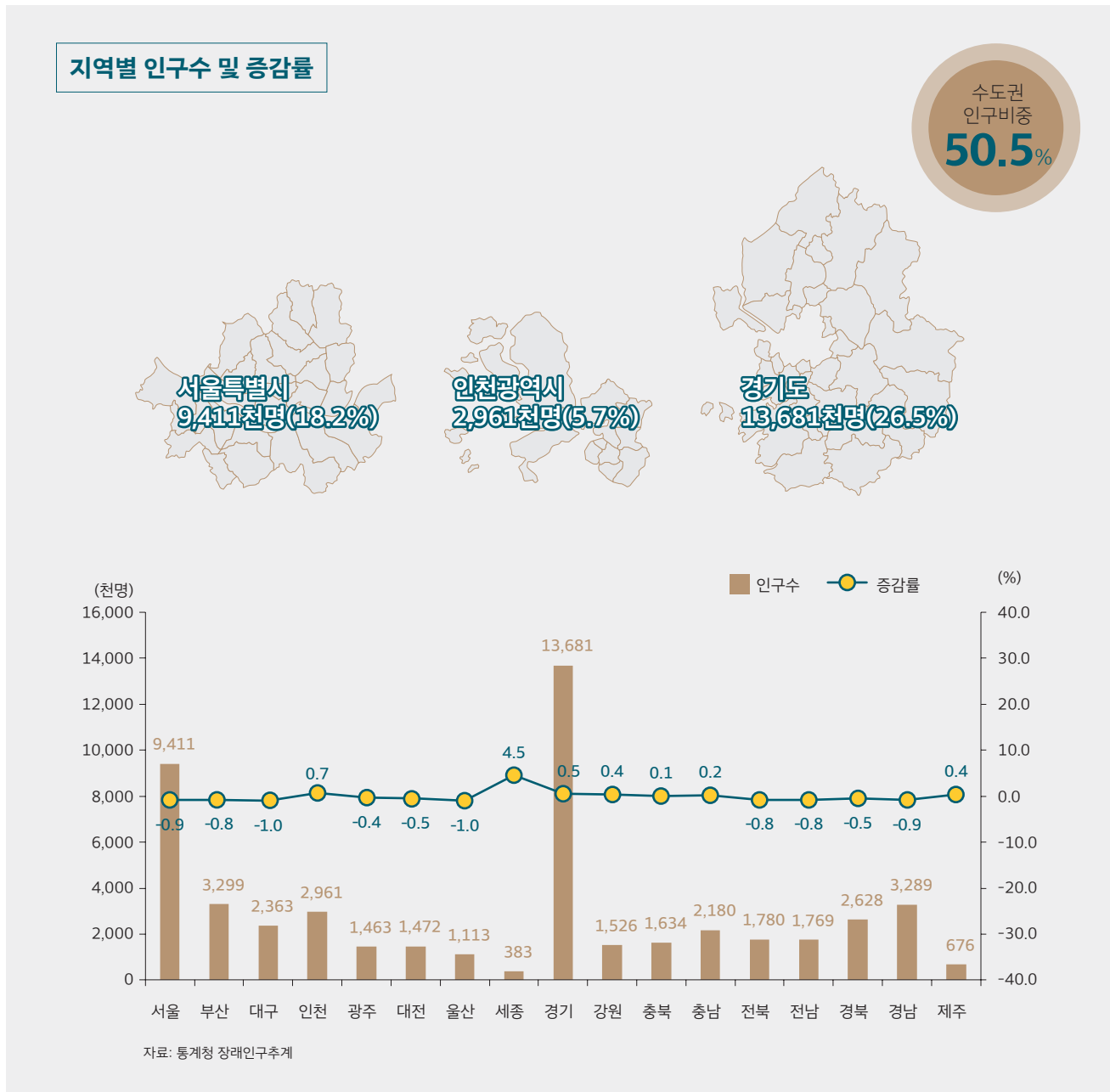
등록장애인수는 65세 이상 연령을 중심으로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등록외국인 역시 추세적으로 증가해왔으나 2020년부터 감소하였다.



2. 지역별 인구 동향

시·도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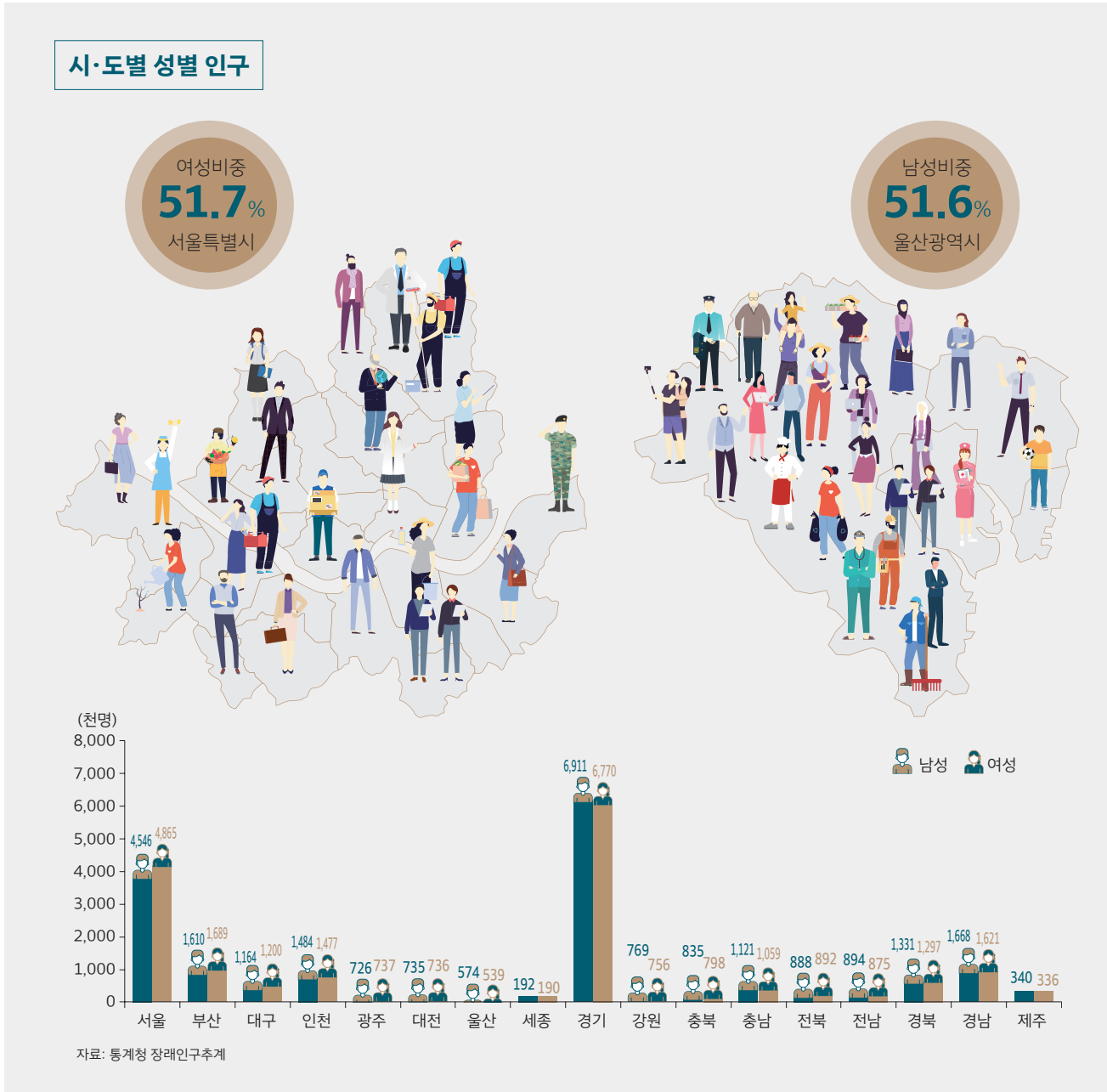
2022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전국대비 인구비중이 50.5%를 차지해 지역 편중이 심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구 증감률은 세종, 인천, 경기도 순으로 높으며, 대구와 울산, 서울과 경남 순으로 낮았다.

시·도별 성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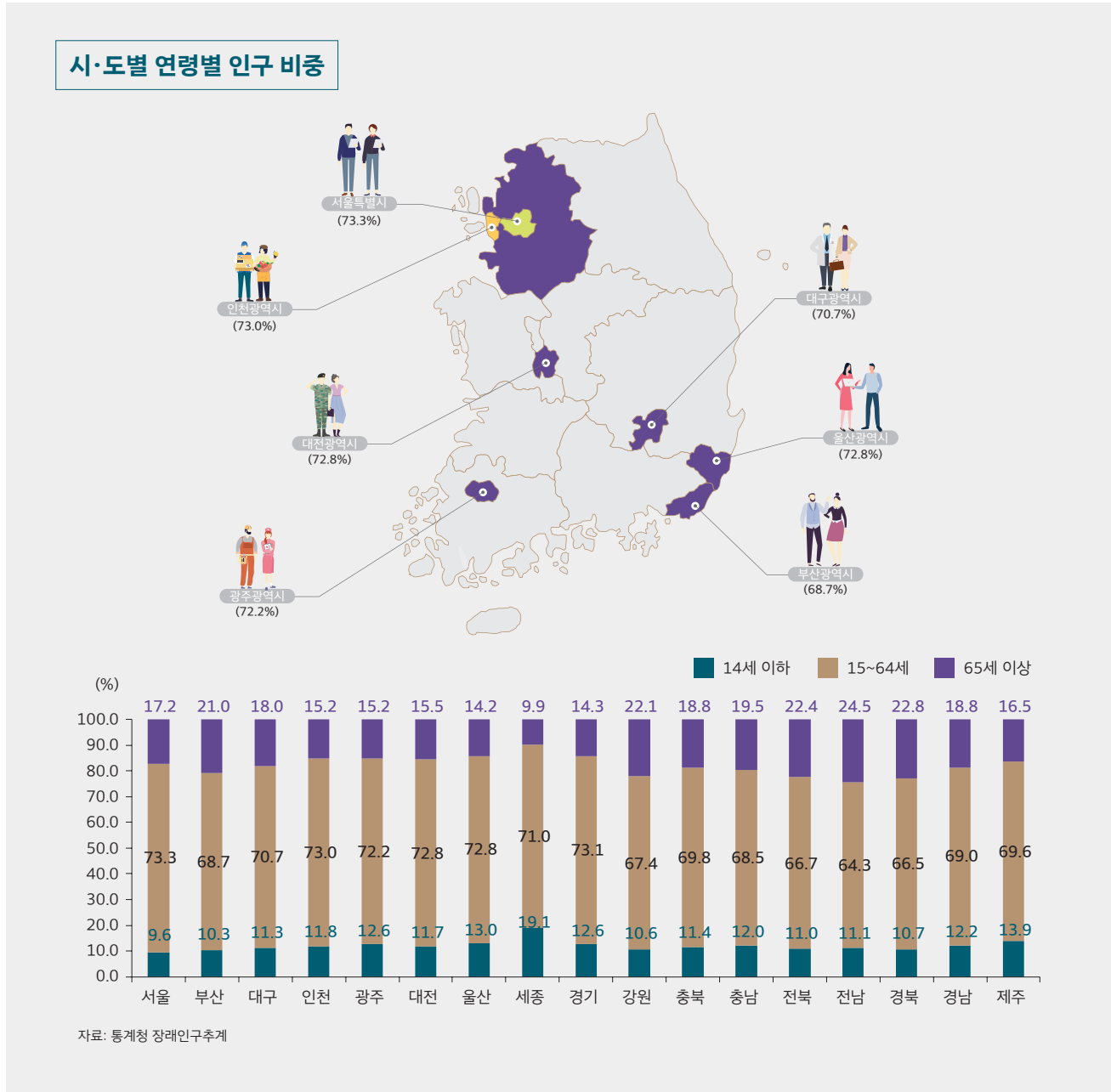
2022년 여성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51.7%)이고
남성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울산(51.6%)이다.



+ 시·도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은 여성 비중이 높은 반면, 나머지 지역은 남성 비중이 높다.

시·도별 연령별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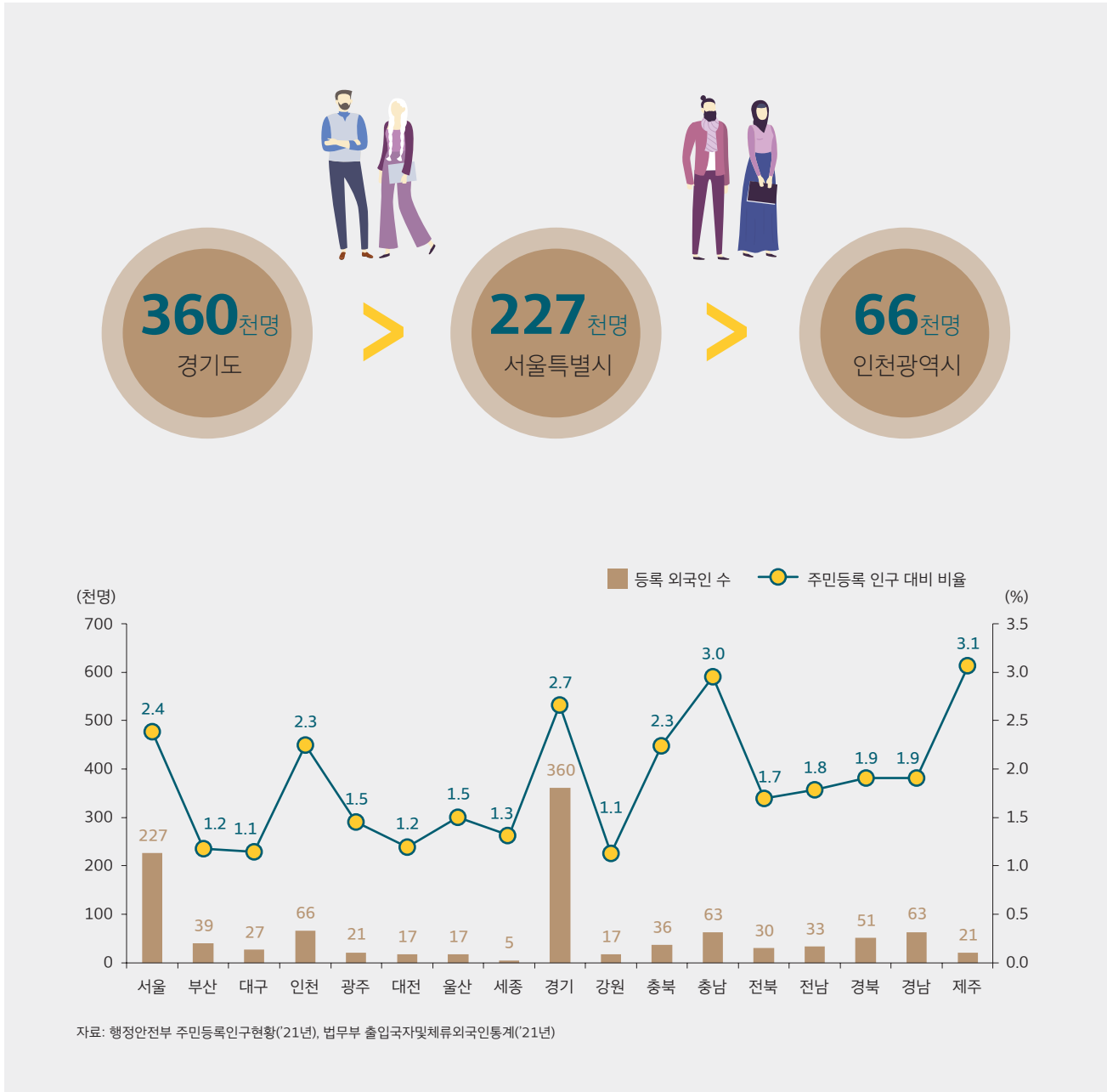
2022년 15~64세 인구비중은 대체로 특·광역시 도지역보다 높다.
 다만, 특광역시 중 부산은 68.7%로 낮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도지역이
 뚜렷하게 높은 모습이나, 도지역 중 경기도는 73.1%로 높다



- + 시·도별 14세 이하의 비중은 대체로 10~13% 수준인데, 세종(19.1%), 제주(13.9%)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모습이다.
- + 서울은 15~64세 비중이 가장 높고(73.3%), 14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낮다.(9.6%) 전남은 15~64세 비중이 가장 낮고(64.3%), 65세 이상의 비중은 가장 높은(24.5%) 특징을 보인다. 세종은 14세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고(19.1%), 65세 이상의 비중은 가장 낮다(9.9%).

시·도별 등록외국인수

등록외국인은 경기(360천명), 서울(227천명), 인천(66천명) 순으로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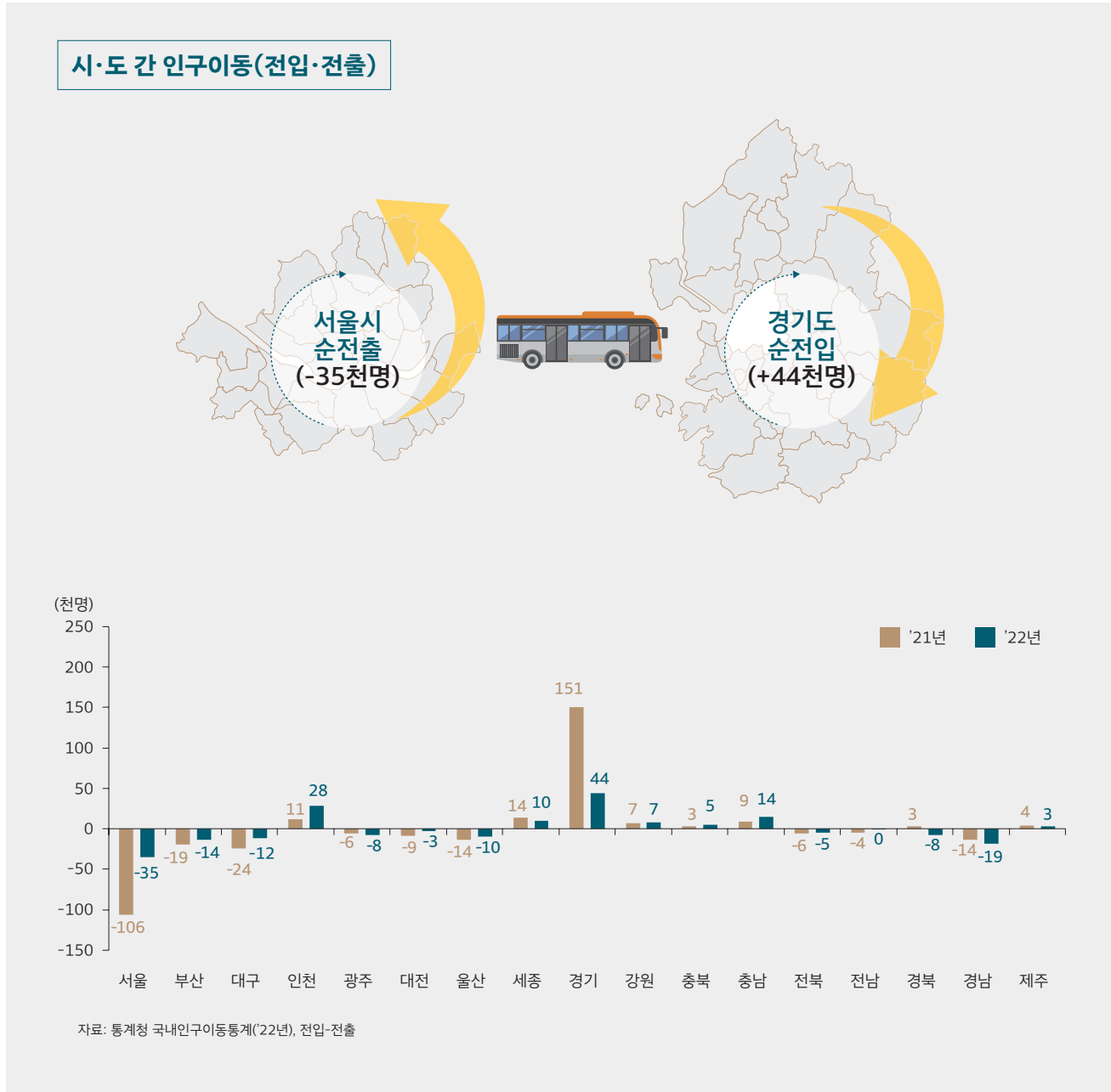


+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제주(3.1%), 충남(3.0%), 경기(2.7%) 순으로 높음

3.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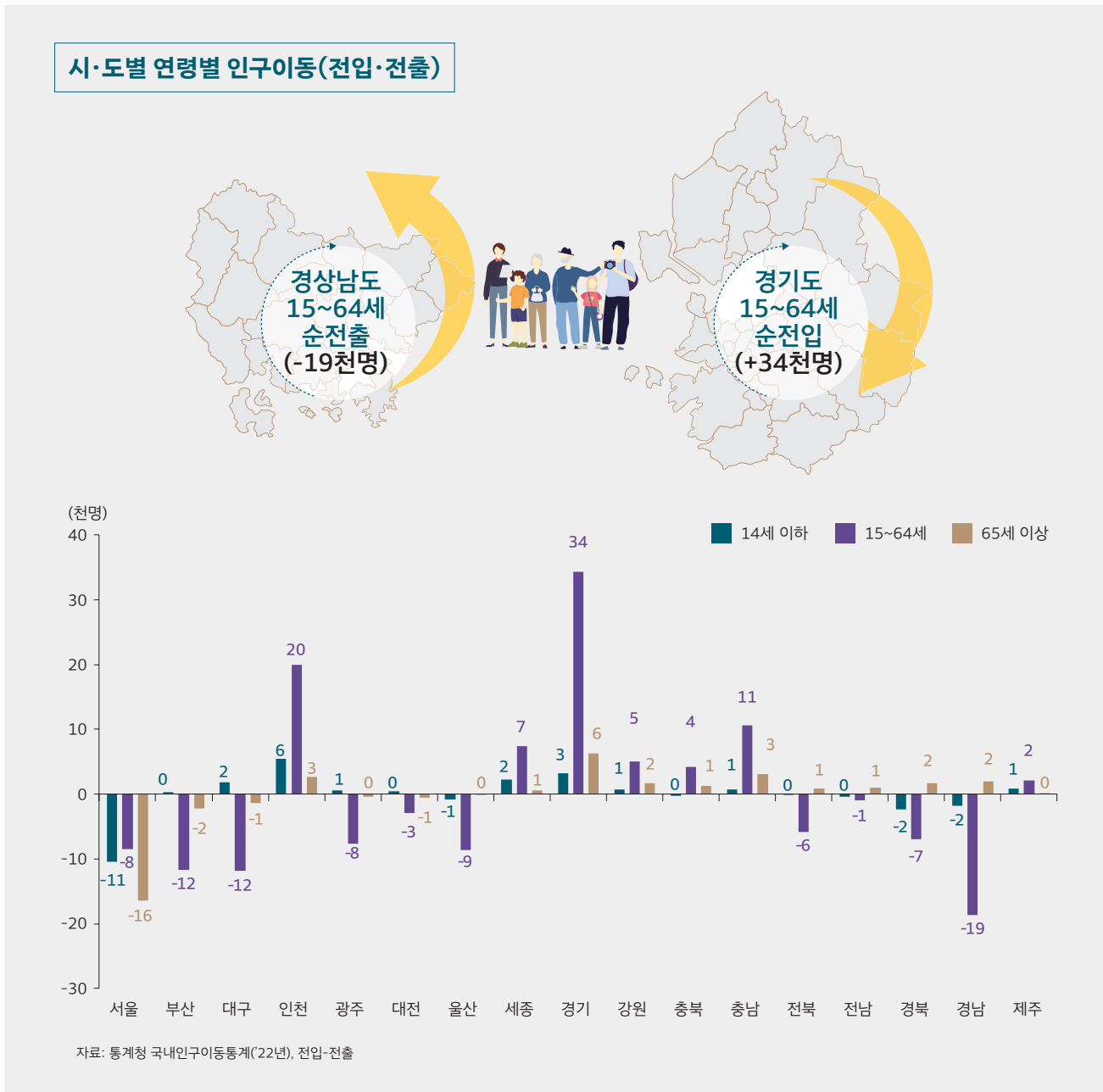
시·도 간 인구 순이동

2022년 인구이동은 서울의 순전출(타 시·도로 이동)인구가 가장 많고
경기는 순전입(타 시·도에서의 이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 간 연령별 인구 순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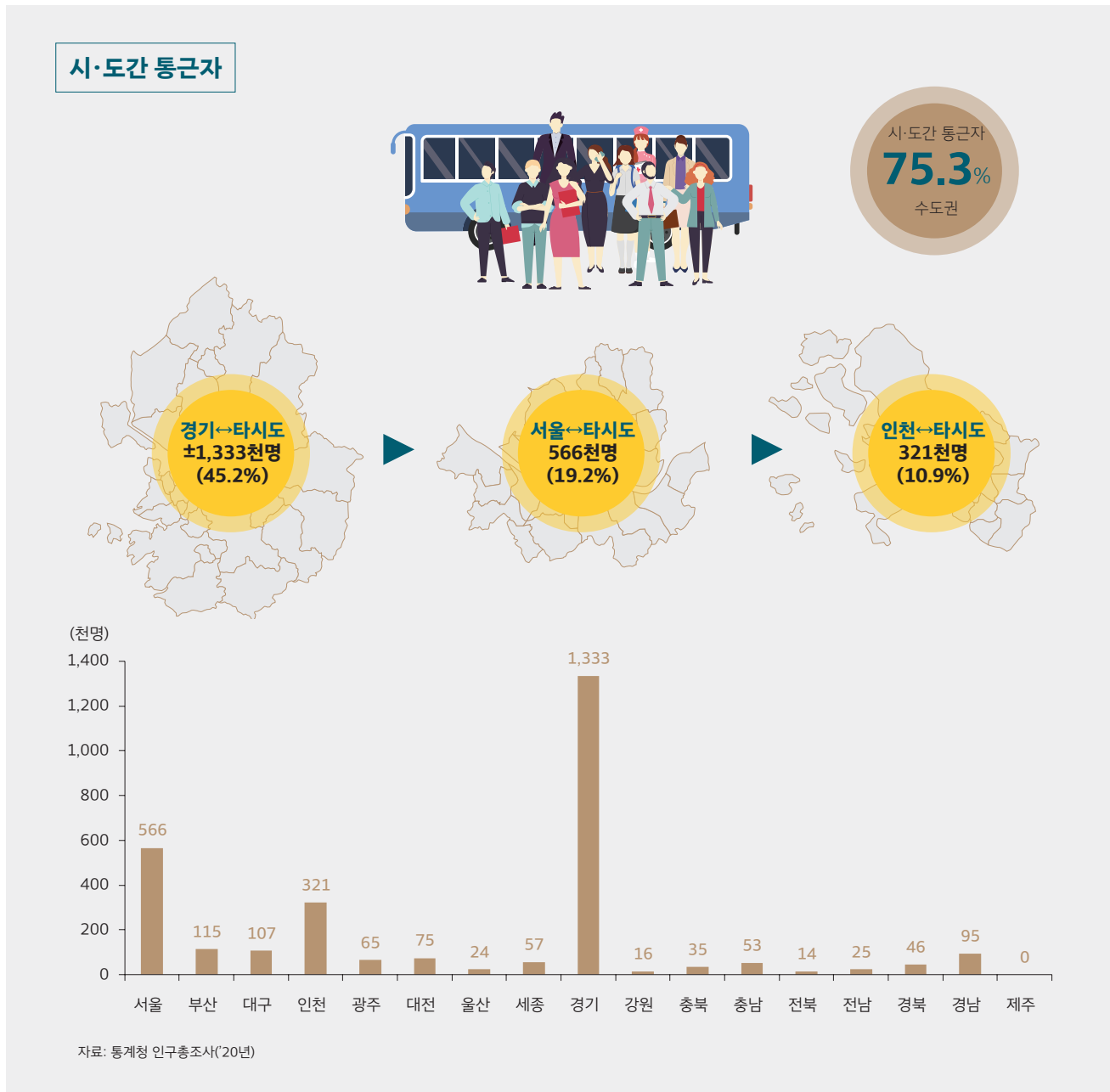
2022년 15~64세 순전출은 경남, 대구, 부산, 울산 순으로 크고
순전입은 경기, 인천, 충남, 세종 순으로 큼



+ 특히 서울은 전 연령대에서 순전출이 크고, 경기도는 전 연령대에서 순전입이 큼

시·도 간 통근자

시·도간 통근자수는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많고 이들 수도권지역이 전체의 75.3%를 차지하고 있어 하나의 권역화된 노동시장임을 알 수 있다.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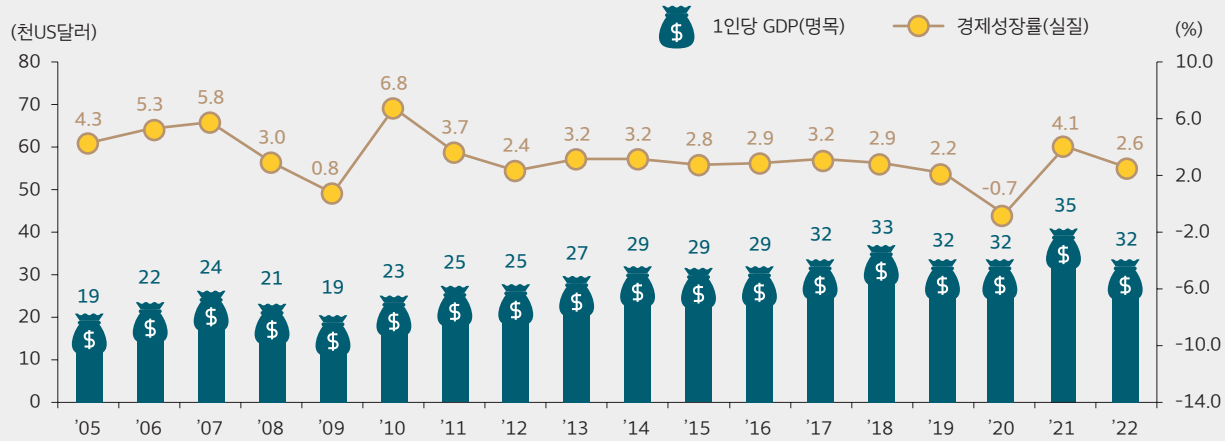
02 경제

1. 경제 동향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년(4.1%)대비 하락하였고
1인당 GDP 역시 32천 US달러로 전년(35천 US달러)보다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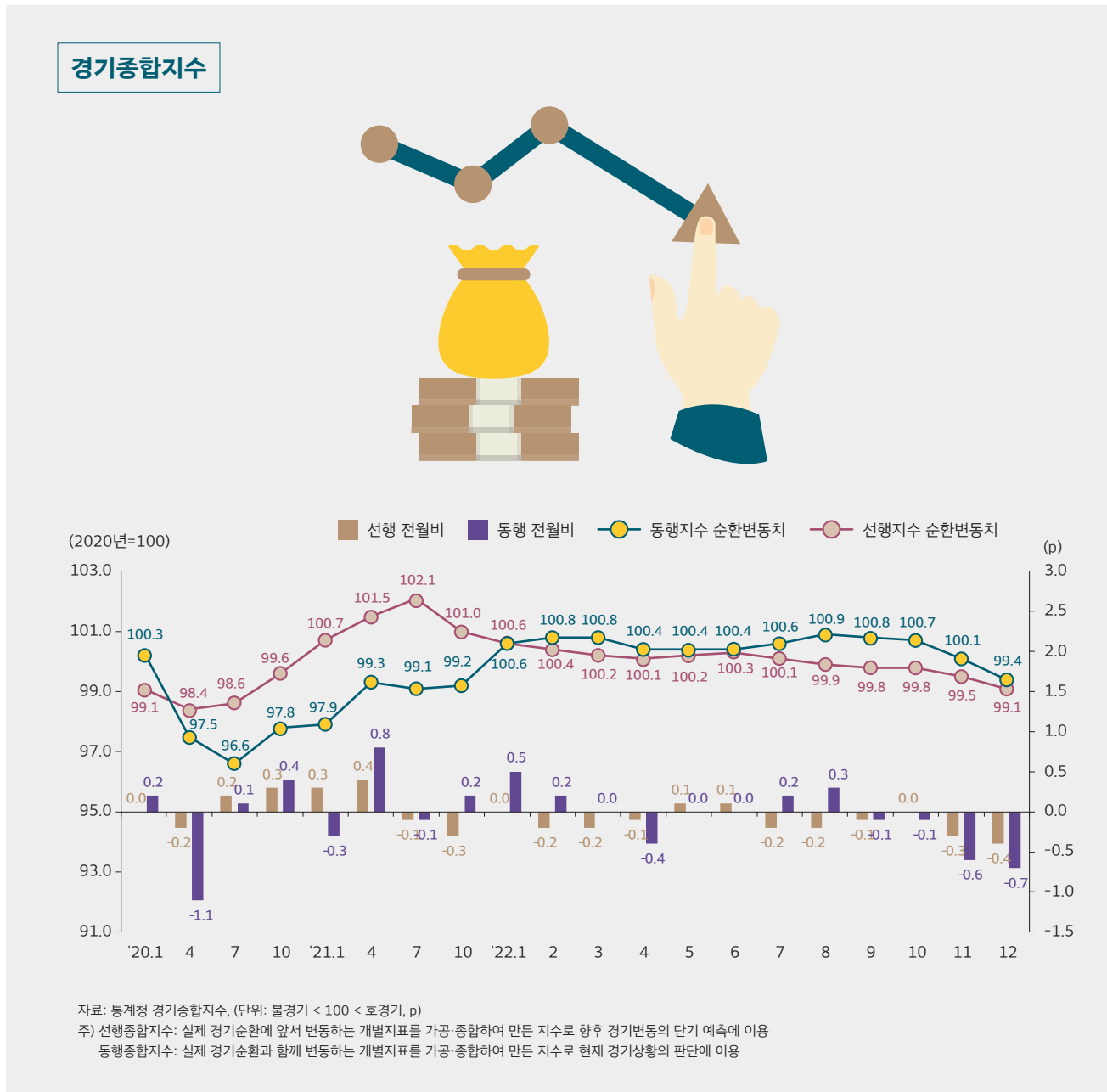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및 1인당 GDP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1인당 GDP는 OECD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음
주) 최근 2개년은 잠정치('23.5.25. 발표 기준)

경기종합지수

2022년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연중 100보다 높게 나타나며, 긍정적인 경기 상황을 보여주나 10월 이후 하락하며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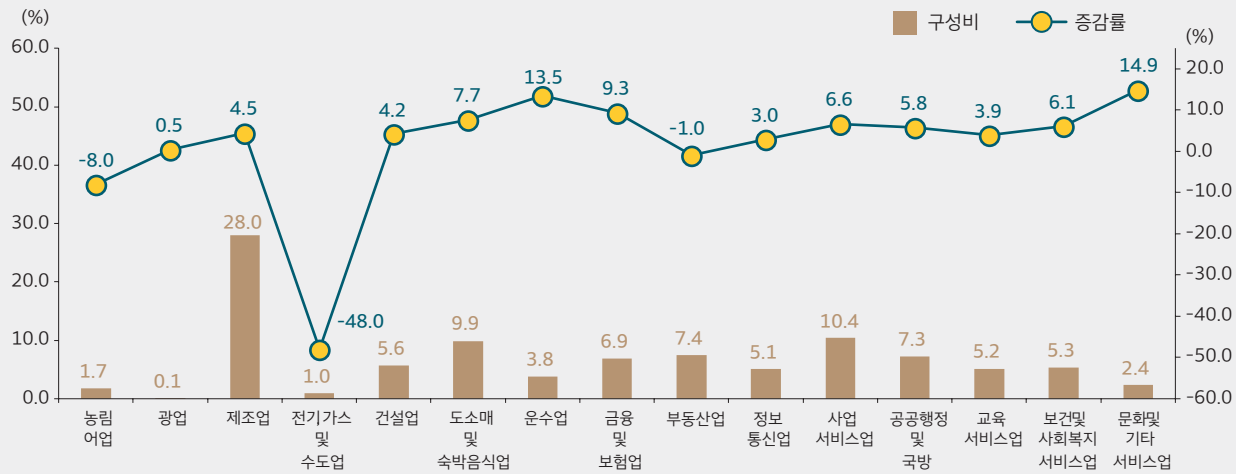
+ 한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2년 8월 이후 대체로 100보다 낮게 나타나 경기상황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됨

2. 산업 동향

업종별 총생산액 비중

제조업의 생산액 비중이 28.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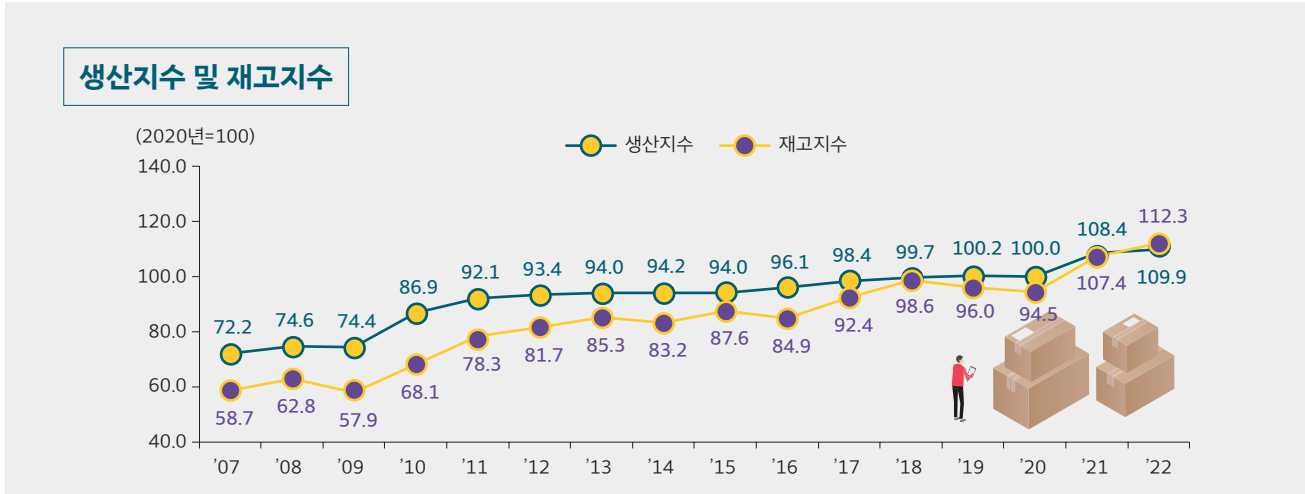
'22년 업종별 총생산액 구성비 및 증감률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잠정치, 명목, '23.5.25. 발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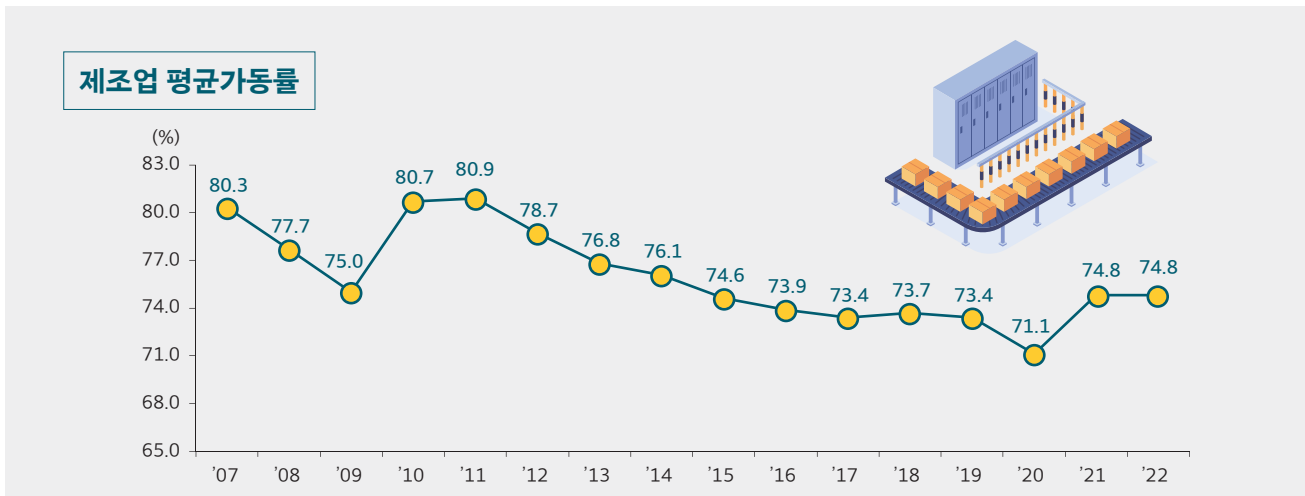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지수 및 재고지수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9년 이후 100을 넘고, 재고지수는 2021년 이후 100을 넘어섰다.
2022년 재고지수는 생산지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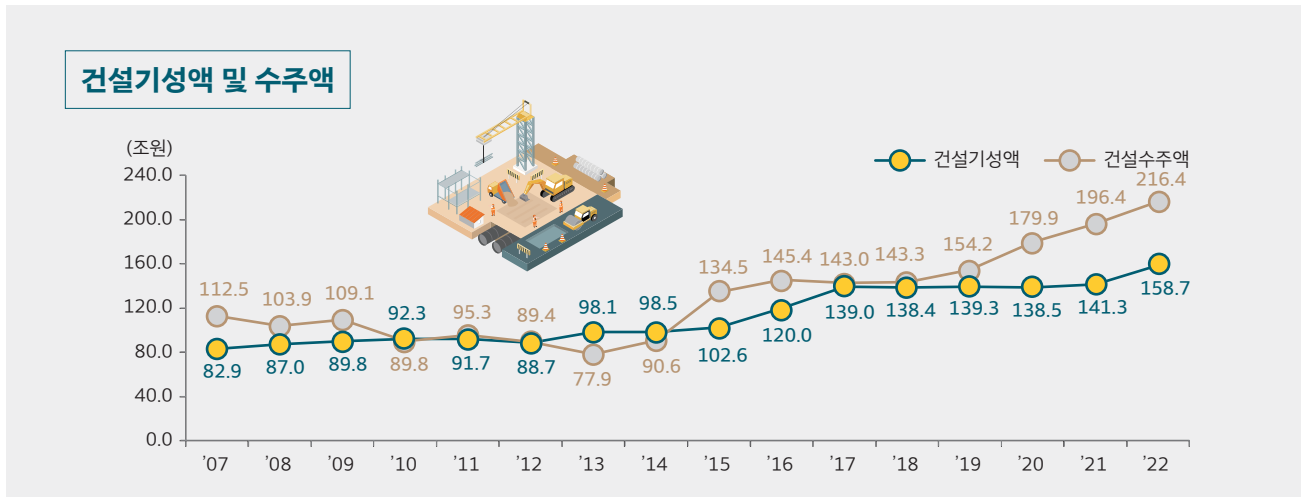
제조업 평균가동률

최근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의 생산활동 위축으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1년에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였다.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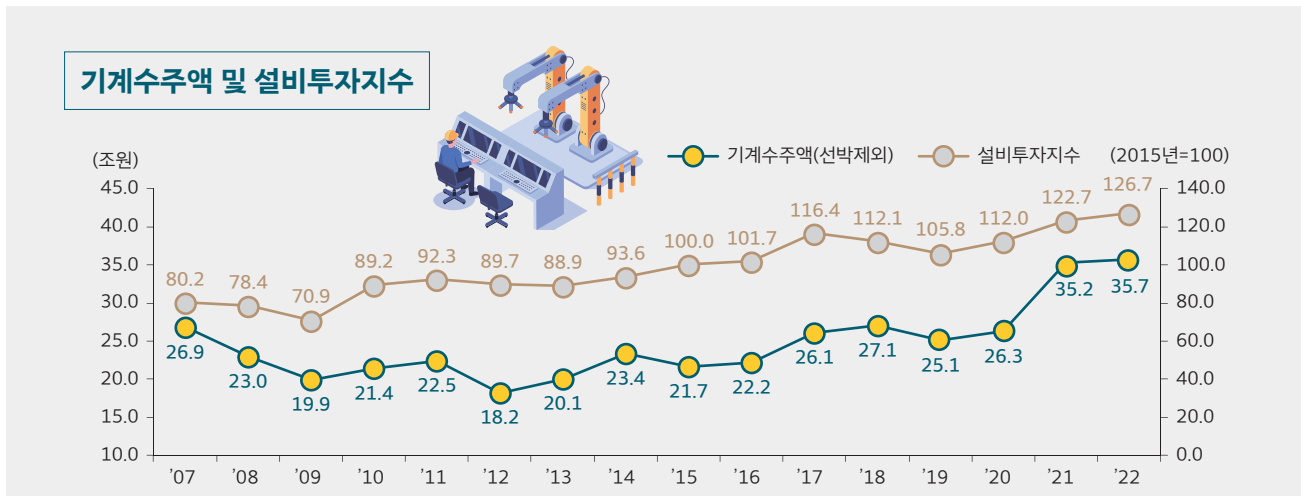
2022년 건설 수주액과 건설 기성액은 전년에 비해 증가폭을 확대하였다.



자료: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기계

2022년 기계수주액과 설비투자지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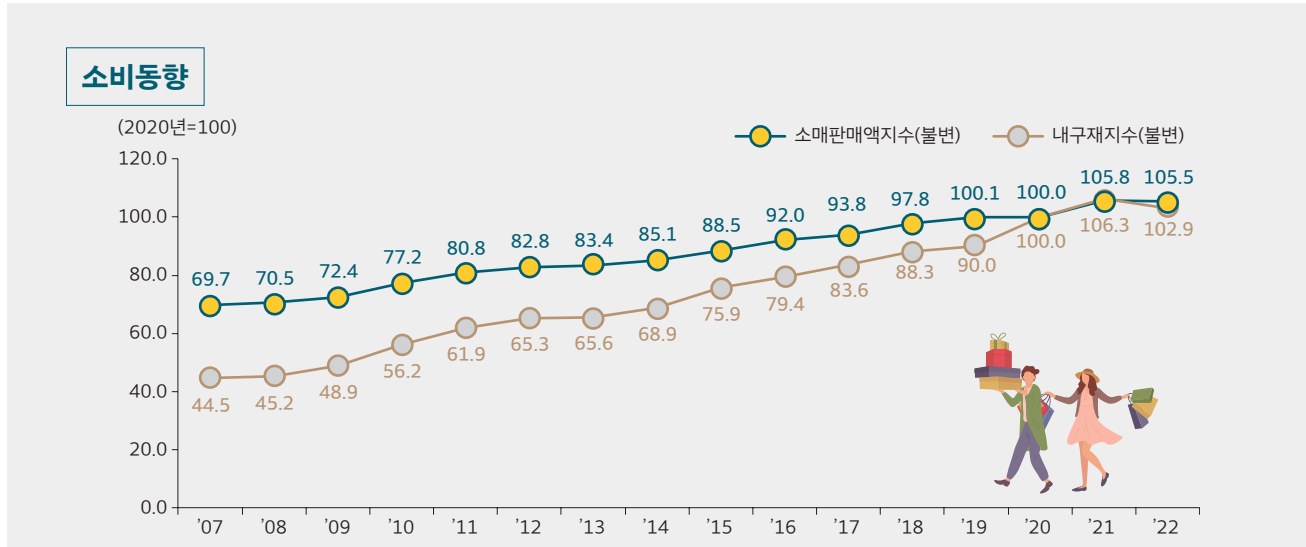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기계수주동향조사, 설비투자지수

3. 소비 및 물가 동향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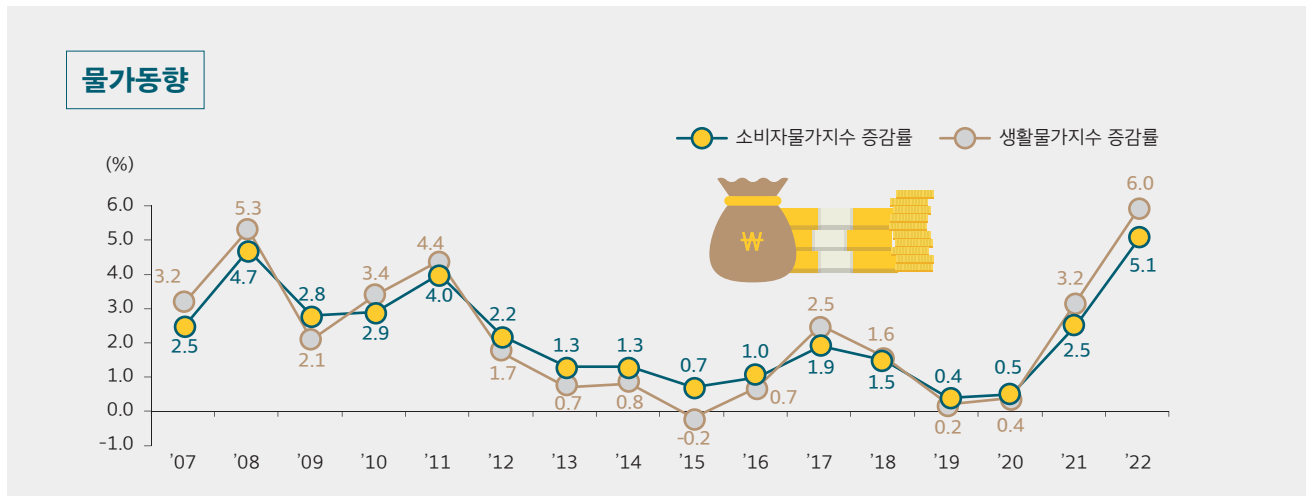
2022년 소매판매액 지수와 내구재지수는 100을 넘었으나, 크게 상승한 전년보다는 하락하였다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물가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5.1% 상승하였고 생활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6.0% 상승하였다.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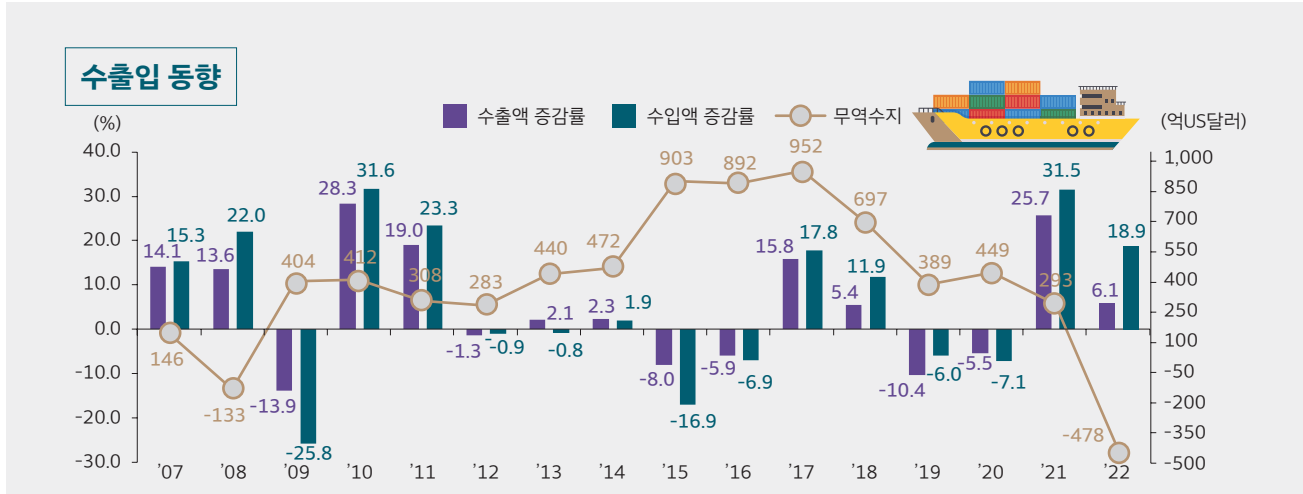
주) 소비자물가지수: 가구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

생활물가지수: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4. 수출·입 동향

수출·입 동향

2022년 수출액과 수입액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수출-수입)는 -478억 US달러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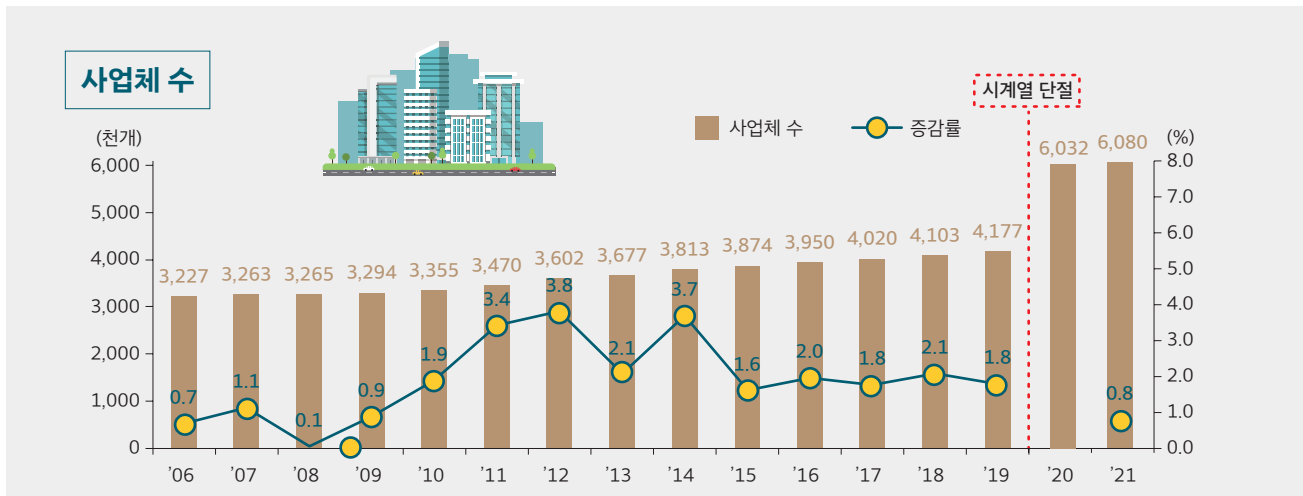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

5. 사업체 동향

사업체 수

2021년 전국의 사업체 수는 6,080천개소로 전년보다 0.8%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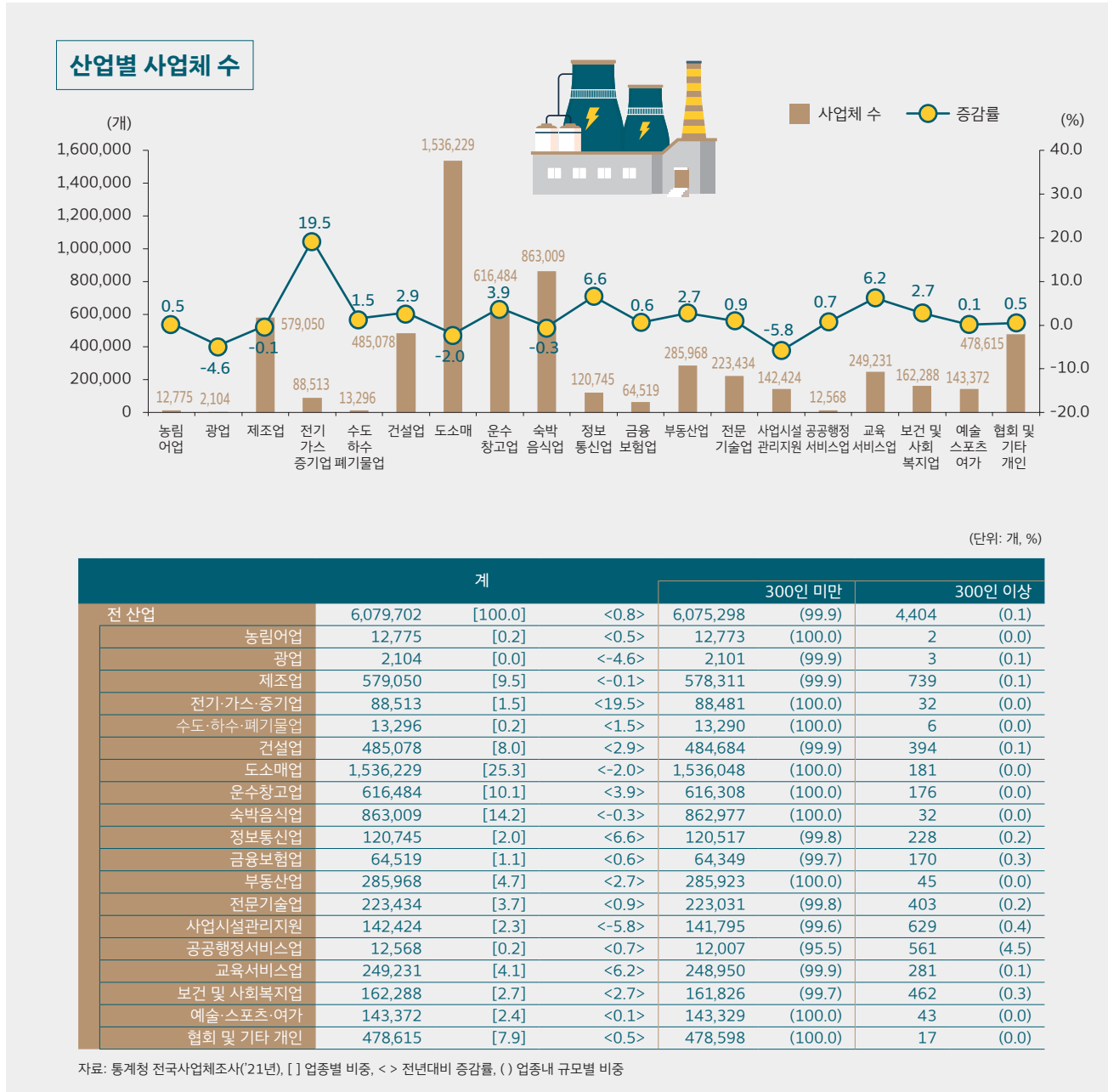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1년)

주) 2021년 기준 조사부터 등록기반(행정자료를 활용한 모집단을 도입)으로 작성하고 통계표는 2020년부터 수록하여, 20년 이전자료(조사기반)와 시계열 비교 시 주의

산업별 규모별 사업체 수

2021년 전국의 사업체 수 비중은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업, 제조업 순으로 많으며 증가율은 전기가스증기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높다.



종사자 1인 이상 있는 사업체 현황

2021년 종사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체는 1,996천개로 전년에 비해서 큰폭으로 증가하였다.

* 「전국사업체 조사」의 사업체 중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루어진 사업체 제외





(단위: 개소,%)

	전 산업	(비중)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중기업	수도·하수·폐기물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전규모	1,995,751	(100.0)	6,072	1,035	306,959	1,918	8,772	118,480	449,053	45,686
1~4인	1,239,760	(62.1)	3,384	496	158,589	981	3,913	56,212	324,482	22,927
5~9인	439,598	(22.0)	1,501	204	76,413	279	2,080	34,292	86,537	8,728
10~29인	232,743	(11.7)	924	247	51,747	196	1,921	20,854	31,366	8,535
30~99인	66,614	(3.3)	238	82	16,203	341	783	5,517	5,567	4,212
100~299인	13,218	(0.7)	23	3	3,272	89	70	1,191	919	1,104
300인이상	3,818	(0.2)	2	3	735	32	5	414	182	180
	숙박·음식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전문·과학·기술업	사업시설·관리·지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업	협회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전규모	313,550	46,006	39,612	90,076	105,783	53,981	88,370	142,838	39,478	138,082
1~4인	226,668	24,222	11,757	64,120	61,292	31,676	55,658	51,903	28,013	113,467
5~9인	69,484	9,843	10,659	17,212	24,969	9,039	18,921	46,137	7,591	15,709
10~29인	15,796	8,025	12,255	7,662	14,105	7,386	9,882	31,713	2,805	7,324
30~99인	1,451	2,952	4,324	888	4,081	3,834	3,247	10,752	734	1,408
100~299인	118	751	446	144	936	1,376	422	1,894	305	155
300인이상	33	213	171	50	400	670	240	439	3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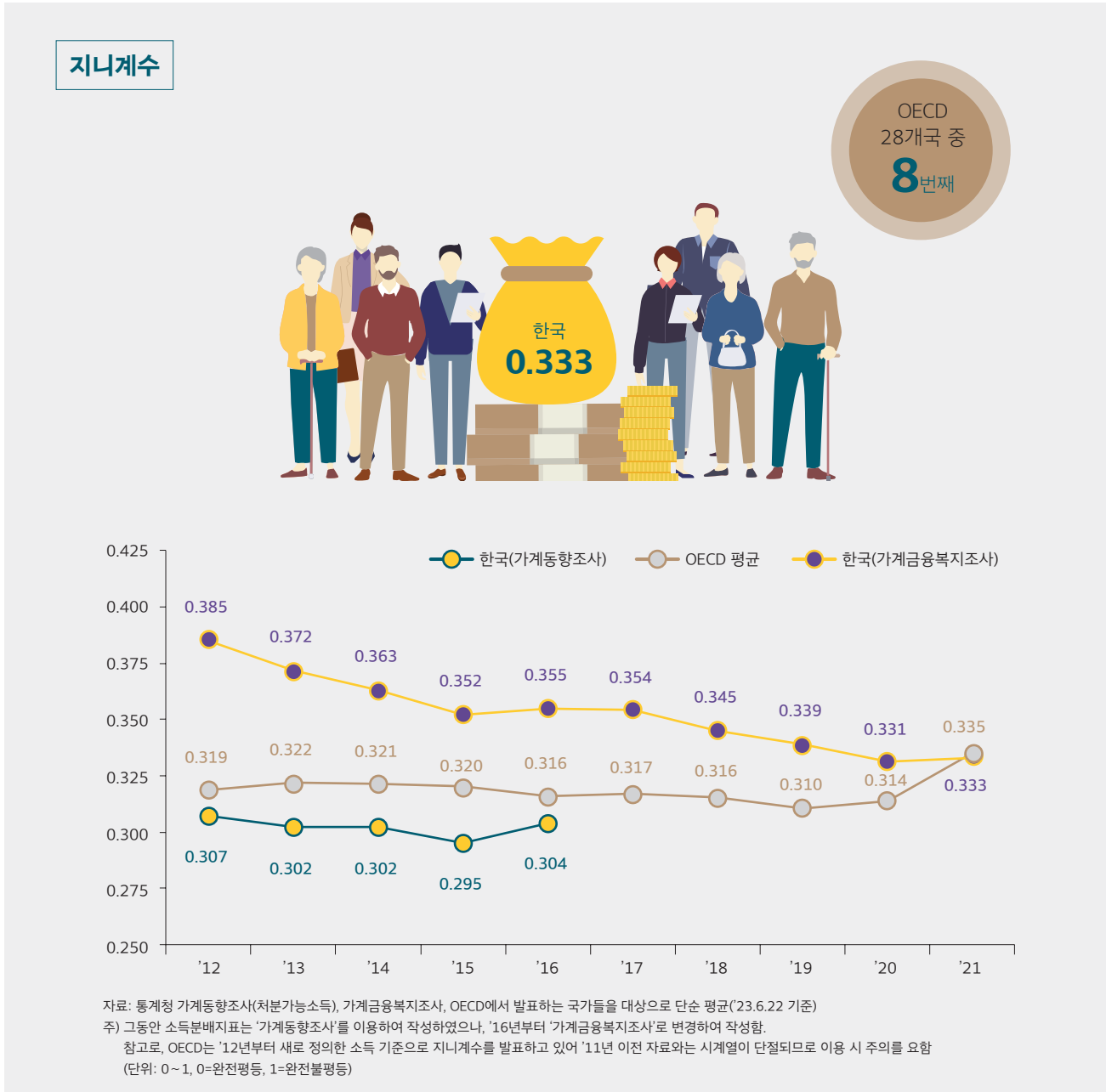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실태현황(21년)

주) 사업체 규모 기준은 전체 종사자수(자영업자+상용근로자+임시일용근로자+무급가족 및 기타종사자) 기준임

6. 분배 동향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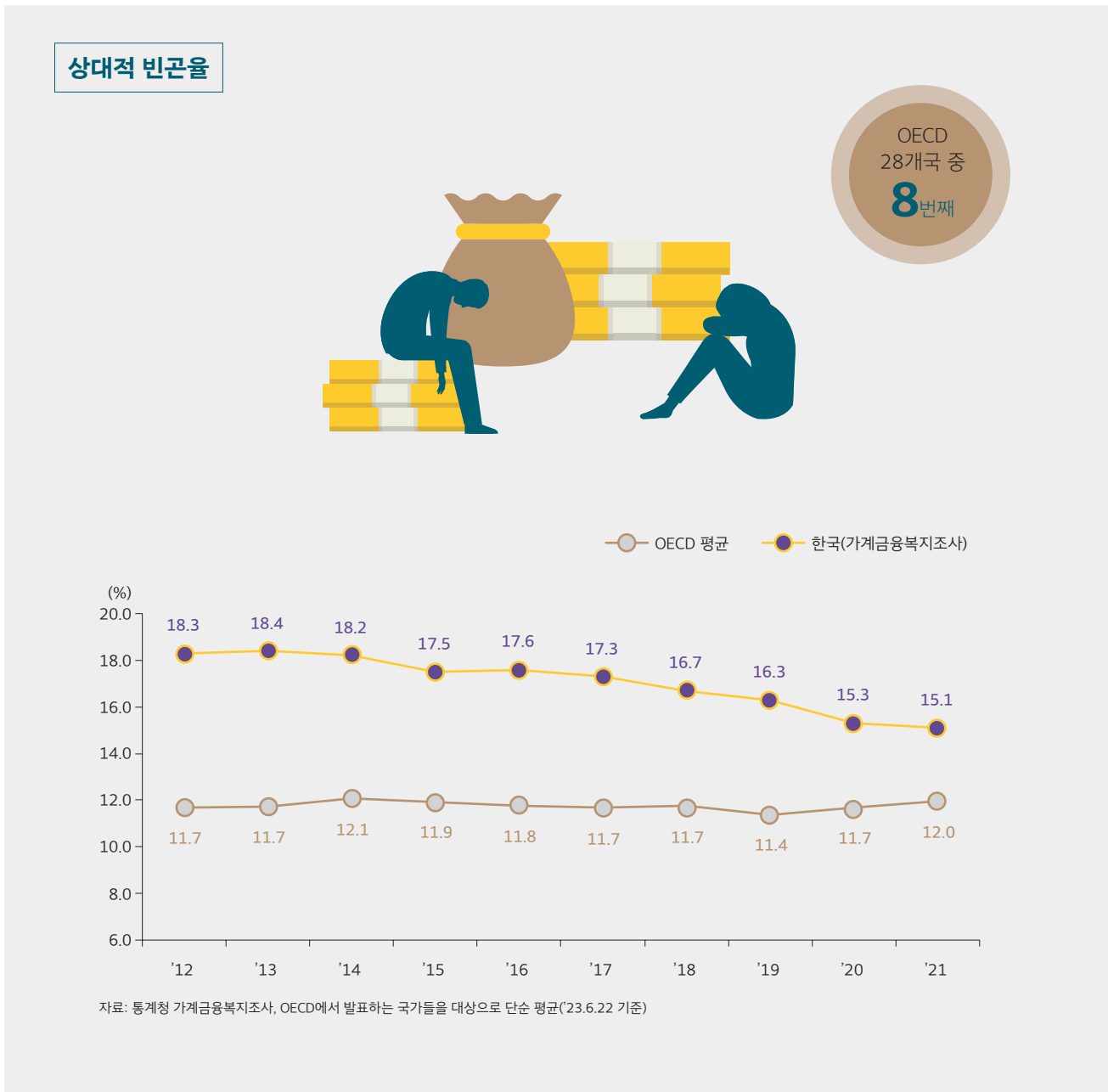
2021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33으로 전년보다 높아졌으며, 2020년 OECD 기준에서 한국은 28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

2021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5.1%로 전년보다 낮아졌으며,
2020년 OECD 기준에서 한국은 15.3%로 28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중위소득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저임금근로자 비중*

2021년 한국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5.6%로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감소해왔으며, OECD 23개국 중 10번째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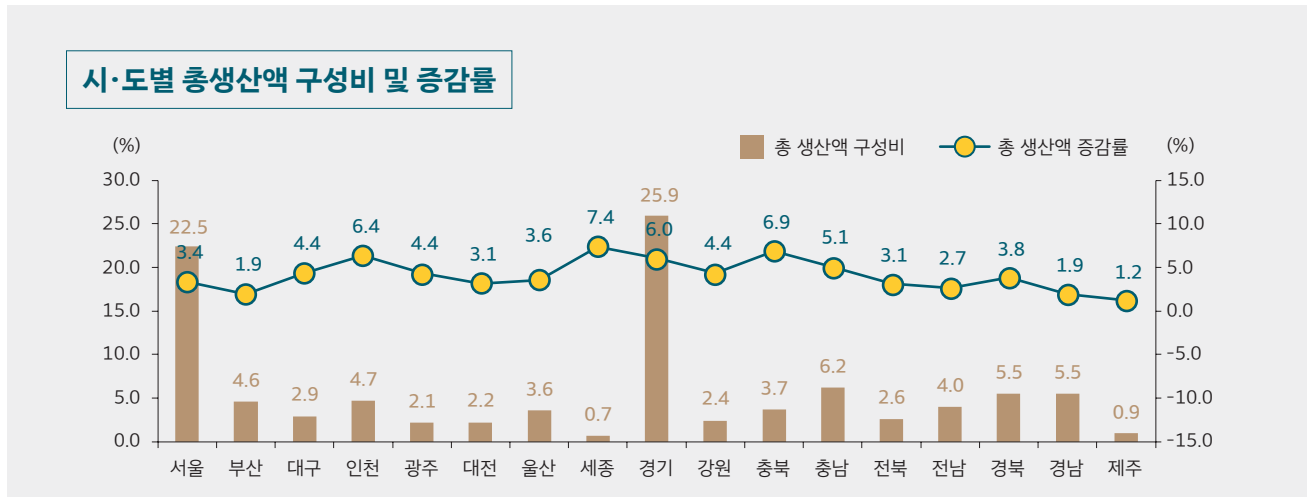
*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근로자의 비중



7. 지역별 경제 동향

시·도별 총생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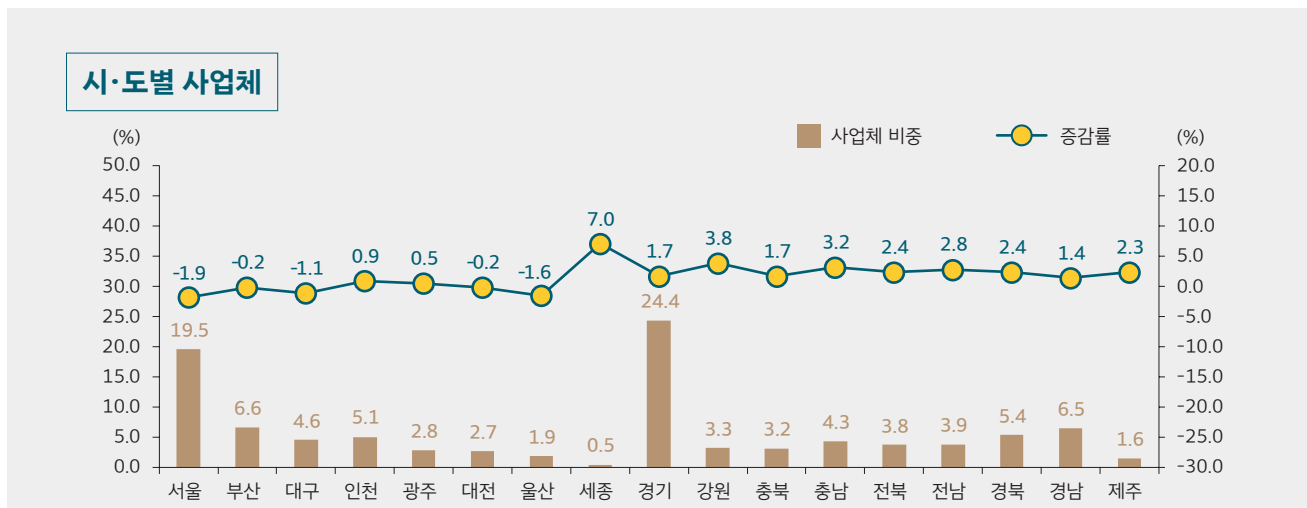
2021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지역 총생산이 전체의 53.1%를 차지한다.



자료: 통계청 지역소득(21년)

시·도별 사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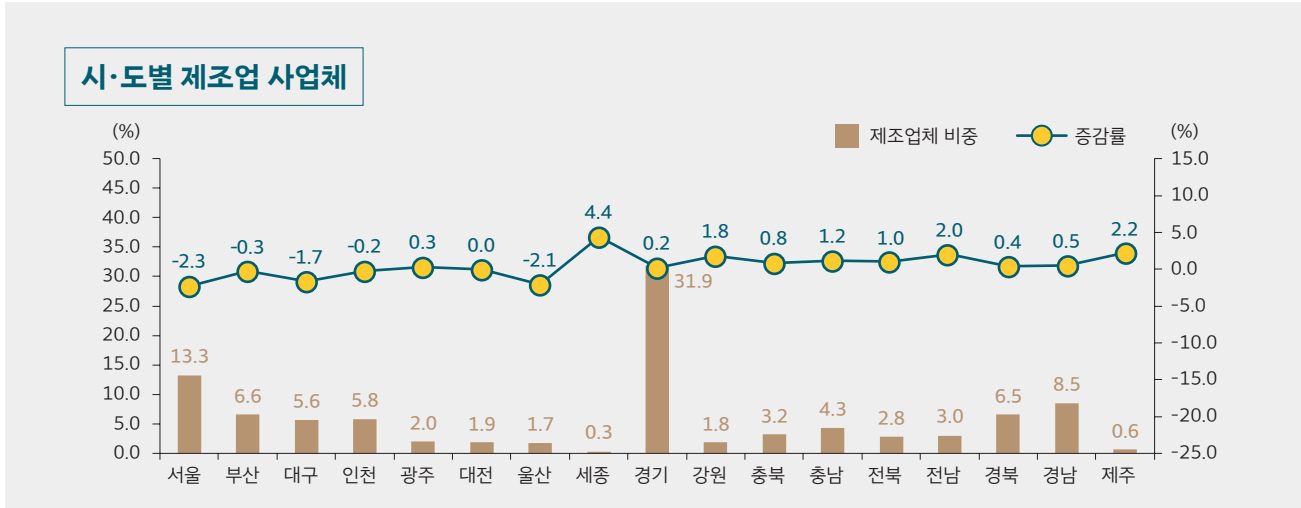
사업체 수는 수도권이 49.0%로 집중되어 있고,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이 25.0%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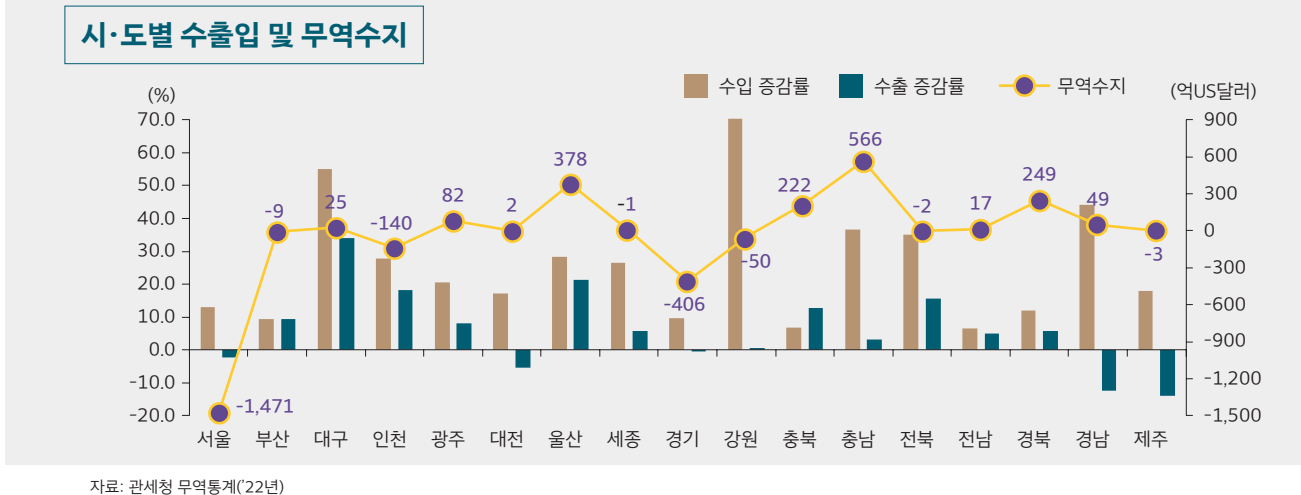
시·도별 제조업 사업체

2021년 제조업 사업체는 수도권과 영남권이 전체의 80.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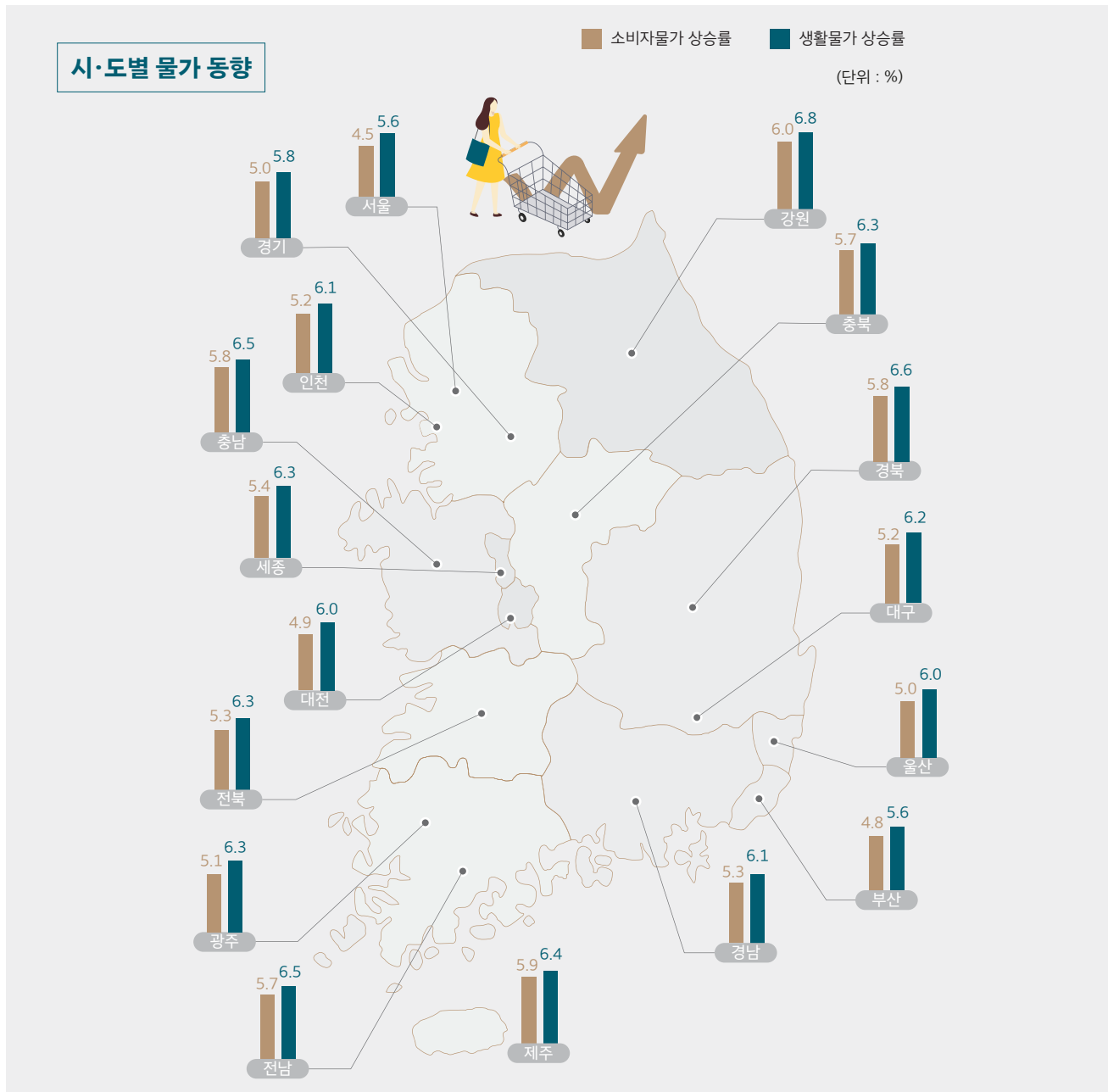
시·도별 수출·입

2022년 서울, 경기, 인천의 무역수지는 크게 적자로 나타난 반면, 충남, 울산, 경북의 무역수지는 큰 흑자를 보여주었다.



시·도별 물가

2022년 시도별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강원에서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부산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22년)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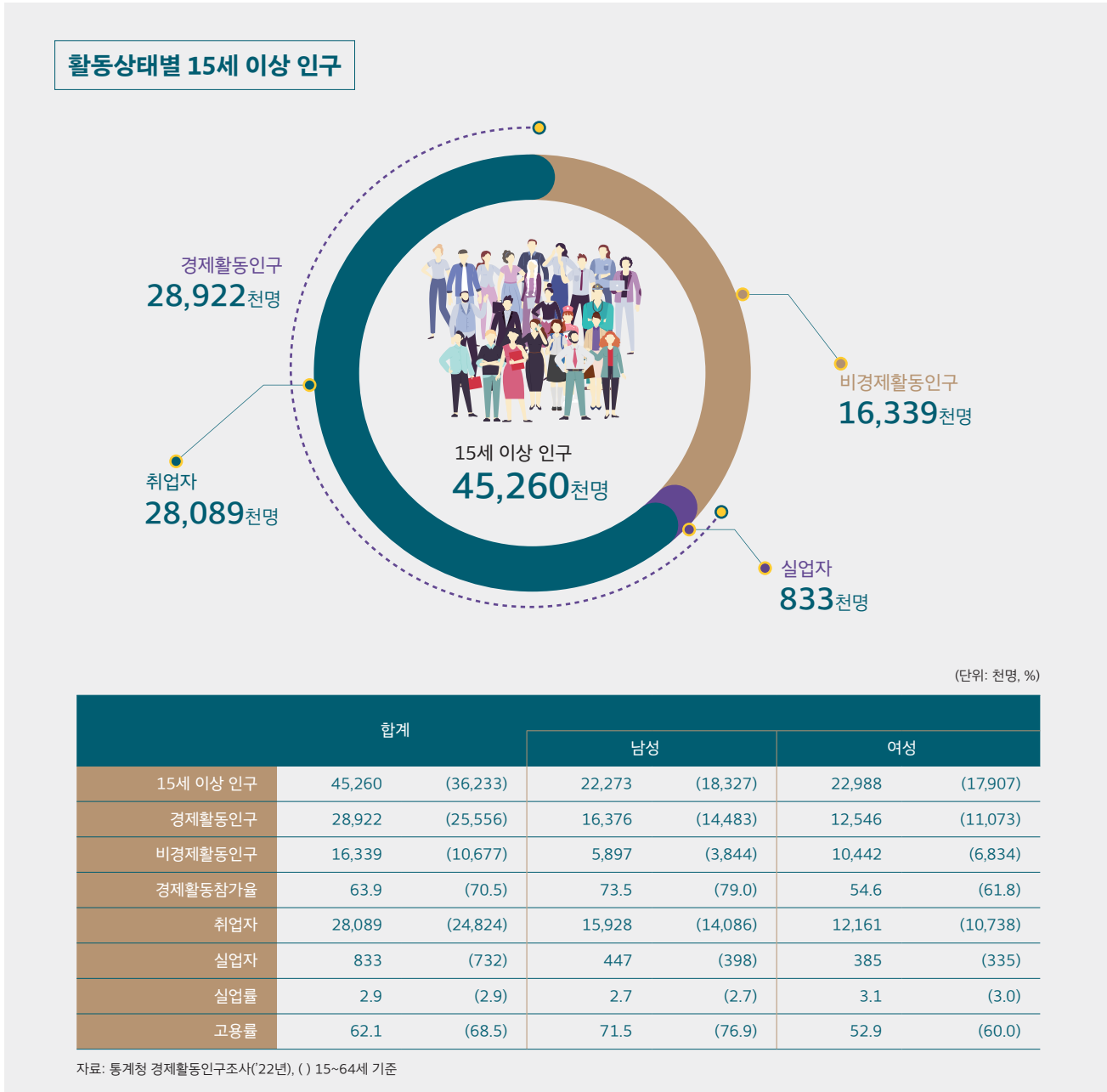
03 고용

1. 노동력 현황

15세 이상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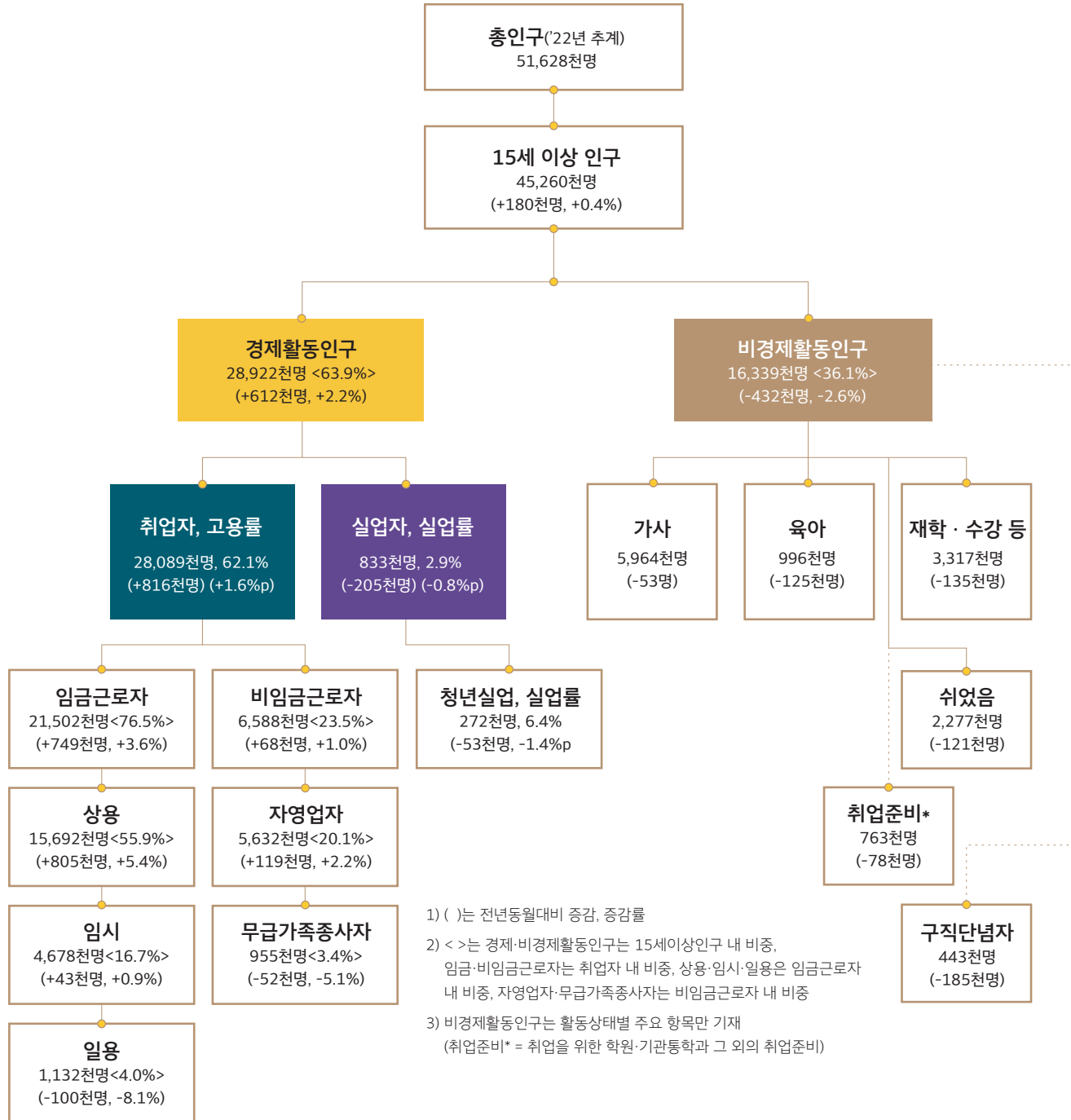
국내 15세이상 인구는 4,526만명으로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2,892만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34만명이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5세 이상 인구는 인구추계의 15세 이상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숙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 '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는 28,922천명으로 이 중 취업자 28,089천명, 실업자 833천명이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6,339천명이다. 고용률은 62.1%(15~64세 68.5%)이며, 실업률은 2.9%이다.

2022년 고용동향 (15세 이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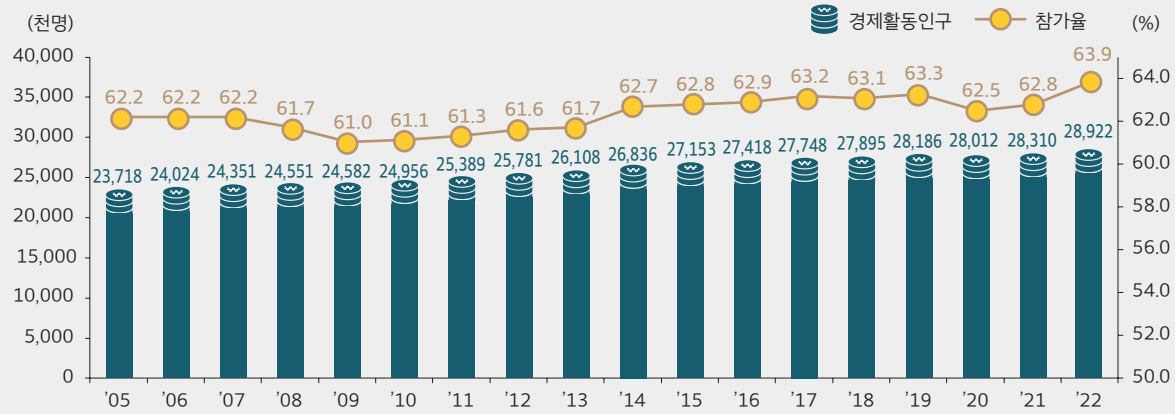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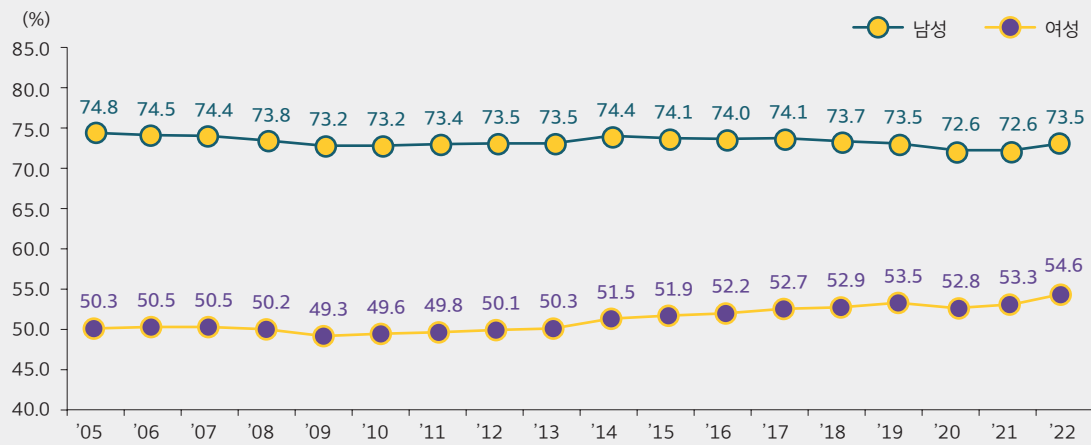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 다시 증가하고, 2022년에는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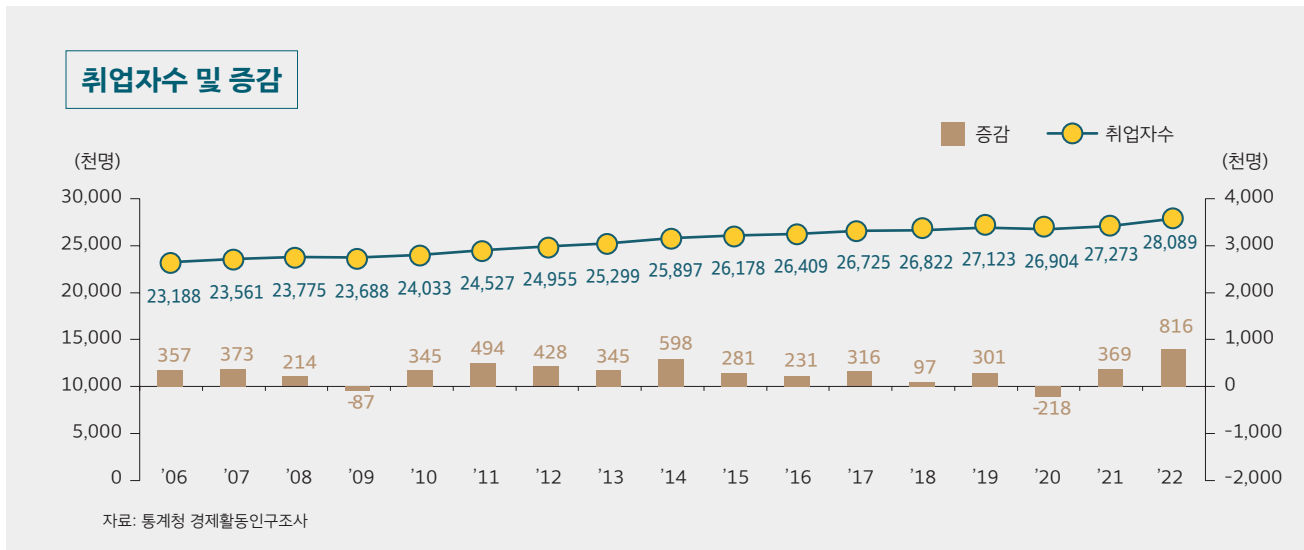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2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63.9%이고 이 중 남성은 73.5%, 여성은 54.6%이다.
추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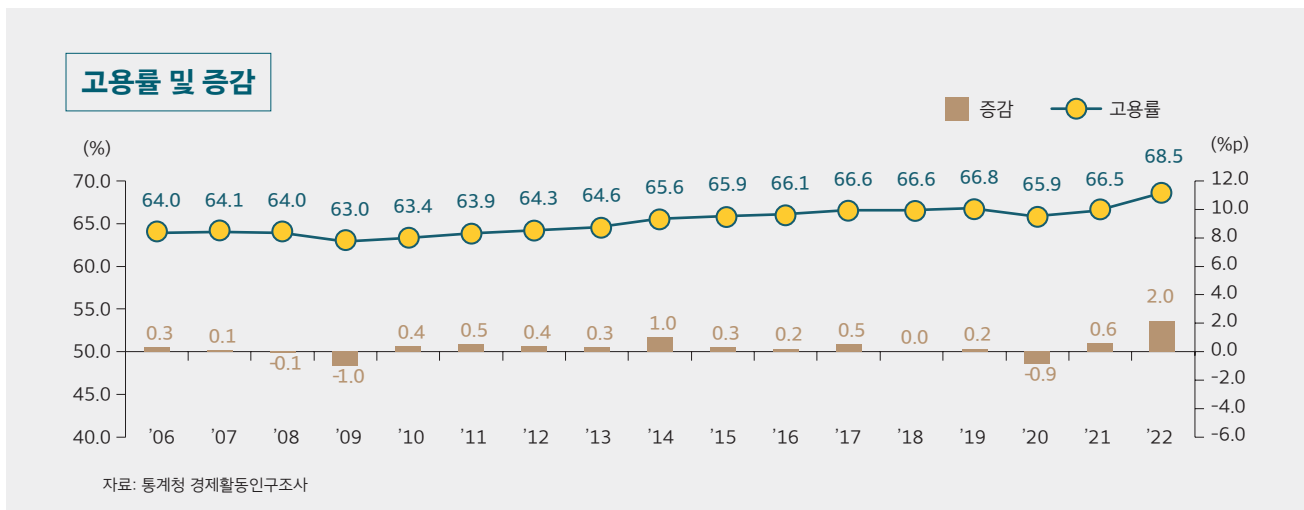
취업자(15세 이상)

2022년 우리나라 15세이상 취업자는 28,089천명으로 전년대비 81만 6천명 증가하였다.



고용률(15~64세)

2022년 우리나라 고용률(15~64세)은 68.5%로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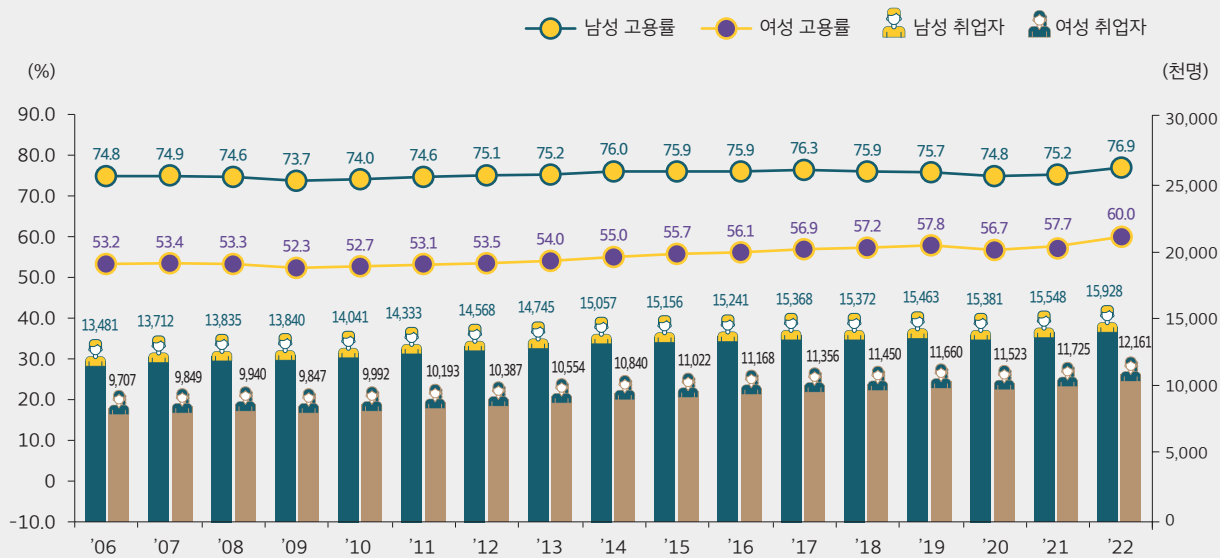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10년 이후 여성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상세분석은 「제2편 대상별 현황」 참조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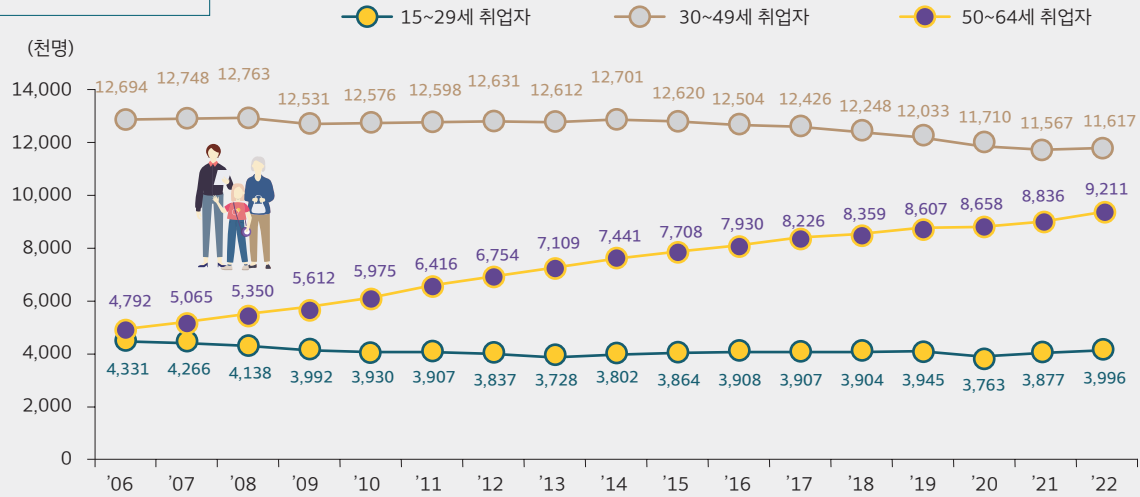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취업자는 15세 이상, 고용률은 15~64세 기준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50~64세 취업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30~49세와 15~29세 고용률은 인구감소에도 코로나 이후 2년 간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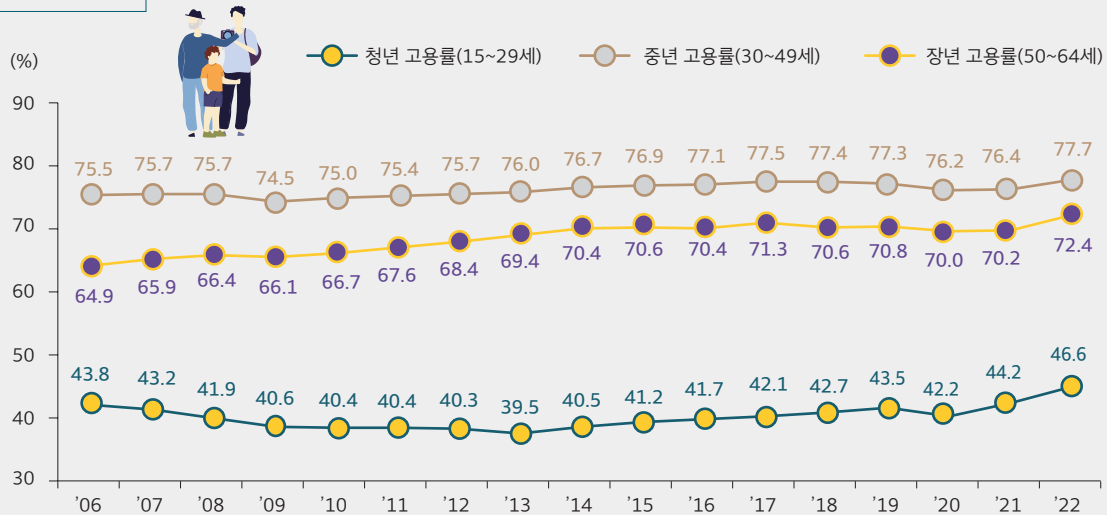
* 15~29세, 50~64세 노동시장에 대한 상세분석은 「제2편 대상별 현황」 참조

연령별 취업자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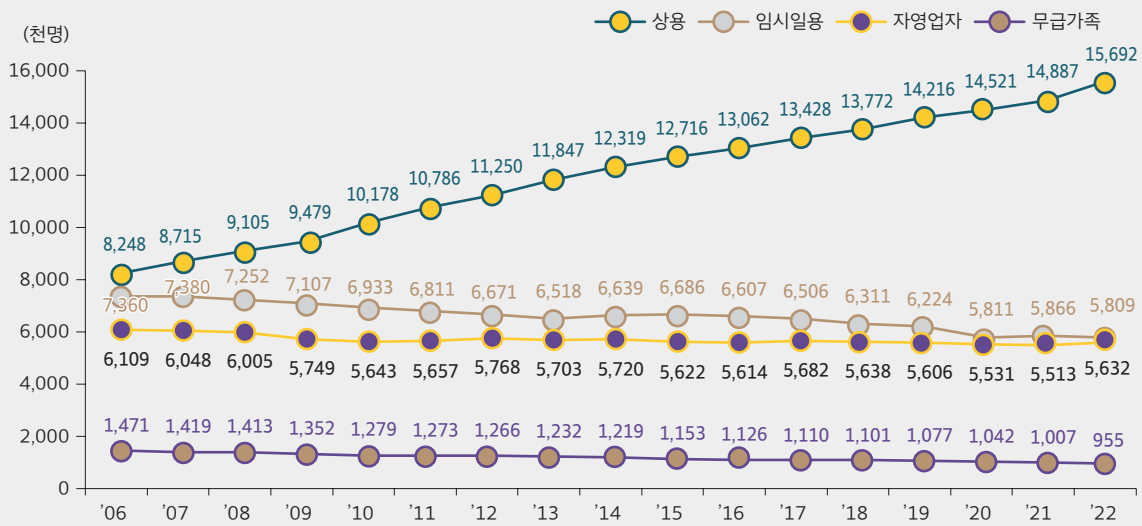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최근 취업자 증가를 보면,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형태인 상용직의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코로나에서 벗어나며 자영업자도 증가하였다. 반면 임시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는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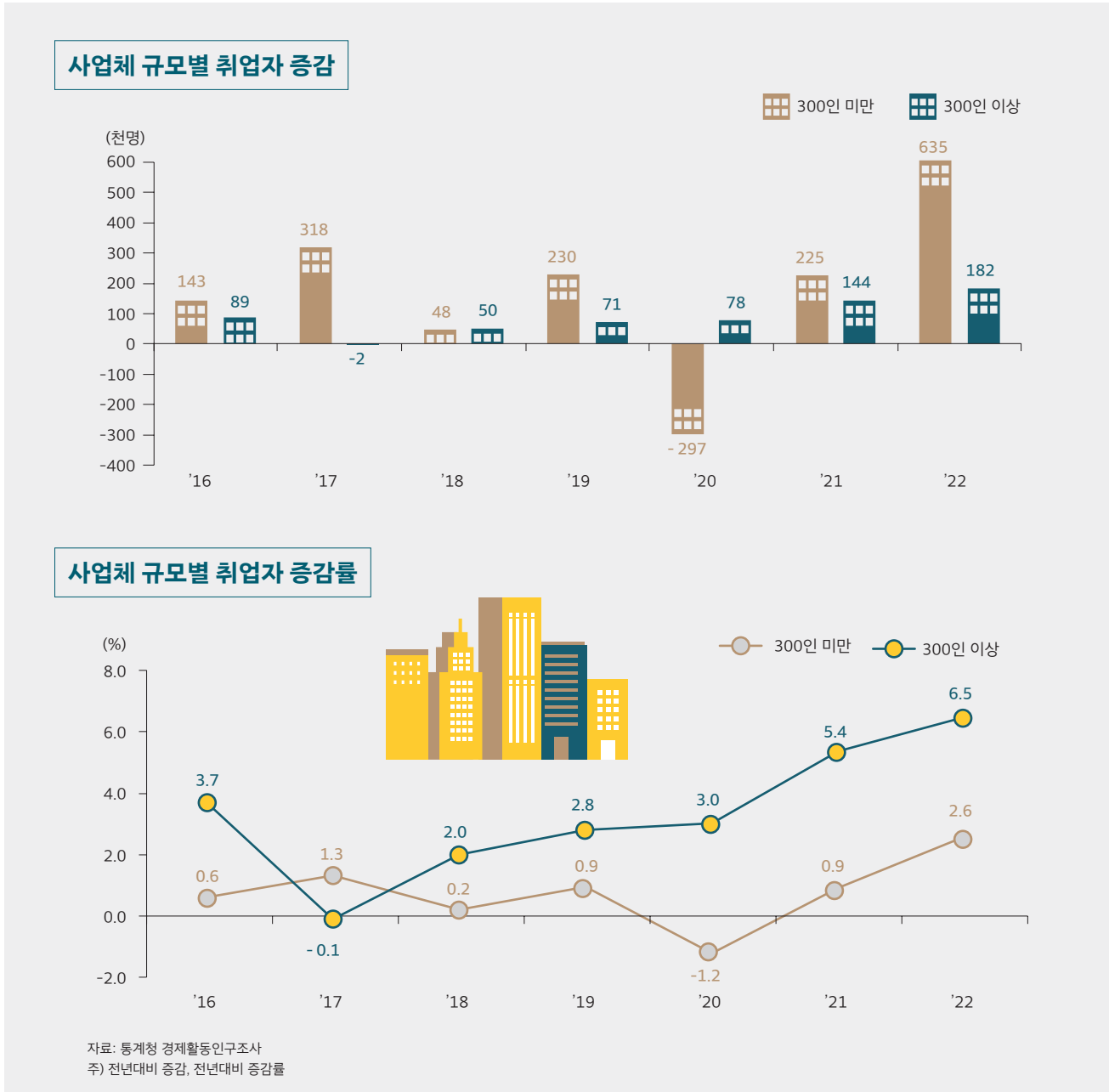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규모별 취업자

2022년 전체 취업자(28,089천명)중 약 89.3%는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고 10.7%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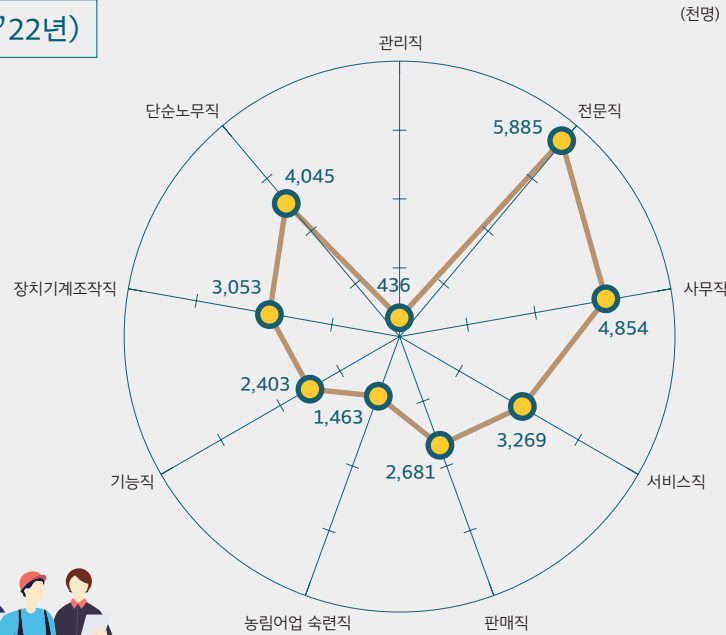


+ 취업자 증감규모는 대체적으로 300인 미만이 300인 이상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20년은 역전되었다.
증감률에서는 '17년을 제외한 연도에서 300인 이상의 증감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 취업자

2022년 직종별로는 전문직(21.0%), 사무직(17.3%)의 비중이 높다.
추세적으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직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직종별 취업자('22년)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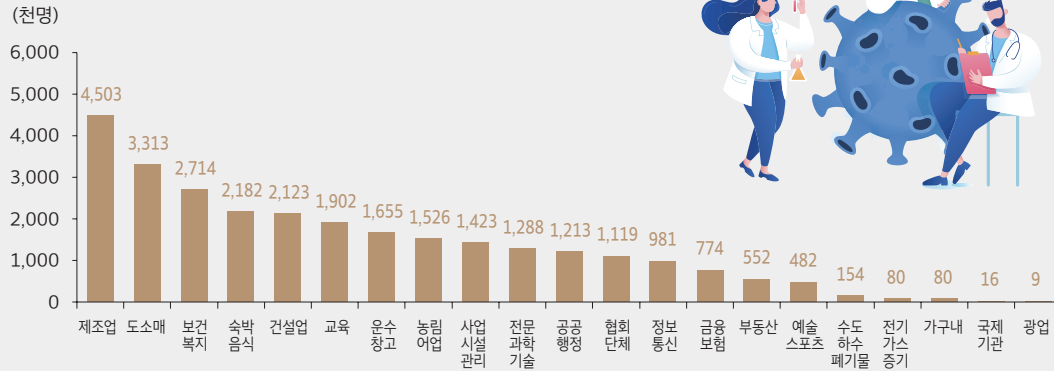
	'18	'19	'20	'21	'22
전 직종	26,822(100.0)	27,123(100.0)	26,904(100.0)	27,273(100.0)	28,089(100.0)
관리직	371(1.4)	408(1.5)	395(1.5)	393(1.4)	436(1.6)
전문직	5,491(20.5)	5,557(20.5)	5,480(20.4)	5,585(20.5)	5,885(21.0)
사무직	4,762(17.8)	4,749(17.5)	4,691(17.4)	4,751(17.4)	4,854(17.3)
서비스직	2,969(11.1)	3,116(11.5)	3,046(11.3)	3,073(11.3)	3,269(11.6)
판매직	3,037(11.3)	3,030(11.2)	2,897(10.8)	2,766(10.1)	2,681(9.5)
농림어업 숙련직	1,266(4.7)	1,332(4.9)	1,383(5.1)	1,396(5.1)	1,463(5.2)
기능직	2,347(8.7)	2,372(8.7)	2,336(8.7)	2,406(8.8)	2,403(8.6)
장치기계조작직	3,098(11.6)	3,026(11.2)	2,957(11.0)	2,979(10.9)	3,053(10.9)
단순노무직	3,483(13.0)	3,534(13.0)	3,718(13.8)	3,925(14.4)	4,045(14.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중

산업별 취업자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나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업과 전문과학기술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산업별 취업자('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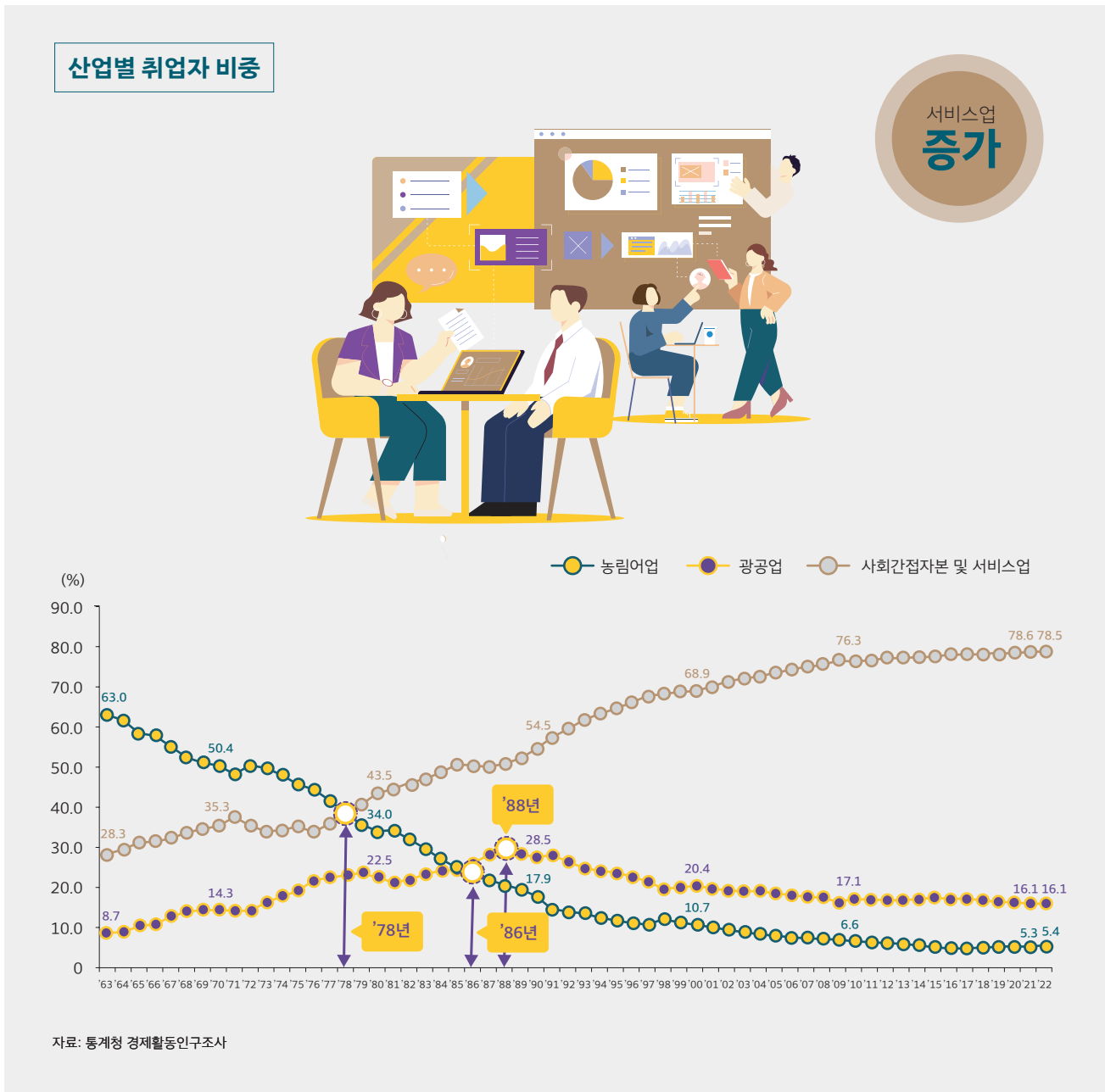
단위: 천명, (%)

	'18	'19	'20	'21	'22
전 산업	26,822(100.0)	27,123(100.0)	26,904(100.0)	27,273(100.0)	28,089(100.0)
농림어업(A)	1,340(5.0)	1,395(5.1)	1,445(5.4)	1,458(5.3)	1,526(5.4)
광업(B)	19(0.1)	15(0.1)	13(0.0)	12(0.0)	9(0.0)
제조업(C)	4,510(16.8)	4,429(16.3)	4,376(16.3)	4,368(16.0)	4,503(16.0)
전기가스증기업(D)	70(0.3)	68(0.3)	74(0.3)	71(0.3)	80(0.3)
수도하수폐기물업(E)	127(0.5)	135(0.5)	153(0.6)	169(0.6)	154(0.5)
건설업(F)	2,034(7.6)	2,020(7.4)	2,016(7.5)	2,090(7.7)	2,123(7.6)
도소매업(G)	3,723(13.9)	3,663(13.5)	3,503(13.0)	3,353(12.3)	3,313(11.8)
운수창고업(H)	1,407(5.2)	1,431(5.3)	1,482(5.5)	1,586(5.8)	1,655(5.9)
숙박음식업(I)	2,243(8.4)	2,303(8.5)	2,144(8.0)	2,098(7.7)	2,182(7.8)
정보통신업(J)	837(3.1)	861(3.2)	847(3.1)	901(3.3)	981(3.5)
금융보험업(K)	840(3.1)	800(2.9)	778(2.9)	800(2.9)	774(2.8)
부동산업(L)	528(2.0)	556(2.0)	517(1.9)	531(1.9)	552(2.0)
전문과학기술업(M)	1,096(4.1)	1,157(4.3)	1,164(4.3)	1,219(4.5)	1,288(4.6)
사업시설관리지원업(N)	1,311(4.9)	1,312(4.8)	1,347(5.0)	1,397(5.1)	1,423(5.1)
공공행정서비스업(O)	1,110(4.1)	1,076(4.0)	1,112(4.1)	1,143(4.2)	1,213(4.3)
교육서비스업(P)	1,847(6.9)	1,883(6.9)	1,798(6.7)	1,840(6.7)	1,902(6.8)
보건 및 사회복지업(Q)	2,046(7.6)	2,206(8.1)	2,336(8.7)	2,534(9.3)	2,714(9.7)
예술·스포츠·여가업(R)	445(1.7)	495(1.8)	496(1.8)	467(1.7)	482(1.7)
협회 및 기타 개인업(S)	1,236(4.6)	1,233(4.5)	1,189(4.4)	1,135(4.2)	1,119(4.0)
가구내고용활동업(T)	48(0.2)	75(0.3)	98(0.4)	87(0.3)	80(0.3)
국제외국기관업(U)	7(0.0)	12(0.0)	17(0.1)	15(0.1)	16(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비중

1960년대 이후 산업별 종사자 비중의 변화

1963년에는 취업자의 63%가 농림어업에 종사하였다.
 광공업은 '88년 28.5%까지 종사자 비중이 높아졌으나 이후 감소하고 있다.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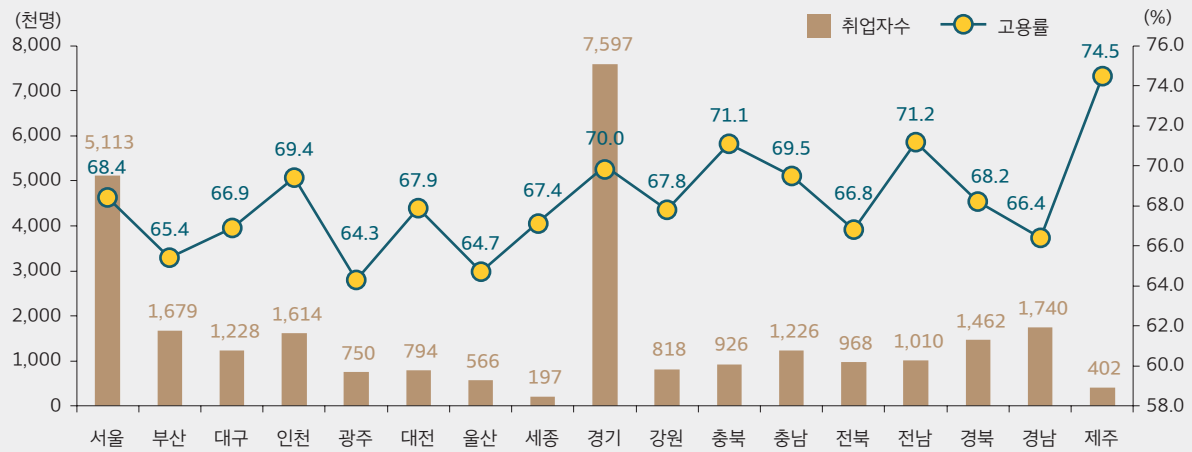
- + 60년대 초반에는 취업자의 60%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했으나, '78년에 서비스업보다 낮아지고, '86년에는 다시 광공업에 역전되면서, '22년 기준 5.4%까지 축소
- + 반면, 서비스업(건설업 등 사회간접자본 포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년 기준 78.5%를 차지. 광공업은 '88년 28.5%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22년 기준 16.1%의 비율을 차지(제조업은 16.0%)

지역별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는 15세 이상 기준,
고용률은 15~64세 기준

2022년 취업자수는 경기지역이 가장 많으며, 전체 취업자의 51.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고용률은 제주지역이 가장 높고, 광주지역이 가장 낮다

지역별 취업자수 및 고용률('22년)



단위: 천명, (%)

취업자	합계	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전국	28,089 (100.0)	3,996 (14.2)	11,617 (41.4)	9,211 (32.8)	3,265 (11.6)	1,526 (5.4)	4,512 (16.1)	2,123 (7.6)	19,928 (70.9)
서울특별시	5,113 (100.0)	896 (17.5)	2,274 (44.5)	1,512 (29.6)	431 (8.4)	6 (0.1)	450 (8.8)	330 (6.4)	4,328 (84.6)
부산광역시	1,679 (100.0)	221 (13.2)	669 (39.8)	578 (34.4)	211 (12.6)	19 (1.1)	225 (13.4)	166 (9.9)	1,269 (75.6)
대구광역시	1,228 (100.0)	161 (13.1)	500 (40.7)	442 (36.0)	125 (10.2)	10 (0.8)	240 (19.5)	88 (7.2)	890 (72.5)
인천광역시	1,614 (100.0)	245 (15.2)	685 (42.5)	543 (33.6)	140 (8.7)	2 (0.1)	323 (20.0)	135 (8.4)	1,154 (71.5)
광주광역시	750 (100.0)	106 (14.1)	322 (42.9)	249 (33.2)	73 (9.7)	15 (2.0)	104 (13.9)	69 (9.1)	562 (74.9)
대전광역시	794 (100.0)	138 (17.4)	330 (41.6)	251 (31.6)	75 (9.4)	9 (1.1)	78 (9.9)	65 (8.2)	641 (80.8)

취업자	합계	연령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이상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서비스업
울산광역시	566 (100.0)	68 (12.0)	246 (43.4)	203 (35.9)	49 (8.7)	6 (1.0)	168 (29.7)	47 (8.3)	345 (61.0)
세종자치시	197 (100.0)	22 (11.2)	110 (55.5)	51 (26.0)	14 (7.2)	8 (4.0)	28 (14.4)	9 (4.5)	152 (77.2)
경기도	7,597 (100.0)	1,150 (15.1)	3,356 (44.2)	2,436 (32.1)	655 (8.6)	131 (1.7)	1,468 (19.3)	626 (8.2)	5,372 (70.7)
강원도	818 (100.0)	91 (11.1)	285 (34.9)	292 (35.7)	150 (18.3)	72 (8.8)	60 (7.3)	74 (9.0)	612 (74.8)
충청북도	926 (100.0)	134 (14.5)	344 (37.2)	318 (34.3)	130 (14.0)	101 (10.9)	199 (21.5)	67 (7.2)	559 (60.4)
충청남도	1,226 (100.0)	161 (13.1)	484 (39.5)	387 (31.6)	194 (15.8)	179 (14.6)	252 (20.5)	75 (6.1)	720 (58.8)
전라북도	968 (100.0)	109 (11.3)	343 (35.4)	323 (33.3)	193 (19.9)	172 (17.7)	119 (12.3)	72 (7.4)	605 (62.5)
전라남도	1,010 (100.0)	94 (9.3)	331 (32.7)	357 (35.3)	229 (22.6)	234 (23.2)	99 (9.8)	69 (6.9)	608 (60.2)
경상북도	1,462 (100.0)	162 (11.1)	504 (34.5)	512 (35.0)	284 (19.4)	280 (19.2)	294 (20.1)	87 (5.9)	801 (54.8)
경상남도	1,740 (100.0)	187 (10.8)	669 (38.4)	629 (36.2)	255 (14.7)	220 (12.7)	390 (22.4)	108 (6.2)	1,022 (58.7)
제주도	402 (100.0)	51 (12.6)	165 (41.2)	129 (32.1)	57 (14.1)	63 (15.7)	16 (4.0)	36 (9.0)	286 (7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2년), () 지역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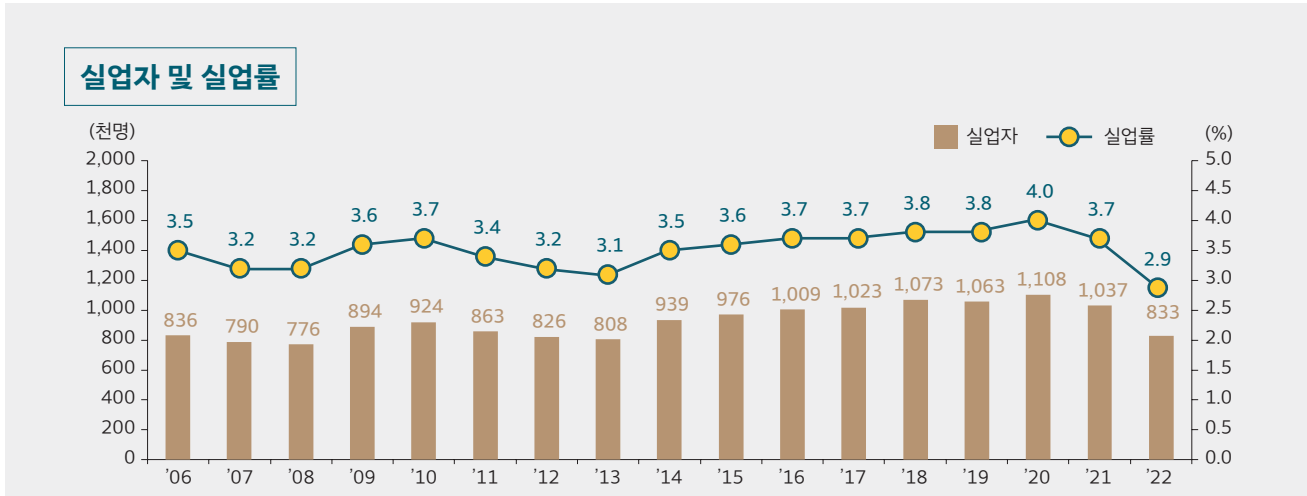
고용률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전국	64.3	64.6	65.6	65.9	66.1	66.6	66.6	66.8	65.9	66.5	68.5
서울특별시	64.7	65.0	65.7	65.5	65.8	66.4	66.0	66.3	65.9	66.6	68.4
부산광역시	61.7	61.8	62.7	62.7	62.6	63.4	62.9	64.2	62.9	63.9	65.4
대구광역시	63.3	63.2	64.3	65.4	65.3	65.0	64.2	64.2	63.0	65.5	66.9
인천광역시	65.7	65.3	65.4	65.9	67.2	67.3	68.6	68.3	66.9	67.4	69.4
광주광역시	60.8	61.6	63.4	63.2	62.5	63.8	64.6	64.5	63.8	63.4	64.3
대전광역시	61.6	62.0	64.1	64.6	64.6	64.0	63.9	65.3	66.2	66.7	67.9
울산광역시	63.1	62.1	61.4	62.5	62.4	63.9	63.6	63.7	62.9	62.9	64.7
세종자치시	-	-	-	-	-	64.8	65.6	65.9	66.3	66.2	67.4
경기도	64.4	64.8	66.5	66.8	67.0	67.9	67.9	67.6	65.9	66.9	70.0
강원도	62.8	62.6	62.9	64.3	64.6	67.1	66.7	68.3	67.0	67.2	67.8
충청북도	63.7	65.2	67.5	68.3	68.2	69.1	69.1	68.3	69.0	69.9	71.1
충청남도	66.5	67.4	67.4	67.9	67.5	67.9	69.0	69.3	67.8	68.2	69.5
전라북도	62.5	63.9	63.5	64.6	65.5	64.4	63.9	64.4	64.6	66.1	66.8
전라남도	68.0	67.5	67.0	67.9	67.5	66.8	67.6	68.8	69.1	69.4	71.2
경상북도	66.7	66.6	68.2	67.6	67.5	67.9	66.9	67.4	66.4	65.7	68.2
경상남도	64.7	65.2	65.5	66.0	65.9	66.4	66.9	67.0	65.5	65.4	66.4
제주도	71.2	70.7	71.8	72.9	73.8	76.0	73.7	72.5	70.7	71.6	74.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5~64세 기준), 세종자치시의 고용률은 '17년부터 발표됨

3. 실업자 현황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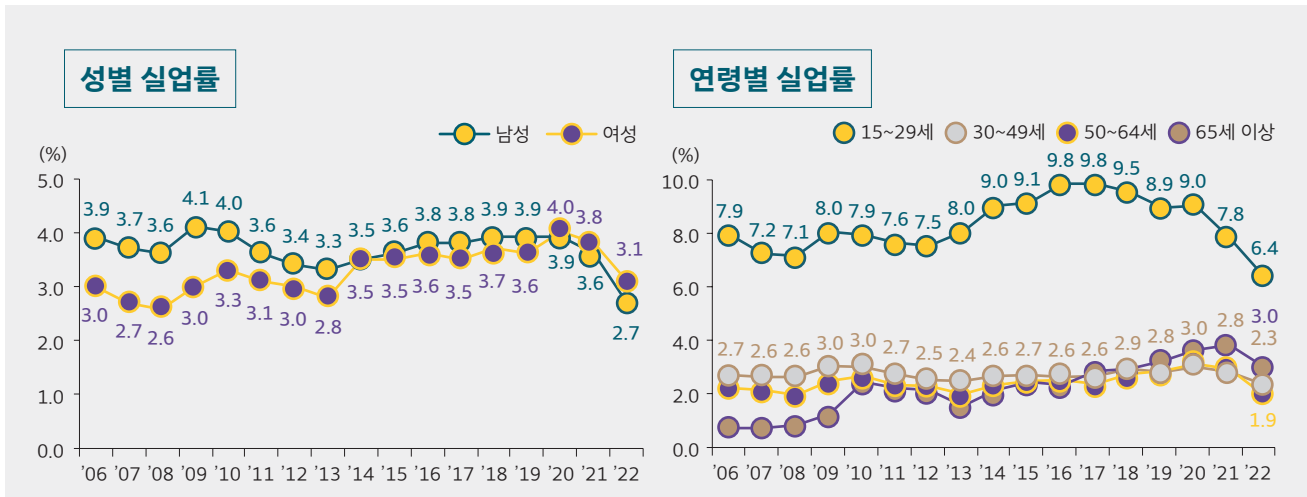
2022년 실업자는 833천명으로 전년보다 205천명 감소하였고, 실업률은 2.9%로 전년보다 0.8%p 감소하였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연령별 실업자 및 실업률

여성의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증가해 왔고 '20년 이후 남성보다 높아졌다. 한편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감소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보조지표(확장 실업률)

고용보조지표는 실업자를 포함해 취업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인원의 규모를 알기 위한 지표로서 '22년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0.6%이다.

* 고용보조지표 3은 실업률을 보완하는 보조지표로서 가장 포괄범위가 넓어 '확장실업률'로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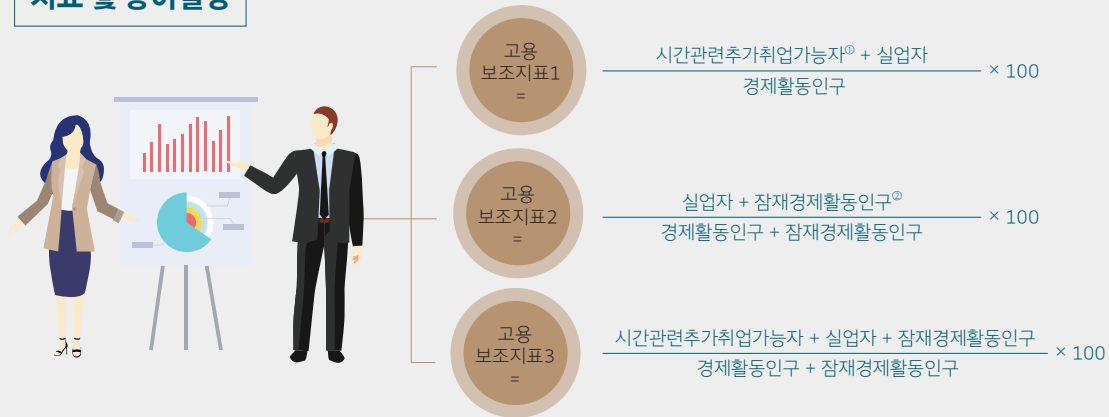
단위: %, 천명

구분	고용보조지표1		고용보조지표2				고용보조지표3	
	시간관련추가 취업가능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구직자			
'20		7.8	1,088	10.0	1,873	65	1,808	13.6
	15~29세	12.6	149	22.0	693	-	-	25.1
'21		7.4	1,070	9.7	1,898	77	1,821	13.3
	15~29세	11.2	145	20.1	652	-	-	23.1
'22		5.8	836	7.9	1,570	85	1,485	10.6
	15~29세	9.1	118	16.5	518	-	-	19.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5~29세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으며, 잠재구직자에는 구직단념자가 포함되어 있음.

지표 및 용어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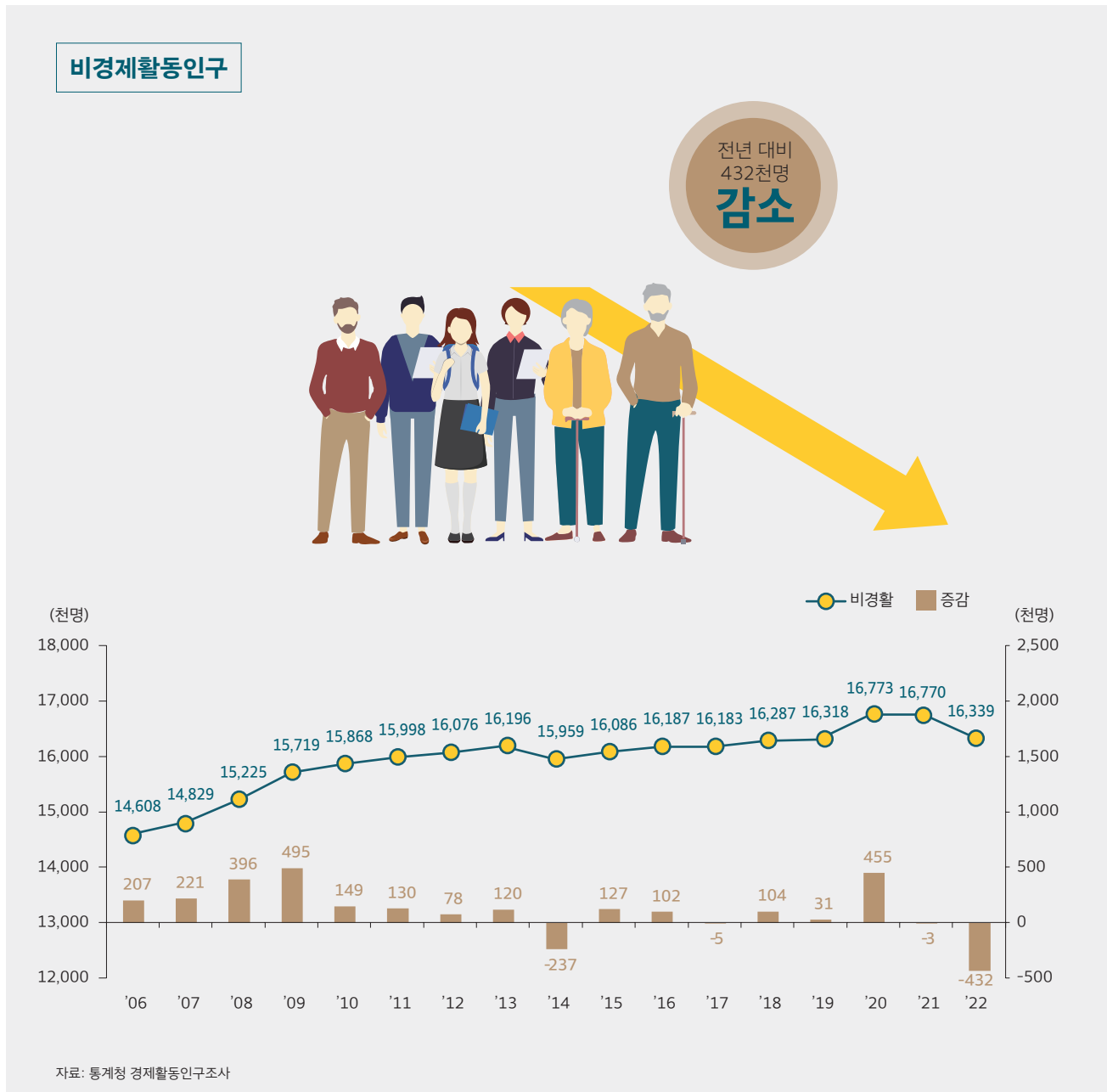
①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취업자 중에서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②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의 합계

- 잠재취업가능자(취업가능성 없는 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잠재구직자(취업가능성 있는 비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4.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022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339천명으로
전년보다 432천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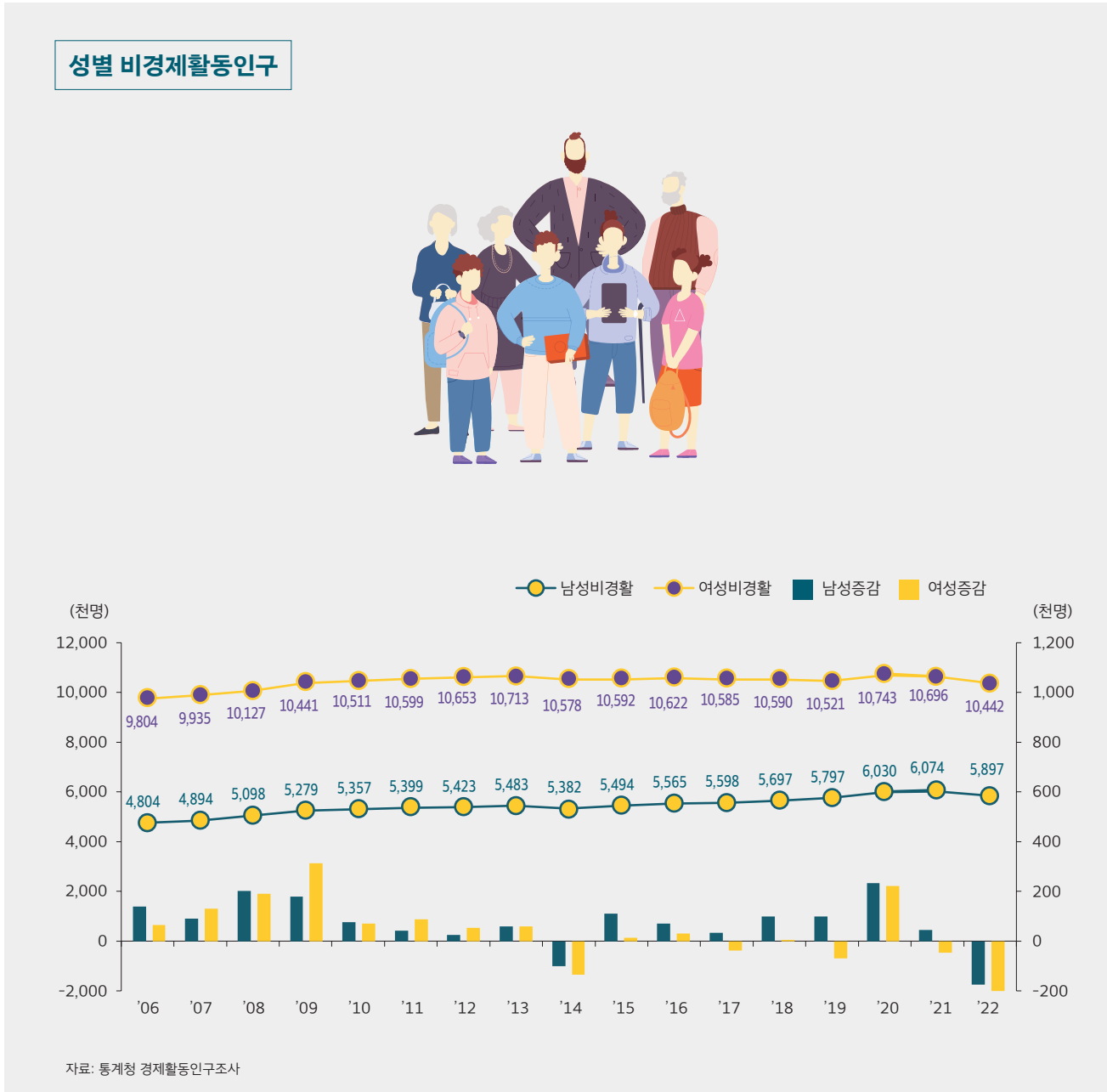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는 '09년 금융위기와 '20년 코로나19 확산 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05년부터 '1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14년에 감소한 적이 있으나, '15년과 '16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 한편, '22년에는 432천명 감소하며, '66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

성별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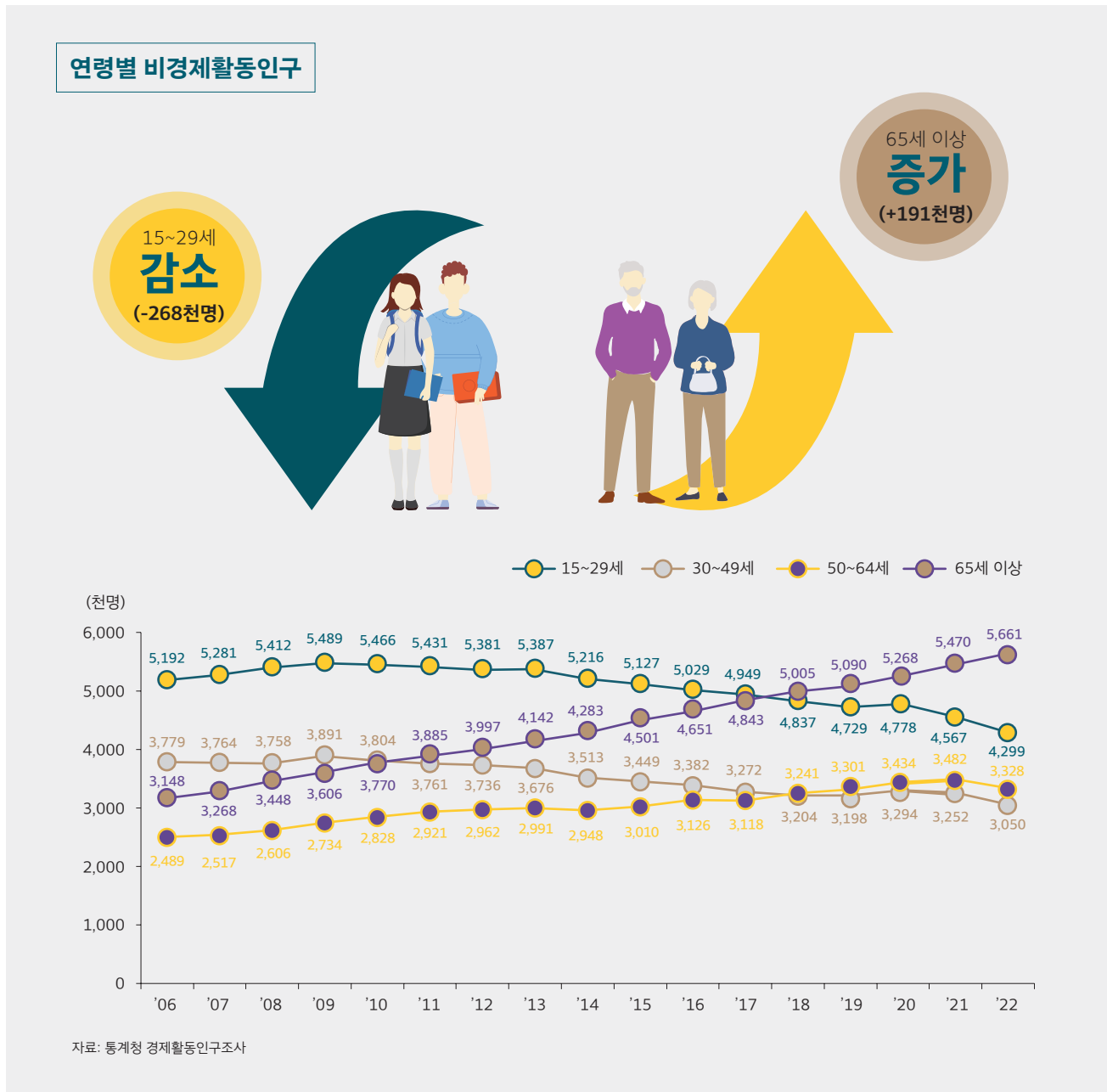
여성은 남성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2배 정도 많은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5~2020년 사이 남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2022년에는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을 회복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였다.



+ '09년 금융위기 시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에는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년 코로나19 시기에는 남녀 모두 비경제활동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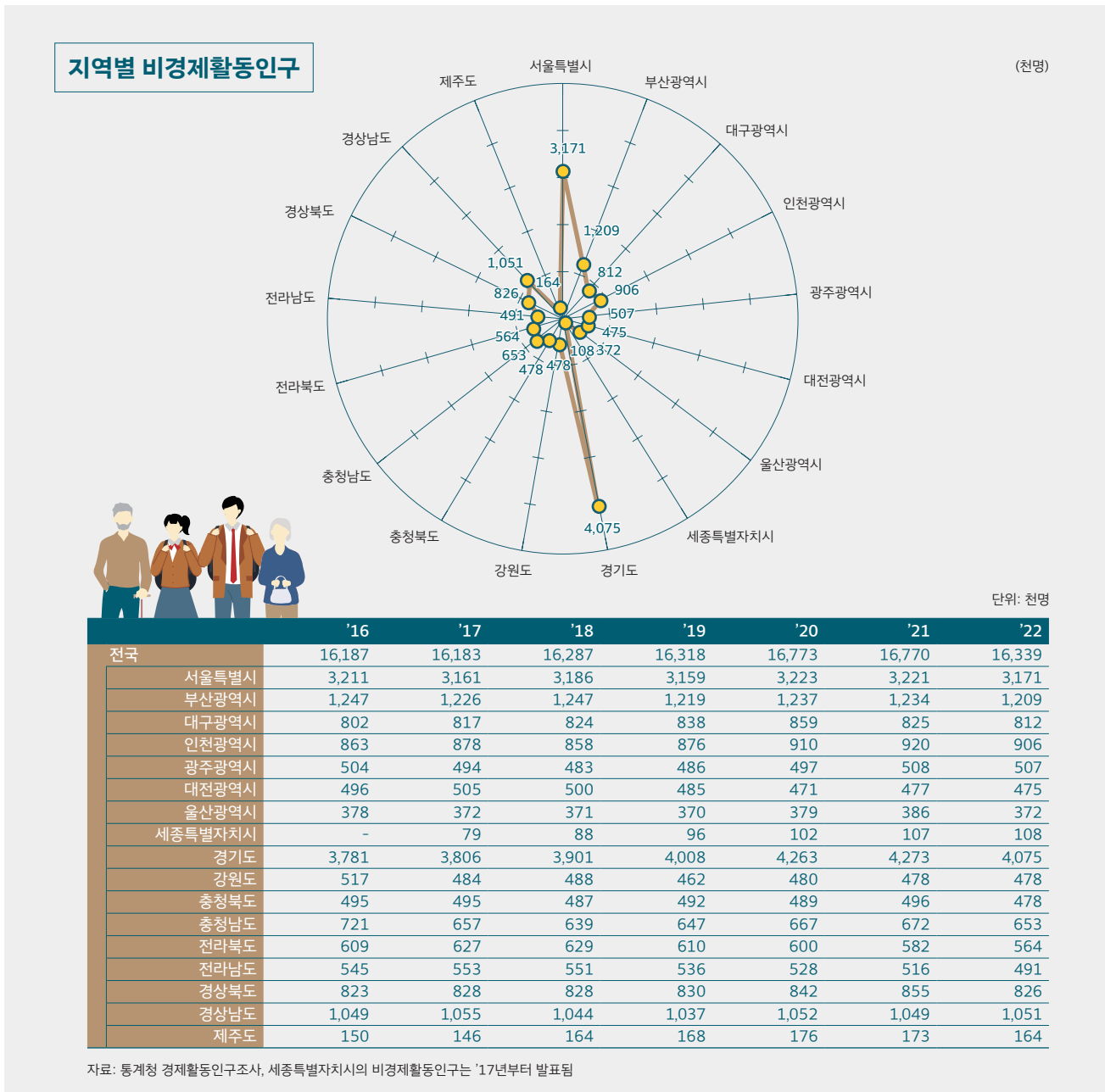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구성은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15~29세 청년층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 + 청년(15~29세)과 30~49세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09년에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하고 있다. '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소폭 증가하였지만 '21년에 다시 감소하는 모습이다.
- + 65세 이상 고령층은 비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50~64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2년에는 감소 전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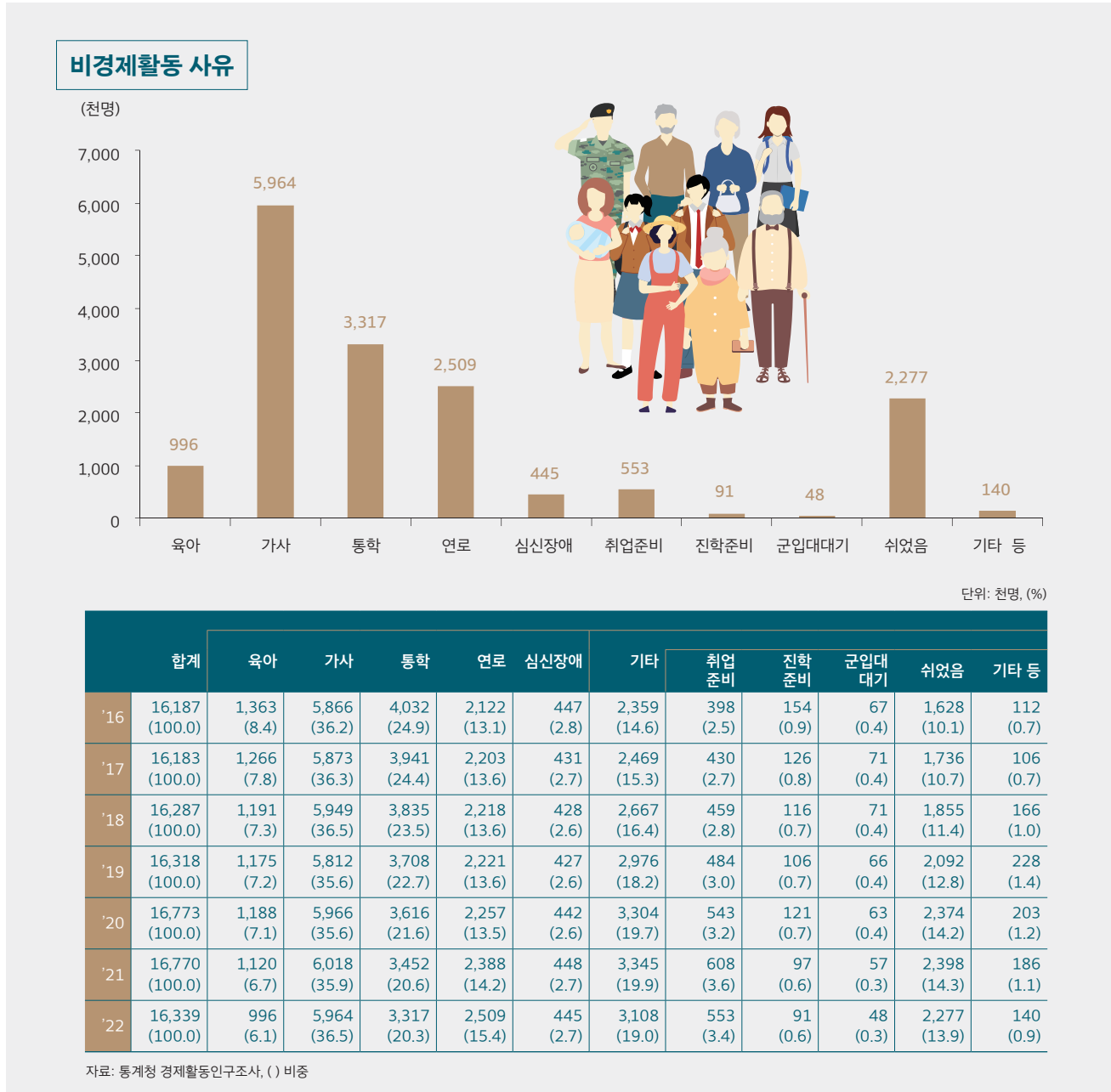
지역별 비경제활동인구

2022년 비경제활동인구는 경기도가 가장 많으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49.9%이다.



비경제활동 사유

2022년 비경제활동 사유로는 가사와 통학이 전체의 56.8%로 나타난다. 한편, 쉬었음의 사유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2년에는 감소하였다.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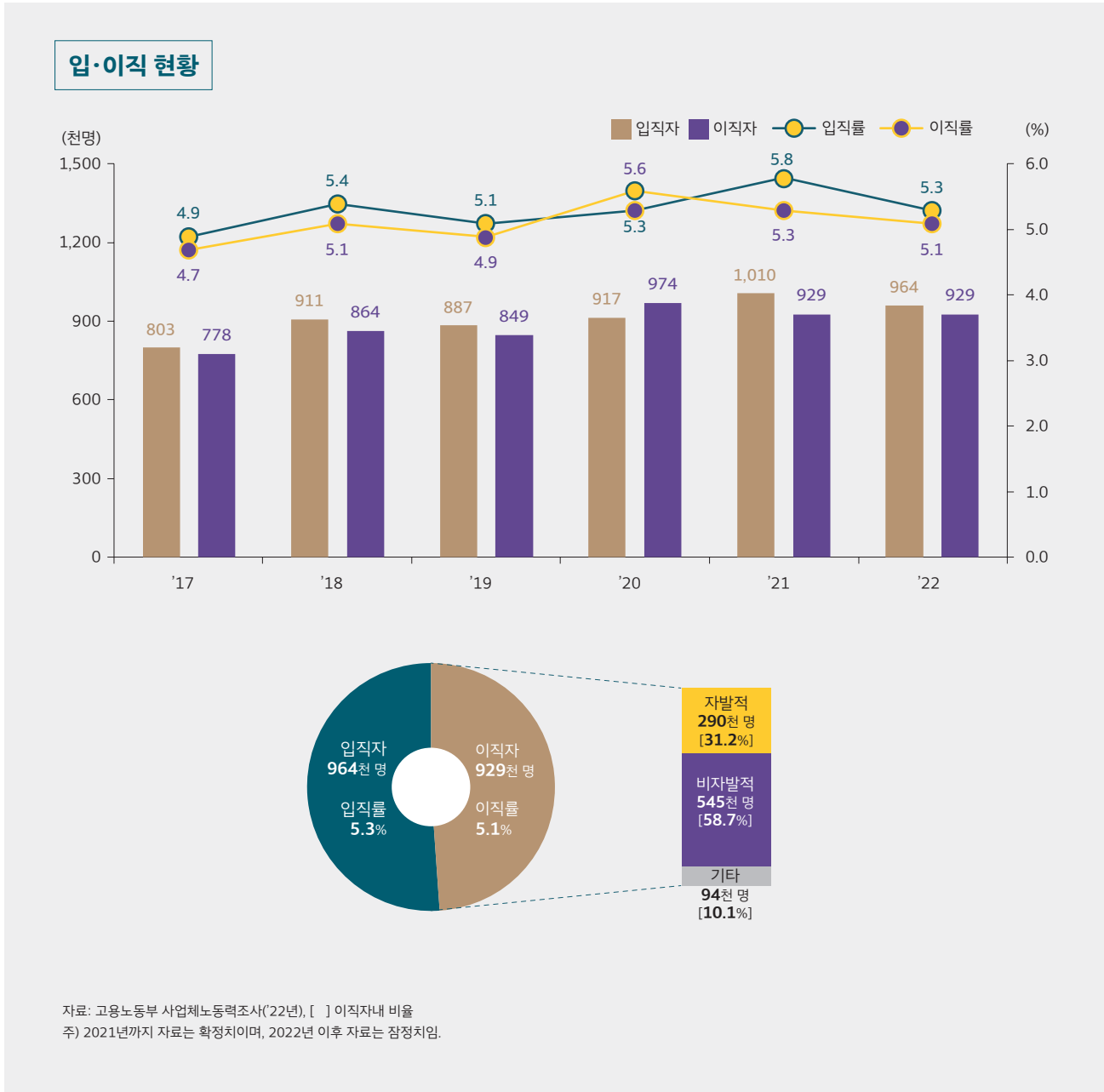
www.moel.go.kr

04 노동이동

1. 입·이직 현황

입·이직 및 자발성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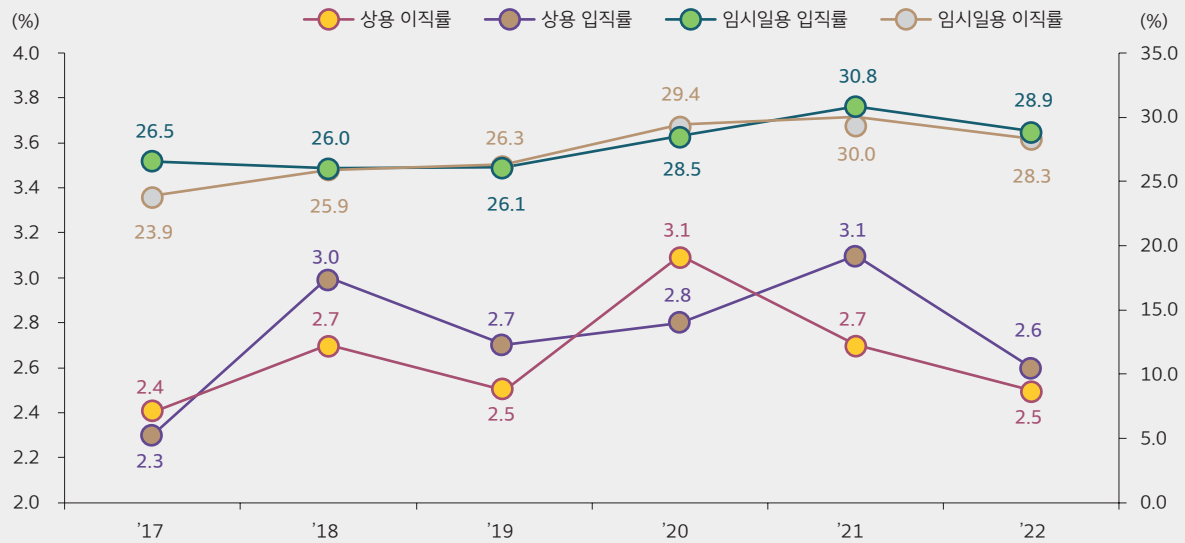
2022년 노동이동을 보면 입직자는 964천명, 이직자는 929천명이고 이직자 중 비자발적 이직이 58.7%로 나타난다.



종사상 지위별 입·이직

상용근로자의 입·이직율은 2~3% 수준인데 비해 임시·일용근로자는 30% 수준으로 임시·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 입·이직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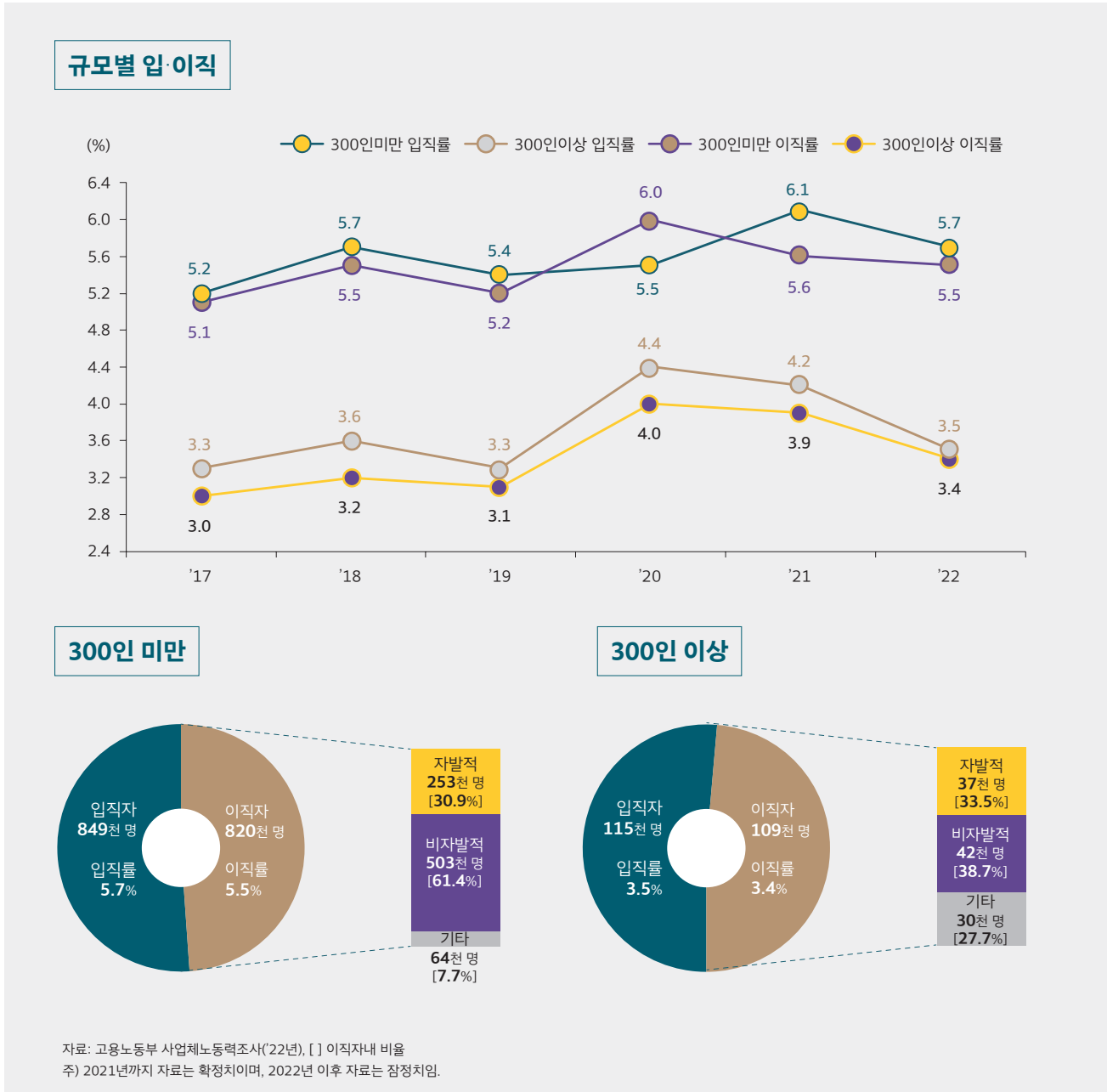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상용	입직자	333 (2.3)	450 (3.0)	430 (2.7)	441 (2.8)	489 (3.1)	426 (2.6)
	이직자	354 (2.4)	405 (2.7)	388 (2.5)	482 (3.1)	422 (2.7)	404 (2.5)
	자발적	232 [65.6]	260 [64.2]	244 [62.9]	251 [52.1]	244 [57.8]	248 [61.3]
	비자발적	72 [20.2]	80 [19.8]	77 [19.9]	103 [21.3]	79 [18.8]	70 [17.2]
	기타	50 [14.2]	65 [16.0]	67 [17.2]	129 [26.6]	99 [23.5]	87 [21.4]
임시 일용	입직자	470 (26.5)	460 (26.0)	458 (26.1)	476 (28.5)	522 (30.8)	537 (28.9)
	이직자	424 (23.9)	459 (25.9)	461 (26.3)	491 (29.4)	507 (30.0)	525 (28.3)
	자발적	65 [15.3]	57 [12.5]	42 [9.0]	40 [8.2]	33 [6.6]	42 [8.0]
	비자발적	351 [82.8]	391 [85.3]	410 [89.0]	434 [88.5]	465 [91.6]	476 [90.7]
	기타	8 [1.8]	11 [2.3]	9 [1.9]	17 [3.4]	9 [1.8]	7 [1.4]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입직률, 이직률, [] 이직자내 비율
 주) 2021년까지 자료는 확정치이며, 2022년 이후 자료는 잠정치임.

+ '22년 기준 상용근로자의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약 61.3%인 것에 반해, 임시·일용근로자의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이 약 90.7%를 차지하고 있다.

규모별 입·이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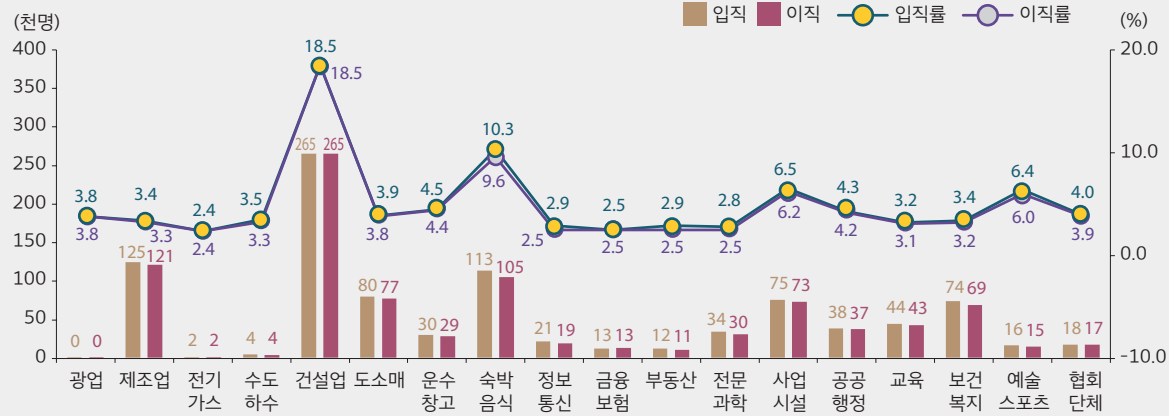
300인미만 사업체에서 입·이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산업별 입·이직

2022년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업에서 입·이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입·이직



단위: 천명, (%)

산업	입직		이직		자발적		비자발적		기타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천명	[%]
전산업	964	(5.3)	929	(5.1)	290	[31.2]	545	[58.7]	94	[10.1]
광업	0	(3.8)	0	(3.8)	0	[41.5]	0	[50.1]	0	[8.6]
제조업	125	(3.4)	121	(3.3)	55	[45.9]	54	[45.2]	11	[8.9]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2	(2.4)	2	(2.4)	0	[8.9]	0	[25.6]	1	[65.4]
수도, 하수, 폐기물, 재생	4	(3.5)	4	(3.3)	1	[33.9]	2	[47.8]	1	[18.4]
건설업	265	(18.5)	265	(18.5)	18	[6.8]	245	[92.3]	2	[0.8]
도매 및 소매업	80	(3.9)	77	(3.8)	35	[45.9]	35	[45.1]	7	[9.0]
운수 및 창고업	30	(4.5)	29	(4.4)	8	[29.6]	8	[28.2]	12	[42.2]
숙박 및 음식점업	113	(10.3)	105	(9.6)	36	[34.1]	66	[62.3]	4	[3.6]
정보통신업	21	(2.9)	19	(2.5)	11	[61.5]	4	[21.6]	3	[16.9]
금융 및 보험업	13	(2.5)	13	(2.5)	3	[26.7]	2	[14.4]	7	[58.9]
부동산업	12	(2.9)	11	(2.5)	7	[62.0]	3	[31.0]	1	[7.0]
전문, 과학, 기술	34	(2.8)	30	(2.5)	17	[55.5]	8	[27.3]	5	[17.2]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	75	(6.5)	73	(6.2)	28	[39.1]	41	[56.3]	3	[4.6]
공공, 국방, 행정	38	(4.3)	37	(4.2)	2	[6.0]	19	[50.6]	16	[43.5]
교육서비스업	44	(3.2)	43	(3.1)	9	[20.2]	23	[53.3]	11	[26.4]
보건 및 사회복지	74	(3.4)	69	(3.2)	46	[66.6]	17	[25.2]	6	[8.2]
예술, 스포츠, 여가	16	(6.4)	15	(6.0)	5	[33.0]	8	[54.7]	2	[12.3]
협회, 단체, 수리, 개인	18	(4.0)	17	(3.9)	6	[36.4]	10	[56.0]	1	[7.7]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2년), () 입직률, 이직률, [] 이직자내 비율
 주) 2021년까지 자료는 확정치이며, 2022년 이후 자료는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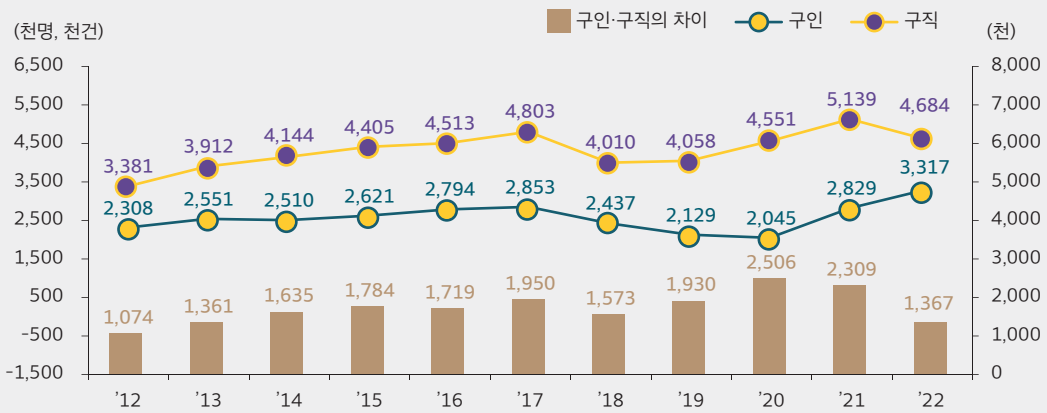
+ 또한 이직자의 자발성 여부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가 자발적 이직자보다 소폭 많은 가운데, 업종별로는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비자발적 이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워크넷 구인·구직 현황

구인·구직 추이

2022년 구인은 202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구직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구인·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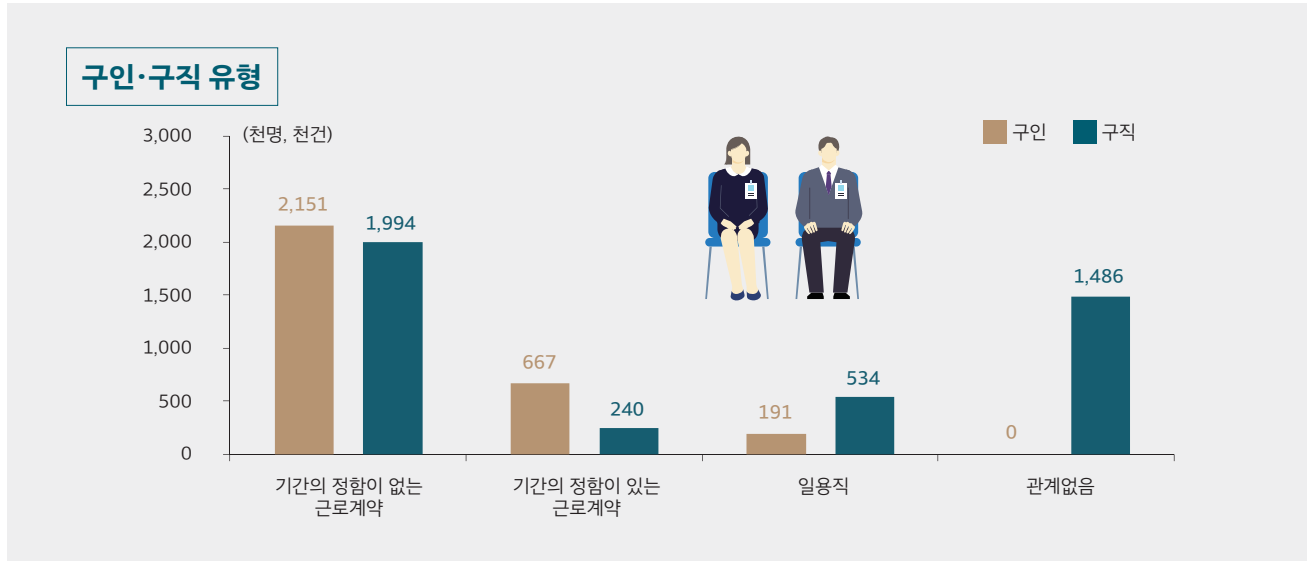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워크넷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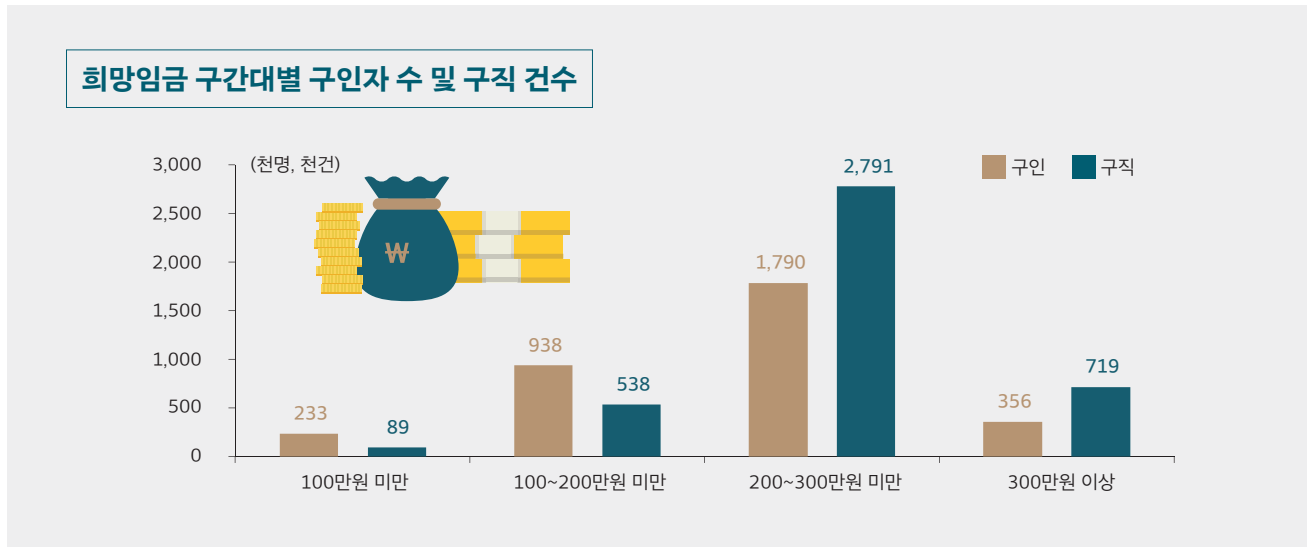
주) 워크넷 구인·구직 현황은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 상황만을 포함하므로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구직 상황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구인·구직 유형

2022년 구인·구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가장 많이 희망했으며 희망임금은 구인·구직 모두 200~300만원 구간을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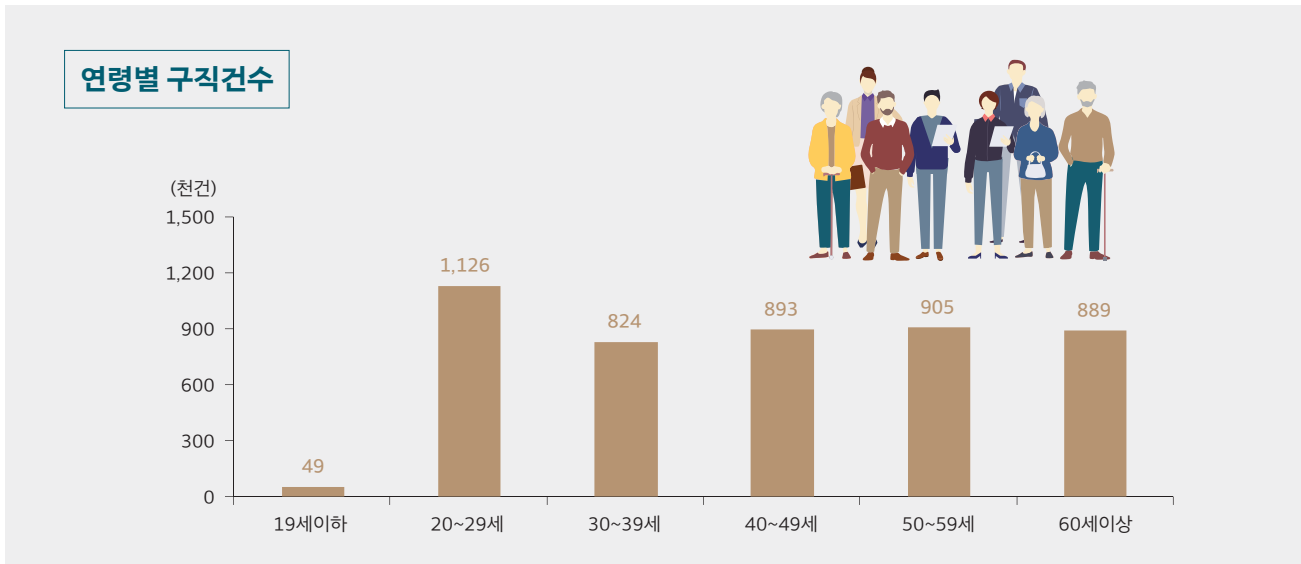


구인·구직자의 희망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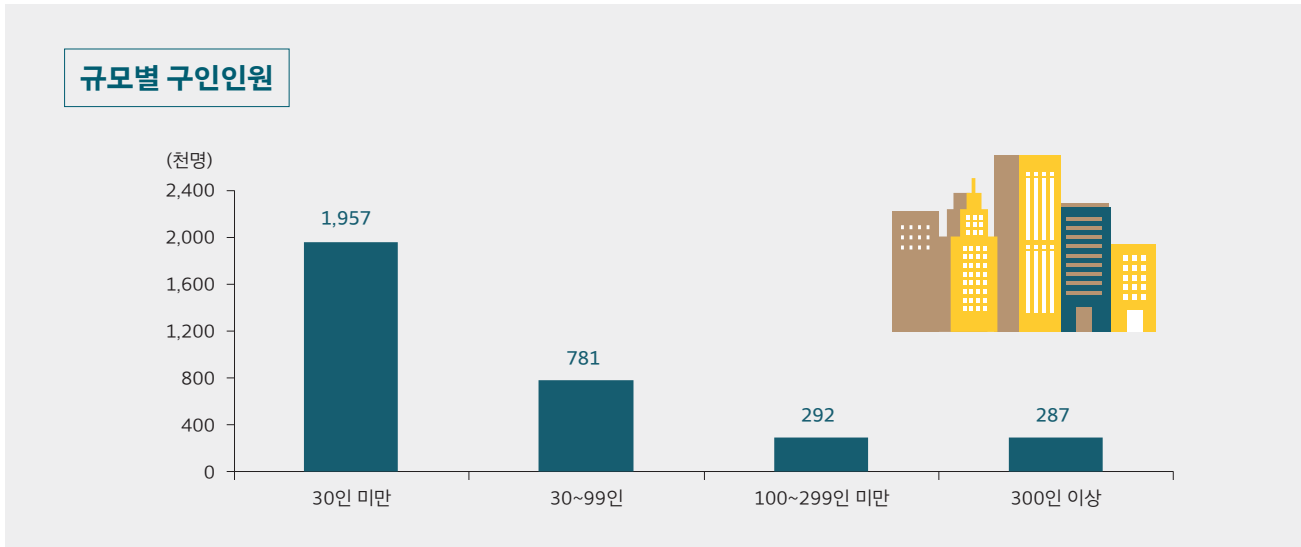


연령별 구직건수

2022년 20대의 구직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구인인원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체에서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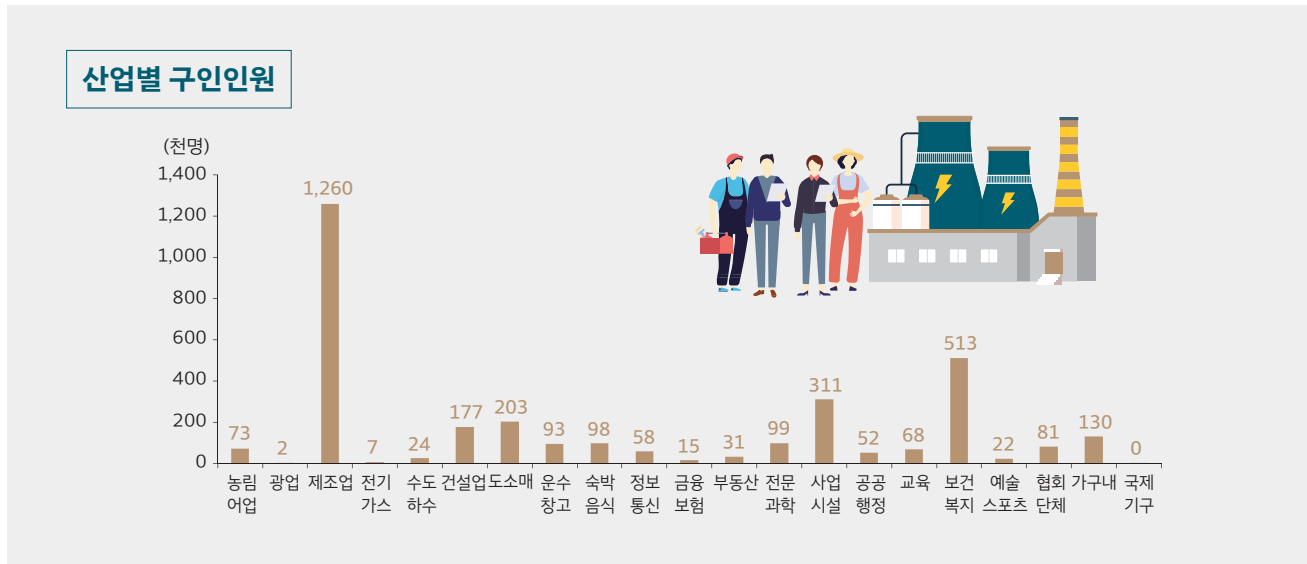


규모별 구인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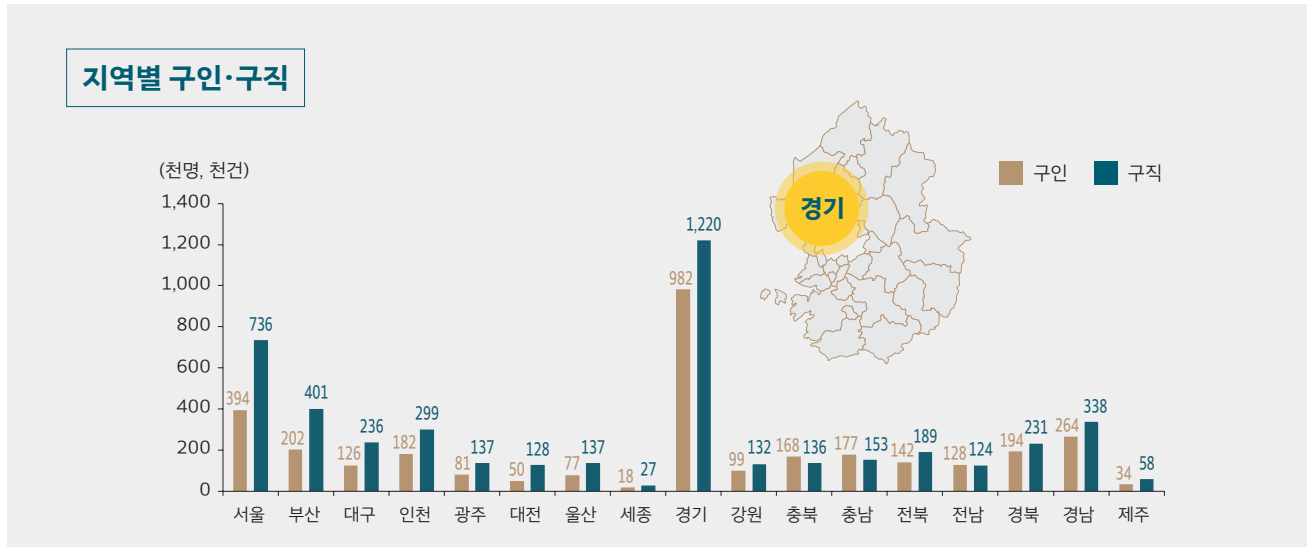
산업별 구인인원

2022년 산업별 구인인원은 제조업, 보건복지 등에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구인·구직 모두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



자료: 고용노동부 워크넷DB(22년)

지역별 구인·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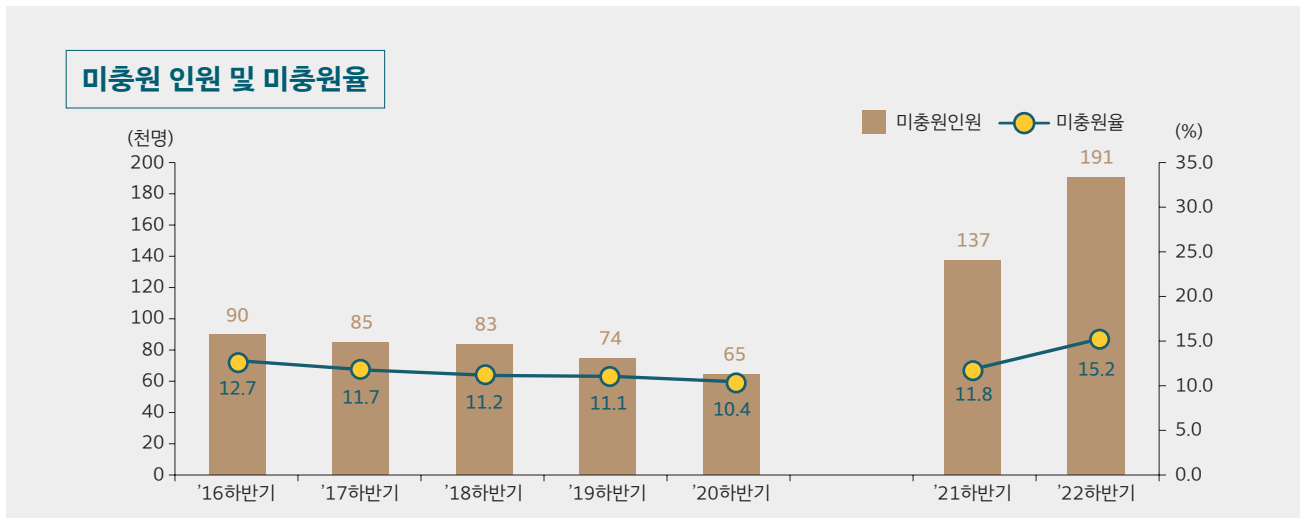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워크넷DB(22년)

3. 미충원 인원

미충원 인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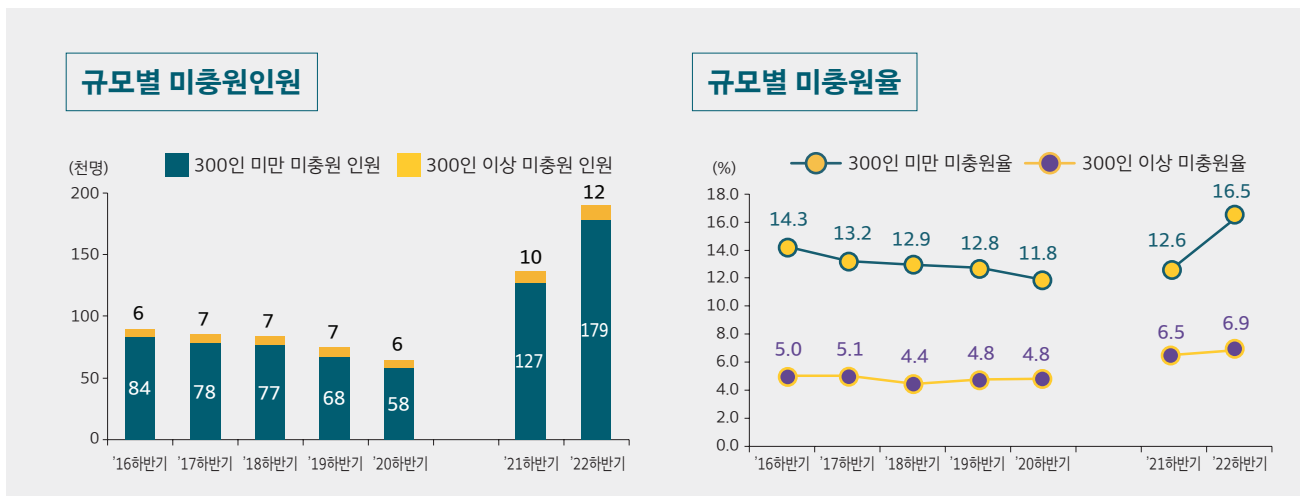
2022년(하반기 기준) 3개월간 구인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191천명, 미충원율은 15.2%로 전년동반기에 비해 증가하였다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부터 중사자 1인이상/ 이전에는 상용근로자 5인이상)

규모별 미충원 인원

2022년 하반기 기준 규모별 미충원인원과 미충원율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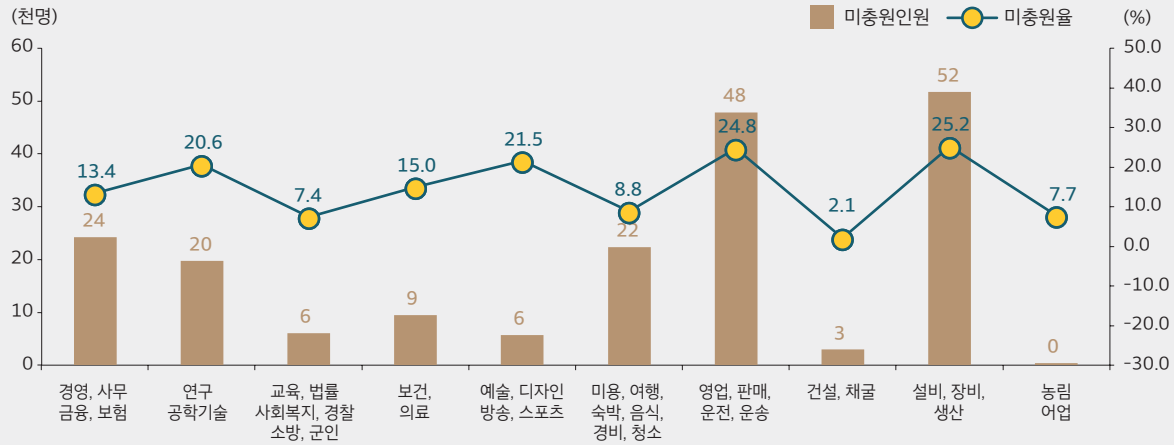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부터 중사자 1인이상/ 이전에는 상용근로자 5인이상)

직종별 미충원 인원

직종별로 볼 때 2022년 하반기 기준

설치·정비·생산직의 미충원율이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종별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천명, %

전 직종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직종	191	12	15.2	6.9
경영, 사무, 금융, 보험	24	2	13.4	5.6
연구, 공학기술	20	2	20.6	9.6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 군인	6	1	7.4	3.5
보건, 의료	9	2	15.0	11.4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	6	0	21.5	13.2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	22	1	8.8	4.2
영업, 판매, 운전, 운송	48	1	24.8	7.6
건설, 채굴	3	0	2.1	1.9
설치, 정비, 생산	52	2	25.2	9.1
농림어업	0	0	7.7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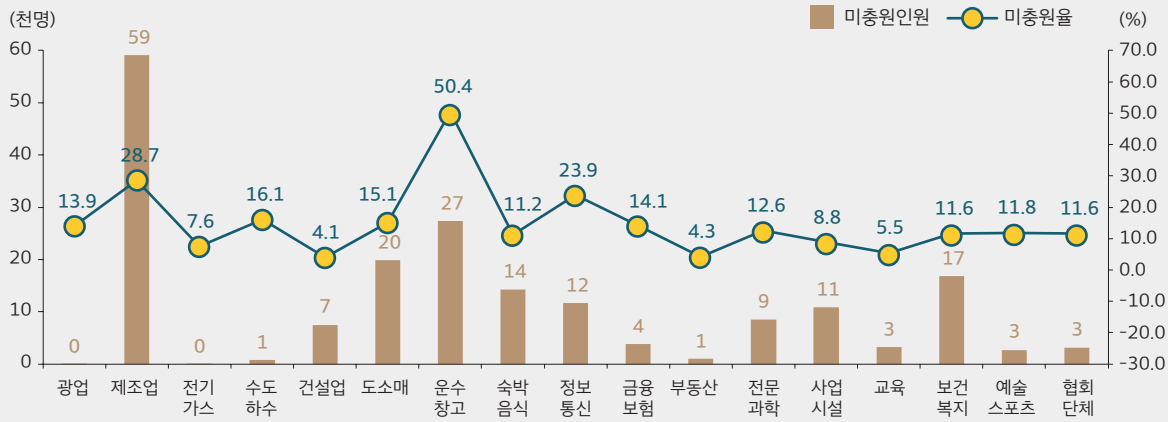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부터 종사자 1인 이상/ 이전에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표함에 따라 한국고용직업분류2007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산업별 미충원 인원

2022년 하반기 기준 산업별 미충원율은 운수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미충원 인원 및 미충원율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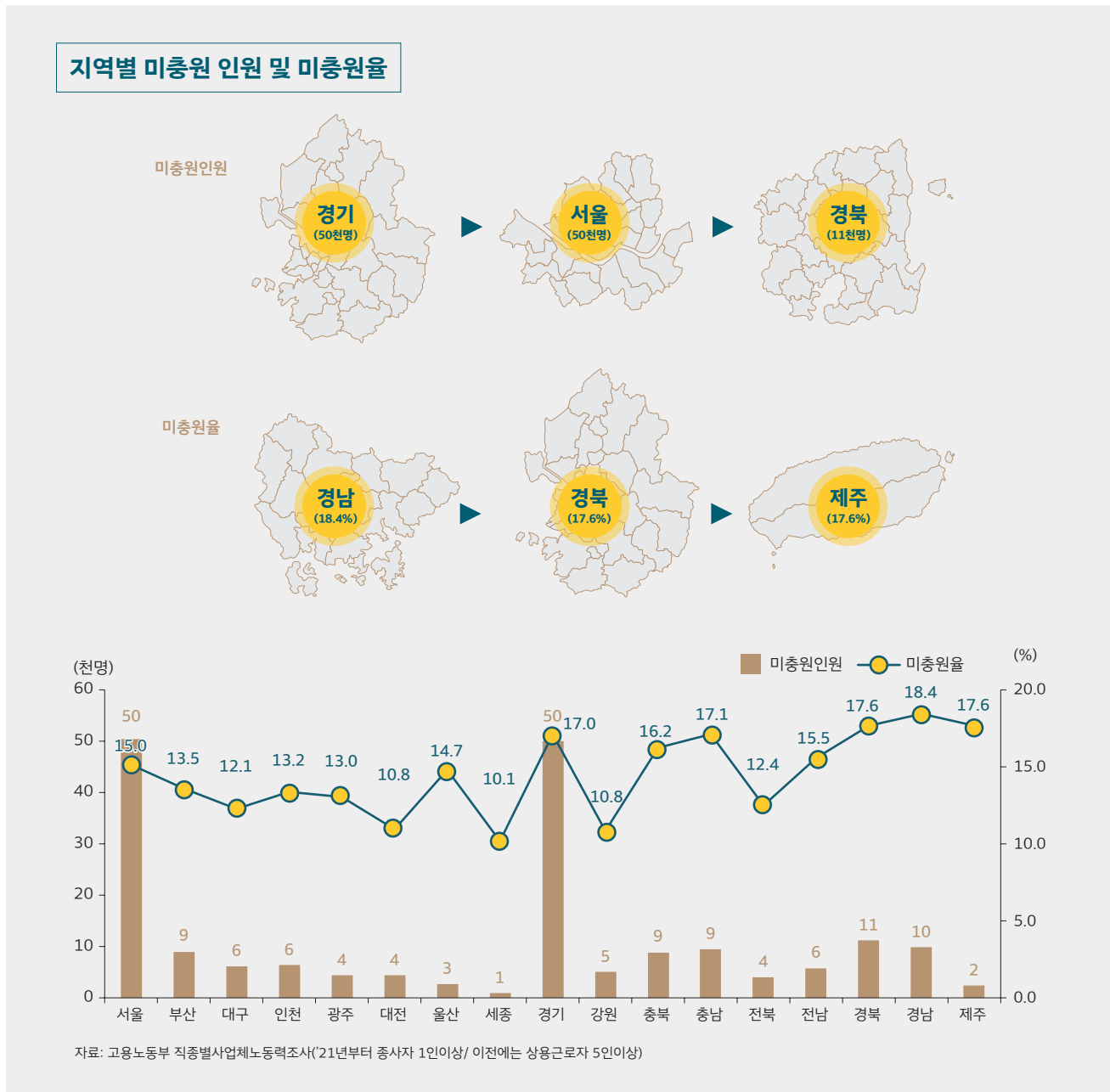
전 산업	미충원 인원			미충원율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산업	191	179	12	15.2	16.5	6.9
광업	0	0	0	13.9	14.7	12.0
제조업	59	57	2	28.7	31.2	8.7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절	0	0	0	7.6	8.8	1.2
수도, 하수·폐기물, 재생	1	1	0	16.1	16.6	4.4
건설업	7	7	0	4.1	4.1	3.4
도매 및 소매업	20	20	0	15.1	15.5	5.9
운수 및 창고업	27	27	1	50.4	53.7	12.4
숙박 및 음식점	14	14	0	11.2	11.3	7.7
정보통신업	12	11	1	23.9	27.2	9.0
금융 및 보험업	4	3	1	14.1	15.3	9.5
부동산업	1	1	0	4.3	4.4	3.1
전문, 과학, 기술	9	7	1	12.6	14.2	7.8
사업시설관리및지원	11	8	3	8.8	11.8	5.2
교육서비스	3	3	1	5.5	6.7	3.3
보건, 사회복지	17	15	2	11.6	11.6	11.5
예술, 스포츠, 여가	3	3	0	11.8	12.3	6.7
협회, 단체, 수리, 개인	3	3	0	11.6	11.6	13.4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부터 종사자 1인 이상/ 이전에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미충원인원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지역별 미충원 인원

2022년 하반기 기준 미충원인원은 서울, 경기에서 많고 미충원율은 경남, 경북, 제주 등에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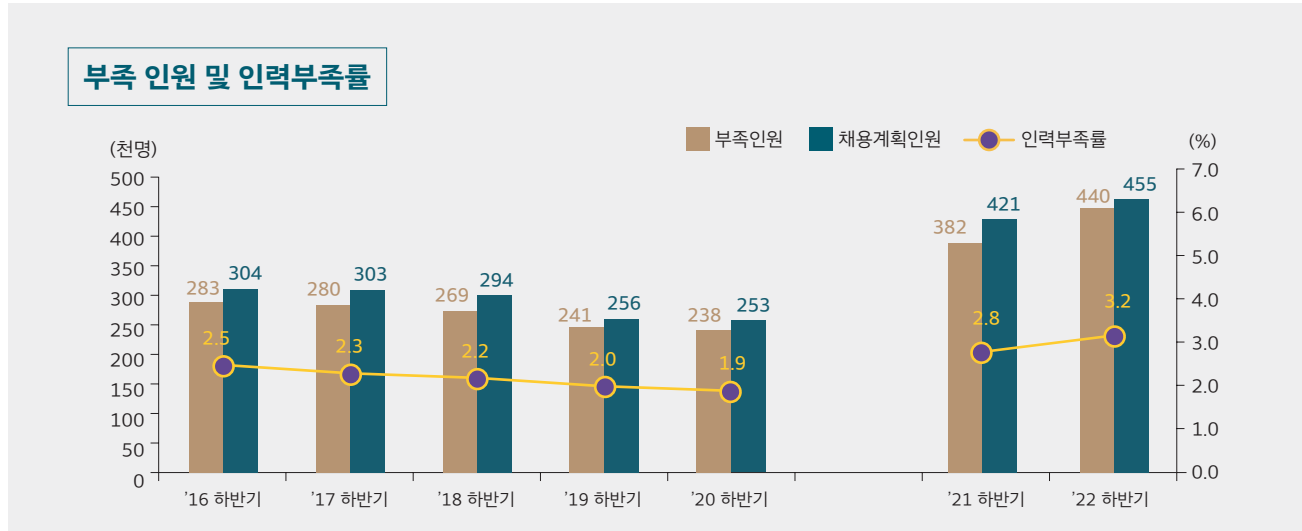


4.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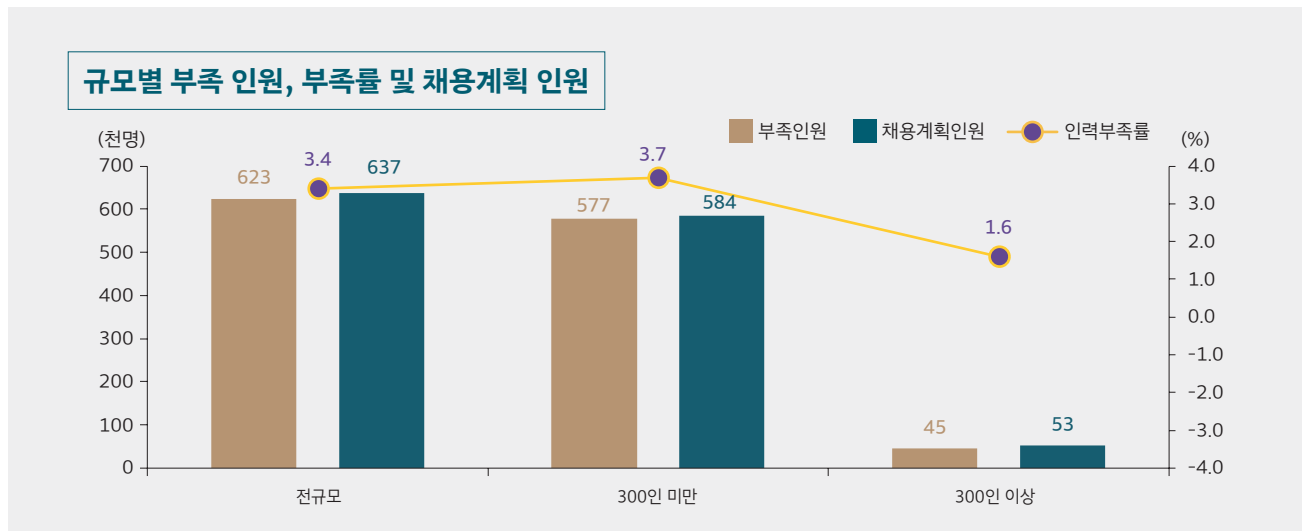
2022년 10월 1일 기준 부족인원과 인력부족률이 상승하였고, 특히 인력부족률은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높았다.

* 부족인원 및 부족률은 '22.10.1 기준, 채용계획인원은 '22.10.1~'23.3.31.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부터 종사자 1인 이상/ 이전에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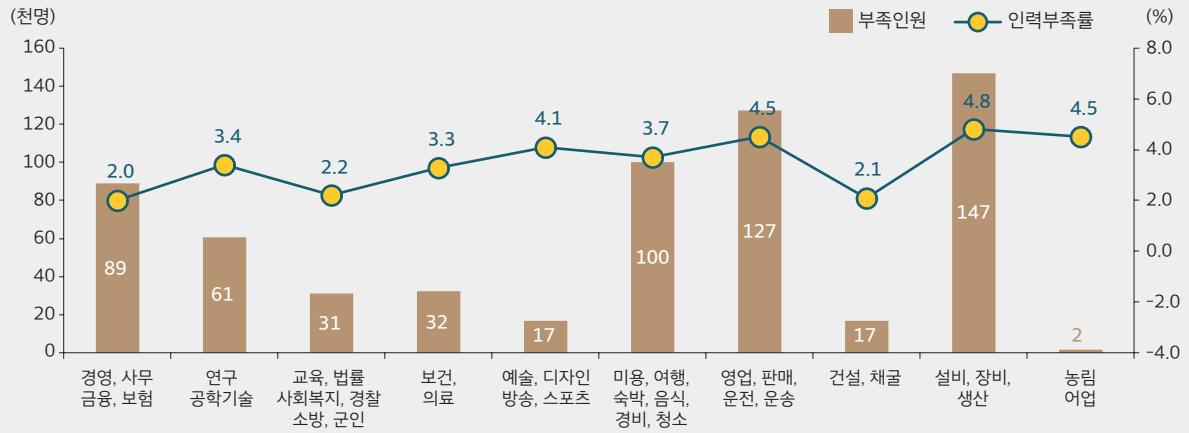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부터 종사자 1인 이상/ 이전에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직종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2022년 10월 1일 기준 부족 인원과 인력부족률 모두
설치·정비·생산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직종별 부족 인원 및 인력부족률



단위: 천명, %

직종	부족 인원		인력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직종	623	577	45	3.4	3.7	1.6	637	584	53
경영, 사무, 금융, 보험	89	79	10	2.0	2.0	1.5	90	79	12
연구, 공학기술	61	51	10	3.4	4.3	1.7	61	50	11
교육, 법률, 사회복지, 경찰, 소방, 군인	31	30	1	2.2	2.4	0.9	33	30	3
보건, 의료	32	26	6	3.3	3.7	2.3	35	28	8
예술, 디자인, 방송, 스포츠	17	16	1	4.1	4.3	2.4	17	16	1
미용, 여행, 숙박, 음식, 경비, 청소	100	96	4	3.7	4.0	1.4	103	98	5
영업, 판매, 운전, 운송	127	122	5	4.5	4.7	2.5	129	123	6
건설, 채굴	17	17	0	2.1	2.2	1.0	18	18	0
설치, 정비, 생산	147	141	6	4.8	5.5	1.3	148	141	7
농림어업	2	2	0	4.5	4.7	0.3	2	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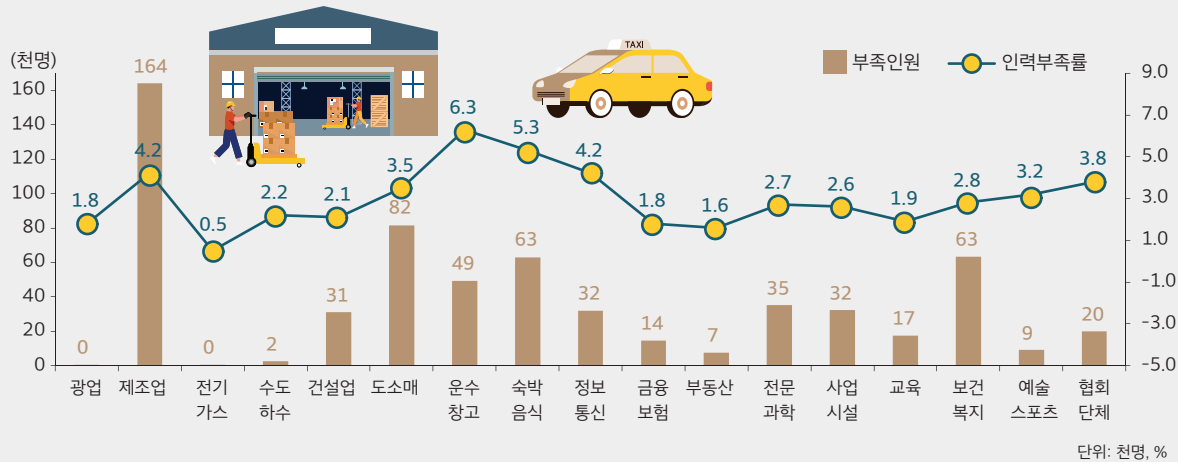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이전에는 상용근로자 5인이상

※ 2020년 자료부터 한국고용직업분류2018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표함에 따라 한국고용직업분류2007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산업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산업별로 볼 때 2022년 10월 1일 기준 부족 인원은 제조업이 가장 많고 인력부족률은 운수 및 창고업에서 가장 높다.

산업별 부족 인원 및 인력부족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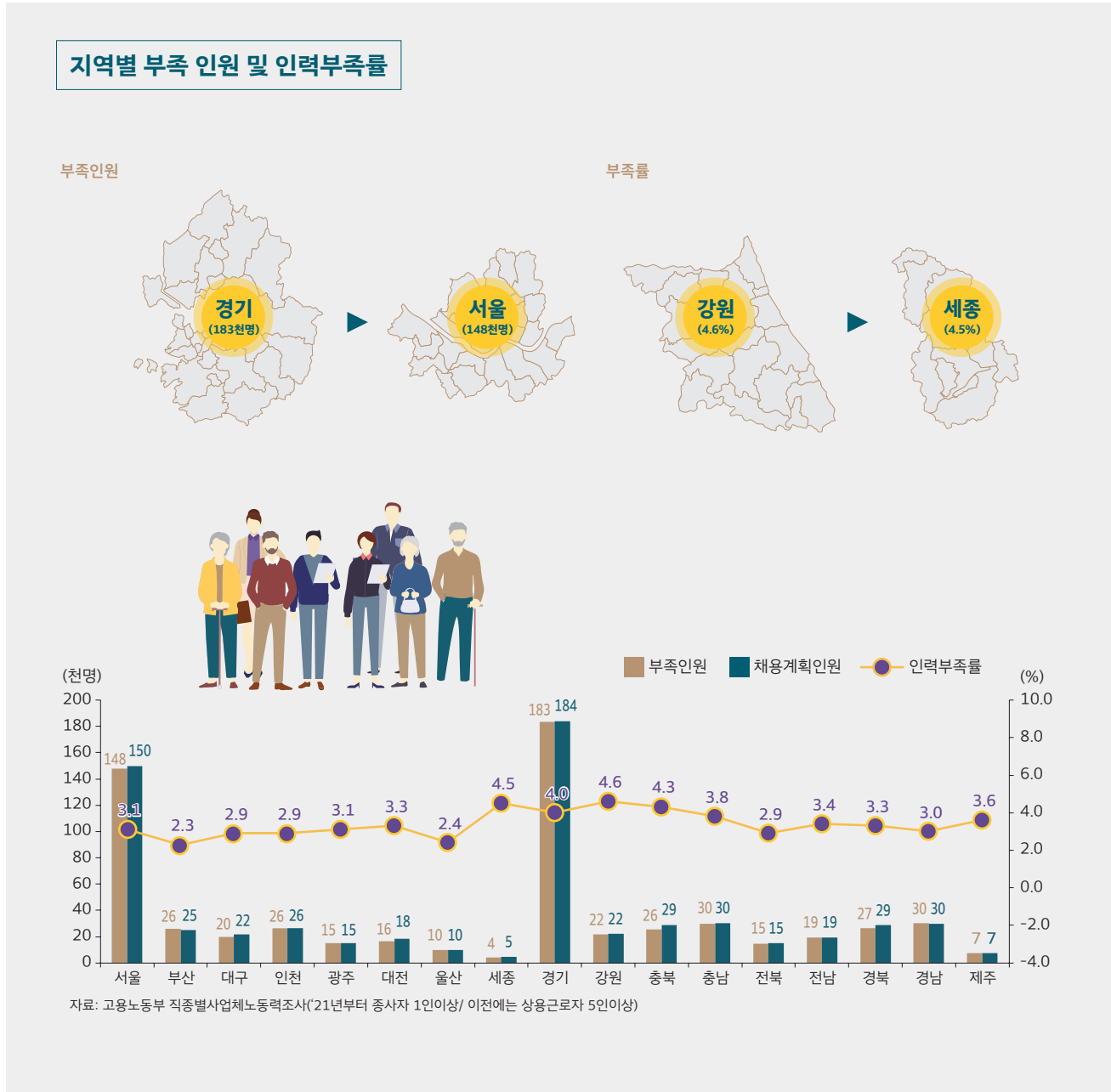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산업	부족 인원		인력부족률			채용계획 인원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산업	623	577	45	3.4	3.7	1.6	637	584	53
광업	0	0	0	1.8	1.9	0.9	0	0	0
제조업	164	156	8	4.2	5.0	1.0	166	157	9
전기, 가스, 증기, 공기 조질	0	0	0	0.5	0.7	0.1	0	0	0
수도, 하수, 폐기물, 재생	2	2	0	2.2	2.1	3.4	3	2	0
건설업	31	30	1	2.1	2.1	0.9	32	31	1
도매및소매업	82	79	2	3.5	3.5	2.3	81	79	2
운수및창고업	49	47	3	6.3	7.0	2.2	50	48	3
숙박및음식점	63	62	1	5.3	5.2	5.4	63	62	1
정보통신업	32	27	5	4.2	4.6	3.0	32	26	5
금융및보험업	14	12	3	1.8	1.7	2.0	15	12	3
부동산업	7	7	0	1.6	1.7	1.0	7	7	0
전문, 과학, 기술	35	30	5	2.7	3.2	1.5	36	30	6
사업시설관리및지원	32	24	8	2.6	3.0	1.8	36	27	9
교육서비스	17	16	1	1.9	2.1	0.9	20	16	3
보건, 사회복지	63	56	7	2.8	3.0	2.2	66	57	9
예술, 스포츠, 여가	9	9	0	3.2	3.3	1.7	9	9	0
협회, 단체, 수리, 개인	20	20	0	3.8	3.8	2.0	21	20	0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1년부터 종사자 1인이상/ 이전에는 상용근로자 5인이상)
 ※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지역별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2022년 10월 1일 기준 지역별 부족인원은 경기, 서울지역이 가장 많고 부족률은 강원, 세종지역이 가장 높다.



+ '22년 하반기 부족 인원은 서울·경기 지역이 많은 반면, 부족률은 강원(4.6%), 세종(4.5%), 제주(3.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 울산은 상대적으로 인력부족률이 낮다.

+ 한편 향후 6개월간의 채용계획 인원은 서울·경기지역이 뚜렷하게 많아 전체 채용계획 인원(637천명)의 52.4%를 차지했다.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www.moel.go.kr

05 직업훈련

1. 직업훈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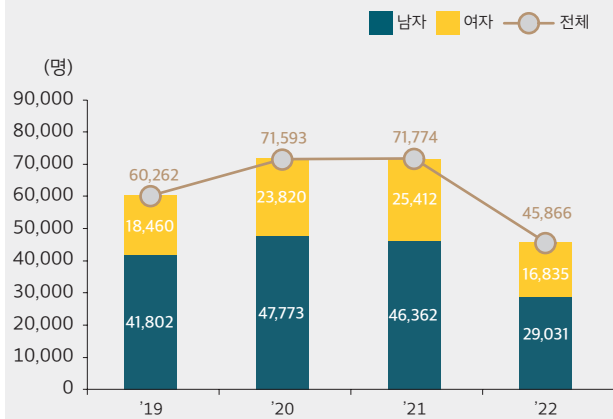
* 여기에서 직업훈련은 실업자 훈련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재직자 훈련은 마지막 부분에 별도로 제시함

훈련별 성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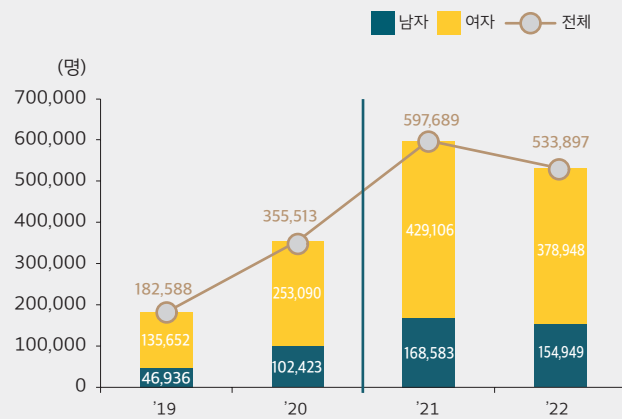
남성은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에서의 비중이 높고, 여성은 내일배움카드제에서 높다. 훈련실시인원의 규모는 2022년 감소로 전환하였다.



성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성별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주)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함에 따라 '19년 이전 자료와는 시계열이 단절되므로 이용시 주의를 요함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경우 '22년도 실시인원은 45,866명이며, 남성이 여성의 약 1.7배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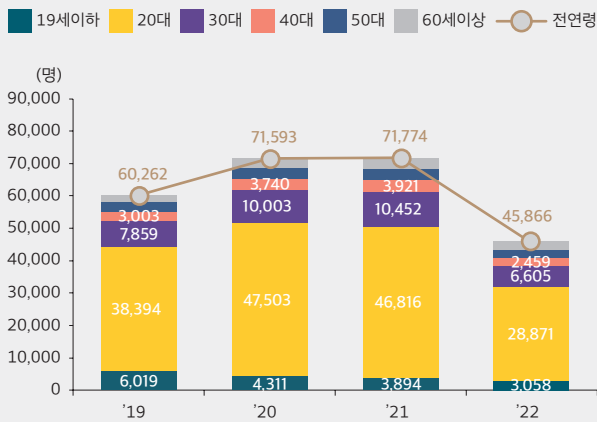
+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 '22년도 실시인원은 533,897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4배 수준이다.

훈련별 연령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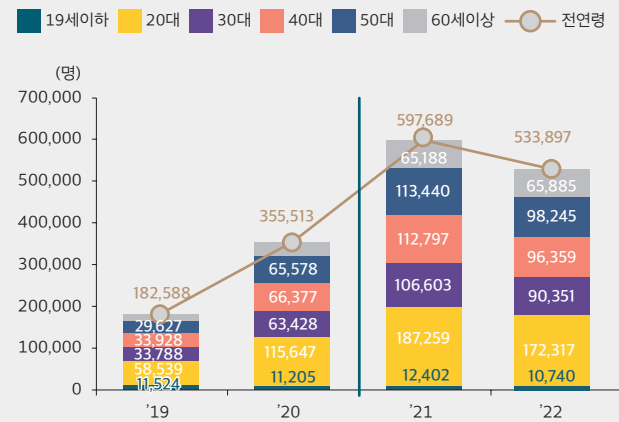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의 주 참여연령은 20대이며, 내일배움카드제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전 연령대가 유사한 비중이다.



연령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연령별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주)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 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함에 따라 '19년 이전 자료와는 시계열이 단절되므로 이용시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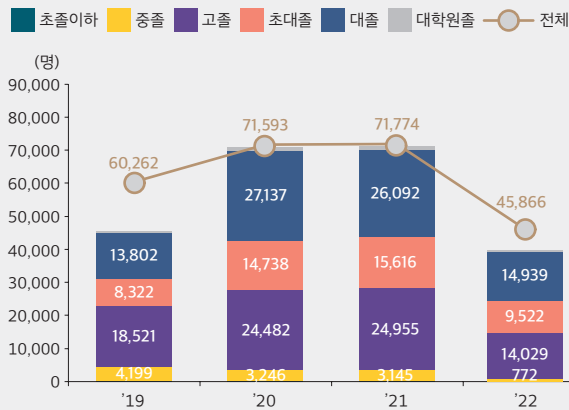
- + '22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에서 20대의 비중은 62.9%로 가장 많다.
- + '22년 내일배움카드제는 훈련 실시인원은(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다.

훈련별 학력별 직업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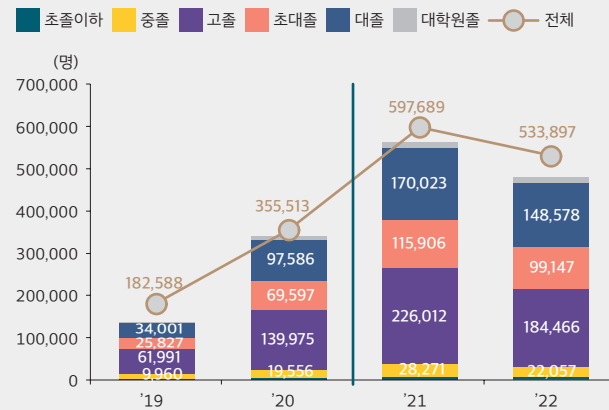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은 대졸자 비중이 가장 높고, 내일배움카드제는 고졸자 비중이 가장 높다.



학력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학력별 내일배움카드제훈련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19년은 학력미분류자료가 다수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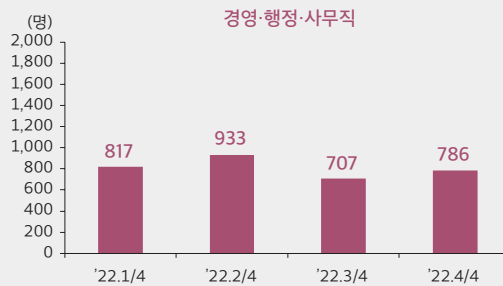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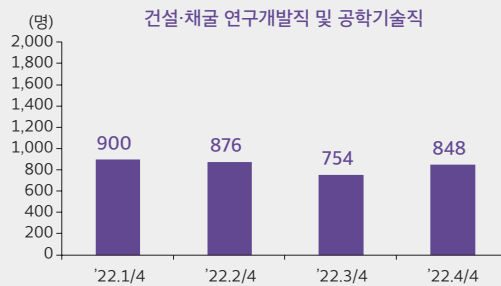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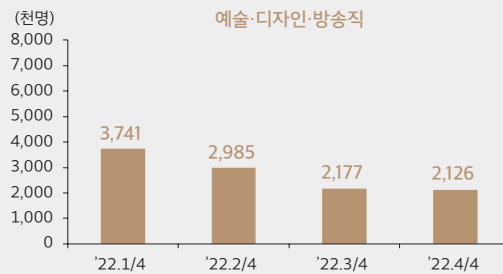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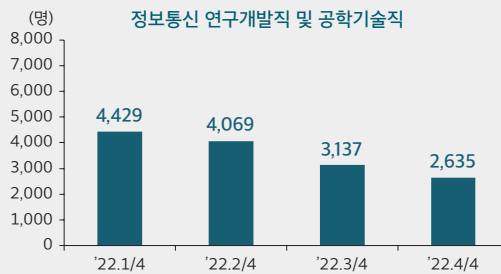
주)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20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함에 따라 '19년 이전 자료와는 시계열이 단절되므로 이용시 주의를 요함

+ '22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은 대졸, 고졸, 초대졸 순으로 많고,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은 고졸, 대졸, 초대졸 순이다.

훈련별 직종별 직업훈련

2022년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실시인원에는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

주요 직종별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실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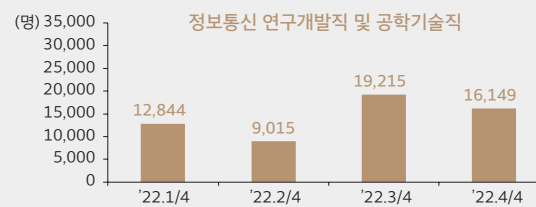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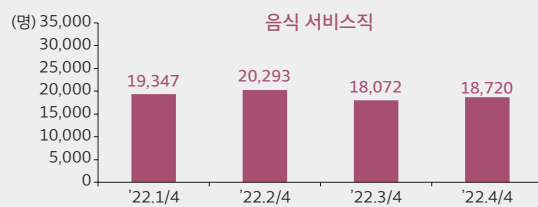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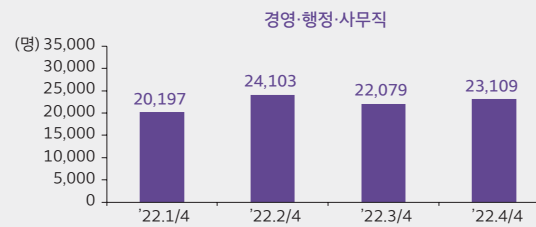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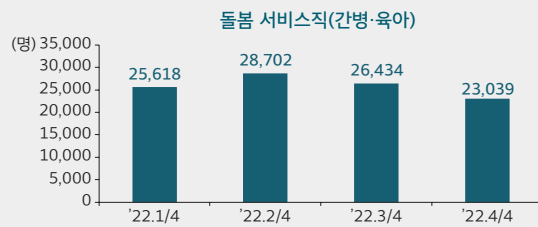
단위: 명, (%)

전 직종	'22.1/4	'22.2/4	'22.3/4	'22.4/4
경영·행정·사무직	13,938 (100.0)	12,865 (100.0)	9,335 (100.0)	9,728 (100.0)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817 (5.9)	933 (7.3)	707 (7.6)	786 (8.1)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0 (0.0)	0 (0.0)	0 (0.0)	5 (0.1)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4,429 (31.8)	4,069 (31.6)	3,137 (33.6)	2,635 (27.1)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900 (6.5)	876 (6.8)	754 (8.1)	848 (8.7)
예술·디자인·방송직	666 (4.8)	984 (7.6)	499 (5.3)	888 (9.1)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3,741 (26.8)	2,985 (23.2)	2,177 (23.3)	2,126 (21.9)
운전·운송직	14 (0.1)	25 (0.2)	23 (0.2)	40 (0.4)
건설·채굴직	0 (0.0)	0 (0.0)	0 (0.0)	0 (0.0)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511 (3.7)	436 (3.4)	342 (3.7)	427 (4.4)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1,308 (9.4)	689 (5.4)	424 (4.5)	606 (6.2)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287 (2.1)	381 (3.0)	323 (3.5)	337 (3.5)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779 (5.6)	932 (7.2)	535 (5.7)	672 (6.9)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 (0.6)	25 (0.2)	0 (0.0)	0 (0.0)
섬유·의복 생산직	6 (0.0)	45 (0.3)	27 (0.3)	0 (0.0)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3 (0.2)	13 (0.1)	12 (0.1)	5 (0.1)
농림어업직	143 (1.0)	202 (1.6)	180 (1.9)	119 (1.2)
	229 (1.6)	270 (2.1)	195 (2.1)	234 (2.4)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 전 직종대비 비중,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2022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실시인원에는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에 속한 사람들이 가장 많다.

주요 직종별 내일배움카드제 실시인원



단위: 명, (%)

	'22.1/4		'22.2/4		'22.3/4		'22.4/4	
전 직종	130,203	(100.0)	135,671	(100.0)	136,261	(100.0)	131,762	(100.0)
관리직(임원·부서장)	321	(0.2)	238	(0.2)	251	(0.2)	188	(0.1)
경영·행정·사무직	20,197	(15.5)	24,103	(17.8)	22,079	(16.2)	23,109	(17.5)
금융·보험직	253	(0.2)	196	(0.1)	128	(0.1)	154	(0.1)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278	(0.2)	239	(0.2)	222	(0.2)	100	(0.1)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2,844	(9.9)	9,015	(6.6)	19,215	(14.1)	16,149	(12.3)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84	(1.1)	1,613	(1.2)	1,527	(1.1)	1,600	(1.2)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2,161	(1.7)	1,817	(1.3)	2,157	(1.6)	2,298	(1.7)
경찰·소방·교도직	5	(0.0)	19	(0.0)	18	(0.0)	18	(0.0)
교육직	683	(0.5)	825	(0.6)	1,281	(0.9)	1,538	(1.2)
법률직	1,523	(1.2)	1,466	(1.1)	1,372	(1.0)	1,663	(1.3)
사회복지·종교직	2,152	(1.7)	2,016	(1.5)	1,517	(1.1)	1,620	(1.2)
보건·의료직	5,056	(3.9)	4,375	(3.2)	3,025	(2.2)	3,619	(2.7)
예술·디자인·방송직	6,629	(5.1)	8,493	(6.3)	9,100	(6.7)	8,268	(6.3)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4	(0.0)	65	(0.0)	47	(0.0)	45	(0.0)
미용·예식 서비스직	6,132	(4.7)	5,654	(4.2)	5,162	(3.8)	5,535	(4.2)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158	(0.1)	219	(0.2)	196	(0.1)	254	(0.2)
음식 서비스직	19,347	(14.9)	20,293	(15.0)	18,072	(13.3)	18,720	(14.2)
경호·경비직	65	(0.0)	85	(0.1)	74	(0.1)	60	(0.0)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25,618	(19.7)	28,702	(21.2)	26,434	(19.4)	23,039	(17.5)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869	(0.7)	894	(0.7)	779	(0.6)	790	(0.6)
영업·판매직	796	(0.6)	748	(0.6)	867	(0.6)	809	(0.6)
운전·운송직	2,478	(1.9)	2,699	(2.0)	2,595	(1.9)	2,807	(2.1)
건설·채굴직	3,576	(2.7)	3,950	(2.9)	3,355	(2.5)	3,418	(2.6)
기계·설치·정비·생산직	616	(0.5)	883	(0.7)	932	(0.7)	929	(0.7)
금속·재료·설치·정비·생산직	478	(0.4)	567	(0.4)	581	(0.4)	611	(0.5)
전기·전자·설치·정비·생산직	2,967	(2.3)	2,822	(2.1)	2,873	(2.1)	2,535	(1.9)
정보통신·설치·정비직	12	(0.0)	24	(0.0)	5	(0.0)	28	(0.0)
화학·환경·설치·정비·생산직	11	(0.0)	17	(0.0)	10	(0.0)	23	(0.0)
섬유·의복·생산직	687	(0.5)	770	(0.6)	784	(0.6)	796	(0.6)
식품가공·생산직	7,849	(6.0)	7,730	(5.7)	6,876	(5.0)	7,163	(5.4)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2,311	(1.8)	2,846	(2.1)	2,366	(1.7)	2,031	(1.5)
농림어업직	367	(0.3)	324	(0.2)	401	(0.3)	212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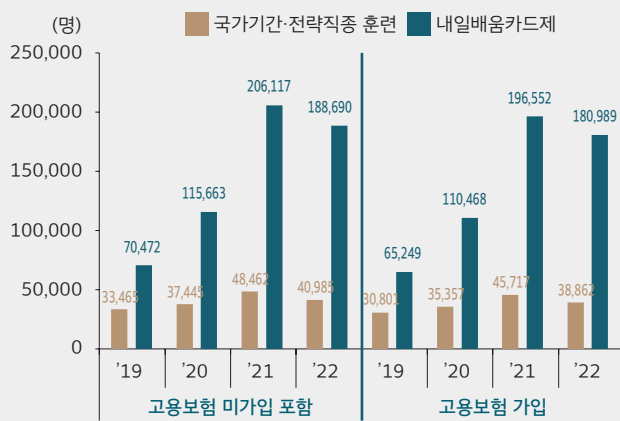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 전 직종대비 비중,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21년은 분류불능 인원이 일부 존재

2. 수료자 취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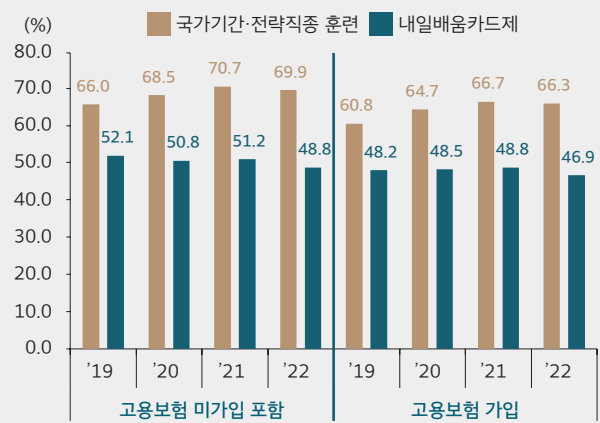
훈련별 수료자 취업(률)

훈련 후 전체 취업률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이 69.9%,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은 48.8%이다.

훈련별 수료후 취업인원



훈련별 취업률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국가기간 전략직종 훈련	전체	취업률	(66.0)	(68.5)	(70.7)	(69.9)
		수료후 취업인원	33,465	37,445	48,462	40,985
		수료인원	50,687	54,656	68,516	58,619
	고용보험 가입자	취업률	(60.8)	(64.7)	(66.7)	(66.3)
		수료후 취업인원	30,801	35,357	45,717	38,862
		수료인원	50,687	54,656	68,516	58,619
내일배움 카드제	전체	취업률	(52.1)	(50.8)	(51.2)	(48.8)
		수료후 취업인원	70,472	115,663	206,117	188,690
		수료인원	135,340	227,826	402,361	386,284
	고용보험 가입자	취업률	(48.2)	(48.5)	(48.8)	(46.9)
		수료후 취업인원	65,249	110,468	196,552	180,989
		수료인원	135,340	227,826	402,361	386,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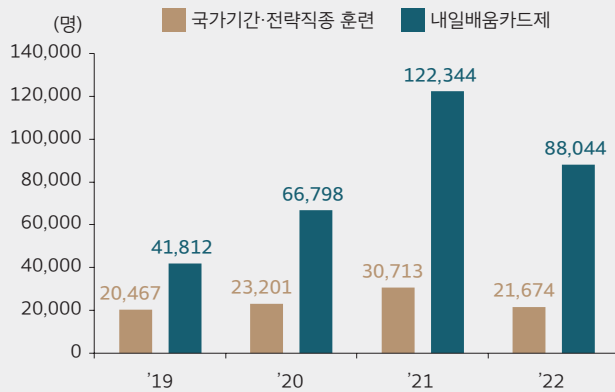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23.6월 마감 기준
 주) 취업률: (수료후 6개월 이내 취업인원/수료인원)*100

훈련별 취업자 고용유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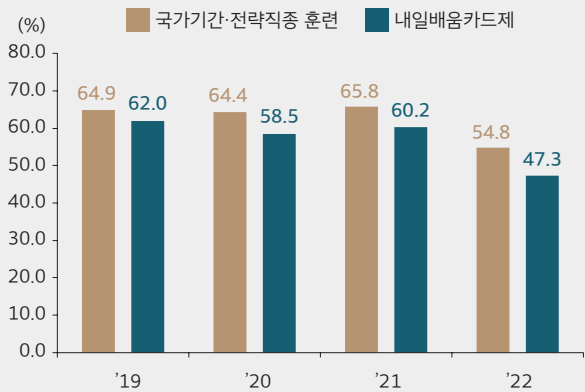
훈련 종료 및 취업되어 6개월 이상 고용된 인원들의 고용유지율은
2021년 훈련인원 기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은 65.8%, 내일배움카드제는
60.2% 수준이다.



훈련별 고용유지인원



훈련별 고용유지율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 '23.6월 마감 기준
주) 고용유지율: 취업자 중 6개월 이상 동일사업장 근속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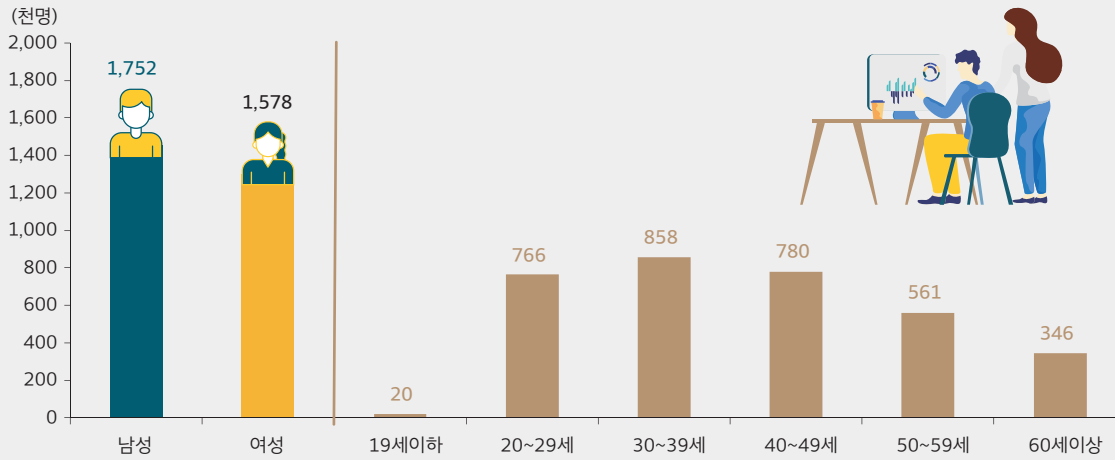
+ '21년 기준 훈련을 수료한 후 취업한 자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의 경우에는 65.8%, 내일배움카드제의 경우에는 60.2%로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의 고용유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 훈련*

재직자 훈련 참가자는 20~40대, 경영·행정·사무직 중심으로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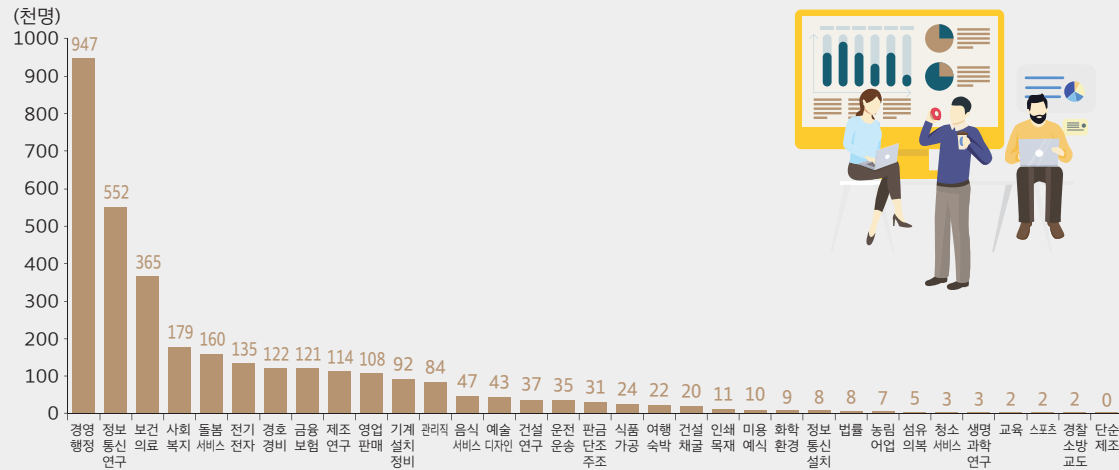
* 대상 훈련: 사업주지원금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역산업맞춤형, 일학습병행제, 도제학교, IPP(4년제 대학단계 일학습병행제), 유니테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재직자 훈련 성·연령별 실시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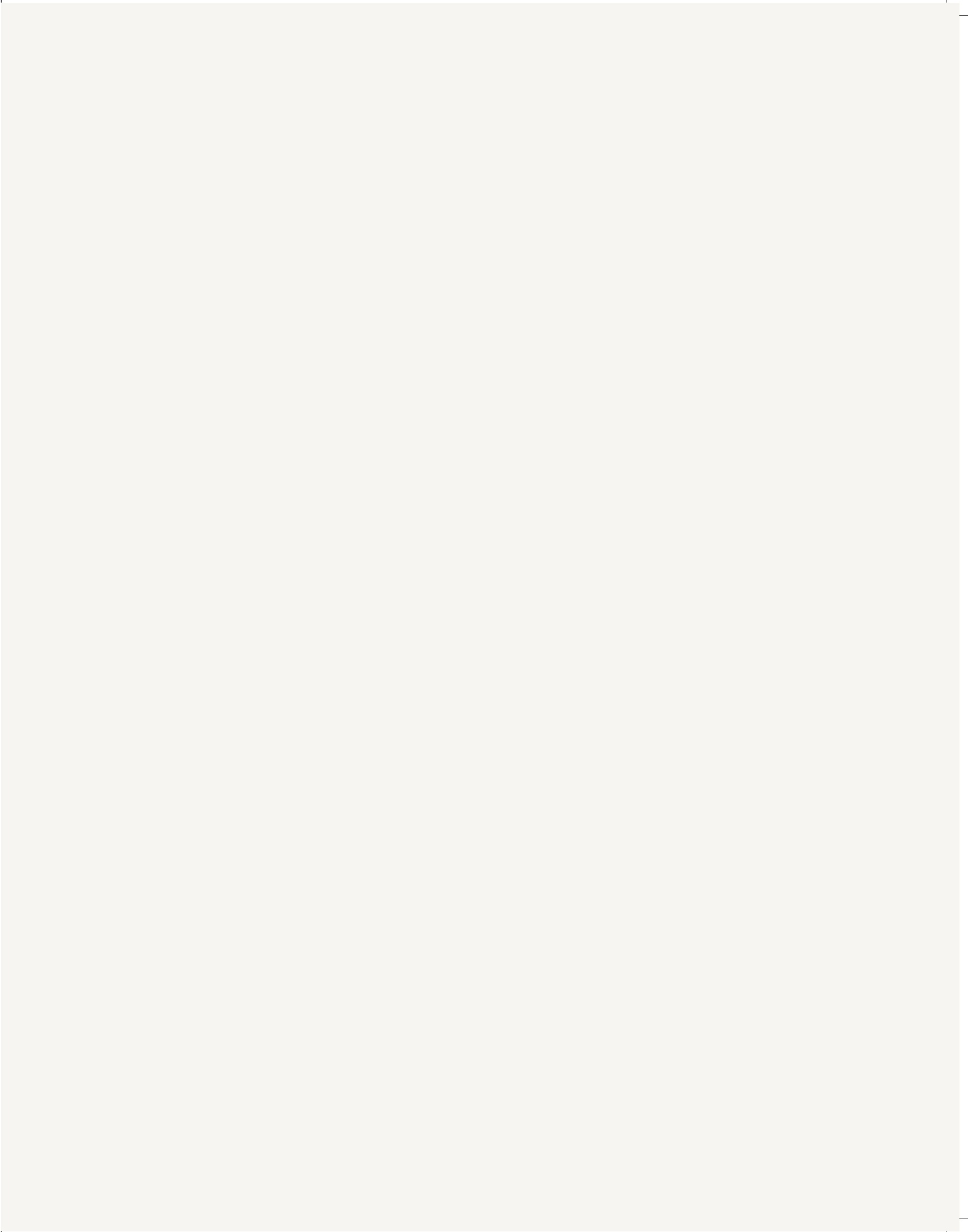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22년)

재직자 훈련 근무 직종별 실시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HRDnet('22년)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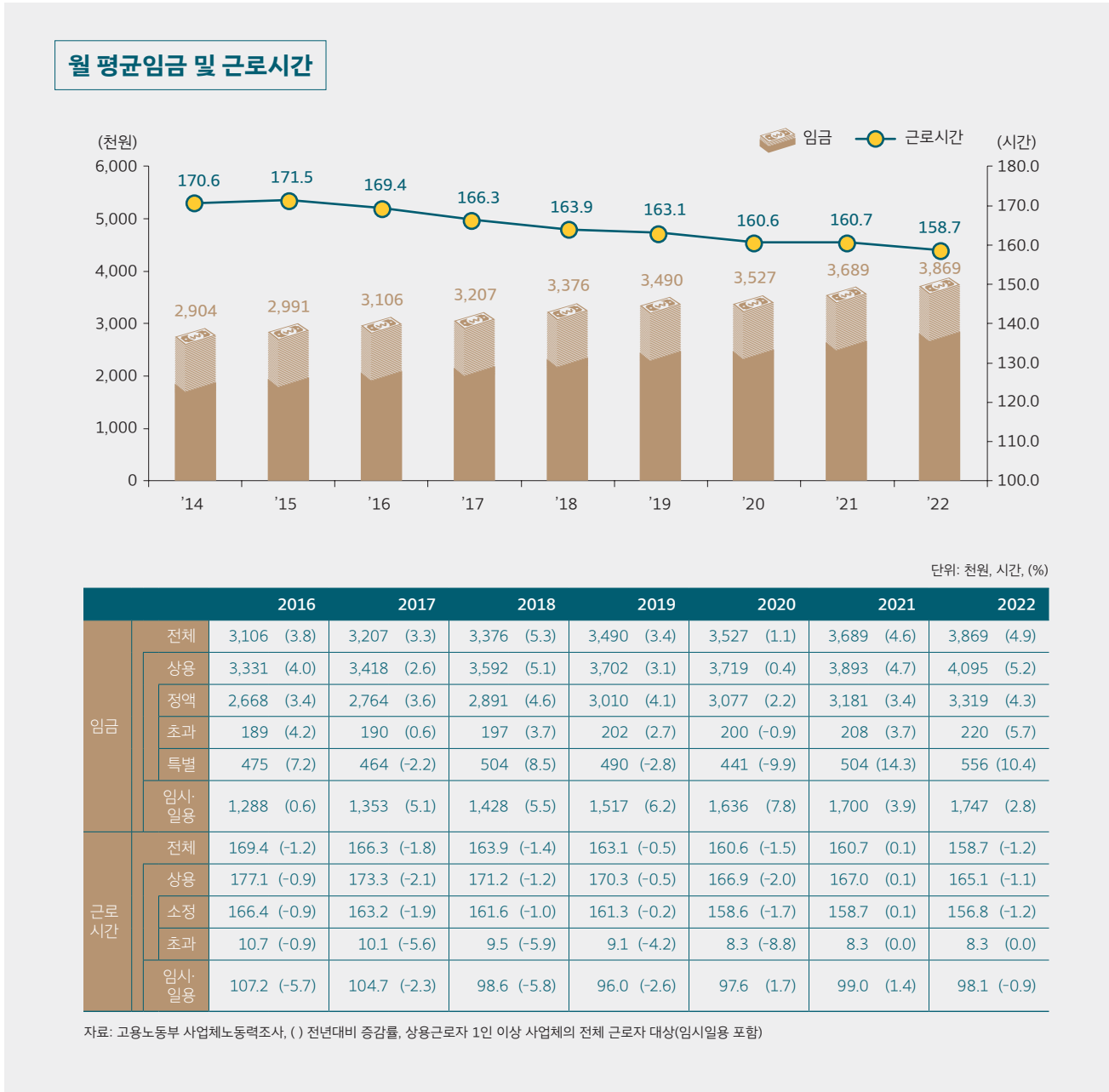
www.moel.go.kr

06 근로조건

1.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명목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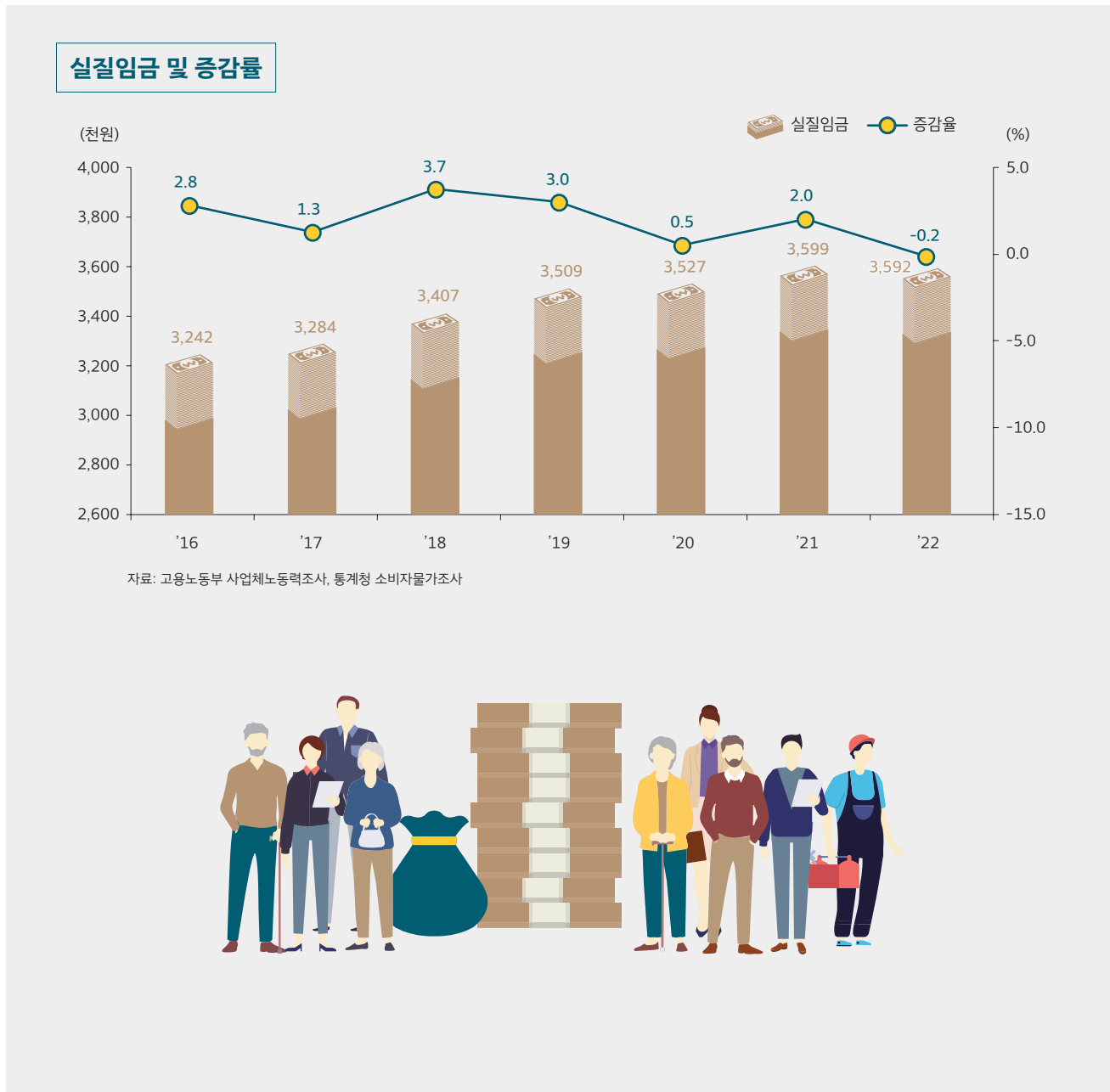
2022년 상용 1인 이상 사업장의 월 평균임금은 3,869천원이고 월평균 근로시간은 158.7시간이다. 연도별로 임금은 증가하고 근로시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 사업체노동력조사를 이용한 분석(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단위의 임금 및 근로시간 총량을 조사하며,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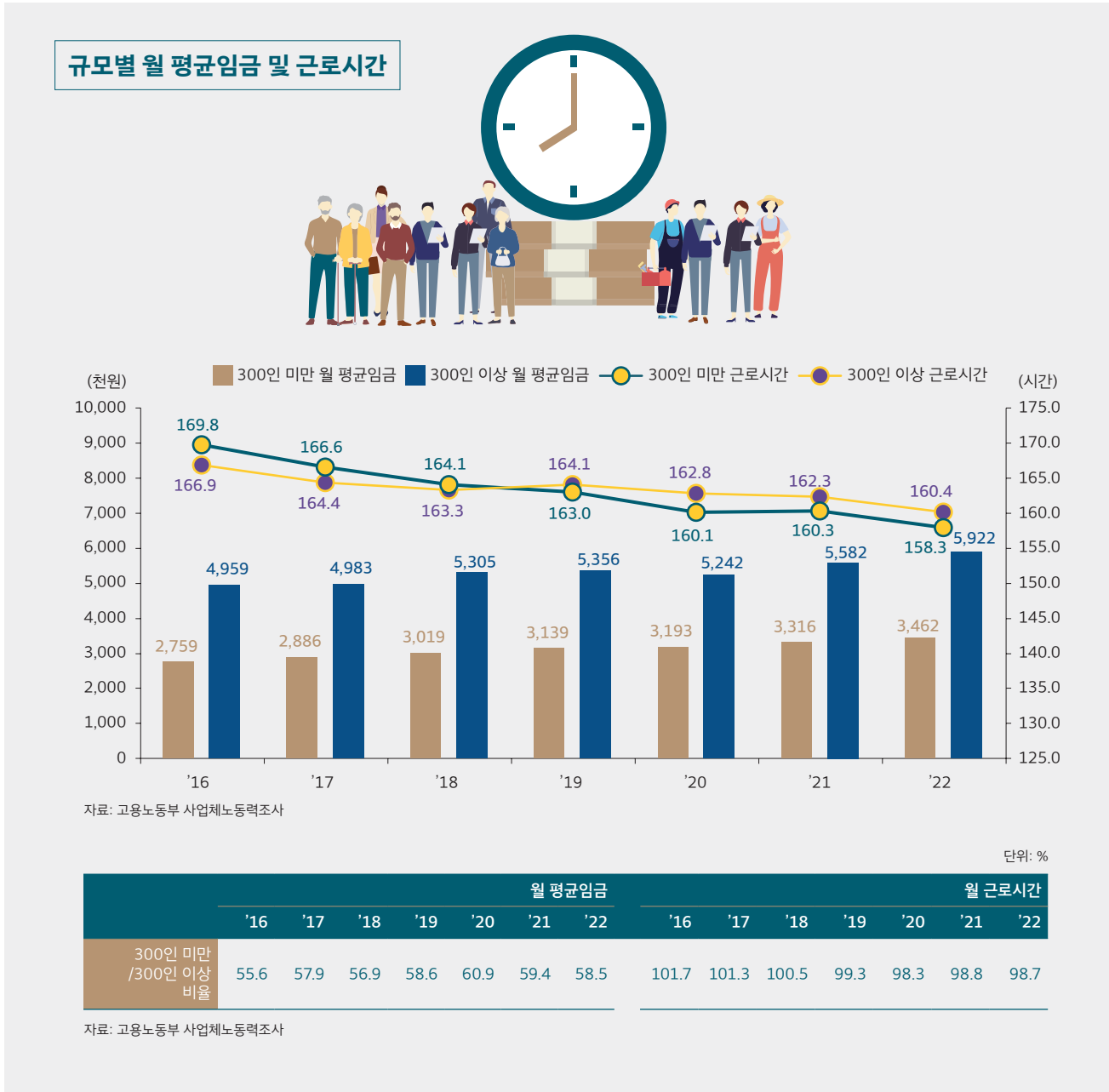
실질임금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월평균 실질임금은 3,592천원으로 전년보다 0.2% 하락했다. 물가를 고려해도 임금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었으나 2022년 실질임금은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임금수준은 58.5%로 규모별 임금 차이가 여전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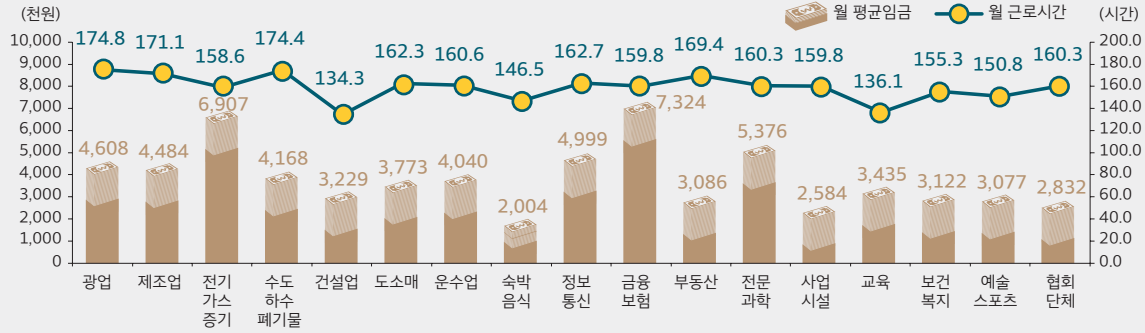
+ '22년 1~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총액은 3,462천원이고, 300인 이상은 5,922천원으로 300인 이상 대비 300인 미만의 임금 수준은 58.5%이다.

+ 1~30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근로자 1인당 월 근로시간은 158.3시간이고, 300인 이상은 160.4시간으로 300인 이상의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근로자 1인당 월 평균임금 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금융보험업이고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업이다. 근로시간은 광업이 가장 길다.

업종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천원, 시간, (%)

산업	월 평균임금				월 근로시간			
	'19	'20	'21	'22	'19	'20	'21	'22
전 산업	3,490 (3.4)	3,527 (4.6)	3,689 (4.6)	3,869 (4.9)	163.1 (-0.5)	160.6 (0.1)	160.7 (-1.2)	158.7 (-1.2)
광업	3,977 (3.7)	4,325 (2.1)	4,415 (4.4)	4,608 (4.4)	175.7 (-0.5)	181.2 (-0.7)	179.9 (-0.7)	174.8 (-2.8)
제조업	4,017 (2.2)	3,990 (6.2)	4,239 (6.2)	4,484 (5.8)	175.9 (-0.7)	172.7 (0.5)	173.5 (-1.4)	171.1 (-1.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502 (1.0)	6,733 (0.3)	6,753 (2.3)	6,907 (2.3)	160.4 (-1.0)	163.7 (-1.3)	161.6 (-1.9)	158.6 (-1.9)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506 (6.6)	3,888 (5.3)	4,094 (1.8)	4,168 (1.8)	178.6 (0.4)	176.5 (0.2)	176.9 (0.2)	174.4 (-1.4)
건설업	2,951 (6.0)	3,032 (2.4)	3,106 (4.0)	3,229 (4.0)	136.3 (-1.6)	136.9 (-0.7)	135.9 (-1.2)	134.3 (-1.2)
도매 및 소매업	3,372 (4.9)	3,423 (3.7)	3,551 (6.3)	3,773 (6.3)	165.5 (0.2)	163.8 (0.0)	163.8 (0.0)	162.3 (-0.9)
운수 및 창고업	3,476 (3.5)	3,530 (7.5)	3,795 (6.5)	4,040 (6.5)	164.3 (-1.3)	159.0 (0.8)	160.2 (0.8)	160.6 (0.2)
숙박 및 음식점업	1,875 (6.7)	1,879 (1.4)	1,905 (5.2)	2,004 (5.2)	158.6 (-0.7)	149.7 (-0.9)	148.4 (-1.3)	146.5 (-1.3)
정보통신업	4,463 (4.3)	4,613 (4.0)	4,796 (4.2)	4,999 (4.2)	163.9 (1.4)	163.8 (0.2)	164.1 (0.2)	162.7 (-0.9)
금융 및 보험업	6,236 (3.5)	6,526 (6.7)	6,963 (6.7)	7,324 (5.2)	161.5 (0.4)	162.1 (-0.1)	161.9 (-1.3)	159.8 (-1.3)
부동산업	2,755 (6.0)	2,848 (3.7)	2,954 (4.5)	3,086 (4.5)	176.4 (-1.4)	173.2 (-0.8)	171.8 (-1.4)	169.4 (-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901 (3.0)	4,871 (4.8)	5,106 (4.8)	5,376 (5.3)	161.4 (0.6)	161.7 (-0.1)	161.6 (-0.8)	160.3 (-0.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332 (5.9)	2,411 (3.4)	2,492 (3.7)	2,584 (3.7)	162.7 (-0.3)	161.7 (0.2)	162.1 (-1.4)	159.8 (-1.4)
교육서비스업	3,474 (2.3)	3,366 (-0.3)	3,355 (2.4)	3,435 (2.4)	142.1 (-0.1)	136.6 (0.4)	137.2 (-0.8)	136.1 (-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960 (5.8)	2,942 (2.5)	3,014 (3.6)	3,122 (3.6)	162.2 (-0.2)	158.6 (-0.2)	158.3 (-1.9)	155.3 (-1.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819 (5.0)	2,873 (4.2)	2,994 (2.8)	3,077 (2.8)	156.1 (-1.0)	149.7 (2.0)	152.7 (-1.2)	150.8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517 (4.8)	2,563 (5.4)	2,700 (4.9)	2,832 (4.9)	159.9 (-1.3)	160.3 (1.3)	162.4 (-1.3)	160.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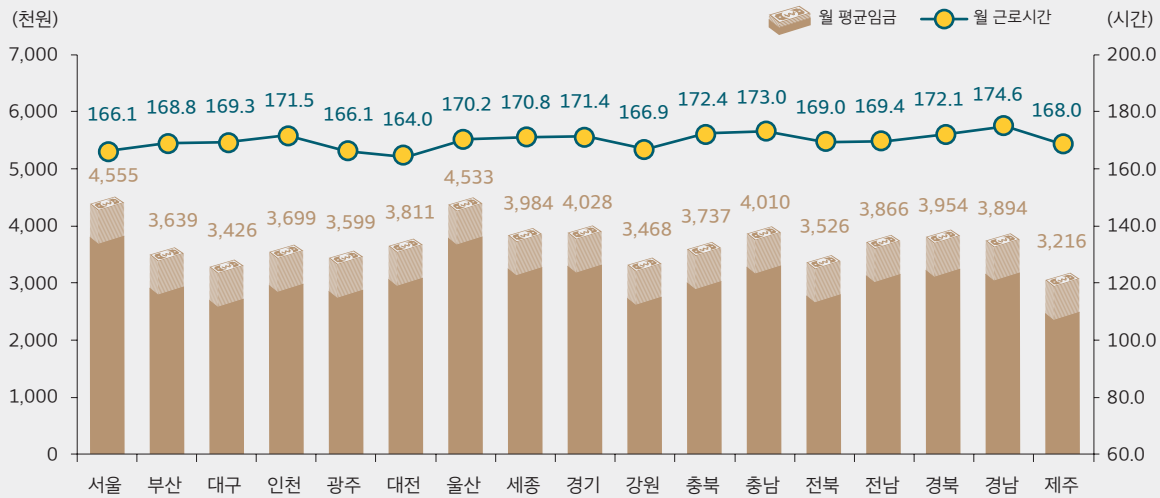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주)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하여야 함

지역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4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서울, 울산 순으로 높고, 월 평균근로시간은 경남, 충남 순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단위: 천원, 시간, (%)

시도	월 평균임금				월 근로시간			
	'21.4월	'22.4월	증감률	'21.4월	'22.4월	증감률	증감률	
전국	3,968	4,070	(4.7)	177.3	169.8	(8.5)	(-4.2)	
서울	4,452	4,555	(6.5)	172.9	166.1	(10.1)	(-3.9)	
부산	3,563	3,639	(5.4)	175.5	168.8	(9.6)	(-3.8)	
대구	3,313	3,426	(5.2)	177.3	169.3	(11.2)	(-4.5)	
인천	3,612	3,699	(4.9)	178.7	171.5	(9.0)	(-4.0)	
광주	3,458	3,599	(5.7)	173.2	166.1	(8.0)	(-4.1)	
대전	3,642	3,811	(3.3)	173.2	164.0	(8.8)	(-5.3)	
울산	4,331	4,533	(4.0)	179.6	170.2	(6.8)	(-5.2)	
세종	3,846	3,984	(2.4)	179.1	170.8	(8.2)	(-4.6)	
경기	3,938	4,028	(3.9)	179.3	171.4	(7.8)	(-4.4)	
강원	3,354	3,468	(3.6)	173.6	166.9	(8.4)	(-3.9)	
충북	3,566	3,737	(1.5)	179.4	172.4	(6.3)	(-3.9)	
충남	4,052	4,010	(8.1)	181.2	173.0	(7.8)	(-4.5)	
전북	3,372	3,526	(1.4)	178.1	169.0	(6.5)	(-5.1)	
전남	3,804	3,866	(3.9)	176.5	169.4	(6.5)	(-4.0)	
경북	3,883	3,954	(4.8)	178.9	172.1	(8.1)	(-3.8)	
경남	3,744	3,894	(5.8)	180.4	174.6	(7.1)	(-3.2)	
제주	3,073	3,216	(6.3)	172.8	168.0	(12.6)	(-2.8)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세종특별자치시의 임금 및 근로시간은 2020년도부터 발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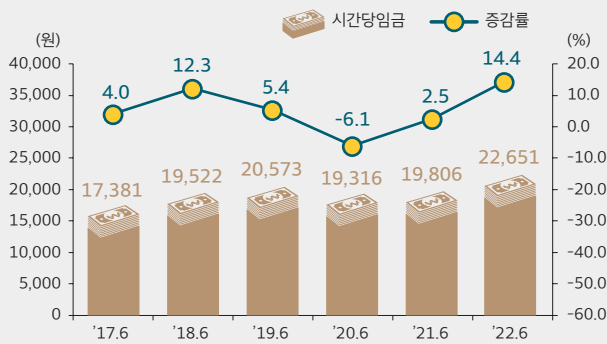
* 매월 시행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매년 4월 기준으로 연 1회 시·도 단위의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를 생산하는데, 이 통계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 또한 월 평균임금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되는데, 통상적으로 특별급여는 연초, 연말 또는 명절 전후에 크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월 단위로는 변동성이 큼. 그러나 이 통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년 4월의 임금(정액, 초과, 특별급여)을 조사한 것임

2.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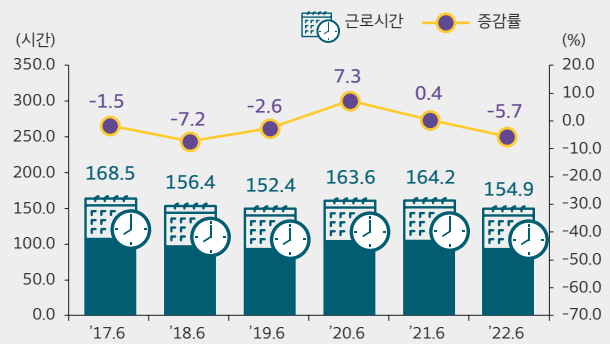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추이

2022년 6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은 22,651원이고, 월 근로시간은 154.9시간이다.

시간당 임금 및 증감률



월 근로시간 및 증감률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22년 6월은 근로일수가 전년에 비해 3일 증가하며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시간당임금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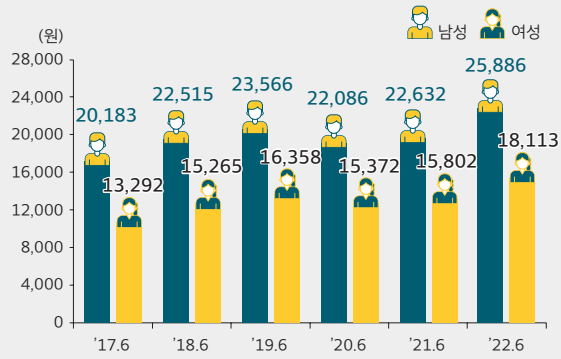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자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연 1회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며, 직종, 고용형태, 연령대 등 개인 특성별 분석이 가능)

*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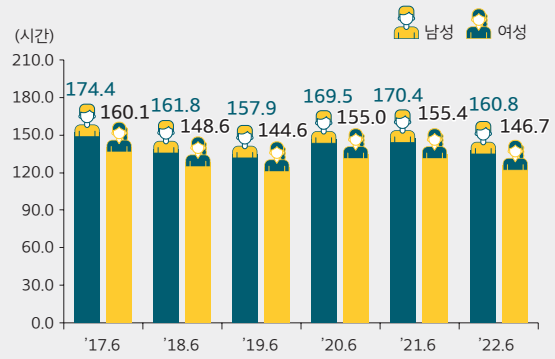
성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8,113원으로 남성의 70.0% 수준이다.
 여성의 근로시간은 남성의 91.2% 수준이다.

성별 시간당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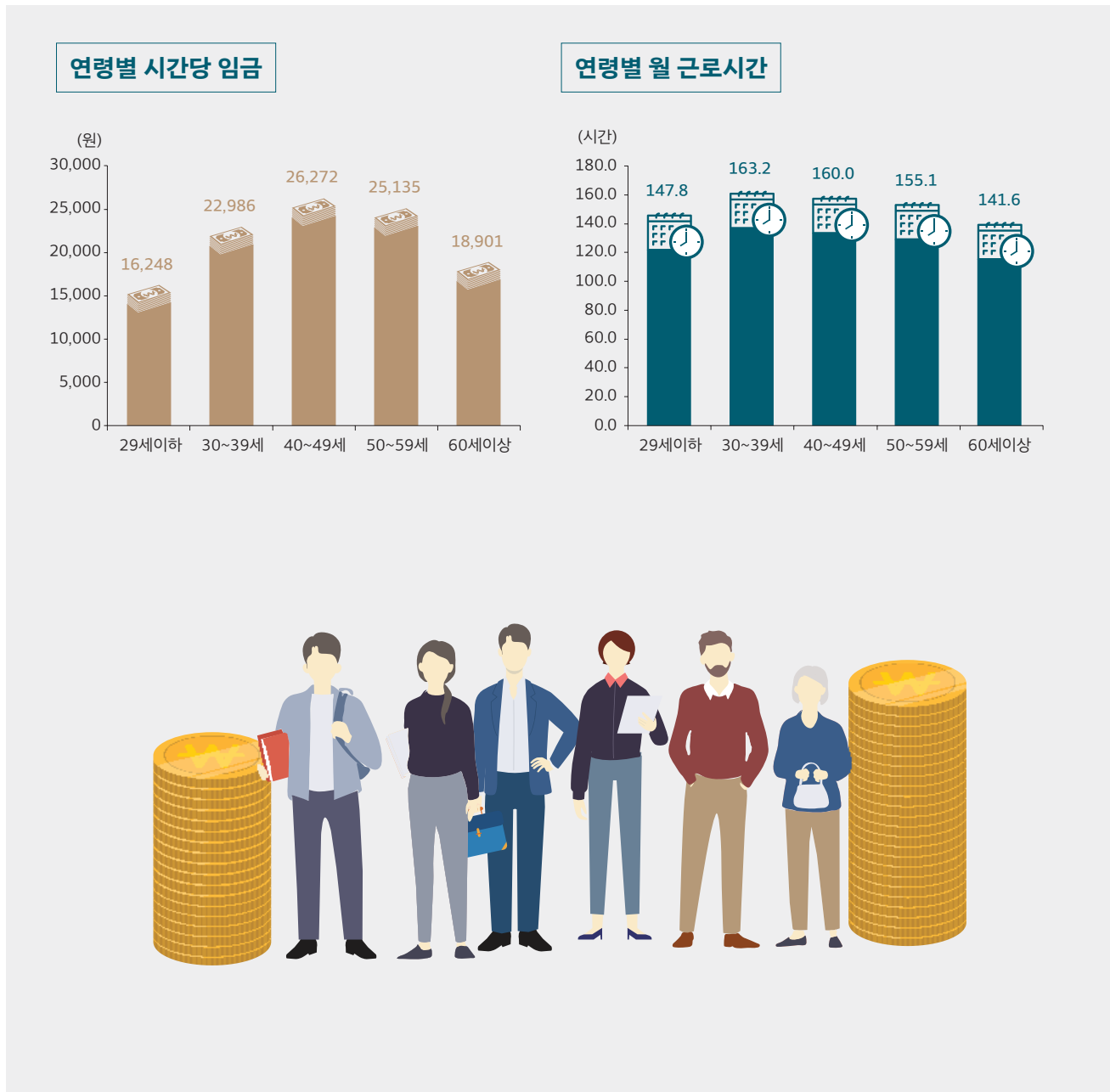
성별 월 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연령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40대를 정점으로 낮아진다.
근로시간은 30대가 가장 길다.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17.6		'18.6		'19.6		'20.6		'21.6		'22.6	
전체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29세이하	12,179	(4.3)	13,935	(14.4)	14,917	(7.0)	13,899	(-6.8)	14,230	(2.4)	16,248	(14.2)
30~39세	18,280	(3.0)	20,530	(12.3)	21,451	(4.5)	19,708	(-8.1)	20,185	(2.4)	22,986	(13.9)
40~49세	20,279	(3.6)	22,730	(12.1)	23,750	(4.5)	22,278	(-6.2)	22,699	(1.9)	26,272	(15.7)
50~59세	18,923	(6.0)	21,043	(11.2)	22,410	(6.5)	21,312	(-4.9)	21,952	(3.0)	25,135	(14.5)
60세이상	13,722	(6.6)	15,552	(13.3)	16,760	(7.8)	16,419	(-2.0)	17,073	(4.0)	18,901	(10.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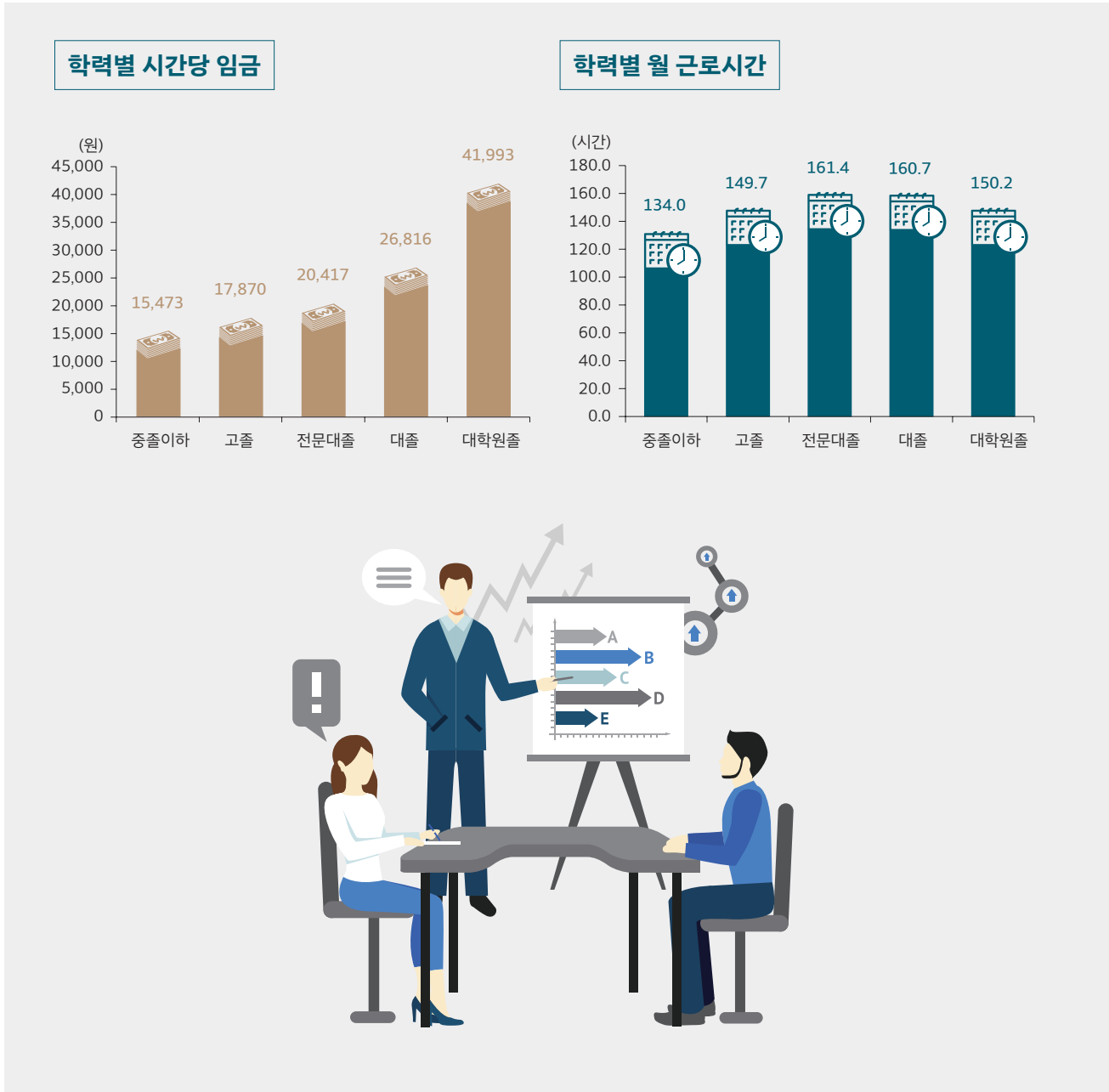
단위: 시간, (%)

월 근로시간	'17.6		'18.6		'19.6		'20.6		'21.6		'22.6	
전체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29세이하	159.5	(-2.2)	149.1	(-6.5)	145.3	(-2.5)	155.7	(7.2)	155.0	(-0.4)	147.8	(-4.6)
30~39세	175.8	(-1.1)	162.5	(-7.6)	158.9	(-2.2)	173.4	(9.1)	174.3	(0.5)	163.2	(-6.4)
40~49세	172.1	(-1.5)	159.2	(-7.5)	156.1	(-1.9)	168.8	(8.1)	169.9	(0.7)	160.0	(-5.8)
50~59세	168.2	(-1.3)	157.1	(-6.6)	152.8	(-2.7)	162.0	(6.0)	163.7	(1.0)	155.1	(-5.3)
60세이상	157.7	(-1.2)	146.1	(-7.4)	140.9	(-3.6)	148.4	(5.3)	149.1	(0.5)	141.6	(-5.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학력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은 고학력일수록 높아진다. 고졸임금은 대졸임금의 76.1% 수준이다. 한편, 근로시간은 전문대졸이 가장 길다.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17.6		'18.6		'19.6		'20.6		'21.6		'22.6	
전 학력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중졸이하	11,268	(6.4)	12,916	(14.6)	13,670	(5.8)	13,443	(-1.7)	13,637	(1.4)	15,473	(13.5)
고졸	13,715	(6.0)	15,369	(12.1)	16,368	(6.5)	15,720	(-4.0)	16,010	(1.8)	17,870	(11.6)
전문대졸	15,795	(2.8)	17,959	(13.7)	18,988	(5.7)	17,511	(-7.8)	18,009	(2.8)	20,417	(13.4)
대졸	21,453	(1.5)	23,958	(11.7)	24,974	(4.2)	22,900	(-8.3)	23,293	(1.7)	26,816	(15.1)
대학원졸	34,800	(5.6)	37,397	(7.5)	38,313	(2.4)	36,268	(-5.3)	37,240	(2.7)	41,993	(12.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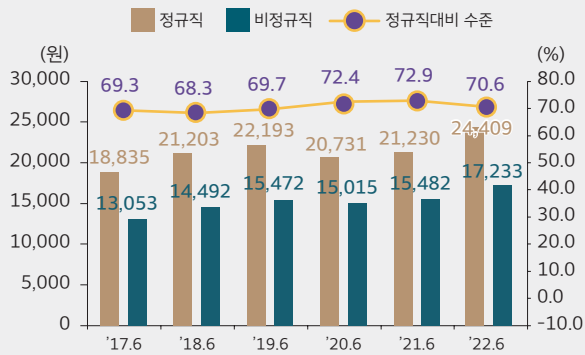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17.6		'18.6		'19.6		'20.6		'21.6		'22.6	
전 학력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중졸이하	156.7	(0.3)	143.6	(-8.4)	141.0	(-1.8)	139.7	(-0.9)	142.4	(1.9)	134.0	(-5.9)
고졸	166.9	(-2.2)	155.4	(-6.9)	149.6	(-3.7)	155.6	(4.0)	156.4	(0.5)	149.7	(-4.3)
전문대졸	175.0	(-1.5)	162.5	(-7.1)	158.5	(-2.5)	171.8	(8.4)	171.3	(-0.3)	161.4	(-5.8)
대졸	170.9	(-0.9)	157.6	(-7.8)	155.3	(-1.5)	172.1	(10.8)	172.6	(0.3)	160.7	(-6.9)
대학원졸	159.2	(-1.7)	148.1	(-7.0)	147.6	(-0.3)	165.3	(12.0)	163.1	(-1.3)	150.2	(-7.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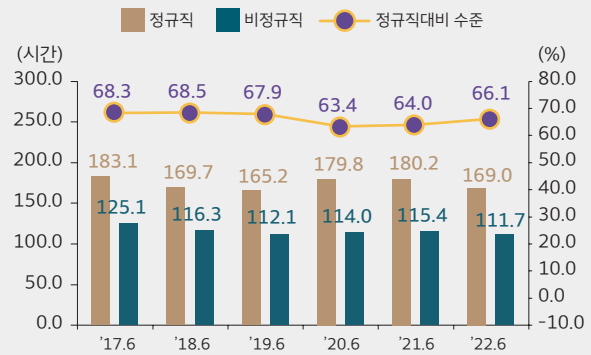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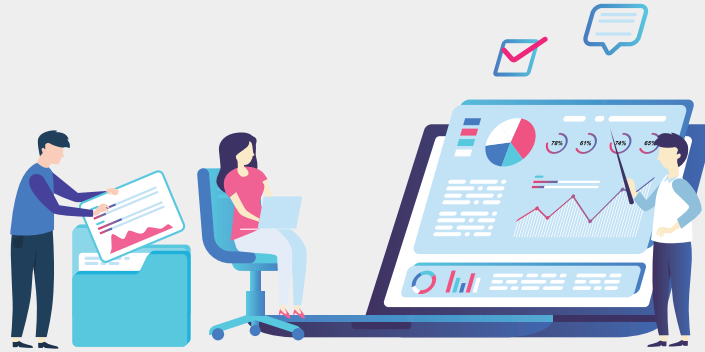
2022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7,233원으로, 정규직의 70.6% 수준이다. 추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차이가 감소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17.6	'18.6	'19.6	'20.6	'21.6	'22.6
전체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정규직	18,835 (3.4)	21,203 (12.6)	22,193 (4.7)	20,731 (-6.6)	21,230 (2.4)	24,409 (15.0)
비정규직	13,053 (8.1)	14,492 (11.0)	15,472 (6.8)	15,015 (-3.0)	15,482 (3.1)	17,233 (11.3)
채택/가내 근로자	11,009 (4.7)	12,694 (15.3)	14,288 (12.6)	13,744 (-3.8)	12,945 (-5.8)	13,762 (6.3)
파견/용역 근로자	10,708 (12.6)	12,021 (12.3)	12,809 (6.6)	12,338 (-3.7)	12,421 (0.7)	13,558 (9.2)
일일 근로자	15,804 (6.0)	17,180 (8.7)	18,297 (6.5)	18,499 (1.1)	19,283 (4.2)	21,416 (11.1)
단시간 근로자	12,242 (8.6)	13,402 (9.5)	14,423 (7.6)	13,594 (-5.7)	14,220 (4.6)	15,515 (9.1)
기간제 근로자	12,878 (7.1)	14,680 (14.0)	15,501 (5.6)	14,719 (-5.0)	15,069 (2.4)	17,517 (16.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월 근로시간	'17.6	'18.6	'19.6	'20.6	'21.6	'22.6
전체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정규직	183.1 (-0.9)	169.7 (-7.3)	165.2 (-2.7)	179.8 (8.8)	180.2 (0.2)	169.0 (-6.2)
비정규직	125.1 (-3.2)	116.3 (-7.0)	112.1 (-3.6)	114.0 (1.7)	115.4 (1.2)	111.7 (-3.2)
채택/가내 근로자	124.8 (8.2)	123.2 (-1.3)	112.5 (-8.7)	116.7 (3.7)	117.2 (0.4)	113.0 (-3.6)
파견/용역 근로자	181.8 (-2.0)	165.4 (-9.0)	163.7 (-1.0)	173.5 (6.0)	173.3 (-0.1)	167.1 (-3.6)
일일 근로자	93.9 (-3.3)	90.8 (-3.3)	85.0 (-6.4)	79.6 (-6.4)	80.2 (0.8)	79.9 (-0.4)
단시간 근로자	82.1 (-0.6)	79.2 (-3.5)	76.0 (-4.0)	79.4 (4.5)	78.6 (-1.0)	76.1 (-3.2)
기간제 근로자	182.6 (-0.7)	170.3 (-6.7)	160.6 (-5.7)	172.7 (7.5)	175.7 (1.7)	167.1 (-4.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17.6	'18.6	'19.6	'20.6	'21.6	'22.6
전 규모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19,806 (2.5)
300인 미만	15,538 (4.5)	17,540 (12.9)	18,554 (5.8)	17,488 (-5.7)	18,024 (3.1)	18,024 (3.1)
5인 미만	11,736 (7.0)	13,369 (13.9)	14,319 (7.1)	13,851 (-3.3)	14,331 (3.5)	14,331 (3.5)
5~29인	15,956 (5.1)	18,131 (13.6)	19,281 (6.3)	18,282 (-5.2)	18,776 (2.7)	18,776 (2.7)
30~299인	18,507 (4.7)	20,744 (12.1)	21,637 (4.3)	19,951 (-7.8)	20,626 (3.4)	20,626 (3.4)
300인 이상	28,970 (0.8)	31,421 (8.5)	33,033 (5.1)	31,081 (-5.9)	31,290 (0.7)	31,290 (0.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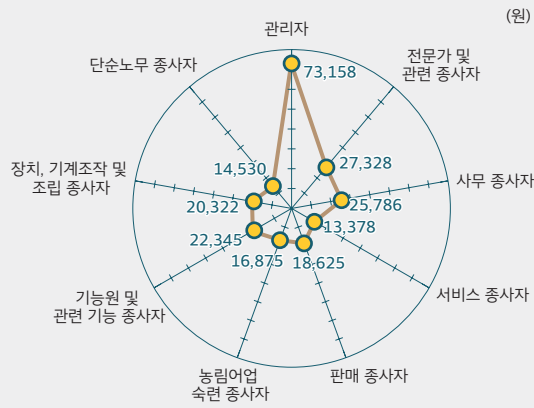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17.6	'18.6	'19.6	'20.6	'21.6	'22.6
전 규모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300인 미만	167.4 (-1.6)	155.3 (-7.2)	150.8 (-2.9)	161.5 (7.1)	162.1 (0.4)	153.0 (-5.6)
5인 미만	151.0 (-3.9)	140.4 (-7.0)	136.1 (-3.1)	143.2 (5.2)	143.6 (0.3)	136.2 (-5.2)
5~29인	169.3 (-0.3)	156.7 (-7.4)	152.0 (-3.0)	165.1 (8.6)	165.0 (-0.1)	153.6 (-6.9)
30~299인	180.2 (-0.3)	167.6 (-7.0)	163.0 (-2.7)	174.2 (6.9)	176.1 (1.1)	164.9 (-6.4)
300인 이상	175.6 (-1.5)	162.7 (-7.3)	162.4 (-0.2)	176.9 (8.9)	177.5 (0.3)	166.4 (-6.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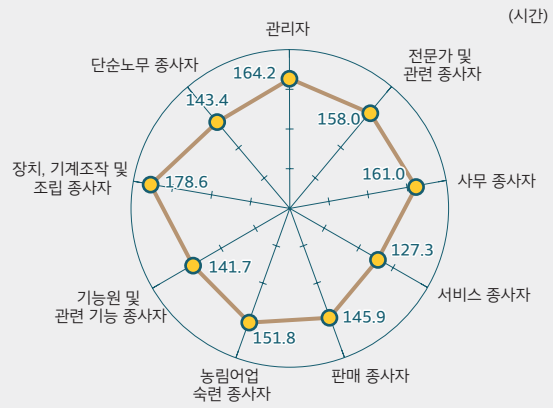
직종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6월 직종별 시간당 임금은 관리자가 가장 높고
근로시간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가장 길다.

직종별 시간당 임금



직종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17.6	'18.6	'19.6	'20.6	'21.6	'22.6
전 직종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관리자		48,393 (0.5)	55,651 (15.0)	62,734 (12.7)	59,024 (-)	62,043 (5.1)	73,158 (17.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812 (4.6)	24,088 (10.4)	25,128 (4.3)	23,446 (-)	23,898 (1.9)	27,328 (14.4)
사무 종사자		19,774 (2.4)	22,683 (14.7)	23,824 (5.0)	21,777 (-)	22,441 (3.0)	25,786 (14.9)
서비스 종사자		9,802 (6.6)	11,043 (12.7)	12,011 (8.8)	11,837 (-)	12,295 (3.9)	13,378 (8.8)
판매 종사자		13,734 (1.4)	15,651 (14.0)	16,813 (7.4)	16,131 (-)	16,398 (1.7)	18,625 (13.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3,098 (0.4)	14,408 (10.0)	16,212 (12.5)	15,447 (-)	15,962 (3.3)	16,875 (5.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7,109 (5.3)	18,960 (10.8)	19,849 (4.7)	19,495 (-)	20,226 (3.7)	22,345 (10.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5,775 (7.6)	17,505 (11.0)	18,639 (6.5)	17,904 (-)	18,074 (0.9)	20,322 (12.4)
단순노무 종사자		11,166 (9.3)	12,603 (12.9)	13,259 (5.2)	13,131 (-)	13,074 (-0.4)	14,530 (11.1)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단위: 시간, (%)

	월 근로시간	'17.6	'18.6	'19.6	'20.6	'21.6	'22.6
전 직종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관리자		174.4 (-0.5)	161.7 (-7.3)	159.2 (-1.5)	176.9 (-)	178.1 (0.7)	164.2 (-7.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67.3 (-0.4)	154.7 (-7.5)	152.8 (-1.2)	170.3 (-)	169.4 (-0.5)	158.0 (-6.7)
사무 종사자		172.9 (-1.0)	159.5 (-7.8)	156.8 (-1.7)	173.4 (-)	173.5 (0.1)	161.0 (-7.2)
서비스 종사자		142.4 (-3.8)	136.2 (-4.4)	132.5 (-2.7)	132.6 (-)	133.1 (0.4)	127.3 (-4.4)
판매 종사자		161.9 (-2.5)	151.1 (-6.7)	147.3 (-2.5)	154.8 (-)	152.5 (-1.5)	145.9 (-4.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50.8 (-7.0)	145.0 (-3.8)	137.2 (-5.4)	153.8 (-)	145.5 (-5.4)	151.8 (4.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63.2 (-0.9)	152.5 (-6.6)	146.5 (-3.9)	151.3 (-)	151.1 (-0.1)	141.7 (-6.2)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93.9 (-1.1)	180.8 (-6.8)	173.7 (-3.9)	183.5 (-)	187.5 (2.2)	178.6 (-4.7)
단순노무 종사자		158.8 (-2.6)	144.9 (-8.8)	139.3 (-3.9)	144.6 (-)	147.6 (2.1)	143.4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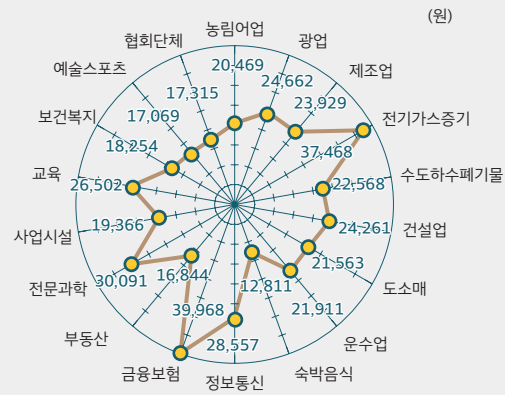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는 증감률 없음.

주) 2020년 자료부터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6차 직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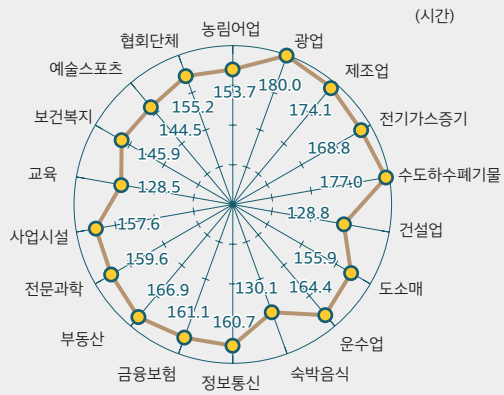
산업별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6월 산업별 시간당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가장 높고
근로시간은 광업이 가장 길다.

산업별 시간당 임금



산업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

시간당 임금	'17.6	'18.6	'19.6	'20.6	'21.6	'22.6
전 산업	17,381 (4.0)	19,522 (12.3)	20,573 (5.4)	19,316 (-6.1)	19,806 (2.5)	22,651 (14.4)
농림어업	16,133 (-4.1)	19,097 (18.4)	19,784 (3.6)	18,321 (-)	19,128 (4.4)	20,469 (7.0)
광업	20,600 (2.7)	22,815 (10.8)	23,365 (2.4)	21,561 (-)	22,027 (2.2)	24,662 (12.0)
제조업	18,584 (1.6)	20,966 (12.8)	22,011 (5.0)	20,358 (-)	20,796 (2.2)	23,929 (15.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1,382 (-2.1)	34,894 (11.2)	35,159 (0.8)	34,879 (-)	35,421 (1.6)	37,468 (5.8)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7,427 (8.1)	19,989 (14.7)	21,507 (7.6)	19,800 (-)	20,643 (4.3)	22,568 (9.3)
건설업	18,836 (5.8)	20,677 (9.8)	21,404 (3.5)	20,944 (-)	21,773 (4.0)	24,261 (11.4)
도매 및 소매업	15,137 (4.1)	17,207 (13.7)	18,635 (8.3)	17,903 (-)	18,322 (2.3)	21,563 (17.7)
운수 및 창고업	17,258 (6.0)	18,829 (9.1)	19,867 (5.5)	18,908 (-)	20,019 (5.9)	21,911 (9.5)
숙박 및 음식점업	9,176 (5.6)	10,399 (13.3)	11,306 (8.7)	11,435 (-)	11,746 (2.7)	12,811 (9.1)
정보통신업	22,579 (4.4)	25,819 (14.3)	27,219 (5.4)	24,735 (-)	24,681 (-0.2)	28,557 (15.7)
금융 및 보험업	30,600 (-0.1)	35,140 (14.8)	36,699 (4.4)	33,370 (-)	34,395 (3.1)	39,968 (16.2)
부동산업	13,205 (9.3)	15,402 (16.6)	15,850 (2.9)	15,199 (-)	15,265 (0.4)	16,844 (10.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4,357 (5.0)	27,591 (13.3)	28,683 (4.0)	26,078 (-)	25,981 (-0.4)	30,091 (15.8)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4,996 (4.5)	17,259 (15.1)	18,532 (7.4)	17,164 (-)	17,575 (2.4)	19,366 (10.2)
교육서비스업	24,057 (14.7)	25,220 (4.8)	26,447 (4.9)	23,505 (-)	24,335 (3.5)	26,502 (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356 (8.0)	16,168 (12.6)	17,251 (6.7)	16,036 (-)	16,211 (1.1)	18,254 (1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969 (7.8)	14,348 (10.6)	15,354 (7.0)	14,872 (-)	15,189 (2.1)	17,069 (1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808 (6.8)	14,429 (12.7)	15,545 (7.7)	15,062 (-)	15,472 (2.7)	17,315 (11.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는 증감률 없음.

주)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단위: 시간, (%)

월 근로시간	'17.6	'18.6	'19.6	'20.6	'21.6	'22.6
전 산업	168.5 (-1.5)	156.4 (-7.2)	152.4 (-2.6)	163.6 (7.3)	164.2 (0.4)	154.9 (-5.7)
농림어업	166.3 (0.6)	156.3 (-6.0)	151.1 (-3.3)	164.0 (-)	164.3 (0.2)	153.7 (-6.5)
광업	193.9 (1.8)	183.6 (-5.3)	182.1 (-0.8)	194.4 (-)	191.7 (-1.4)	180.0 (-6.1)
제조업	188.8 (-0.3)	175.2 (-7.2)	170.3 (-2.8)	182.0 (-)	185.3 (1.8)	174.1 (-6.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79.8 (-1.2)	167.5 (-6.8)	163.9 (-2.1)	178.7 (-)	177.8 (-0.5)	168.8 (-5.1)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184.6 (-1.0)	173.1 (-6.2)	167.8 (-3.1)	185.7 (-)	185.3 (-0.2)	177.0 (-4.5)
건설업	143.5 (-1.4)	133.1 (-7.2)	130.3 (-2.1)	134.1 (-)	135.2 (0.8)	128.8 (-4.7)
도매 및 소매업	170.1 (-2.7)	158.9 (-6.6)	154.0 (-3.1)	164.2 (-)	163.4 (-0.5)	155.9 (-4.6)
운수 및 창고업	178.2 (-1.8)	162.7 (-8.7)	158.1 (-2.8)	170.0 (-)	169.1 (-0.5)	164.4 (-2.8)
숙박 및 음식점업	144.2 (-5.6)	138.9 (-3.7)	134.3 (-3.3)	135.2 (-)	133.0 (-1.6)	130.1 (-2.2)
정보통신업	167.7 (0.2)	154.9 (-7.6)	153.6 (-0.8)	175.8 (-)	175.0 (-0.5)	160.7 (-8.2)
금융 및 보험업	169.6 (-0.5)	153.9 (-9.3)	152.2 (-1.1)	176.3 (-)	176.2 (-0.1)	161.1 (-8.6)
부동산업	183.1 (-2.8)	166.8 (-8.9)	162.9 (-2.3)	174.6 (-)	173.2 (-0.8)	166.9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68.5 (-1.5)	155.0 (-8.0)	154.3 (-0.5)	173.9 (-)	173.8 (-0.1)	159.6 (-8.2)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169.8 (0.2)	156.4 (-7.9)	152.5 (-2.5)	166.6 (-)	168.4 (1.1)	157.6 (-6.4)
교육서비스업	139.8 (-1.9)	128.1 (-8.4)	124.3 (-3.0)	139.9 (-)	138.7 (-0.9)	128.5 (-7.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6.2 (-0.7)	154.1 (-7.3)	150.0 (-2.7)	157.7 (-)	157.1 (-0.4)	145.9 (-7.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8.8 (-4.9)	139.4 (-6.3)	137.4 (-1.4)	148.3 (-)	149.3 (0.7)	144.5 (-3.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7.8 (-0.4)	148.0 (-6.2)	146.3 (-1.1)	161.6 (-)	162.8 (0.7)	155.2 (-4.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률, (-)는 증감률 없음.

주) 2020년 자료부터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임금 및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제9차 산업분류로 작성된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통계조사별 임금 및 근로시간 비교

우리나라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을 조사하는 대표통계는 총 3종

- ① 「사업체노동력조사」는 표본사업체의 전체근로자 총임금 및 총근로시간을 매월 조사하며, 산업별 규모별 분석이 가능
- ②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표본사업체의 근로자별 월임금 및 월근로시간을 연간 1회 조사하여, 개인 특성별 분석이 가능하며(성, 연령, 근속년수 등), 시간당 임금 산출이 가능
- ③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가구를 방문하여 각 근로자별 3개월 평균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을 연간 1회 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2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2.6)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2.8)
임금	월평균 3,869천원	월 3,526천원(시간당 22,651원)	월 2,880천원
근로시간	월평균 158.7시간	월 154.9시간	주당 평균 34.7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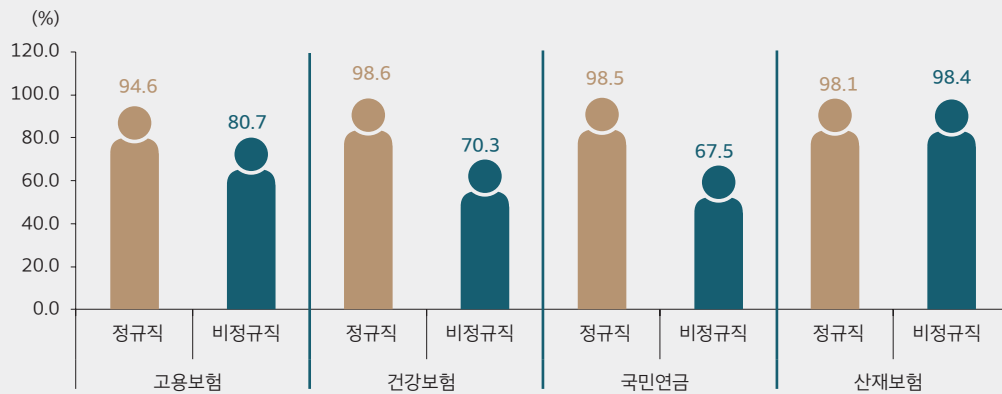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통계청

※ 우리나라의 임금 및 근로시간의 대표통계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이며, 개인 특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 분석을 위해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3. 사회보험 가입률 고용형태별 4대 보험 가입률 (고용형태별)

2022년 6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이 94% 이상이고 비정규직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정규직과 차이가 크지 않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70%대의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고용형태별 4대 보험 가입률



단위: %, (%p)

		'17.6	'18.6	'19.6	'20.6	'21.6	'22.6
고용보험	전체	89.1 (-1.8)	89.6 (0.6)	90.3 (0.8)	90.3 (0.0)	90.5 (0.2)	91.8 (1.3)
	정규직	94.7 (-1.0)	94.6 (-0.1)	94.4 (-0.2)	94.4 (0.0)	94.2 (-0.2)	94.6 (0.4)
	비정규직	68.7 (-4.7)	70.8 (3.1)	74.0 (4.5)	74.4 (0.4)	76.1 (1.7)	80.7 (4.6)
건강보험	전체	88.9 (-0.9)	89.4 (0.6)	90.9 (1.7)	91.1 (0.2)	91.5 (0.4)	92.5 (1.0)
	정규직	98.0 (-0.3)	98.1 (0.1)	98.2 (0.1)	98.5 (0.3)	98.5 (0.0)	98.6 (0.1)
	비정규직	58.1 (-2.2)	59.5 (2.4)	64.2 (7.9)	64.9 (0.7)	66.4 (1.5)	70.3 (3.9)
국민연금	전체	89.1 (-1.1)	89.7 (0.7)	91.1 (1.6)	91.3 (0.2)	91.7 (0.4)	93.0 (1.3)
	정규직	97.8 (-0.4)	97.9 (0.1)	98.0 (0.1)	98.3 (0.3)	98.3 (0.0)	98.5 (0.2)
	비정규직	54.9 (-3.2)	56.5 (2.9)	61.0 (8.0)	61.7 (0.7)	63.0 (1.3)	67.5 (4.5)
산재보험	전체	97.6 (-0.5)	97.4 (-0.2)	97.7 (0.3)	97.8 (0.1)	97.8 (0.0)	98.2 (0.4)
	정규직	97.8 (-0.5)	97.5 (-0.3)	97.8 (0.3)	97.9 (0.1)	97.8 (-0.1)	98.1 (0.3)
	비정규직	96.8 (-0.6)	96.7 (-0.1)	97.3 (0.6)	97.5 (0.2)	97.6 (0.1)	98.4 (0.8)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전년대비 증감

주) 가입률 = 가입근로자수 ÷ 가입대상 근로자수 × 100,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5세 이상,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통계조사별 사회보험 가입률 비교

단위: %

구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2.6월)	91.8	82.5	93.0	98.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2.8월)	77.0	78.5	70.0	-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사회보험별로 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모수(분모)에서 제외하고 산출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1)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5세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2)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3)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 미만, 60세 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 4)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미만 농림어업 제외

+ 「경찰 부가조사」에서는 사회보험별로 가입대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임금근로자를 모수(분모)로 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1)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
- 2)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만 집계 하였으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포함
- 3)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만 집계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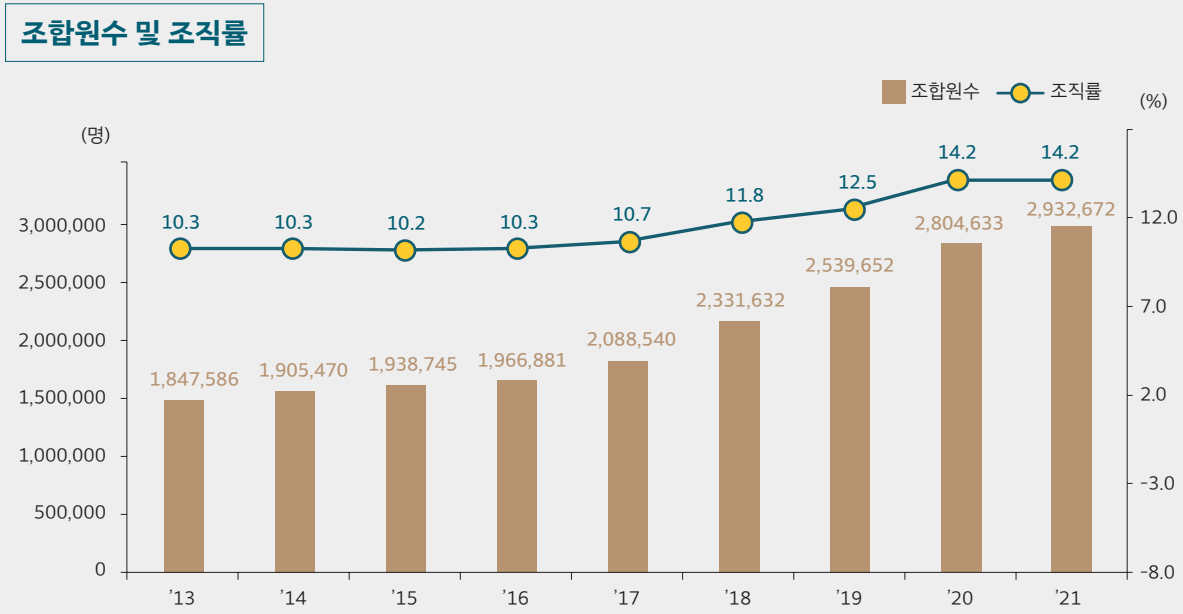
www.moel.go.kr

07 노사협력

1. 노동조합

노동조합 현황

2021년 전체 노동조합은 7,105개, 조합원수는 2,933천명으로 노조조직률은 14.2%이다. 모든 지표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단위: 개소,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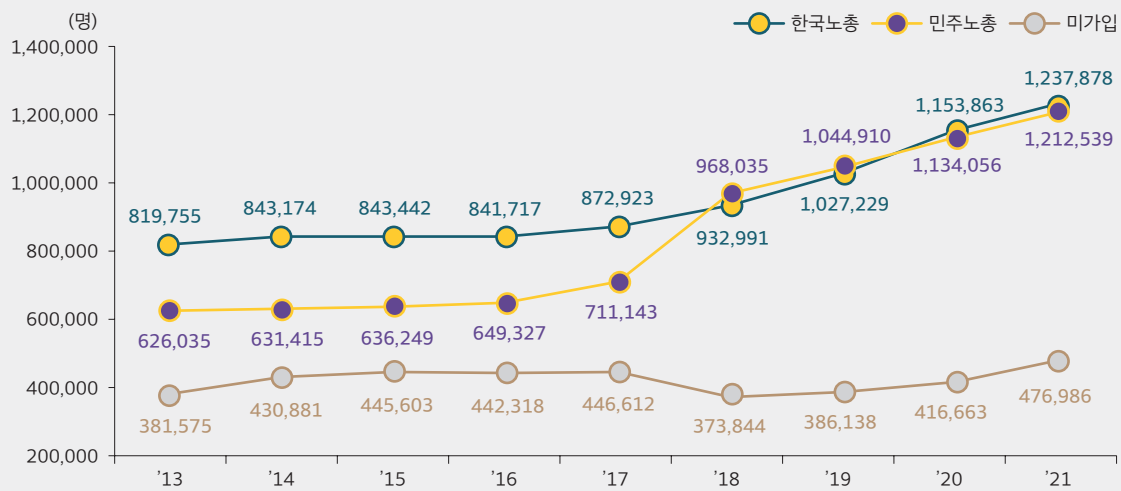
연도	노동조합 수			조합원수			조직률
	연합단체	단위노조	합계	남성	여성	합계	
'13	5,305 (2.5)	5,247 (2.4)	58 (5.5)	1,847,586 (3.7)	1,404,821 (3.4)	442,765 (4.8)	10.3 [0.0]
'14	5,445 (2.6)	5,386 (2.6)	59 (1.7)	1,905,470 (3.1)	1,452,619 (3.4)	452,851 (2.3)	10.3 [0.0]
'15	5,794 (6.4)	5,736 (6.5)	58 (-1.7)	1,938,745 (1.7)	1,456,255 (0.3)	482,490 (6.5)	10.2 [-0.1]
'16	6,164 (6.4)	6,103 (6.4)	61 (5.2)	1,966,881 (1.5)	1,525,322 (4.7)	441,559 (-8.5)	10.3 [0.1]
'17	6,239 (1.2)	6,177 (1.2)	62 (1.6)	2,088,540 (6.2)	1,600,226 (4.9)	488,314 (10.6)	10.7 [0.4]
'18	5,868 (-5.9)	5,802 (-6.1)	66 (6.5)	2,331,632 (11.6)	1,806,706 (12.9)	524,926 (7.5)	11.8 [1.1]
'19	6,156 (4.9)	6,090 (5.0)	66 (0.0)	2,539,652 (8.9)	1,948,237 (7.8)	591,415 (12.7)	12.5 [0.7]
'20	6,564 (6.6)	6,497 (6.7)	67 (1.5)	2,804,633 (10.4)	2,128,425 (9.2)	676,208 (14.3)	14.2 [1.7]
'21	7,105 (8.2)	7,034 (8.3)	71 (6.0)	2,932,672 (4.6)	2,173,783 (2.1)	758,889 (12.2)	14.2 [0.0]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 전년대비 증감률, [] 전년대비 증감
 노조조직률(%) = (전체 조합원수 / 조직대상 근로자수) × 100

상급단체별 노동조합 현황

2021년 기준 노동조합 가입인원의 상급단체별 비중은 한국노총 42.2%, 민주노총 41.3%, 미가입 16.3%순이다.

상급단체별 조합원 현황



(단위: 명, %)

	전체	한국노총	민주노총	미가입	공공노총	그외
'13	1,847,586 (100.0)	819,755 (44.4)	626,035 (33.9)	381,575 (20.7)	0 (0.0)	20,221 (1.1)
'14	1,905,470 (100.0)	843,174 (44.3)	631,415 (33.1)	430,881 (22.6)	0 (0.0)	0 (0.0)
'15	1,938,745 (100.0)	843,442 (43.5)	636,249 (32.8)	445,603 (23.0)	0 (0.0)	13,451 (0.7)
'16	1,966,881 (100.0)	841,717 (42.8)	649,327 (33.0)	442,318 (22.5)	0 (0.0)	33,519 (1.7)
'17	2,088,540 (100.0)	872,923 (41.8)	711,143 (34.0)	446,612 (21.4)	25,091 (1.2)	32,771 (1.6)
'18	2,331,632 (100.0)	932,991 (40.0)	968,035 (41.5)	373,844 (16.0)	35,202 (1.5)	21,560 (0.9)
'19	2,539,652 (100.0)	1,027,229 (40.4)	1,044,910 (41.1)	386,138 (15.2)	47,516 (1.9)	33,859 (1.3)
'20	2,804,633 (100.0)	1,153,863 (41.1)	1,134,056 (40.4)	416,663 (14.9)	77,422 (2.8)	22,629 (0.8)
'21	2,932,672 (100.0)	1,237,878 (42.2)	1,212,539 (41.3)	476,986 (16.3)	0 (0.0)	5,269 (0.2)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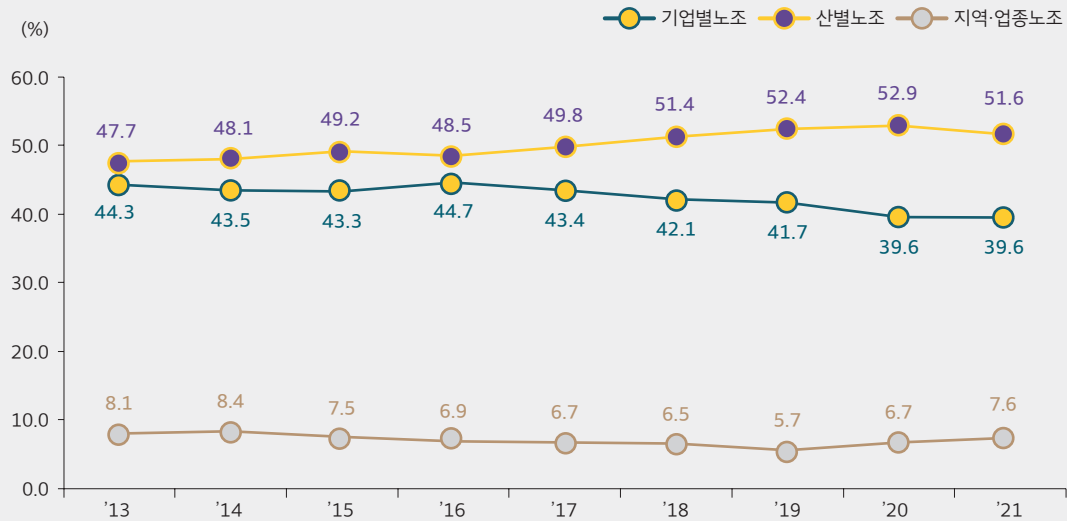
주1) 그 외의 자료는 '11년~'13년은 국민노총('11.11.1 출범 ~ '14.12.3 한국노총과 통합), '15년~'16년은 전국노총('15.9.25 출범)

주2) 공공노총('21.4.28 한국노총과 통합)

조직형태별 노동조합 현황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별 가입비중에서 기업별 노조는 '16년 이후 연도별로 하락하는 한편 산별노조는 상승하고 있다.

조직형태별 비중



(단위: 명, %)

연도	조합원수 (명)		비중 (%)					
	총원수	비중	기업별노조		초기업노조			
			원수	비중	지역·업종노조	산별노조		
'13	1,847,586	(100.0)	817,799	(44.3)	149,231	(8.1)	880,556	(47.7)
'14	1,905,470	(100.0)	828,517	(43.5)	160,203	(8.4)	916,750	(48.1)
'15	1,938,745	(100.0)	839,725	(43.3)	144,938	(7.5)	954,082	(49.2)
'16	1,966,881	(100.0)	878,531	(44.7)	135,275	(6.9)	953,075	(48.5)
'17	2,088,540	(100.0)	907,007	(43.4)	140,941	(6.7)	1,040,592	(49.8)
'18	2,331,632	(100.0)	982,261	(42.1)	151,516	(6.5)	1,197,855	(51.4)
'19	2,539,652	(100.0)	1,058,273	(41.7)	144,076	(5.7)	1,330,755	(52.4)
'20	2,804,633	(100.0)	1,109,480	(39.6)	187,920	(6.7)	1,483,634	(52.9)
'21	2,932,672	(100.0)	1,162,032	(39.6)	223,121	(7.6)	1,512,946	(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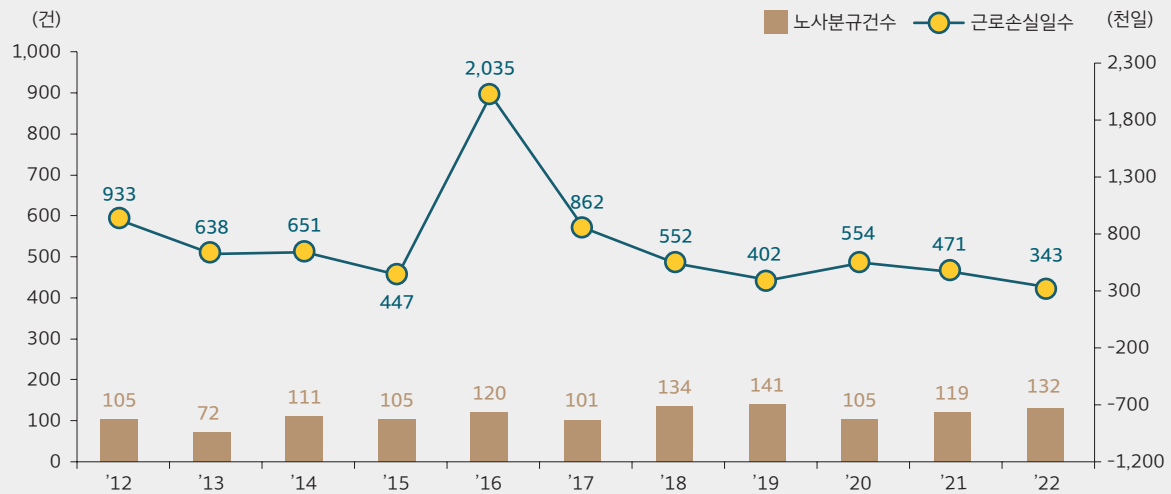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비중

2. 노사분규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2022년 노사분규건수는 132건으로 전년대비 13건 증가, 근로손실일수는 '16년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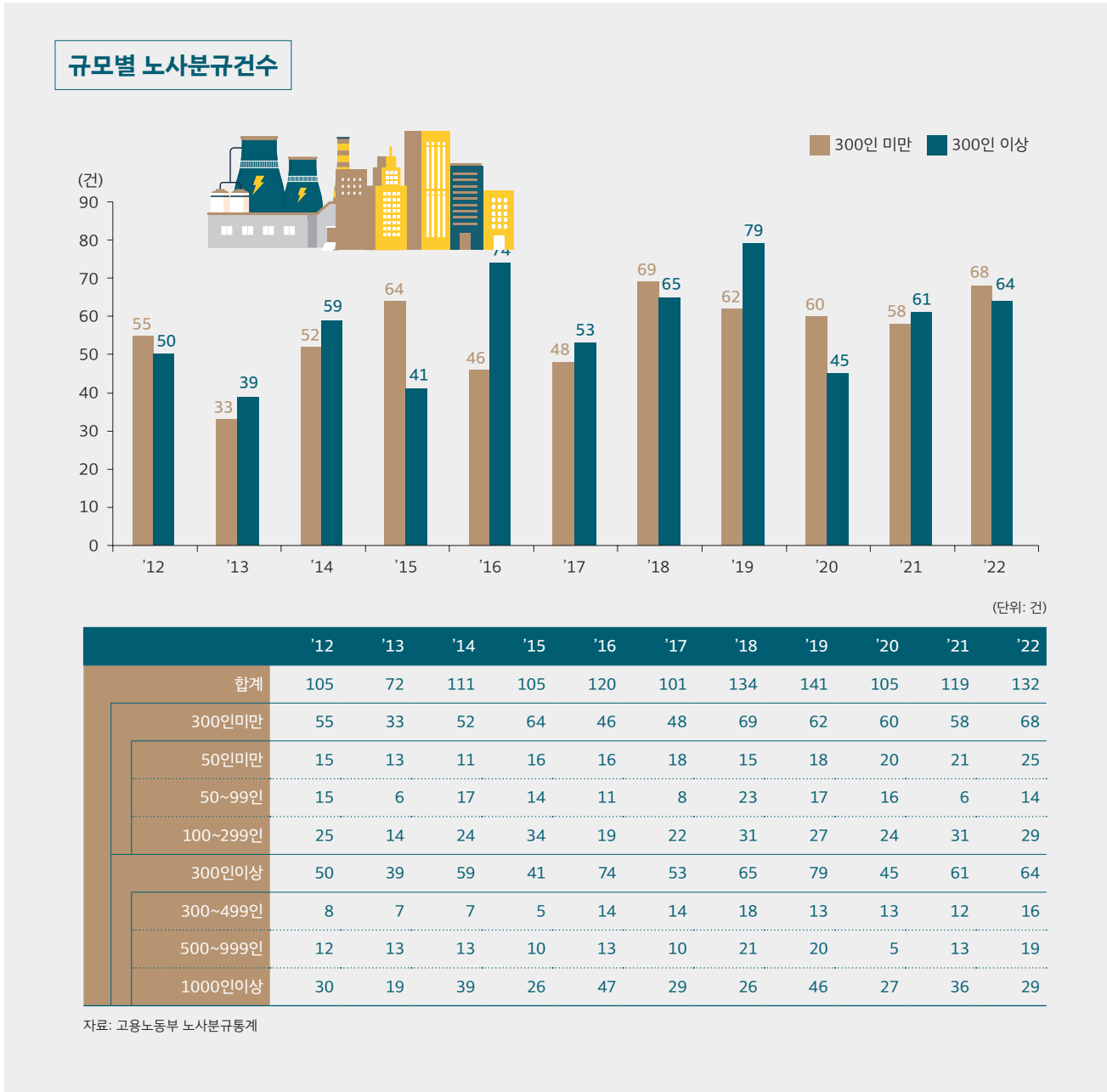
주: 노사분규건수: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다만,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 등은 노사분규 발생건수에 포함하지 않음

근로손실일수: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할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 중단된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규모별 노사분규건수

2022년 노사분규 중 51.5%가 300인미만 사업장(68건)이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분규는 전년대비 7건(-19.4%)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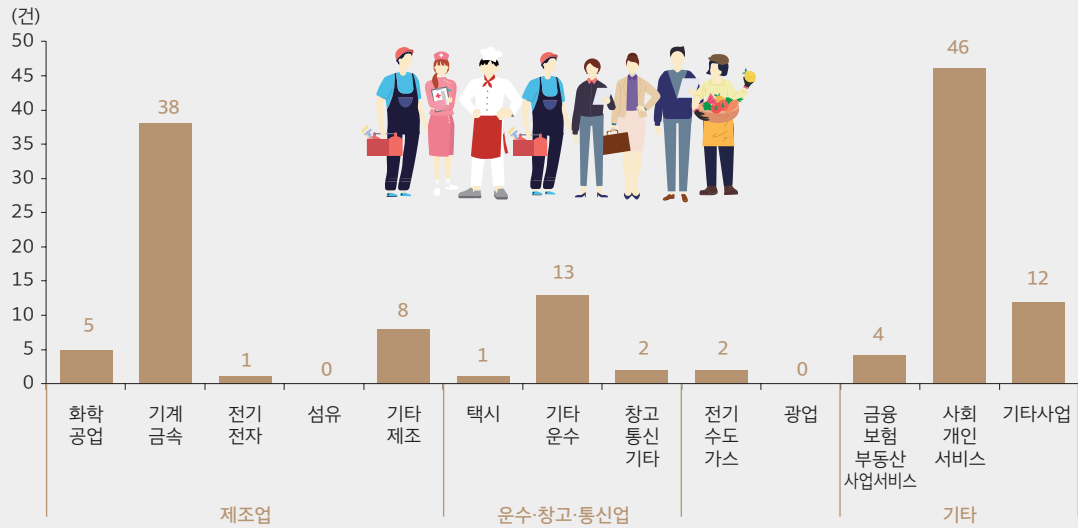


업종별 노사분규건수

2022년 업종별 노사분규건수는 사회·개인서비스업(46건)과 기계·금속업(38건)이 가장 많았다.

전년대비 노사분규건수는 기타운수(8건), 사회개인서비스업(7건)이 증가했다.

업종별 노사분규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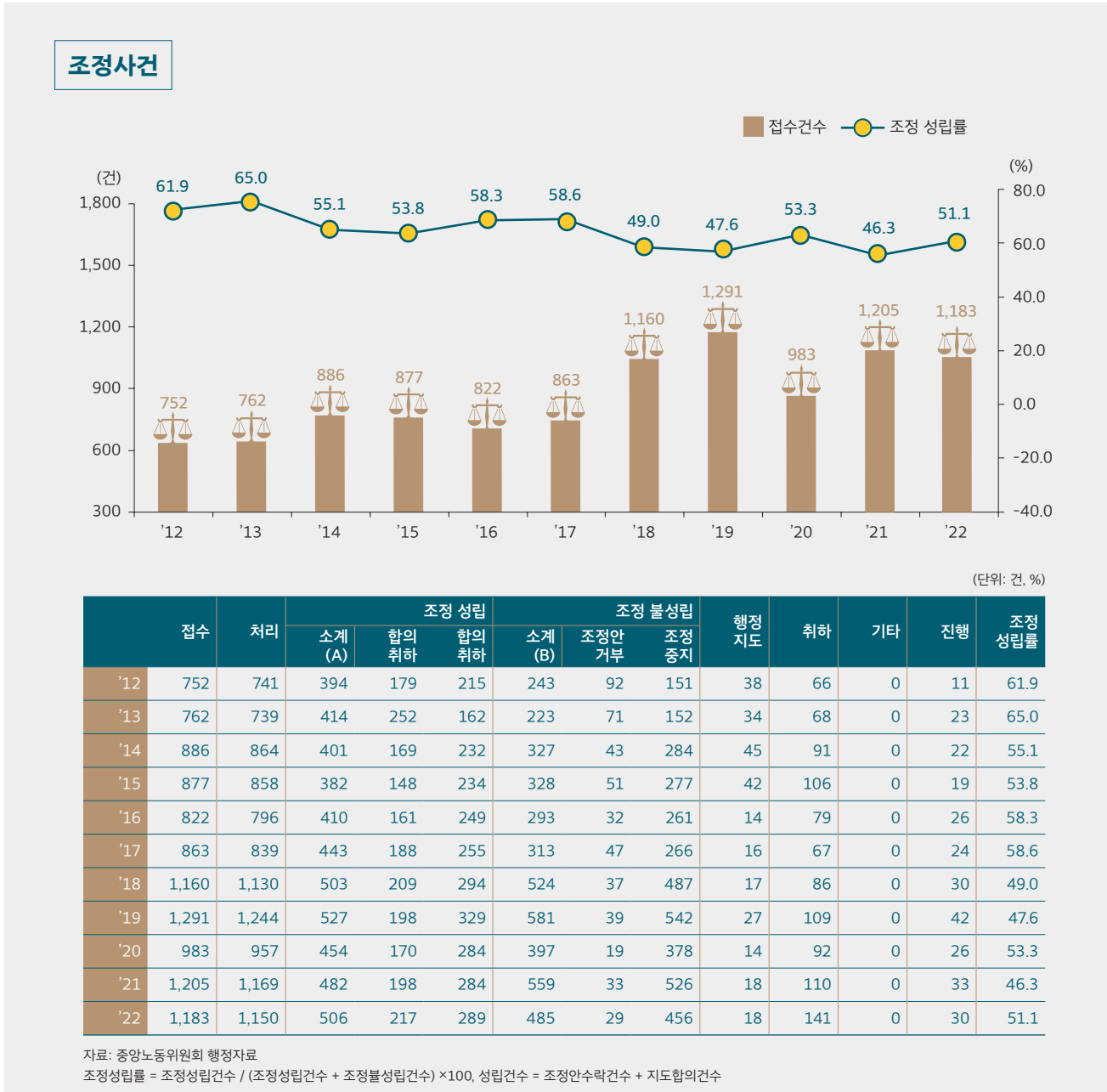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계	105	72	111	105	120	101	134	141	105	119	132
제조업	46	24	45	47	40	45	55	52	40	51	52
화학공업	2	1	4	6	1	5	1	1	4	3	5
기계·금속	30	19	28	27	33	26	43	32	28	38	38
전기·전자	1	3	3	2	2	0	0	2	3	3	1
섬유	1	0	0	0	0	0	0	0	1	0	0
기타제조	12	1	10	12	4	14	11	17	4	7	8
운수·창고·통신업	13	10	10	10	16	15	24	22	14	14	16
택시	0	0	1	0	2	1	0	1	0	1	1
기타운수	11	6	9	10	14	7	24	12	10	5	13
창고·통신·기타	2	4	0	-	0	7	0	9	4	8	2
전기·수도·가스	2	0	0	0	1	0	0	1	0	0	2
광업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55	66	51	54	62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	7	2	6	2	12	2	0	4	0	5	4
사회·개인서비스	35	32	39	36	39	20	44	48	39	39	46
기타사업	2	4	11	10	12	19	11	14	12	10	12

자료: 고용노동부 노사분규통계

3. 노사분쟁 사건

조정사건

조정사건 접수는 2022년 1,183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조정 성립률은 51.1%로 전년대비 상승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사건

(단위: 건, %)

	접수	처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12	64	63	28	9	19	30	16	14	2	3	0	1	48.3
'13	75	70	27	11	16	38	21	17	2	3	0	5	41.5
'14	107	103	27	8	19	62	10	52	3	11	0	4	30.3
'15	119	116	41	14	27	53	10	43	5	17	0	3	43.6
'16	110	110	35	17	18	67	10	57	3	5	0	0	34.3
'17	98	97	40	18	22	47	8	39	3	7	0	1	46.0
'18	134	131	44	16	28	75	6	69	2	10	0	3	37.0
'19	165	162	49	24	25	95	4	91	7	11	0	3	34.0
'20	109	103	34	15	19	52	2	50	4	13	0	6	39.5
'21	168	161	34	21	13	103	8	95	4	20	0	7	24.8
'22	177	171	42	15	27	104	15	89	3	22	0	6	28.8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사건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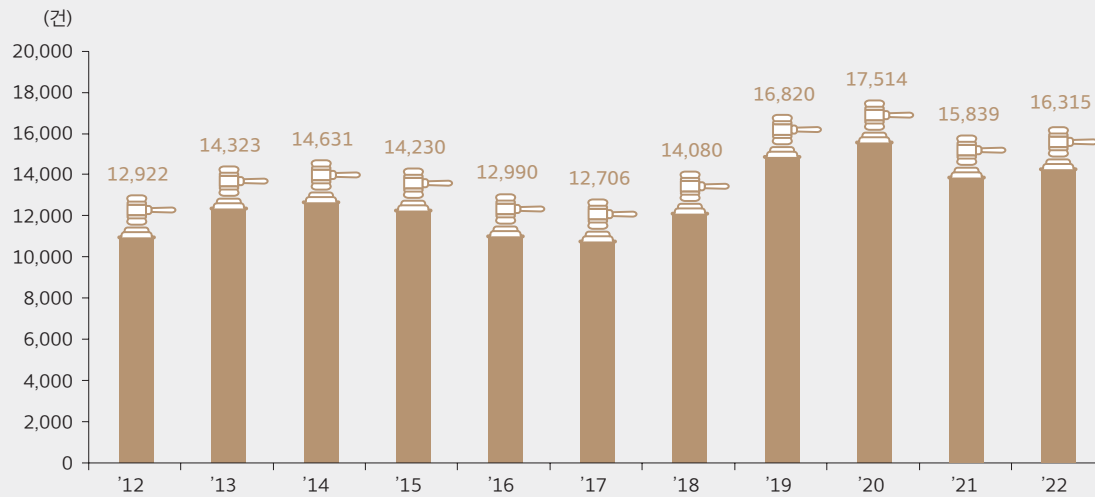
	접수	처리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12	688	678	366	170	196	213	76	137	36	63	0	10	63.2
'13	687	669	387	241	146	185	50	135	32	65	0	18	67.7
'14	779	761	374	161	213	265	33	232	42	80	0	18	58.5
'15	758	742	341	134	207	275	41	234	37	89	0	16	55.4
'16	712	686	375	144	231	226	22	204	11	74	0	26	62.4
'17	765	742	403	170	233	266	39	227	13	60	0	23	60.2
'18	1,026	999	459	193	266	449	31	418	15	76	0	27	50.6
'19	1,126	1,082	478	174	304	486	35	451	20	98	0	39	49.6
'20	874	854	420	155	265	345	17	328	10	79	0	20	54.9
'21	1,037	1,008	448	177	271	456	25	431	14	90	0	26	49.6
'22	1,006	979	464	202	262	381	14	367	15	119	0	24	54.9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심판사건

심판사건은 2022년 16,315건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다

심판사건



(단위: 건)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2	12,922	11,352	1,040	209	1,993	614	3,589	3,907	1,570
'13	14,323	12,769	1,095	255	1,989	757	4,396	4,277	1,554
'14	14,631	13,068	1,172	255	2,130	756	5,185	3,570	1,563
'15	14,230	12,489	1,347	233	2,005	844	4,923	3,137	1,741
'16	12,990	11,381	1,453	232	1,984	792	4,229	2,691	1,609
'17	12,706	11,104	1,248	193	1,919	760	3,916	3,068	1,602
'18	14,080	12,205	1,388	214	2,098	823	4,075	3,607	1,874
'19	16,820	14,816	1,783	175	2,770	920	5,197	3,971	2,041
'20	17,514	15,243	1,678	215	3,113	855	5,348	4,034	2,246
'21	15,839	13,960	1,723	239	3,087	746	4,509	3,656	1,885
'22	16,315	14,343	1,592	237	3,416	326	4,628	4,144	1,974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단위: 건)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2	1,901	1,304	274	32	542	126	280	50	597
'13	2,052	1,707	309	135	669	181	319	94	345
'14	1,969	1,562	309	81	571	128	363	110	407
'15	2,089	1,636	371	100	533	182	358	92	453
'16	2,167	1,748	421	86	513	178	410	140	419
'17	1,967	1,636	358	81	591	193	277	136	331
'18	2,039	1,575	317	71	583	189	257	158	464
'19	2,497	2,034	449	58	801	188	324	214	464
'20	2,731	2,165	435	75	960	167	334	194	561
'21	2,583	2,184	521	94	967	144	274	184	399
'22	2,427	1,990	473	85	1,026	62	187	157	435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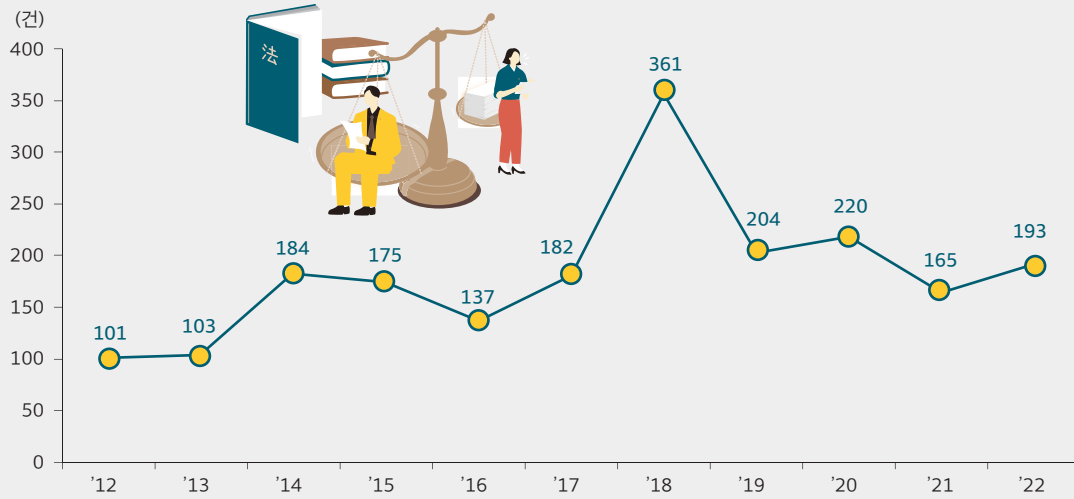
	접수건수	처리내역							진행
		합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12	11,021	10,048	766	177	1,451	488	3,309	3,857	973
'13	12,271	11,062	786	120	1,320	576	4,077	4,183	1,209
'14	12,662	11,506	863	174	1,559	628	4,822	3,460	1,156
'15	12,141	10,853	976	133	1,472	662	4,565	3,045	1,288
'16	10,823	9,633	1,032	146	1,471	614	3,819	2,551	1,190
'17	10,739	9,468	890	112	1,328	567	3,639	2,932	1,271
'18	12,041	10,630	1,071	143	1,515	634	3,818	3,449	1,410
'19	14,323	12,782	1,334	117	1,969	732	4,873	3,757	1,577
'20	14,783	13,078	1,243	140	2,153	688	5,014	3,840	1,685
'21	13,256	11,776	1,202	145	2,120	602	4,235	3,472	1,486
'22	13,888	12,353	1,119	152	2,390	264	4,441	3,987	1,539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차별시정사건

2022년 차별시정사건 접수건수는 193건으로 전년대비 28건 증가했다.

차별시정사건



(단위: 건)

연도	접수건수	총계	처리내역							진행
			전부시정	일부시정	기각	각하	조정성립	중재결정	취하	
'12	101	78	3	4	13	14	17	0	27	23
'13	103	99	8	15	13	6	20	0	37	4
'14	184	161	4	2	33	10	11	0	101	23
'15	175	138	19	18	26	3	18	0	54	37
'16	137	115	8	27	17	10	12	0	41	22
'17	182	155	12	53	13	13	18	0	46	27
'18	361	321	12	22	46	12	133	0	96	39
'19	204	170	10	30	30	20	32	0	49	33
'20	220	162	8	19	29	11	60	0	35	33
'21	165	122	9	26	20	7	13	0	47	42
'22	193	156	13	19	64	4	12	0	44	37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단위: 건)

	접수 건수	총계	처리내역							진행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12	15	13	1	1	7	4	0	0	0	2
'13	17	15	3	6	1	3	0	0	2	2
'14	15	11	1	1	4	0	4	0	1	4
'15	49	33	12	3	3	0	8	0	7	16
'16	39	32	3	15	6	3	1	0	4	7
'17	48	37	5	22	5	2	2	0	1	11
'18	64	46	7	6	16	5	0	0	12	17
'19	47	41	4	17	11	3	0	0	6	6
'20	41	23	2	8	6	4	0	0	3	15
'21	28	22	6	6	7	2	0	0	1	5
'22	42	31	4	9	14	2	0	0	2	11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사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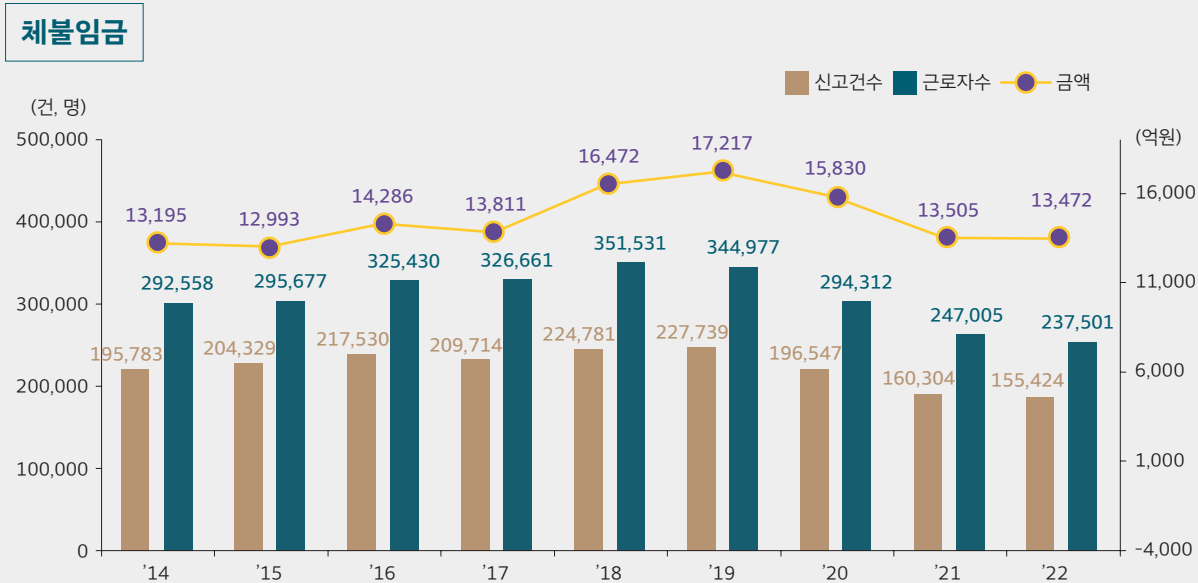
	접수 건수	총계	처리내역							진행
			전부 시정	일부 시정	기각	각하	조정 성립	중재 결정	취하	
'12	86	65	2	3	6	10	17	0	27	21
'13	86	84	5	9	12	3	20	0	35	2
'14	169	150	3	1	29	10	7	0	100	19
'15	126	105	7	15	23	3	10	0	47	21
'16	98	83	5	12	11	7	11	0	37	15
'17	134	118	7	31	8	11	16	0	45	16
'18	297	275	5	16	30	7	133	0	84	22
'19	157	129	6	13	19	17	32	0	43	27
'20	179	139	6	11	23	7	60	0	32	18
'21	137	100	3	20	13	5	13	0	46	37
'22	151	125	9	10	50	2	12	0	42	26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자료

4. 근로감독 현황

체불임금

체불임금 신고건수와 체불금액은 2020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 체불임금 신고건수는 15만 5천건, 근로자수는 23만 8천명, 금액은 1조3천억원 수준이다.



체불임금 신고건수

(단위: 건, %)

연도	신고건수	처리				처리중
		합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4	195,783	190,077 (100.0)	131,052 (68.9)	59,025 (31.1)	5,706	
'15	204,329	197,393 (100.0)	141,171 (69.1)	56,222 (30.9)	6,936	
'16	217,530	211,241 (100.0)	152,290 (72.1)	58,951 (27.9)	6,289	
'17	209,714	202,215 (100.0)	149,464 (73.9)	52,751 (26.1)	7,499	
'18	224,781	217,958 (100.0)	151,504 (69.5)	66,454 (30.5)	6,823	
'19	227,739	222,618 (100.0)	150,798 (67.7)	71,820 (32.3)	5,121	
'20	196,547	192,813 (100.0)	134,170 (69.6)	58,643 (30.4)	3,734	
'21	160,304	157,864 (100.0)	111,001 (70.3)	46,863 (29.7)	2,440	
'22	155,424	153,342 (100.0)	114,318 (74.6)	39,024 (25.4)	2,082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주)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는 처리대비 비중

체불임금 근로자수

(단위: 명, %)

	근로자수	처리						처리중
		합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4	292,558	283,824	(100.0)	176,209	(62.1)	107,615	(37.9)	8,734
'15	295,677	284,534	(100.0)	178,926	(62.9)	105,608	(37.1)	11,143
'16	325,430	312,654	(100.0)	198,392	(63.5)	114,262	(36.5)	12,776
'17	326,661	312,338	(100.0)	203,902	(65.3)	108,436	(34.7)	14,323
'18	351,531	336,857	(100.0)	203,243	(60.3)	133,614	(39.7)	14,674
'19	344,977	336,019	(100.0)	203,374	(60.5)	132,645	(39.5)	8,958
'20	294,312	287,976	(100.0)	181,113	(62.9)	106,863	(37.1)	6,336
'21	247,005	242,541	(100.0)	157,782	(65.1)	84,759	(34.9)	4,464
'22	237,501	233,458	(100.0)	161,193	(69.0)	72,265	(31.0)	4,043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주)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는 처리대비 비중

체불임금 금액

(단위: 억원, %)

	금액	처리						처리중
		합계	지도해결		사법처리			
'14	13,195	12,716	(100.0)	6,452	(50.7)	6,264	(49.3)	479
'15	12,993	12,329	(100.0)	6,020	(48.8)	6,309	(51.2)	664
'16	14,286	13,489	(100.0)	6,866	(50.9)	6,623	(49.1)	797
'17	13,811	12,890	(100.0)	6,751	(52.4)	6,139	(47.6)	921
'18	16,472	15,509	(100.0)	7,292	(47.0)	8,217	(53.0)	963
'19	17,217	16,561	(100.0)	8,260	(49.9)	8,301	(50.1)	656
'20	15,830	15,374	(100.0)	8,307	(54.0)	7,067	(46.0)	456
'21	13,505	13,141	(100.0)	7,403	(56.3)	5,738	(43.7)	364
'22	13,472	13,101	(100.0)	8,060	(61.5)	5,041	(38.5)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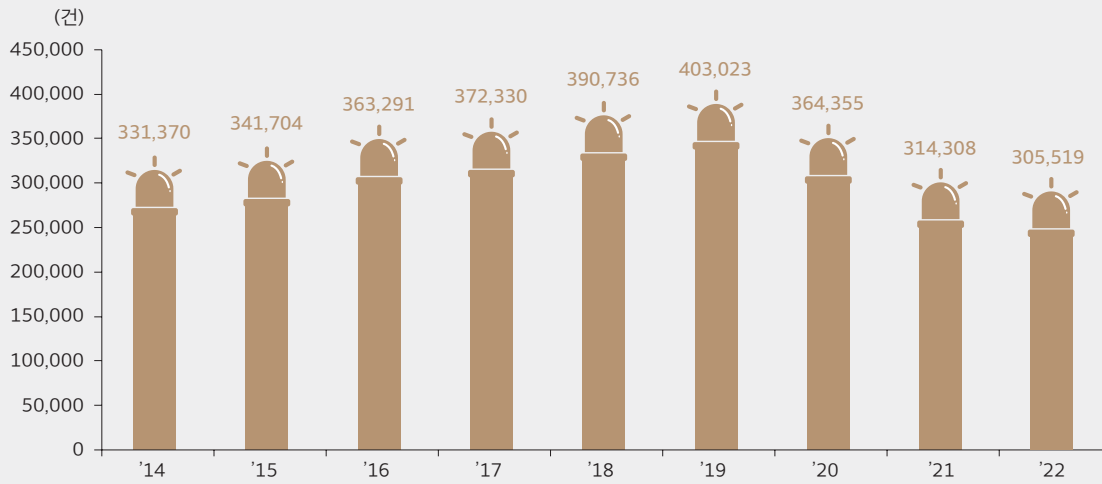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주) 지도해결 = 청산 + 행정종결(합의) + 송치종결(합의), ()는 처리대비 비중

신고사건

노동법위반에 대한 신고사건 건수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은 30만 6천건으로 전년대비 -2.8%(9천건) 감소했다.

신고사건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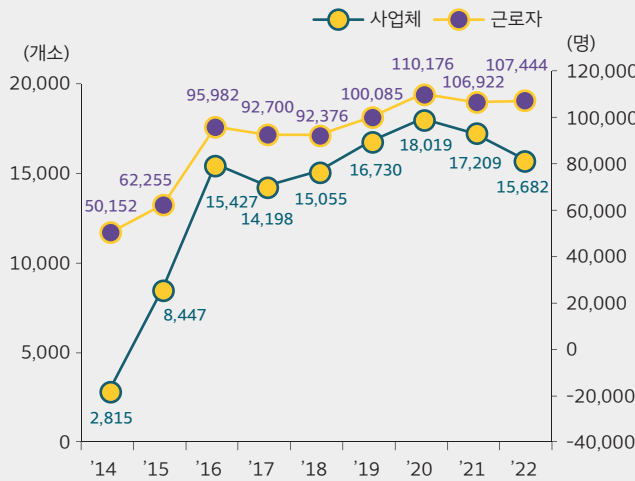
연도	접수	처리	행정종결		사법처리	
'14	331,370	336,308	248,680	(73.9)	87,628	(26.1)
'15	341,704	343,731	259,611	(75.5)	84,120	(24.5)
'16	363,291	334,584	279,698	(76.3)	86,663	(23.7)
'17	372,330	374,006	294,525	(78.7)	79,481	(21.3)
'18	390,736	399,207	318,153	(79.7)	81,054	(20.3)
'19	403,023	417,708	335,764	(80.4)	81,944	(19.6)
'20	364,355	380,138	313,462	(82.5)	66,676	(17.5)
'21	314,308	322,994	271,119	(83.9)	51,875	(16.1)
'22	305,519	310,805	267,987	(86.2)	42,818	(13.8)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주) ()는 처리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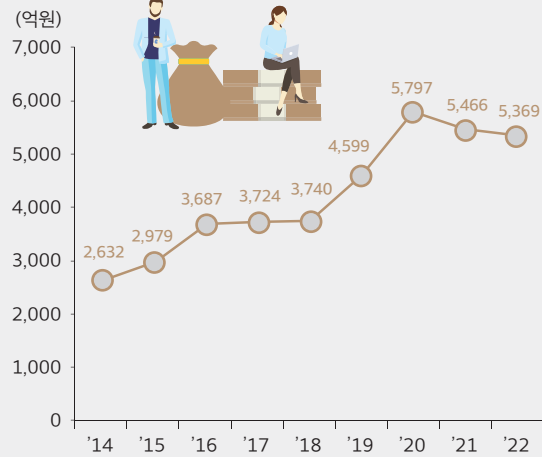
대지급금

2022년 대지급금 대상 근로자는 약 107천명이고 금액은 5천4백억원으로 대지급금 대상 사업체, 근로자, 금액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대지급금 사업체 및 근로자수



대지급금 금액



(단위: 개소, 명, 억원)

	사업체	근로자	금액
'14	2,815	50,152	2,632
'15	8,447	62,255	2,979
'16	15,427	95,982	3,687
'17	14,198	92,700	3,724
'18	15,055	92,376	3,740
'19	16,730	100,085	4,599
'20	18,019	110,176	5,797
'21	17,209	106,922	5,466
'22	15,682	107,444	5,369

자료: 고용노동부 행정자료.

주1) 2010년도 9월 통계부터 신규사업장 기준이 '사업장 관리번호'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연도별 자료(사업장 수 등) 일부 조정

주2) 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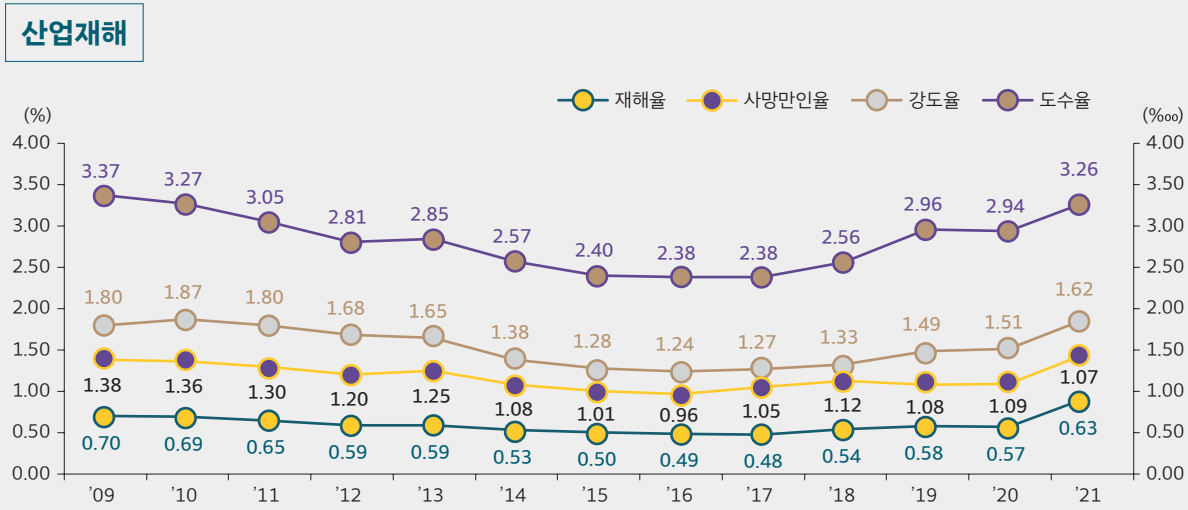
www.moel.go.kr

08 산업안전

1. 산업재해

산업재해 추이

2021년 재해자수는 12만3천명, 재해율은 0.63%이고 사망자는 2,080명이다. 전년에 비해 사망만인율은 하락했으나 재해율, 강도율, 도수율은 상승했다.



(단위: 명, %, ‰)

	대상근로자	재해자	재해율	사망자	사망 만인율	강도율	도수율
'10	14,198,748 (2.3)	98,645 (0.8)	0.69	1,931 (0.8)	1.36	1.87	3.27
'11	14,362,372 (1.2)	93,292 (-5.4)	0.65	1,860 (-3.7)	1.30	1.80	3.05
'12	15,548,423 (8.3)	92,256 (-1.1)	0.59	1,864 (0.2)	1.20	1.68	2.81
'13	15,449,228 (-0.6)	91,824 (-0.5)	0.59	1,929 (3.5)	1.25	1.65	2.85
'14	17,062,308 (10.4)	90,909 (-1.0)	0.53	1,850 (-4.1)	1.08	1.38	2.57
'15	17,968,931 (5.3)	90,129 (-0.9)	0.50	1,810 (-2.2)	1.01	1.28	2.40
'16	18,431,716 (2.6)	90,656 (0.6)	0.49	1,777 (-1.8)	0.96	1.24	2.38
'17	18,560,142 (0.7)	89,848 (-0.9)	0.48	1,957 (10.1)	1.05	1.27	2.38
'18	19,073,438 (2.8)	102,305 (13.9)	0.54	2,142 (9.5)	1.12	1.33	2.56
'19	18,725,160 (-1.8)	109,242 (6.8)	0.58	2,020 (-5.7)	1.08	1.49	2.96
'20	18,974,513 (1.3)	108,379 (-0.8)	0.57	2,062 (2.1)	1.09	1.51	2.94
'21	19,378,565 (2.1)	122,713 (13.2)	0.63	2,080 (0.9)	1.07	1.62	3.26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주) 재해율(%): 재해자수/전체 근로자수×100.

사망만인율(‰): 연간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비율[(사망자수/근로자수)×10,000].

사망자수 = 업무상사고 사망자수 + 업무상질병 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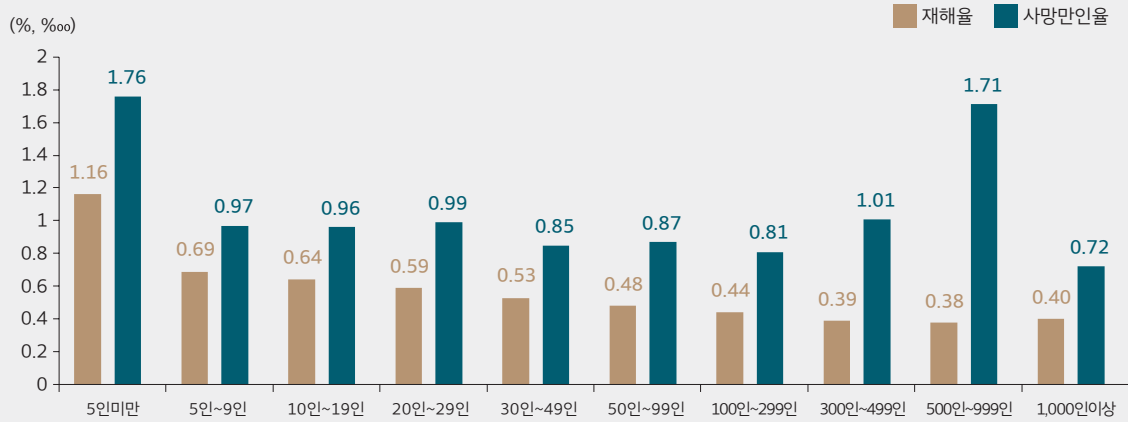
도수율: 재해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

강도율: 재해의 세기를 나타내는 지표[(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1,000]

규모별 산업재해

2021년 사업장의 재해율은 5인미만 규모가 1.16%로 가장 높고, 사망만인율도 5인미만 규모가 1.76‰으로 가장 높다.

규모별 산업재해



(단위: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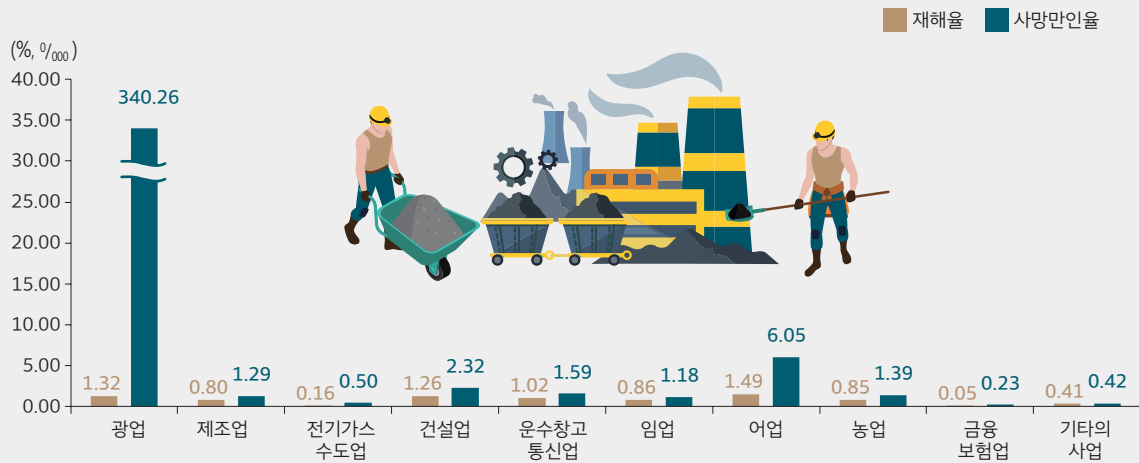
	대상 사업장수	대상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 만인율
전체	2,876,635	19,378,565	122,713 (100.0)	0.63	2,080 (100.0)	1.07
300인미만	2,872,485	16,173,773	110,170 (89.8)	0.68	1,743 (83.8)	1.08
5인미만	2,145,395	3,212,578	37,267 (30.4)	1.16	567 (27.3)	1.76
5인~9인	370,946	2,410,003	16,522 (13.5)	0.69	234 (11.3)	0.97
10인~19인	196,640	2,612,163	16,632 (13.6)	0.64	250 (12.0)	0.96
20인~29인	66,098	1,568,098	9,288 (7.6)	0.59	156 (7.5)	0.99
30인~49인	48,004	1,793,613	9,467 (7.7)	0.53	152 (7.3)	0.85
50인~99인	29,379	1,999,615	9,653 (7.9)	0.48	174 (8.4)	0.87
100인~299인	16,023	2,577,703	11,341 (9.2)	0.44	210 (10.1)	0.81
300인이상	4,150	3,204,792	12,543 (10.2)	0.39	337 (16.2)	1.05
300인~499인	2,329	874,924	3,403 (2.8)	0.39	88 (4.2)	1.01
500인~999인	1,220	824,770	3,139 (2.6)	0.38	141 (6.8)	1.71
1,000인이상	601	1,505,098	6,001 (4.9)	0.40	108 (5.2)	0.72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21년), () 비중

업종별 산업재해

2021년 어업의 재해율이 1.49로 가장 높고 이어 광업(1.32)과 건설업(1.26) 순이다. 사망만인율은 광업이 가장 높다.

업종별 산업재해



(단위: 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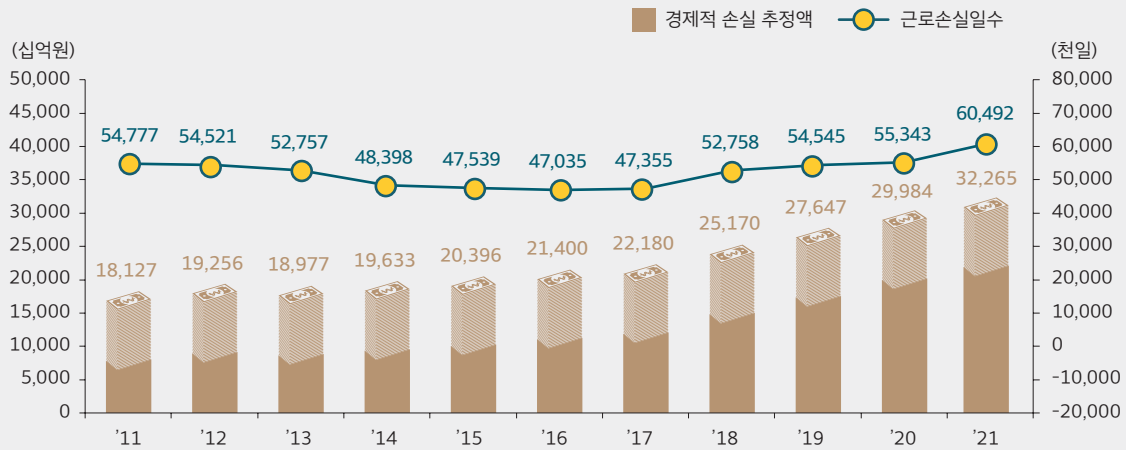
	사업장수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사망자수	사망만인율
총계	2,876,635	19,378,565	122,713 (100.0)	0.63	2,080 (100.0)	1.07
광업	1,071	10,257	3,336 (2.7)	1.32	349 (16.8)	340.26
제조업	400,242	3,959,780	31,709 (25.8)	0.80	512 (24.6)	1.2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341	79,791	130 (0.1)	0.16	4 (0.2)	0.50
건설업	400,990	2,378,751	29,943 (24.4)	1.26	551 (26.5)	2.32
운수창고 및 통신업	93,249	993,678	10,091 (8.2)	1.02	158 (7.6)	1.59
임업	14,596	110,395	946 (0.8)	0.86	13 (0.6)	1.18
어업	1,918	4,955	74 (0.1)	1.49	3 (0.1)	6.05
농업	20,302	78,999	668 (0.5)	0.85	11 (0.5)	1.39
금융 및 보험업	43,679	781,685	408 (0.3)	0.05	18 (0.9)	0.23
기타사업	1,897,247	10,980,274	45,408 (37.0)	0.41	461 (22.2)	0.42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21년,) 비중

2. 경제적 손실

2021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약32조원으로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근로손실일수는 '17년부터 증가추세이다.

경제적 손실액 및 손실일수



(단위: 백만원, 일)

연도	경제적 손실액 (백만원)	경제적 손실액		근로 손실일수 (일)
		산재보상금	간접손실액	
'11	18,126,985	3,625,397	14,501,588	54,776,539
'12	19,256,435	3,851,287	15,405,148	54,520,730
'13	18,977,170	3,795,434	15,181,736	52,757,034
'14	19,632,795	3,926,559	15,706,236	48,398,387
'15	20,395,540	4,079,108	16,316,432	47,538,877
'16	21,400,275	4,280,055	17,120,220	47,035,222
'17	22,180,190	4,436,038	17,744,152	47,355,044
'18	25,169,507	5,033,901	20,135,606	52,757,858
'19	27,646,799	5,529,360	22,117,440	54,544,623
'20	29,984,095	5,996,819	23,987,276	55,343,490
'21	32,264,700	6,452,940	25,811,760	60,492,479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주) 경제적 손실액 =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 + 간접손실액

간접손실액: 산재보상금 이외에 재해로 인한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차질액 등 재해로 인해 회사가 입는 유·무형의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한 가치 총액

근로손실일수 = 재해로 인하여 근로를 못한 일수

연도별 재해발생 현황

(단위: 명, 개소, %, %oo)

	'18년	'19년	'20년	'21년
사업장수	2,654,107	2,680,874	2,719,308	2,876,635
(전년대비, %)	(5.85)	(1.01)	(1.43)	(5.79)
근로자수	19,073,438	18,725,160	18,974,513	19,378,565
(전년대비, %)	(2.77)	(-1.83)	(1.33)	(2.13)
재해자수	102,305	109,242	108,379	122,713
(전년대비, %)	(13.9)	(6.78)	(-0.79)	(13.23)
사망자수	2,142	2,020	2,062	2,080
(전년대비, %)	(9.5)	(-5.70)	(2.08)	(0.87)
부상자수	89,588	92,932	91,237	101,182
(전년대비, %)	(25.79)	(3.73)	(-1.82)	(10.90)
업무상질병요양자수	10,302	14,030	14,816	19,183
(전년대비, %)	(12.76)	(36.19)	(5.60)	(29.47)
재해율(%)	0.54	0.58	0.57	0.63
(전년대비, %p)	(0.06)	(0.04)	(-0.01)	(0.06)
사망만인율(%oo)	1.12	1.08	1.09	1.07
(전년대비, %oo p)	(0.07)	(-0.04)	(0.01)	(-0.02)
경제적 손실액	25조 1,695억원	27조 6,467억원	29조 9,841억원	32조 2,647억원
(전년대비, %)	(13.48)	(9.84)	(8.45)	(7.61)
근로손실 일수(천일)	52,758	54,545	55,345	60,492
(전년대비, %)	(11.41)	(3.39)	(1.46)	(9.30)
도수율	2.56	2.96	2.94	3.26
(전년대비, p)	(0.18)	(0.40)	(-0.02)	(0.32)
강도율	1.33	1.49	1.51	1.62
(전년대비, p)	(0.06)	(0.16)	(0.02)	(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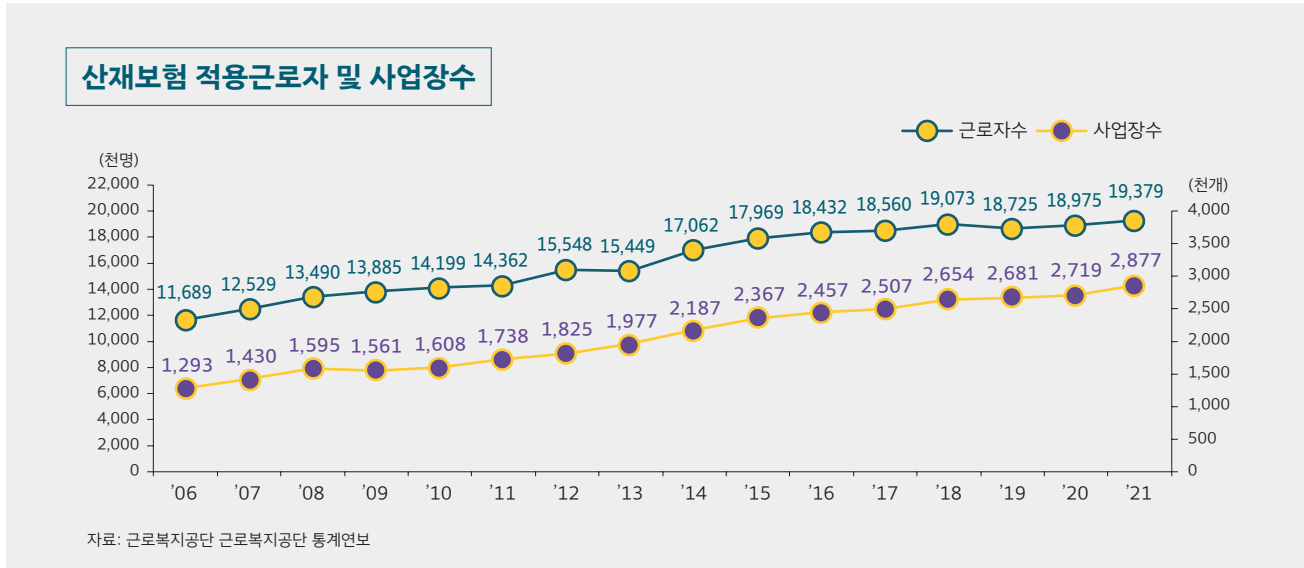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 증감 및 증감율

주) 사망자수는 사고사망자수와 재해사망자를 포함하며,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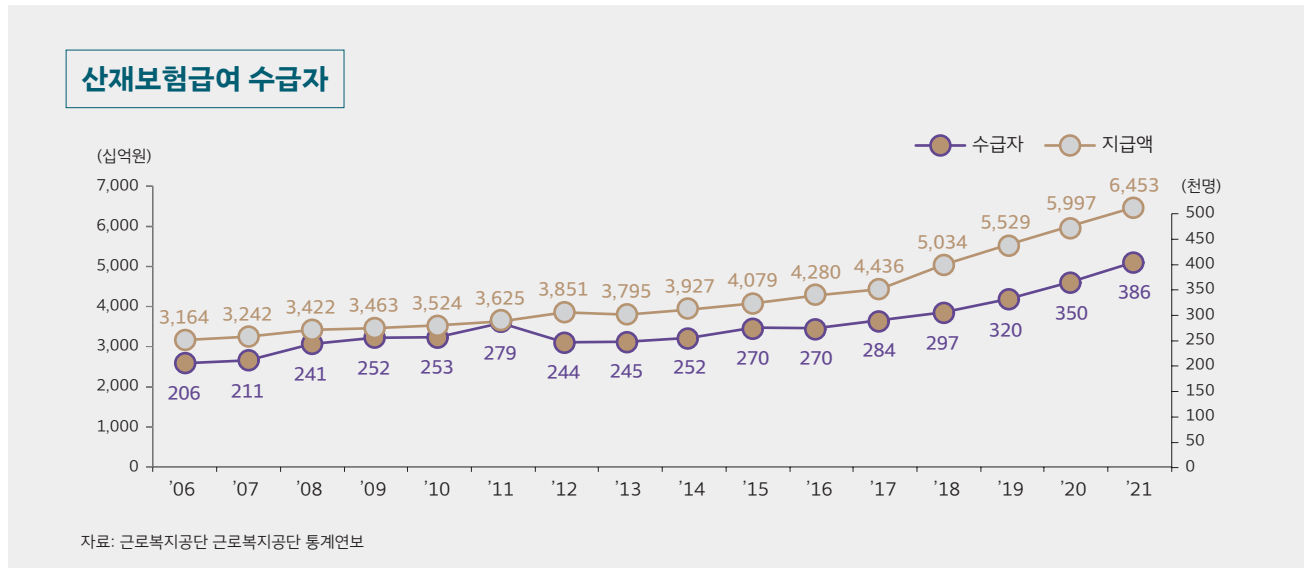
3. 산재보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수와 근로자수, 산재보험 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적용근로자 및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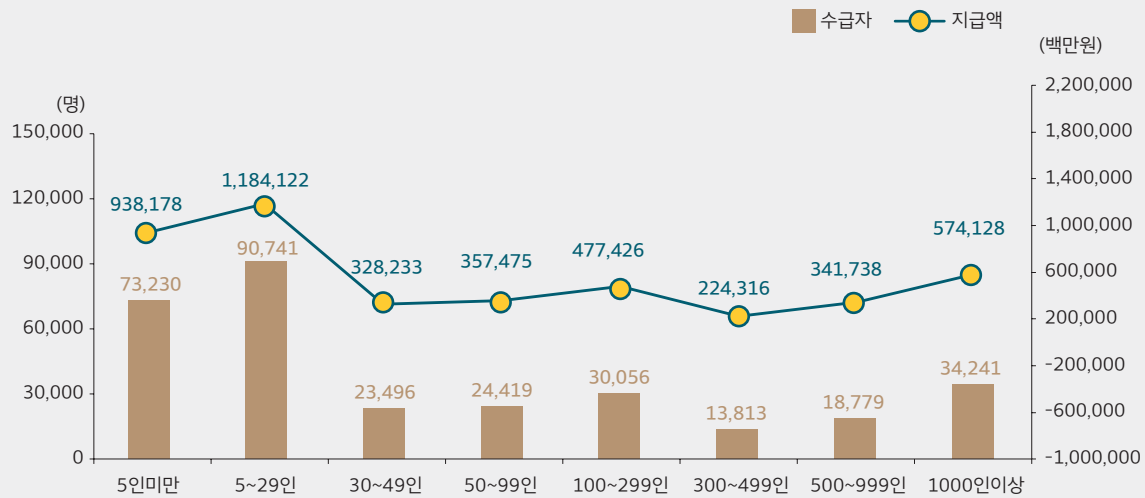
보험급여 지급



규모별 보험급여 지급

5~29인 규모 사업체의 산재보험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 산재보험료 지급액 및 수급자



(단위: 개소, 명, 건,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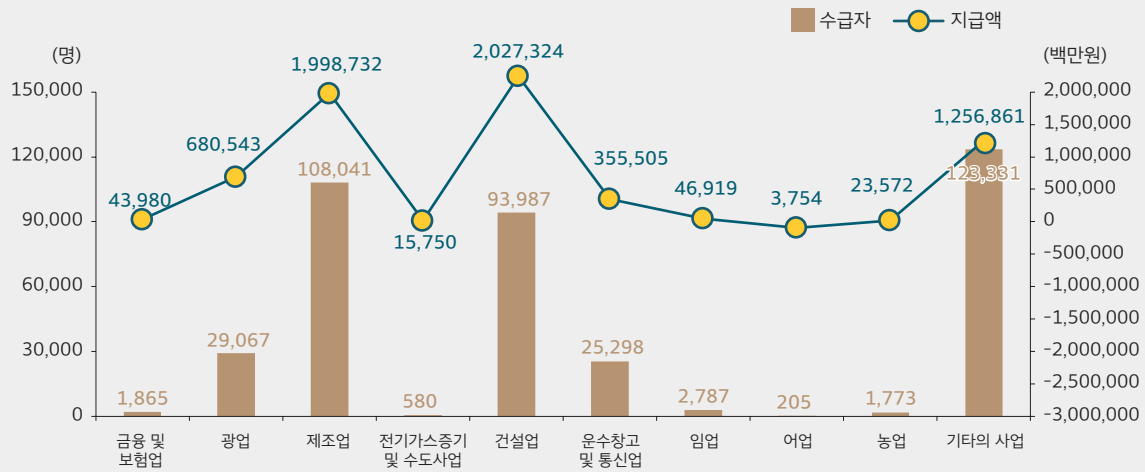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	지급건수	지급액
합계	2,876,635 (5.79)	19,378,565 (2.13)	386,260 (10.25)	4,656,671 (7.32)	6,452,940 (7.61)
5인미만	1,815,151 (4.45)	2,824,225 (5.96)	73,230 (10.38)	782,898 (7.88)	938,178 (7.73)
5~29인	574,483 (1.39)	5,944,719 (0.76)	90,741 (8.10)	985,039 (4.91)	1,184,122 (5.59)
30~49인	43,417 (0.65)	1,621,780 (0.35)	23,496 (10.88)	249,792 (7.81)	328,233 (9.62)
50~99인	26,103 (-0.01)	1,773,462 (-0.09)	24,419 (12.52)	269,206 (7.10)	357,475 (7.49)
100~299인	13,235 (0.72)	2,102,169 (0.86)	30,056 (15.06)	328,154 (5.27)	477,426 (4.82)
300~499인	1,733 (1.11)	653,267 (0.81)	13,813 (8.10)	138,965 (3.19)	224,316 (1.64)
500~999인	979 (2.84)	669,723 (2.30)	18,779 (10.87)	205,133 (5.11)	341,738 (6.26)
1000인이상	544 (7.72)	1,410,469 (4.74)	34,241 (30.40)	442,171 (21.23)	574,128 (16.77)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21년), () 전년대비 증감률

업종별 보험급여 지급

2021년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수급자수, 지급건수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적용 사업장수, 지급액은 건설업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 산재보험료 지급액 및 수급자



(단위: 개소, 명, 건, 백만원, %)

	사업장수	근로자수	수급자	지급건수	지급액
합계	2,876,635 (5.79)	19,378,565 (2.13)	386,260 (10.25)	4,656,671 (7.32)	6,452,940 (7.61)
금융 및 보험업	43,679 (1.92)	781,685 (-0.06)	1,865 (8.62)	21,863 (4.76)	43,980 (6.80)
광업	1,071 (-1.47)	10,257 (-3.82)	29,067 (7.75)	316,879 (1.25)	680,543 (5.52)
제조업	400,242 (1.29)	3,959,780 (-1.31)	108,041 (6.86)	1,418,914 (4.27)	1,998,732 (7.2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3,341 (7.67)	79,791 (0.96)	580 (7.81)	6,998 (7.17)	15,750 (-0.65)
건설업	400,990 (21.78)	2,378,751 (4.11)	93,987 (8.28)	1,255,313 (5.92)	2,027,324 (7.66)
운수창고 및 통신업	93,249 (7.11)	993,678 (6.11)	25,298 (25.31)	293,954 (20.25)	355,505 (13.49)
임업	14,596 (12.98)	110,395 (8.87)	2,787 (-0.57)	36,972 (6.72)	46,919 (7.29)
어업	1,918 (1.05)	4,955 (-0.36)	205 (9.63)	2,788 (23.86)	3,754 (27.72)
농업	20,302 (4.75)	78,999 (0.07)	1,773 (12.00)	20,511 (7.29)	23,572 (2.11)
기타의 사업	1,897,247 (3.87)	10,980,274 (2.78)	123,331 (13.25)	1,282,479 (11.30)	1,256,861 (7.96)

자료: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 () 전년대비 증감률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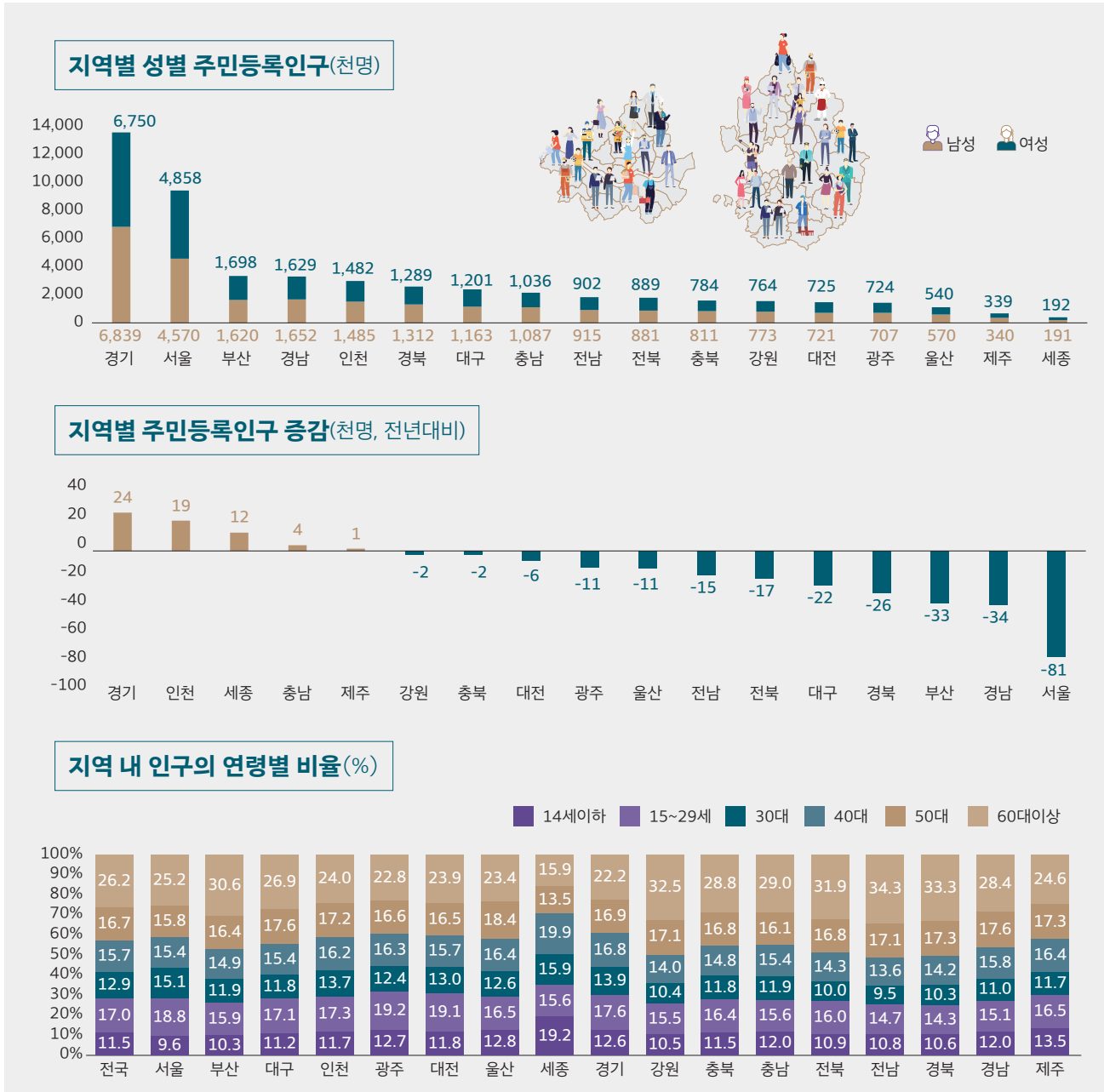
www.moel.go.kr

09 시도별 노동시장의 주요특징 비교

1. 지역별 인구 현황

주민등록인구 현황(2022년, 행정안전부)

2022년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44만명으로 최초작성년도인 1992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였다. 2022년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제주의 인구는 전년대비 증가했으나, 이외 지역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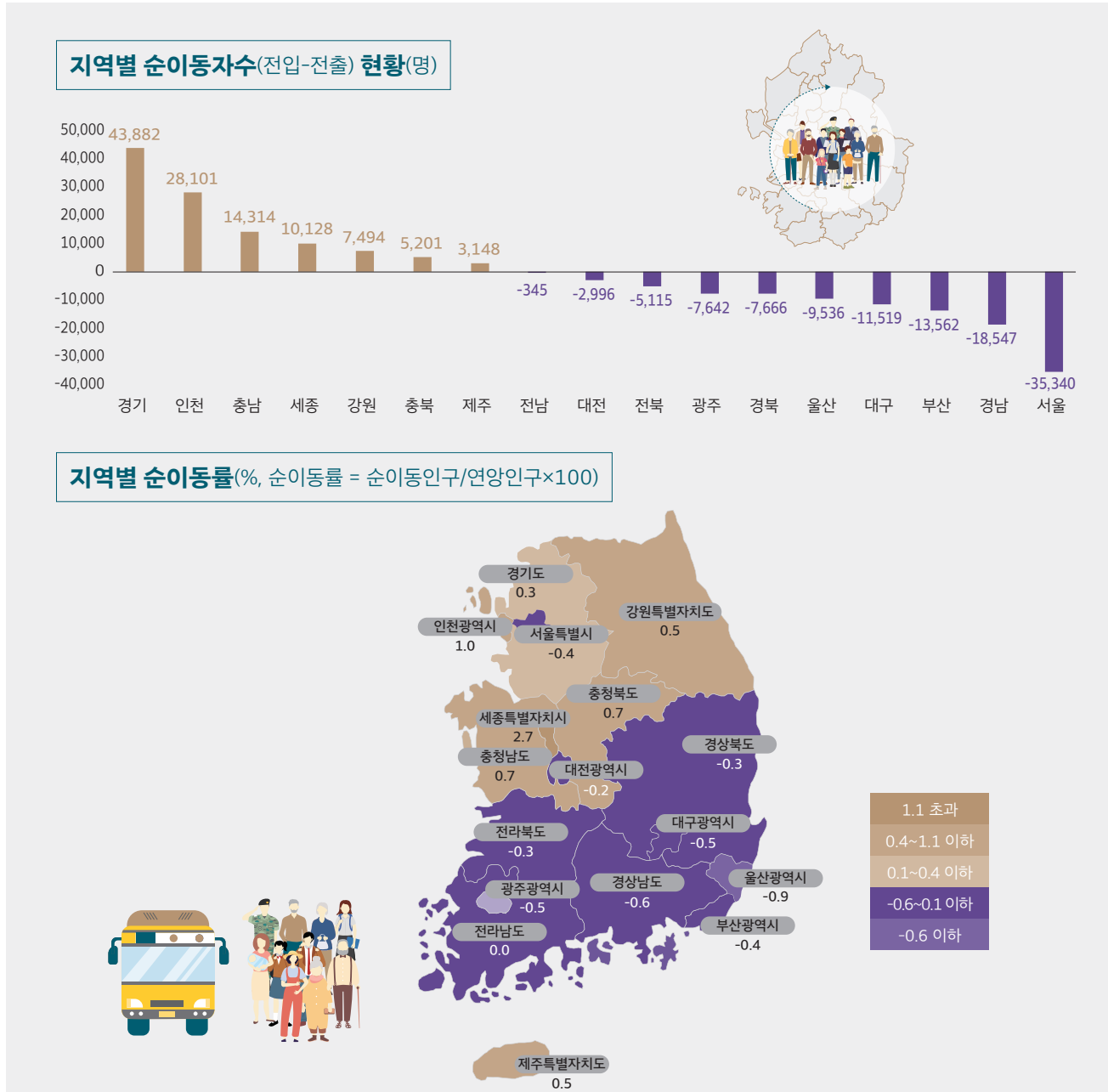


- + 지역 내 인구 중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51.5%)이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세종, 대전의 여성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울산시(48.6%)의 여성 비율이 가장 낮았다.
- + 청년 비율은 광주(19.2%), 대전(19.1%), 서울(18.8%) 등 특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60대이상 비율은 전남(34.3%), 경북(33.3%), 강원(32.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산은 특광역시 중 60대이상 비율(30.6%)이 가장 높고, 세종은 60대이상(15.9%)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2. 인구 이동 현황

국내인구이동통계(2022년, 통계청)

2022년 지역별 인구이동 현황을 보면 경기, 인천, 충남, 세종, 강원, 충북, 제주는 순유입(전입>전출)이 발생했고, 서울, 경남, 부산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이 발생했다.



+ 순유출인구가 -3만5천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은 주택난, 직장이동 등으로 경기, 인천, 강원, 제주,세종으로 인구유출이 발생한 반면, 이외 지역으로부터 통근·통학을 위한 유입이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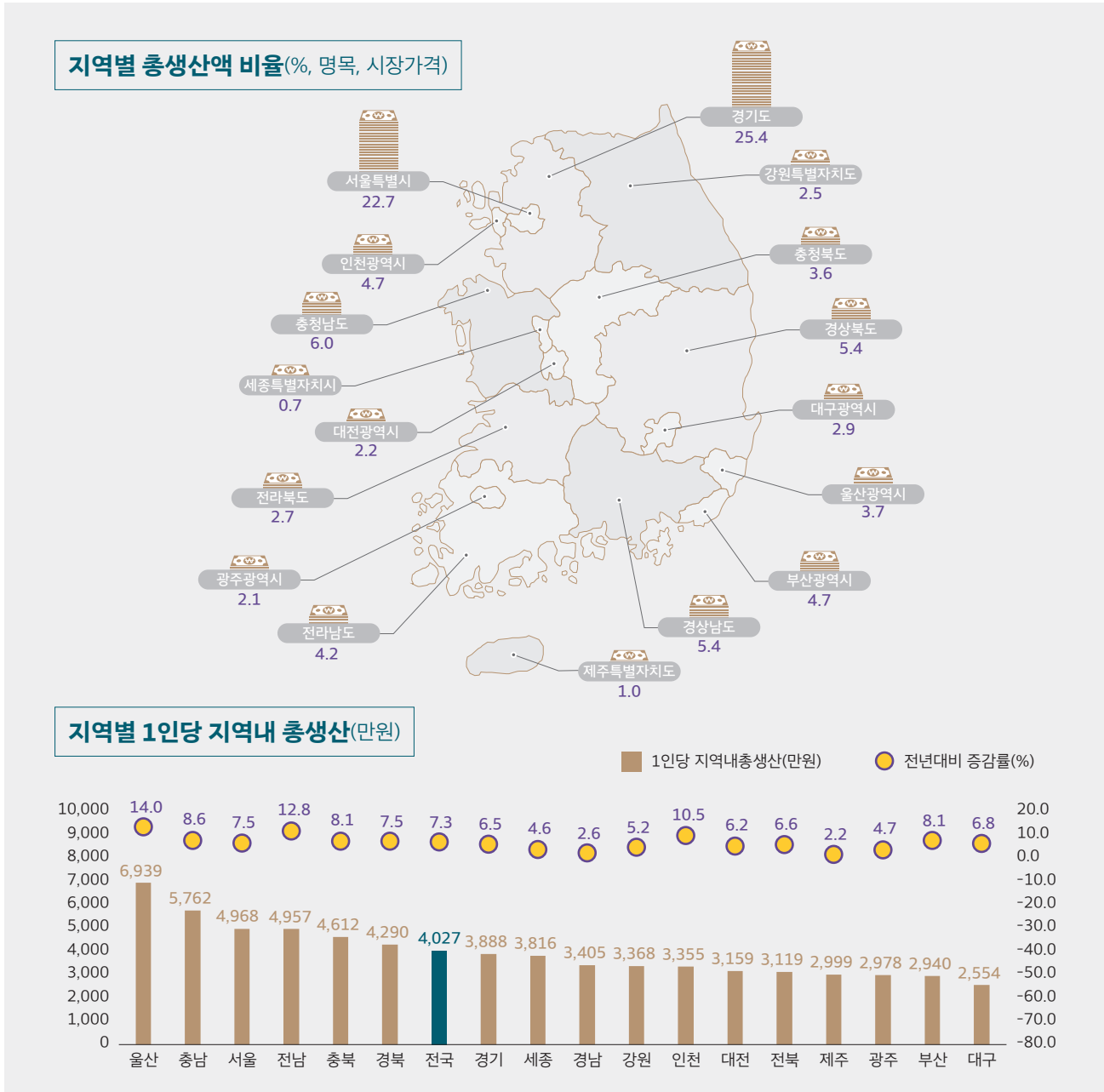
+ 세종시의 순이동률은 2.7%로 전국에서 순유입이 가장 높으나 2015년 29.0% 이후 하락하는 추세이다.

3. 지역내총생산 (GRDP)

지역소득(2021년, 통계청)

2021년 전국 총생산은 2,084조원으로 경기(529조원)와 서울(472조원)이 절반에 가까운 48.0%를 차지한다.

전년대비 총생산 성장률은 7.2%로 2010년(+9.9%)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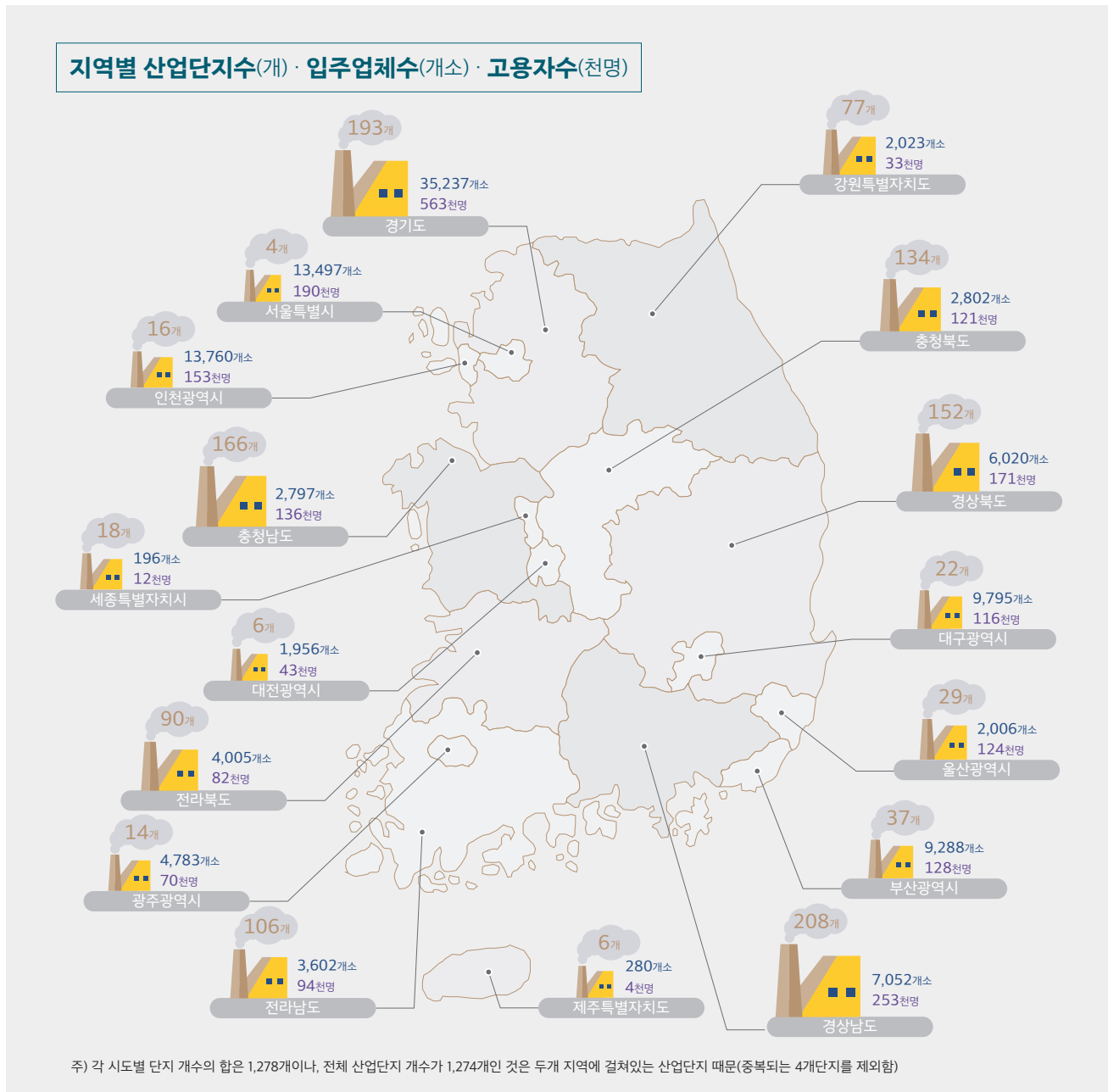
+ 산업별로는 운수 및 창고업, 농림어업, 금융보험, 제조업, 정보통신 순으로 생산액이 증가했으며, 전기가스증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생산액이 증가했다.

+ 울산의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6,939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고 전년대비 14.0% 증가했다. 울산에 이어 충남, 서울, 전남, 충북, 경북 순이며, 6개 지역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평균(4,027만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산업단지 분포 현황

산업단지 현황(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2022년 4분기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총1,274개로 11만9천개 사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총 고용 규모는 229만2천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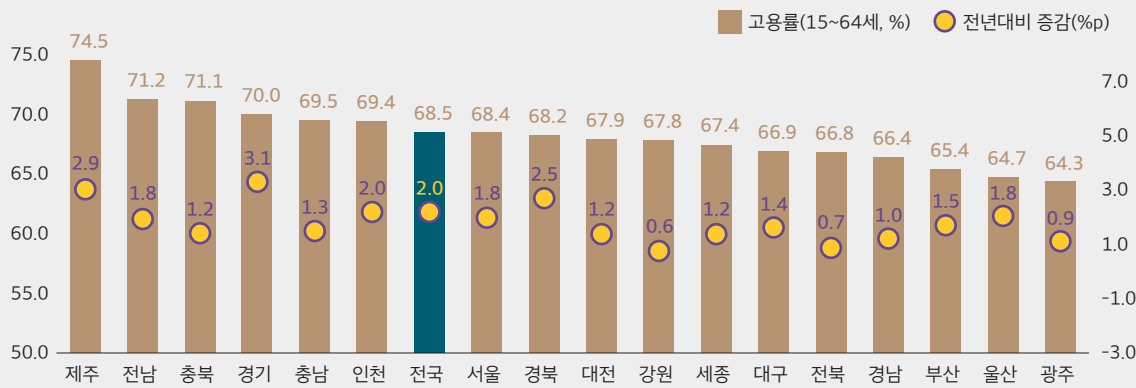
- + 지역별 산업단지수는 경남이 208개로 가장 많으나, 입주업체수는 경기(35,237개소), 인천(13,760개소), 서울(13,497개소) 등 수도권과 대구, 부산, 경남 등에 집중되어 있다.
- + 산업단지 내 고용자 규모는 경기(563천명), 경남(253천명), 서울(190천명), 경북(171천명), 인천(153천명), 충남(136천명) 등의 순으로 크며, 충북(+11천명), 경기(+11천명), 서울(+6천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고용자수가 증가했다.

5.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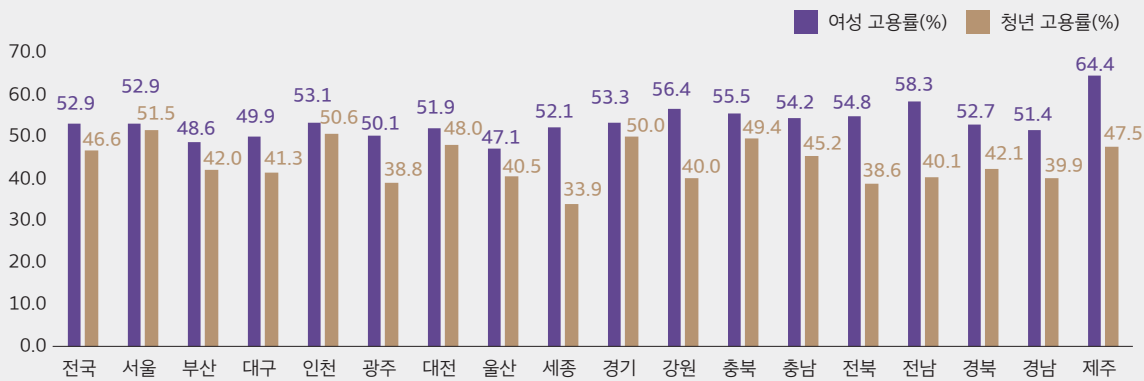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2022년, 통계청)

2022년 고용은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증가, 비대면·디지털 전환 등 구조 변화 영향 지속 등으로 이례적 호조세를 시현하면서 2022년 전국 평균 고용률(15~64세)은 68.5%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제주의 고용률이 74.5%로 가장 높고, 충청권(충북, 충남)과 수도권(인천, 경기)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역별 15~64세 고용률(%) 및 전년대비 증감(%p)



지역별 여성 및 청년 고용률(%)



+ 경기(+3.1%p), 제주(+2.9%p), 경북(+2.5%p), 인천(+2.0%p)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며 전국 평균 고용률(15~64세)은 +2.0%p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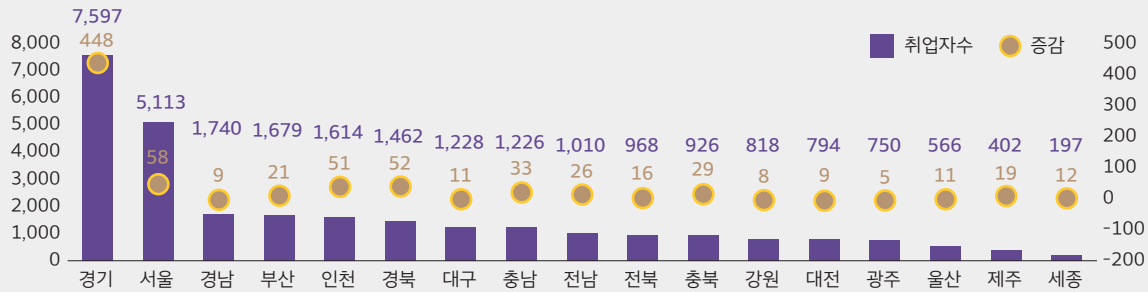
+ 여성 고용률은 제주, 전남, 강원, 충북, 전북 등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청년 고용률은 수도권과 충북, 대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6.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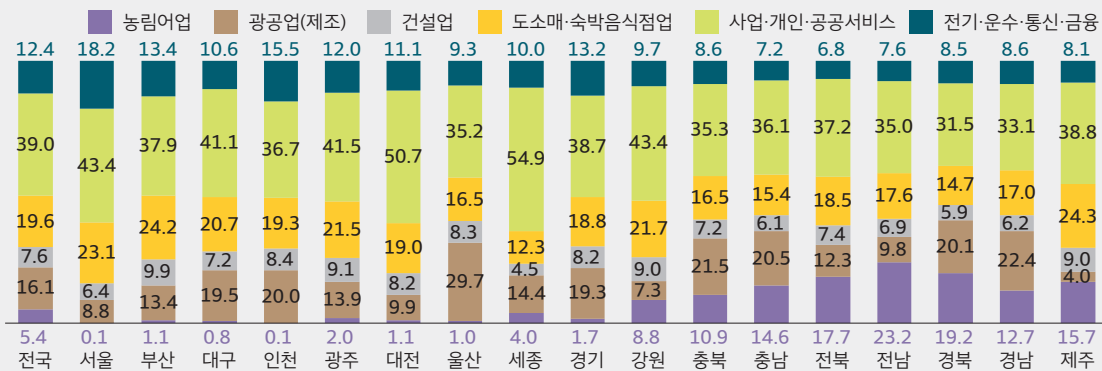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2022년, 통계청)

2022년 취업자수는 2,808만 9천명으로 지난해보다 경기(+448천명), 서울(+58천명), 경북(+52천명), 인천(+51천명) 등을 중심으로 81만6천명 증가하면서 취업자 증가폭은 2000년(+88만2천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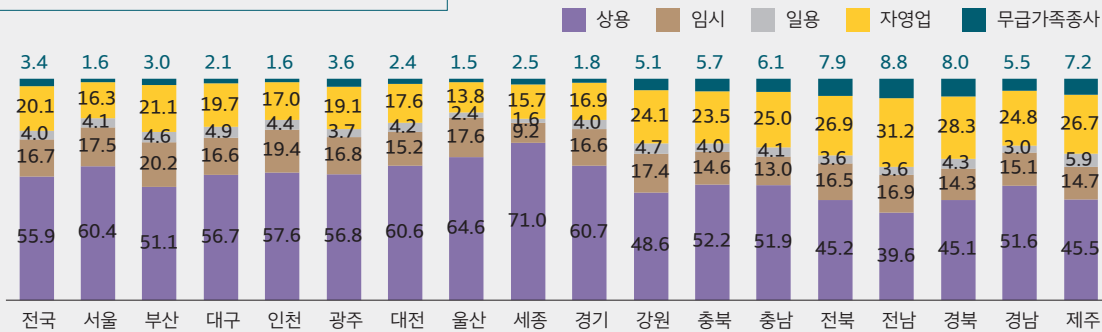
지역별 취업자수 및 전년대비 증감(천명)



지역별 취업자의 산업별 비율(%)



지역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비율(%)



+ 취업자 중 광공업(제조) 비율(전국평균 16.1%)은 울산(29.7%), 경남(22.4%), 충북(21.5%), 충남(20.5%), 경북(20.1%), 인천(2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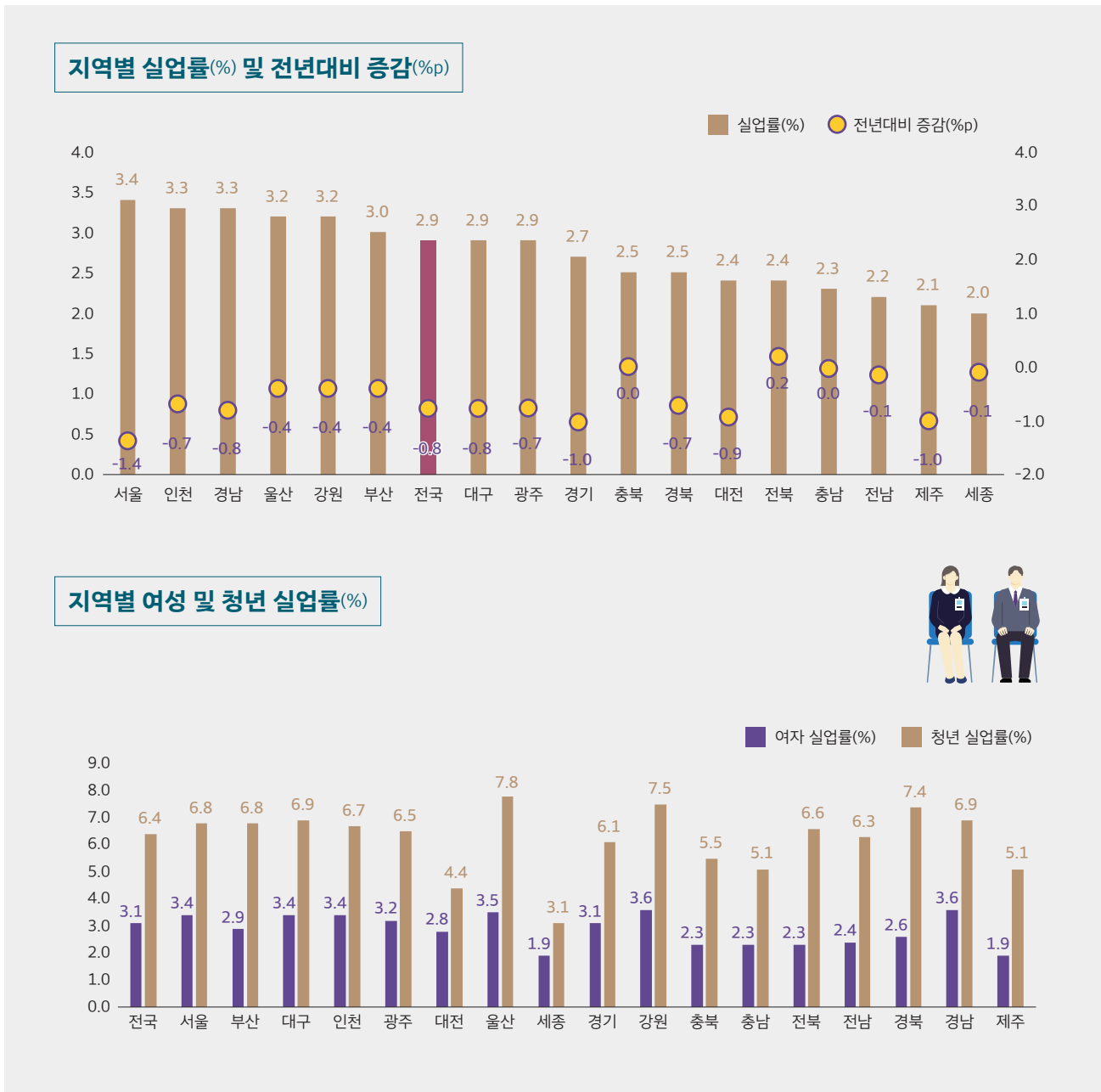
+ 취업자 중 종사상지위별 비율을 보면, 상용직은 공공행정 및 제조업 비율이 높은 세종(71.0%), 울산(64.6%), 경기(60.7%)에서, 임시·일용직은 부산(24.8%), 인천(23.8%), 강원(22.1%), 서울(21.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2022년, 통계청)

2022년 전국 실업률은 2.9%로 통계작성이래 최저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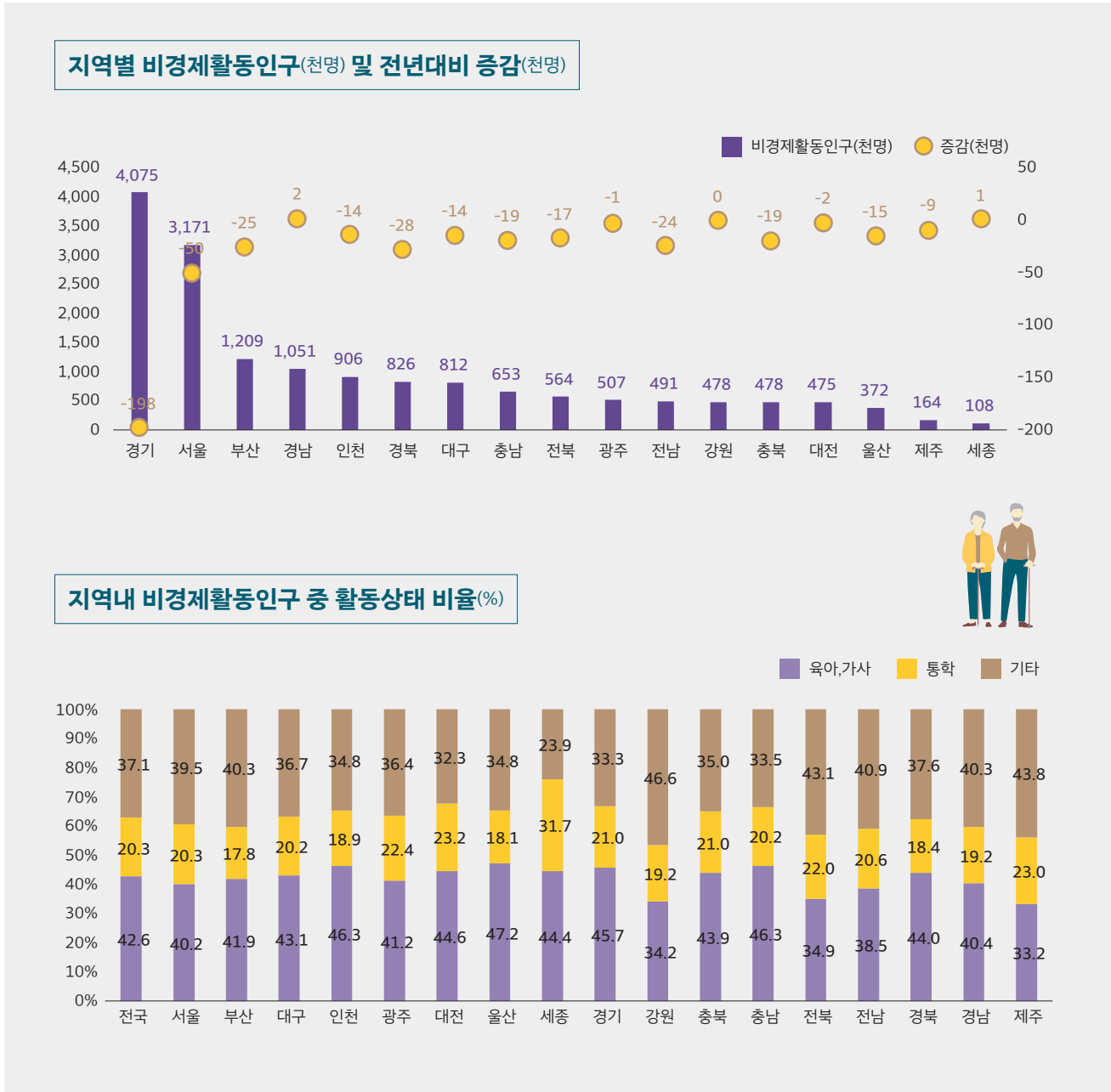
서울(3.4%), 인천(3.3%), 경남(3.3%) 등 6개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 + 실업률은 전북(+0.2%p), 충남·북(동일)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하락하였다.
- + '20년에 이어 3년 연속 여자 실업률이 남자를 상회했다.(남자 2.7%, 여자 3.1%) 지역별로는 제주, 전북, 충북, 부산, 세종의 여자 실업률이 남자를 상회했다.
- + 청년 실업률(6.4%)은 전년대비 -1.4%p 하락했으며, 전북(+0.7%p), 충남(+0.2%p)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전년대비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울산 청년 실업률이 7.8%로 가장 높고, 세종이 3.1%로 가장 낮았다.

8.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2022년, 통계청)

2022년 비경제활동인구는 1,633만9천명으로 전년대비 -43만2천명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198천명), 서울(-50천명), 경북(-28천명) 등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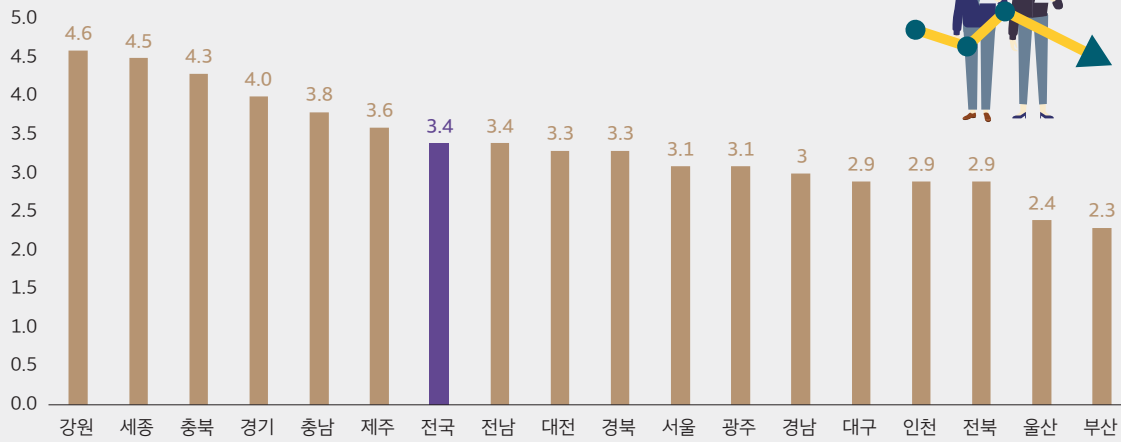
- + 부산, 광주, 대구, 울산, 서울, 경남, 대전, 전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63.9%)보다 낮으며, 특히 부산(58.9%)은 6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 + 대부분 지역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가사 비중이 40%를 상회하나, 제주(33.2%), 강원(34.2%), 전북(34.9%), 전남(38.5%)은 상대적으로 낮아 40%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9.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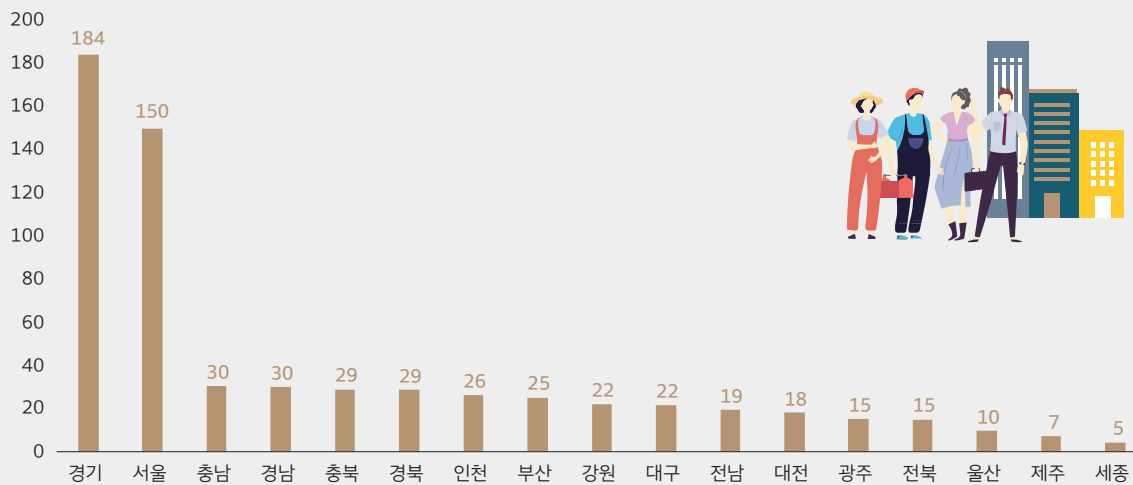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022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10.1기준) 인력부족률은 강원(4.6%), 세종(4.5%), 충북(4.3%)순으로 높고, 부산(2.3%), 울산(2.4%)순으로 낮았다.

지역별 인력부족률(% , 인력부족률=[부족인원/(부족인원+현원)]×100)



지역별 채용계획인원(천명, '22.10 ~ '23.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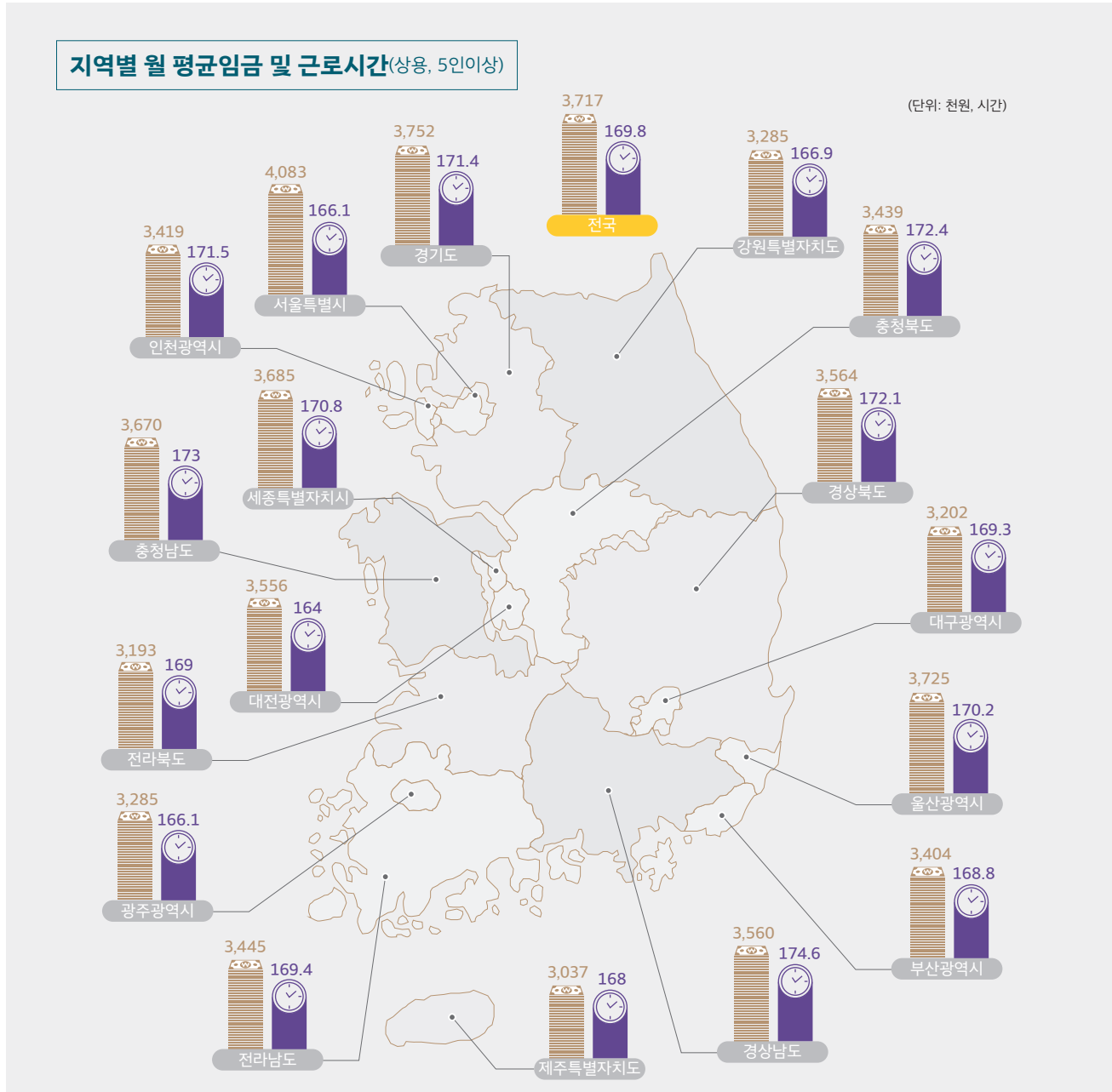


+ 지역별 채용계획인원은 경기(184천명)와 서울(150천명)가 전국의 52.4%를 차지하고, 이어 충남(30천명), 경남(30천명), 충북(29천명), 경북(29천명), 인천(26천명) 등의 순으로 규모가 컸다.

10. 근로조건

사업체노동력조사(2022년, 고용노동부)

2022년(4월기준) 상용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서울(4,083천원), 경기(3,752천원), 울산(3,725천원)순으로 많고 제주(3,037천원)가 가장 적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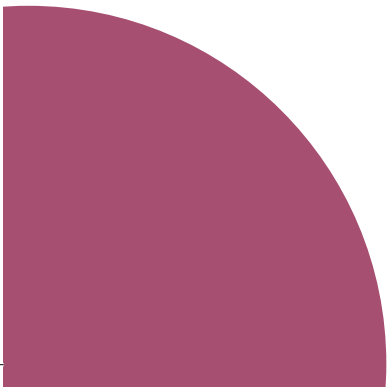


- + 고임금 업종인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이 집중된 서울시와 자동차·선박 제조 등 대규모 제조업체와 협력업체가 밀집된 울산시 임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제주도는 임금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률은 충북(+4.8%), 울산(+4.7%), 제주(+4.7%)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충남(-1.0%), 전남(+1.6%) 순으로 낮게 나타남
- + '22.4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경남(174.6시간), 충남(173.0시간) 순으로 길고, 대전(164.0시간), 서울(166.1시간), 광주(166.1시간) 순으로 짧음
- * 경상남도과 충청남도 근로시간이 긴 것은 산업 중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긴 제조업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기 때문이며, 반면, 대전시, 서울시, 광주시는 제조업 비중이 낮고 근로시간이 짧은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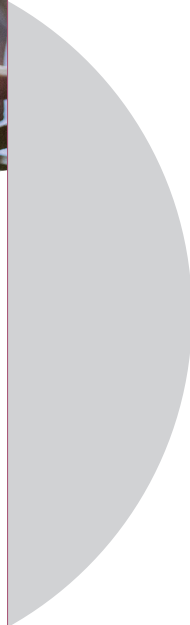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2년 기준



02

대상별 현황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www.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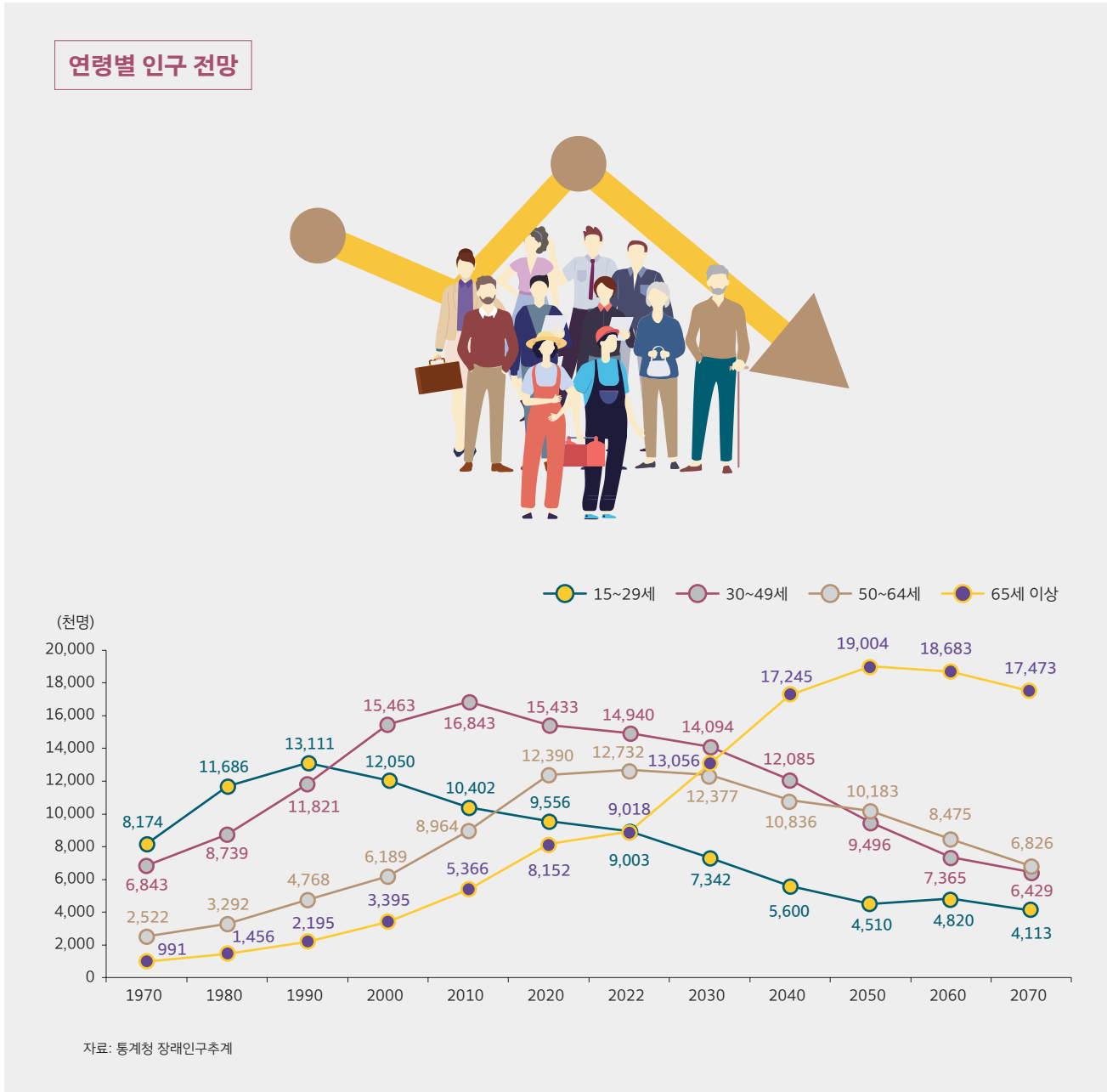
이 청년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청년 인구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15~29세)인구는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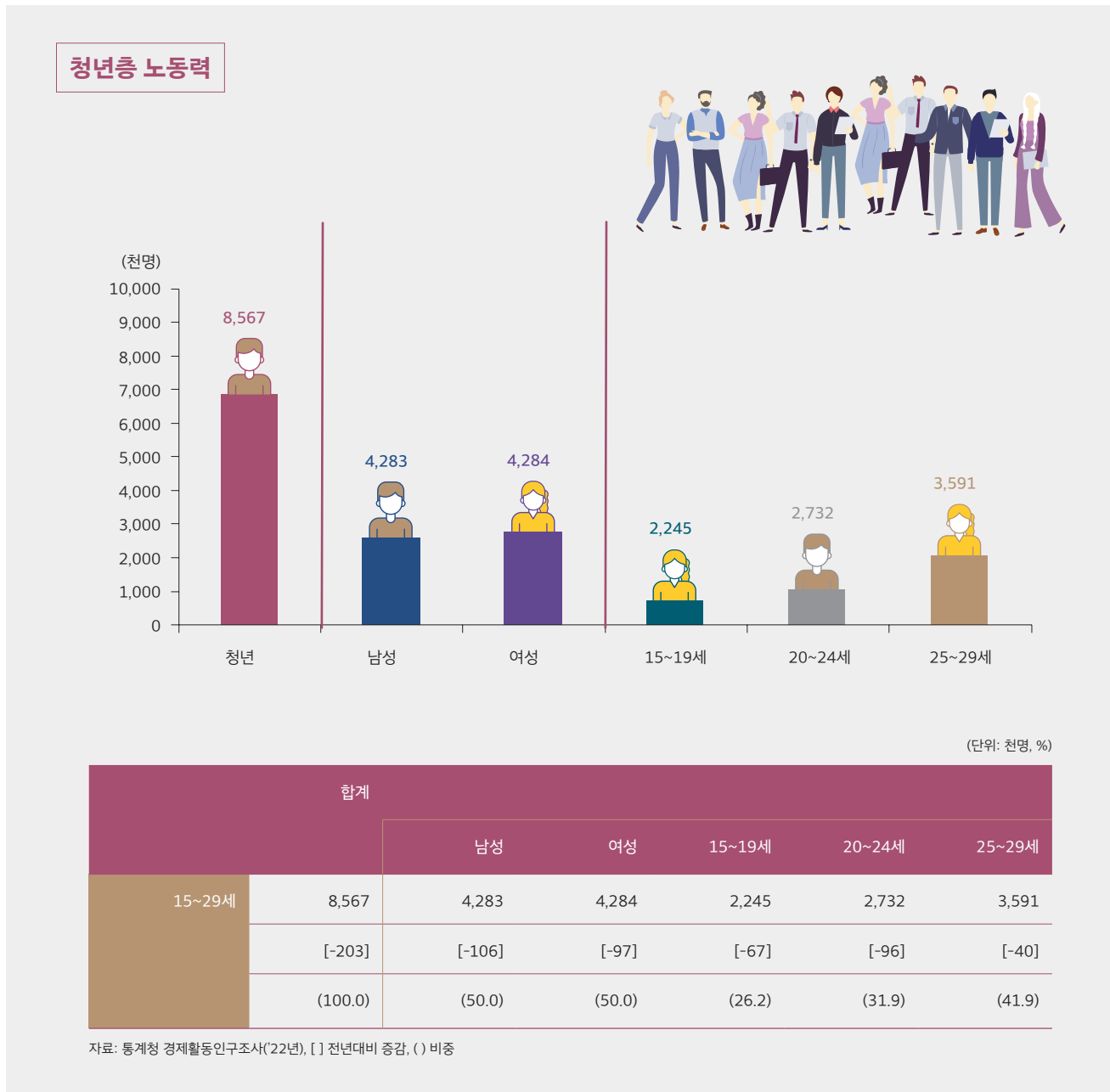


+ 1990년의 청년인구(13,111천명)를 기준으로 2022년(9,003천명)은 68.7% 수준이고, 2070년(4,113천명)에는 31.4%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노동력*

2022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인구는 8,567천명이고, 남녀 비중은 동일하다. 연령별로 15~19세가 가장 적고, 20~24세 감소폭이 가장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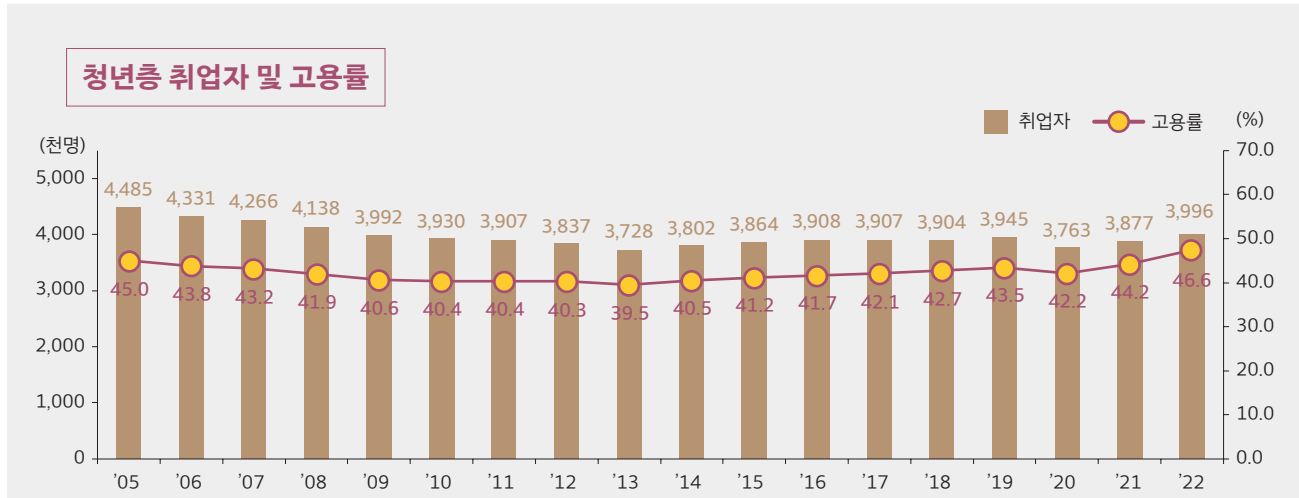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인구'는 「인구추계」의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숙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2. 청년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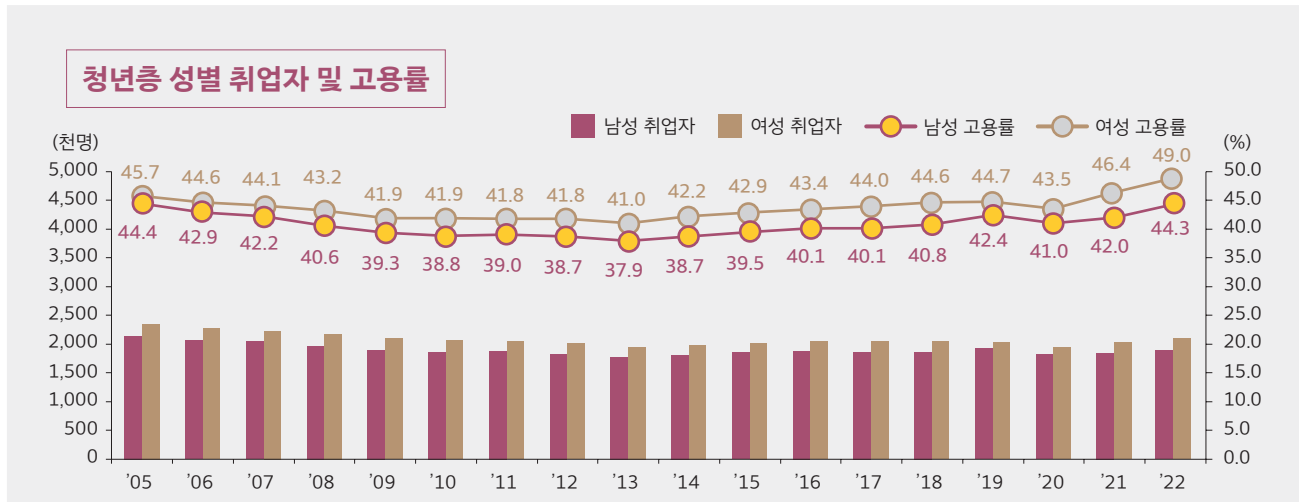
2022년 청년인구 중 취업자는 3,996천명이고 고용률은 46.6%이다.
 연도별로 청년고용률은 2013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감소하였고, 2021년이후 증가 지속하고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2년 청년층 남성 취업자는 1,896천명, 고용률은 44.3%이고
 여성 취업자는 2,100천명, 고용률은 49.0%이다.
 연도별로 보면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남녀 모두 2021년이후 증가 지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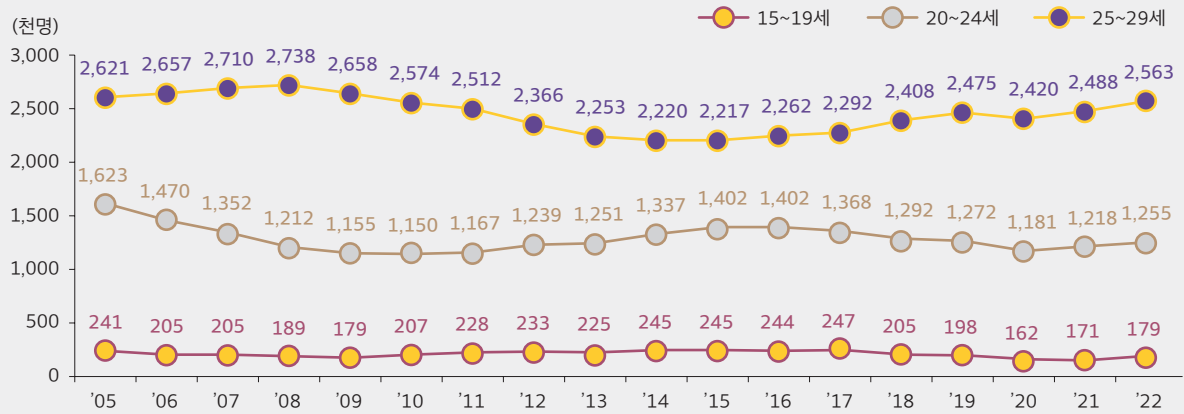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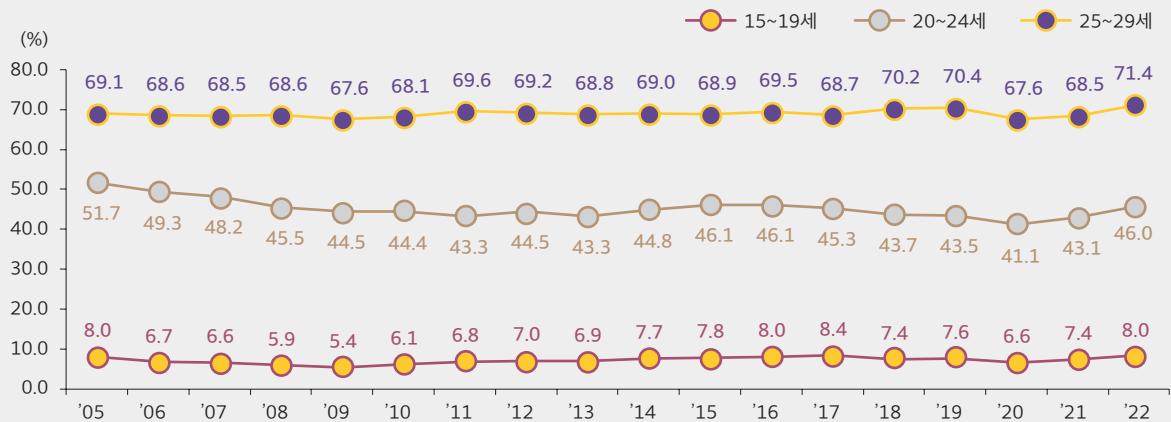
2022년 청년층 취업자와 고용률 모두 세부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

청년층 연령별 취업자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연령별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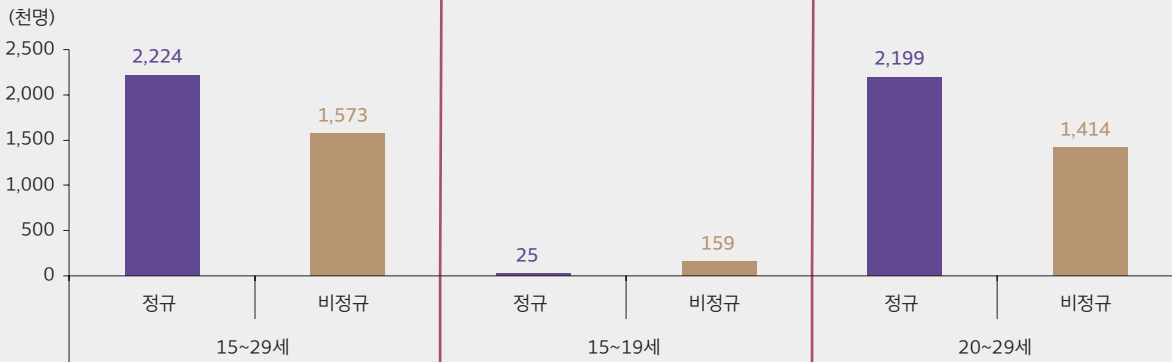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2022년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58.6%, 비정규직은 41.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10대후반의 정규직 비중이 낮은 이유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 때문이다.

청년층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청년층 정규직, 비정규직 수 및 비중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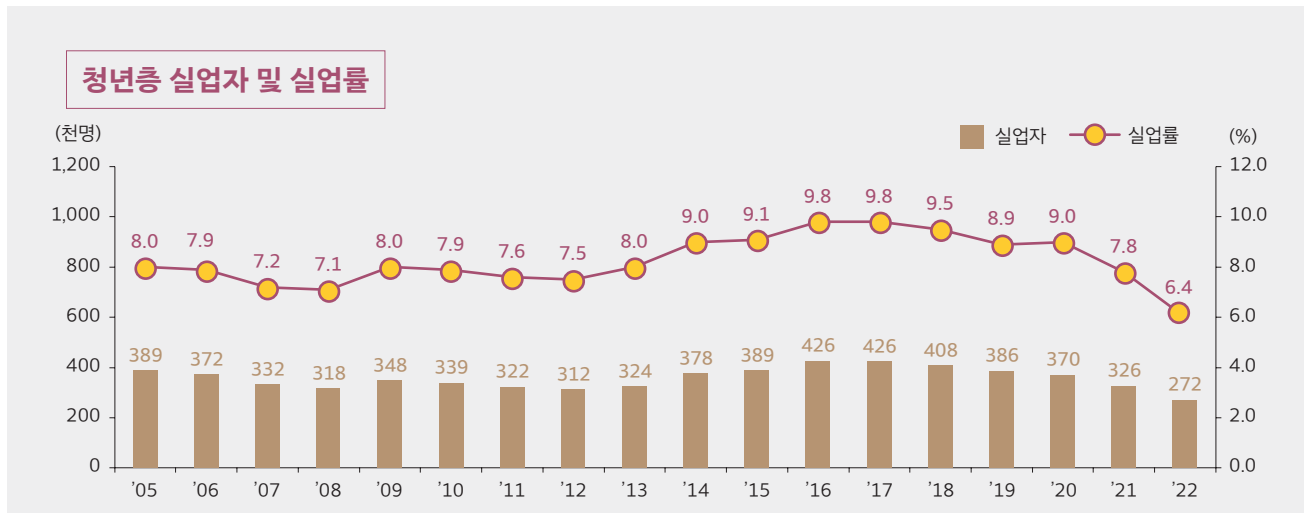
		'16.8	'17.8	'18.8	'19.8	'20.8	'21.8	'22.8
15~29세	임금근로자	3,717	3,741	3,681	3,749	3,562	3,711	3,796
	정규	2,408	2,405	2,406	2,236	2,142	2,149	2,224
	비정규	1,309 (35.2)	1,336 (35.7)	1,275 (34.6)	1,513 (40.4)	1,421 (39.9)	1,561 (42.1)	1,573 (41.4)
15~19세	임금근로자	262	244	204	194	164	174	184
	정규	65	64	53	42	25	26	25
	비정규	197 (75.3)	179 (73.6)	151 (74.0)	151 (78.0)	138 (84.5)	148 (85.1)	159 (86.4)
20~29세	임금근로자	3,455	3,498	3,478	3,555	3,399	3,537	3,613
	정규	2,343	2,341	2,353	2,194	2,116	2,124	2,199
	비정규	1,112 (32.2)	1,157 (33.1)	1,124 (32.3)	1,362 (38.3)	1,283 (37.7)	1,414 (40.0)	1,414 (39.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3. 청년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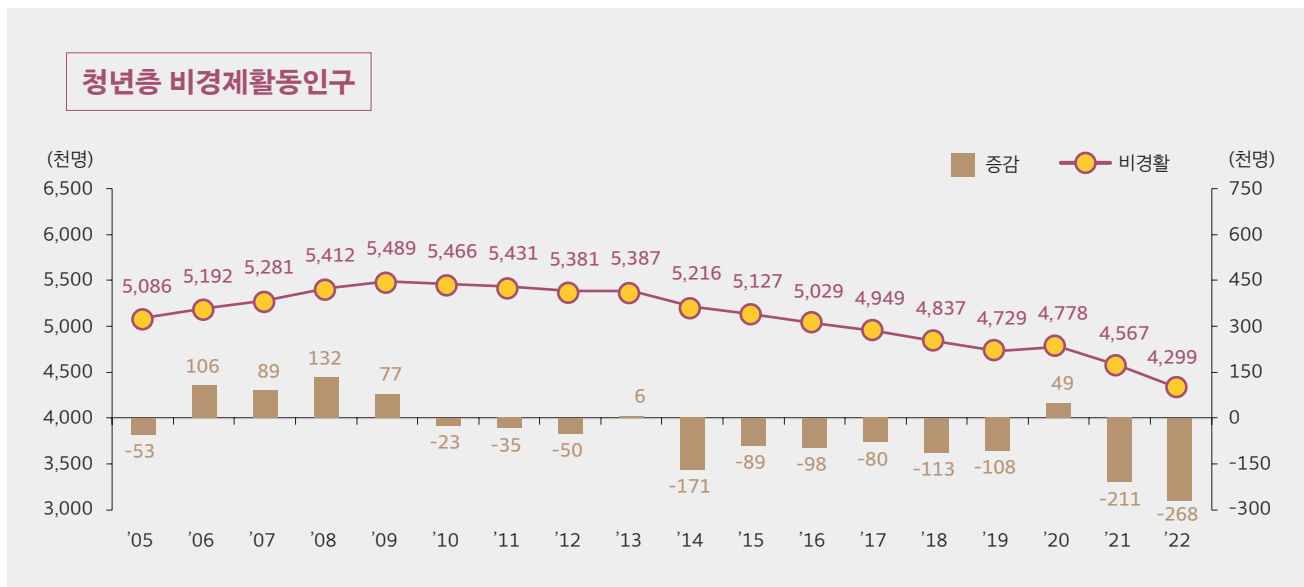
실업자 및 실업률

2022년 청년층 실업률은 6.4%로 2017년을 고점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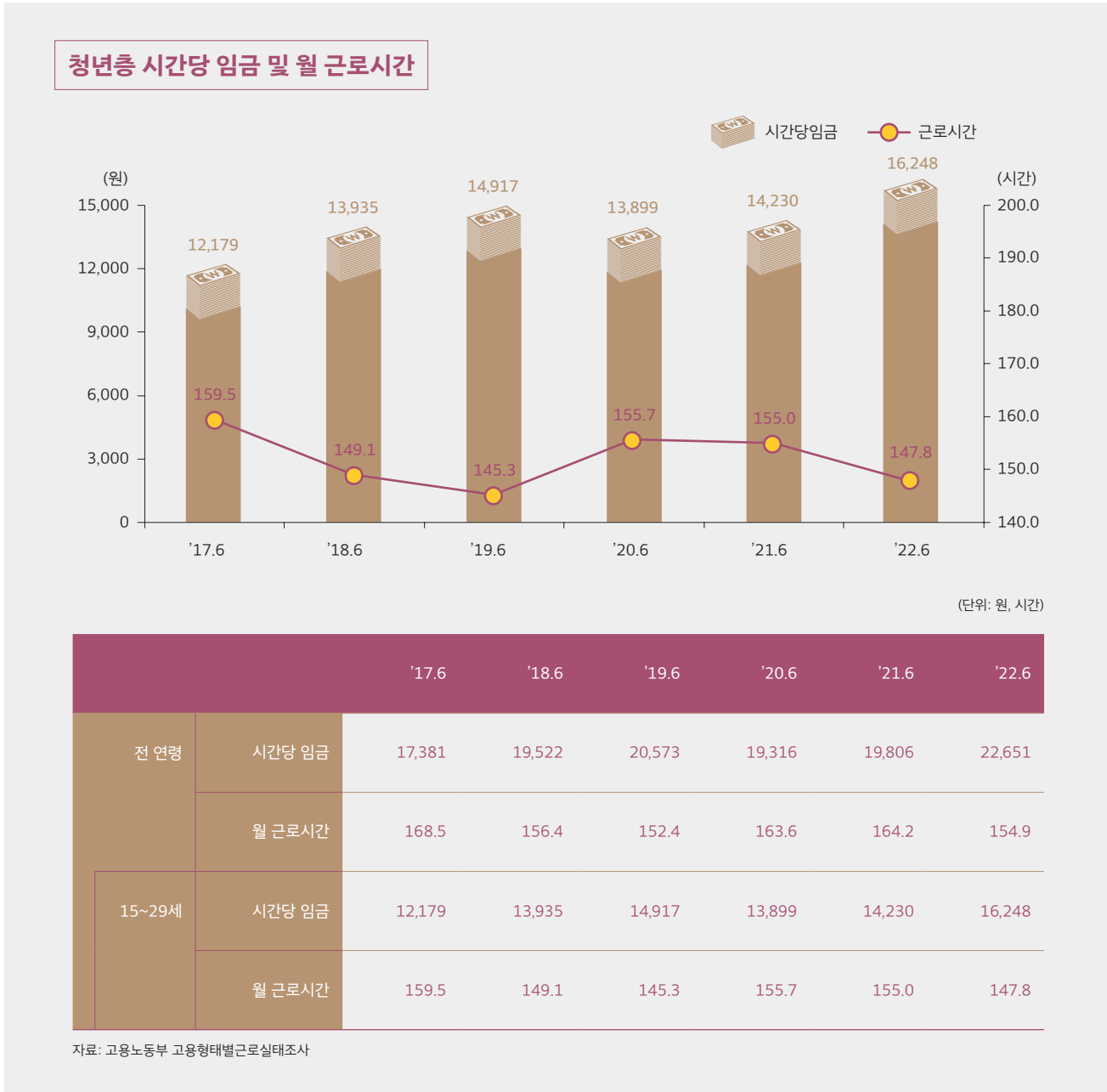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4. 청년 근로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청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6,248원이고 월 근로시간은 147.8시간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시간당 임금은 증가하였고 근로시간은 감소하였다.

* 청년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17) 21→ ('18) 19→ ('19) 19→ ('20) 22→ ('21) 22→ ('22) 20

5. 취업 활동 과정 첫 취업 소요기간

최근 청년들의 졸업 또는 중퇴후 첫취업까지 소요기간은 10.8개월이다.

(단위: 개월)

	'13.5	'14.5	'15.5	'16.5	'17.5	'18.5	'19.5	'20.5	'21.5	'22.5
첫 취업 평균소요기간	10.4	10.6	10.0	10.2	10.6	10.7	10.8	10.0	10.1	1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취업 경험 및 취업소요기간 분포

취업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취업까지의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단위: 천명)

		'13.5	'14.5	'15.5	'16.5	'17.5	'18.5	'19.5	'20.5	'21.5	'22.5
취업 유경험자		3,857	3,827	3,926	4,033	4,101	4,140	4,168	4,070	4,056	4,117
임금 근로자		3,754	3,708	3,788	3,909	4,012	4,054	4,070	3,963	3,953	4,018
첫 취업 소요 기간	3개월 미만	1,918	1,888	1,950	1,998	2,006	2,011	2,015	1,950	1,874	1,967
	3~6개월 미만	477	484	497	511	542	487	522	532	556	482
	6개월~1년 미만	382	364	341	355	352	438	405	449	470	409
	1~2년 미만	414	414	440	420	465	468	476	471	464	528
	2~3년 미만	215	214	236	283	258	282	266	251	267	275
	3년 이상	349	343	325	343	389	368	387	309	323	358
비임금 근로자		103	119	137	124	89	86	98	107	104	9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직업선택 기준

직업선택기준으로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경제적 보상	성취	고용안정	심신의 안녕	인정	자율
4.14	4.01	4.04	3.90	3.97	3.8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1년, 5점척도

주) 청년패널조사 응답자 중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만19~28세) 대상이며, 횡단면 가중치 적용

취업 희망기업

최근 청년들의 취업희망기업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으로 나타났다.

(단위: %)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	일반중소기업	전문중소기업	창업
전체	24.72	34.89	2.56	19.60	13.15	5.08
남성	28.08	32.95	3.14	16.93	15.81	3.10
여성	21.46	36.77	1.99	22.21	10.57	7.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1년)

주) 청년패널조사 응답자 중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만19~28세) 대상이며, 횡단면 가중치 적용

취업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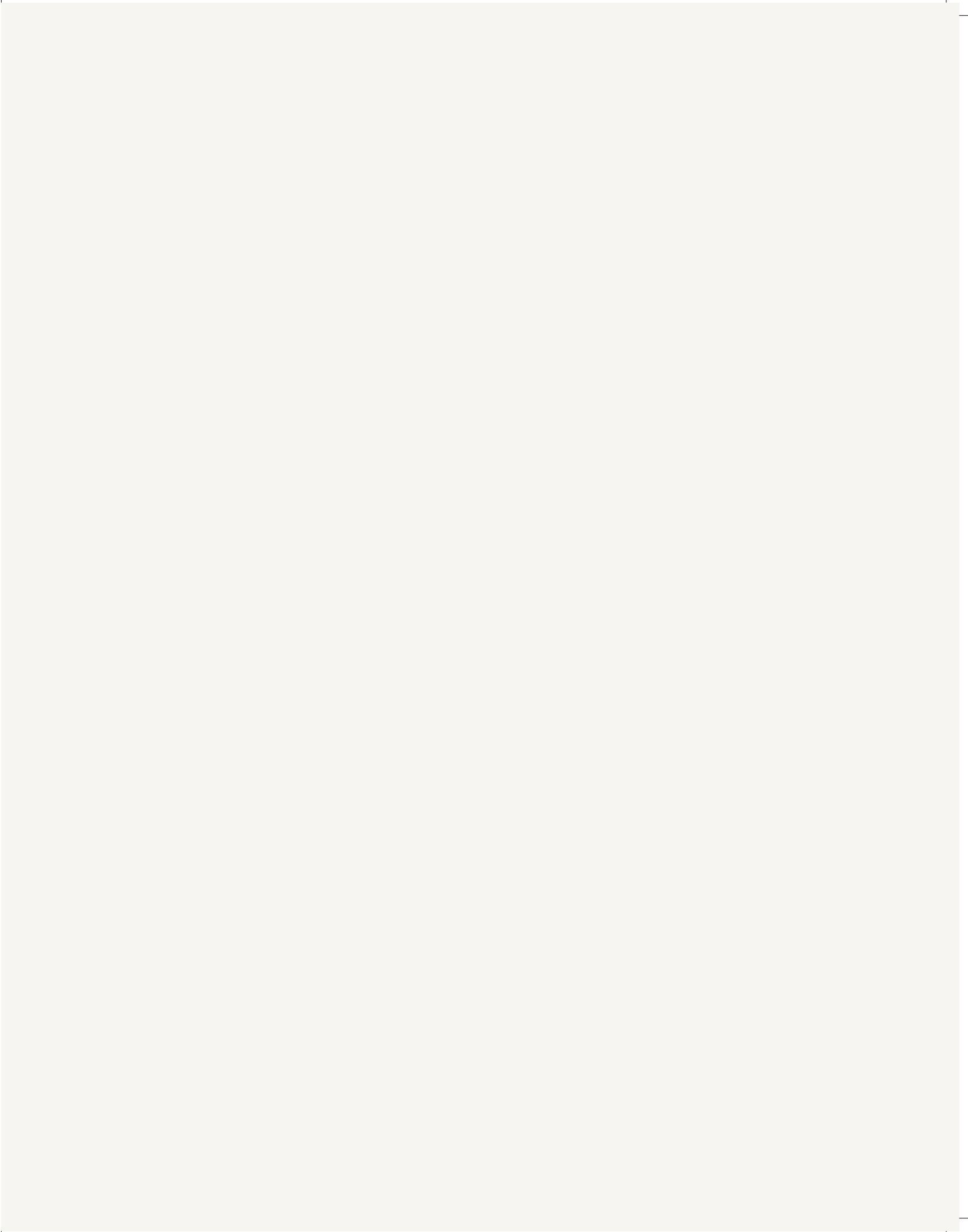
취업준비에서의 애로사항은 취업정보 부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취업정보 부족	적성파악 미흡	경력 부족	요구자격 부적합	수입·보수 부적합	근무환경 부적합	서류·면접 탈락 부담	자격증 미보유	기타
전체	21.59	10.62	20.10	11.69	10.18	8.65	9.90	3.26	4.01
남성	21.59	8.55	21.73	11.85	9.40	7.91	11.62	3.17	4.18
여성	21.58	12.63	18.51	11.54	10.94	9.36	8.22	3.35	3.84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21년)

주) 청년패널조사 응답자 중 취업준비를 하는 대학(원) 재학생과 졸업생(만19~28세) 대상이며, 횡단면 가중치 적용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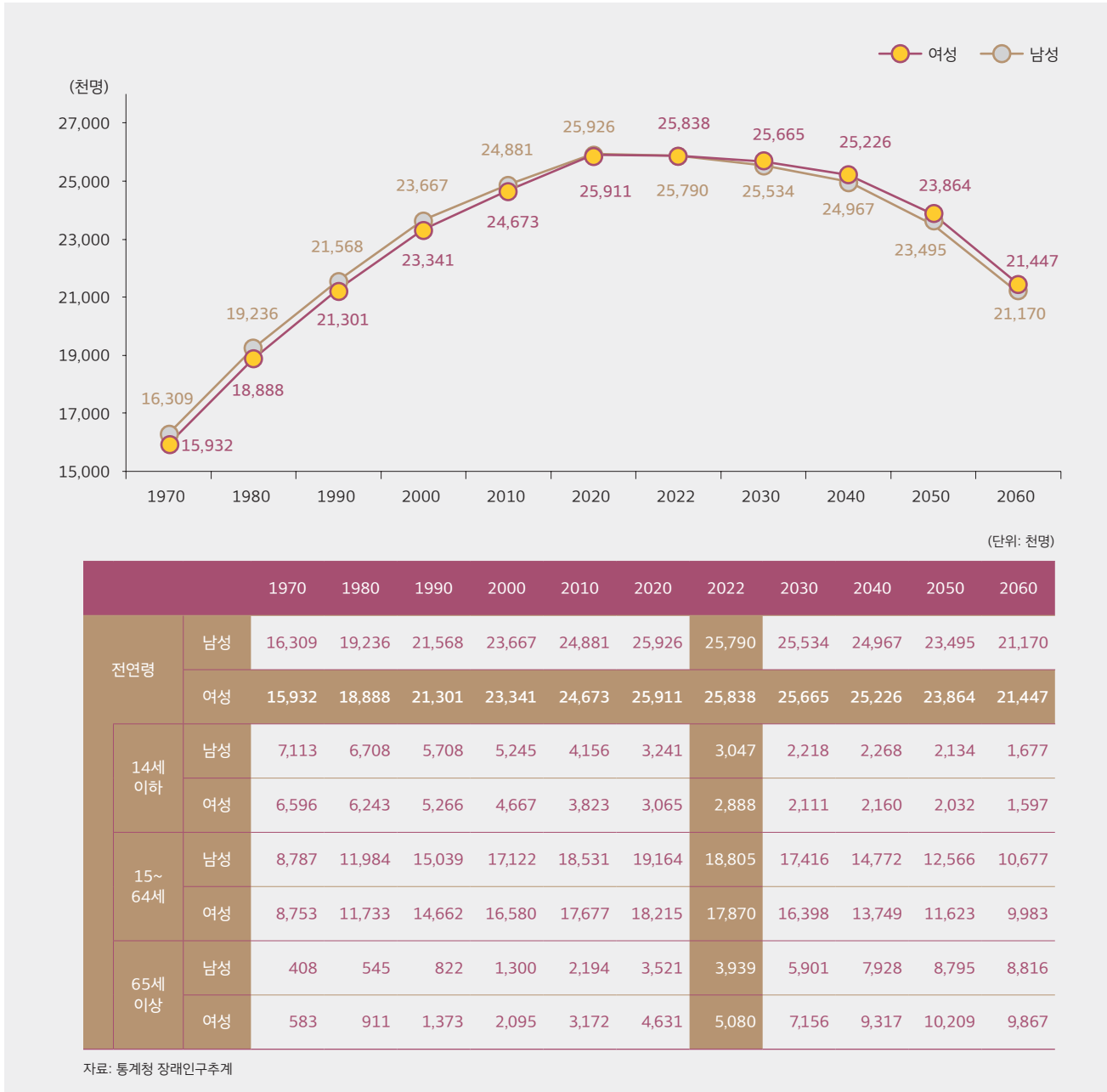
www.moel.go.kr

02 여성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여성 인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여성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남성인구 보다 많다. 한편 2021년 이후 여성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여성 노동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15세이상 인구 중 여성은 50.8%이다. 여성인구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30~49세(31.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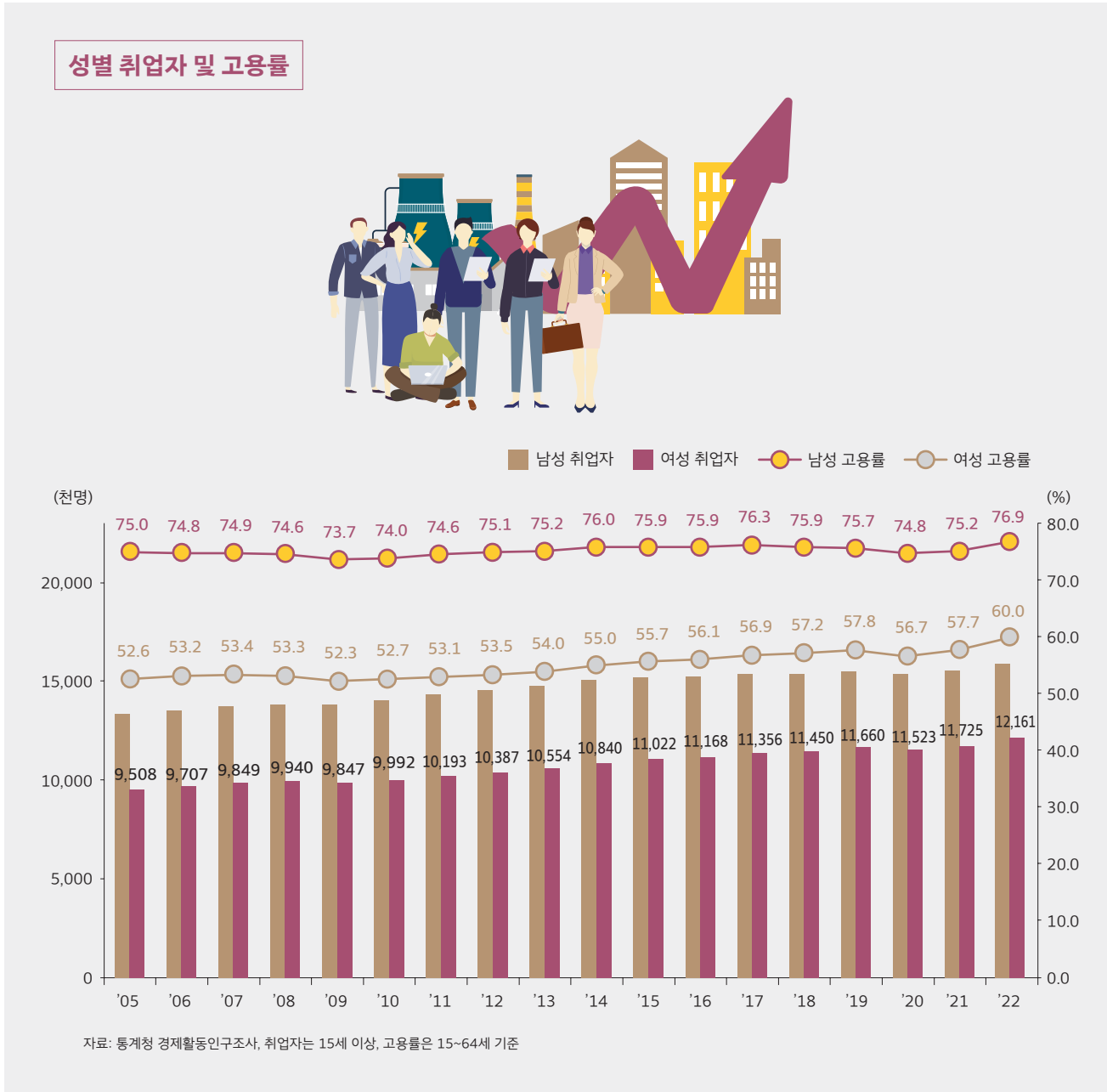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인구"는 「인구추계」의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숙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2. 여성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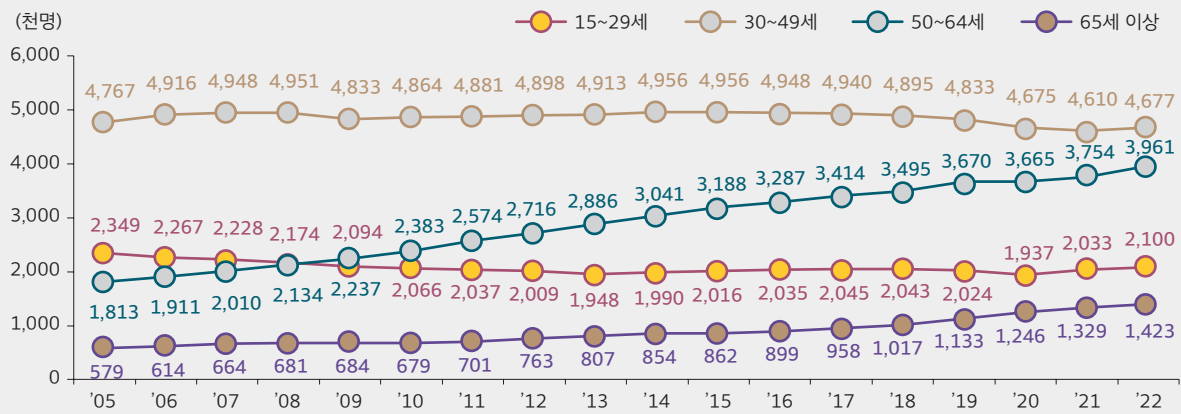
2022년 15세이상의 여성 취업자는 12,161천명이며, 15~64세 고용률은 60.0%이다. 여성 취업자와 고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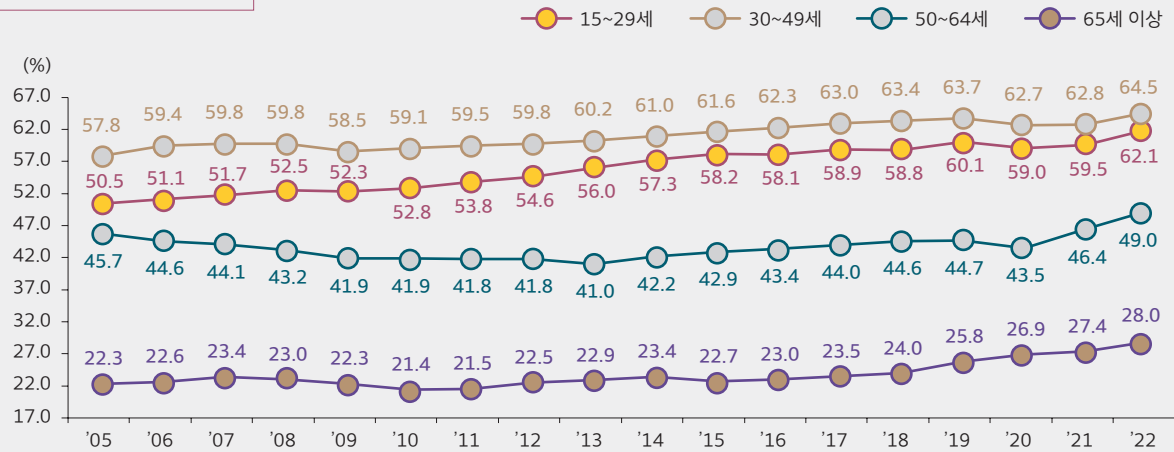
2022년 여성 취업자 중 30~49세 연령의 취업자는 4,677천명이고 고용률은 64.5%로 가장 높다. 연도별로는 50세이상 취업자와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 연령별 취업자 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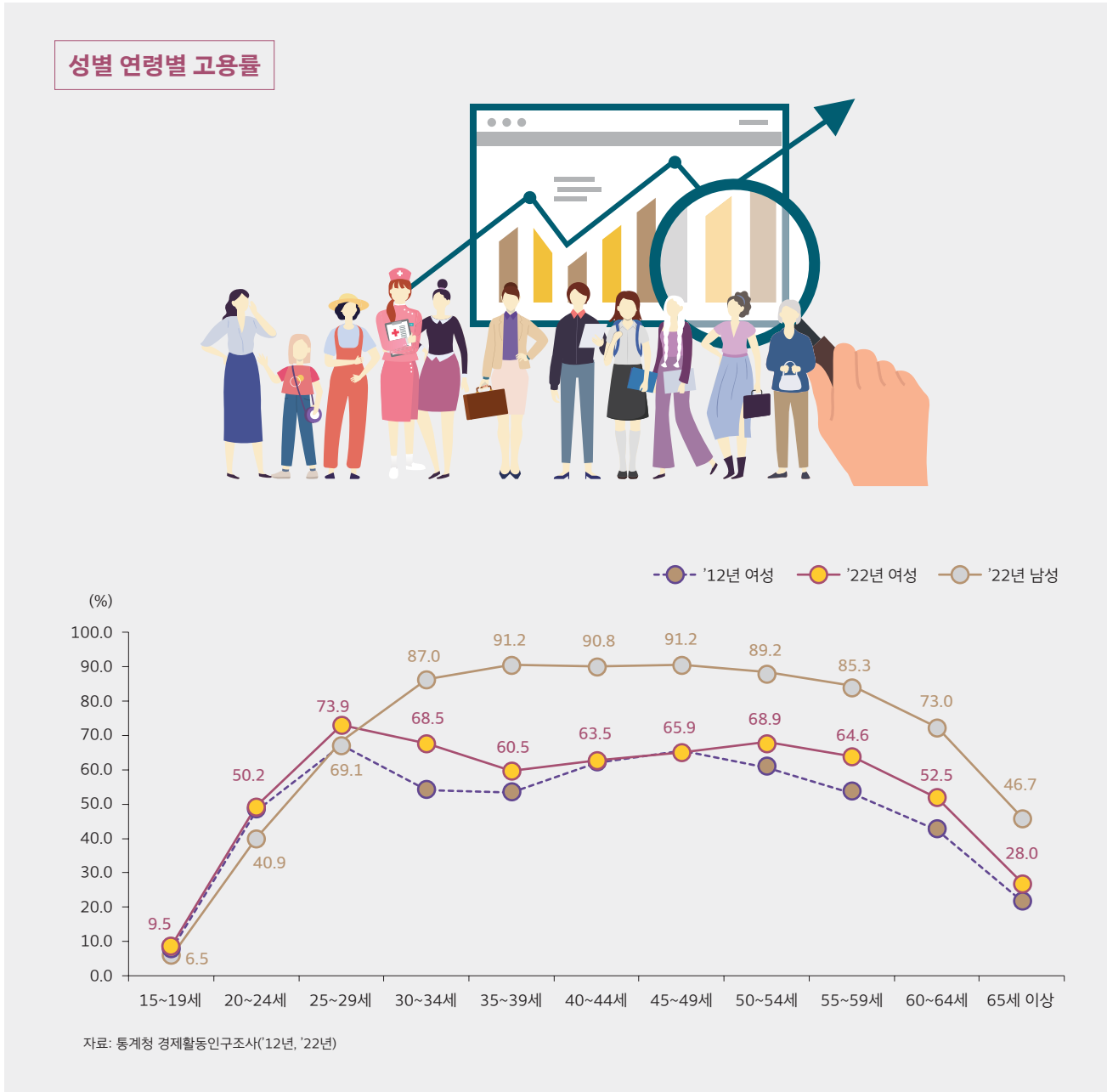
여성 연령별 고용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여성 고용률(M-커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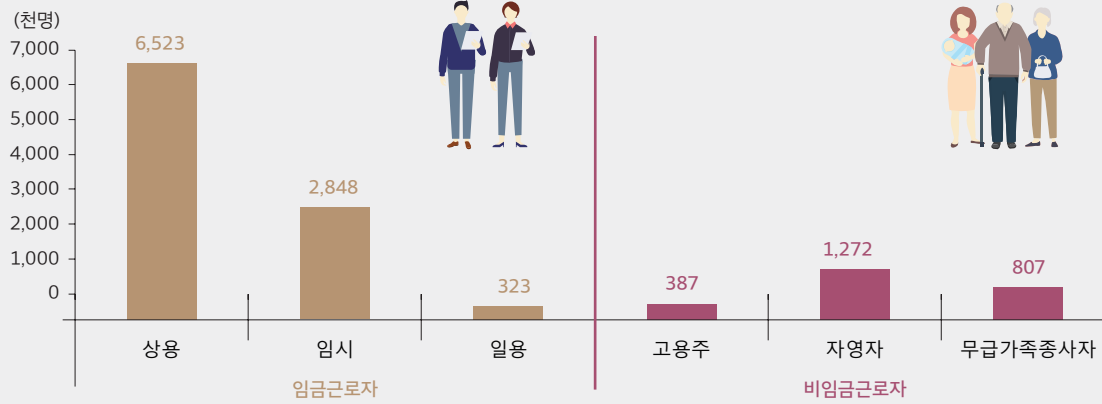
성별로 5세 단위의 고용률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와 같음



- + 남성의 군복무 등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빠르기 때문에 20대까지는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높음
- + 그러나 30대에 들어서면서 남성 고용률은 급속히 증가하여 30대 후반부터 40대까지 90%를 상회하는 반면 여성 고용률은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30대 후반에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했다 감소하는 M-커브 모양을 보임
- + 한편, '22년 M-커브를 '12년 M-커브와 비교해 보면, 우상향으로 이동했는데, 이는 여성의 결혼·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도 전체적으로 고용률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임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2022년 여성 취업자중 상용직은 53.6%, 임시·일용은 26.1%,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20.3%로 분포한다. 연도별로 상용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임시·일용 및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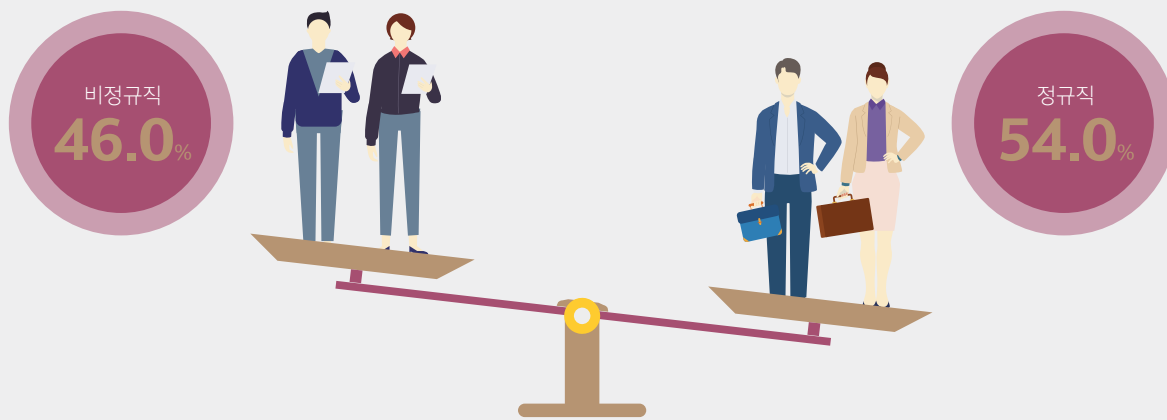
	'17	'18	'19	'20	'21	'22
전체	11,356 (100.0)	11,450 (100.0)	11,660 (100.0)	11,523 (100.0)	11,725 (100.0)	12,161 (100.0)
임금근로자	8,763 (77.2)	8,858 (77.4)	9,085 (77.9)	9,028 (78.3)	9,312 (79.4)	9,694 (79.7)
상용	5,196 (45.7)	5,425 (47.4)	5,680 (48.7)	5,855 (50.8)	6,092 (52.0)	6,523 (53.6)
임시	3,003 (26.4)	2,916 (25.5)	2,901 (24.9)	2,730 (23.7)	2,856 (24.4)	2,848 (23.4)
일용	565 (5.0)	517 (4.5)	504 (4.3)	443 (3.8)	363 (3.1)	323 (2.7)
비임금근로자	2,594 (22.8)	2,592 (22.6)	2,575 (22.1)	2,495 (21.7)	2,413 (20.6)	2,467 (20.3)
자영업자	1,637 (14.4)	1,631 (14.2)	1,641 (14.1)	1,611 (14.0)	1,564 (13.3)	1,659 (13.6)
고용주	412 (3.6)	424 (3.7)	405 (3.5)	364 (3.2)	342 (2.9)	387 (3.2)
자영자	1,225 (10.8)	1,207 (10.5)	1,236 (10.6)	1,247 (10.8)	1,222 (10.4)	1,272 (10.5)
무급가족종사자	957 (8.4)	961 (8.4)	935 (8.0)	884 (7.7)	850 (7.2)	807 (6.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여성의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2022년 8월 기준 여성 정규직 비중은 54.0%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비중은 46.0%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여성 비정규직 비중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 정규직·비정규직 수 및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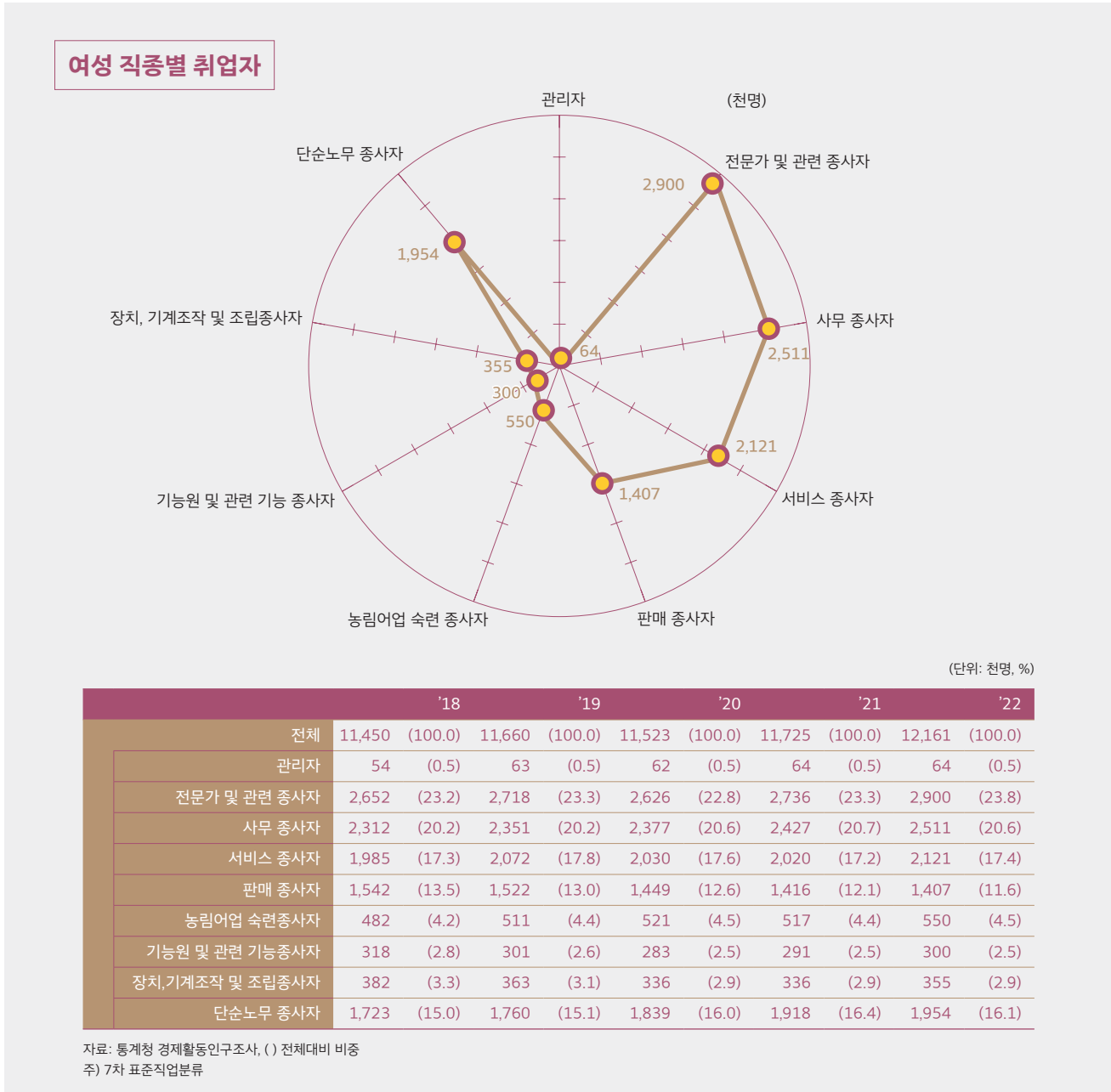
(단위: 천명, %)

	'16.8	'17.8	'18.8	'19.8	'20.8	'21.8	'22.8
임금근로자	8,658 (100.0)	8,818 (100.0)	8,874 (100.0)	9,163 (100.0)	9,085 (100.0)	9,476 (100.0)	9,788 (100.0)
정규	5,096 (58.9)	5,186 (58.8)	5,195 (58.5)	5,038 (55.0)	4,994 (55.0)	4,985 (52.6)	5,285 (54.0)
비정규	3,562 (41.1)	3,632 (41.2)	3,678 (41.4)	4,125 (45.0)	4,091 (45.0)	4,491 (47.4)	4,503 (46.0)
한시적	1,958	1,996	2,075	2,547	2,529	2,938	2,980
- 기간제	1,567	1,578	1,616	2,013	2,133	2,573	2,585
시간제	1,780	1,902	1,971	2,310	2,337	2,502	2,562
비전형	1,060	954	923	920	861	936	92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직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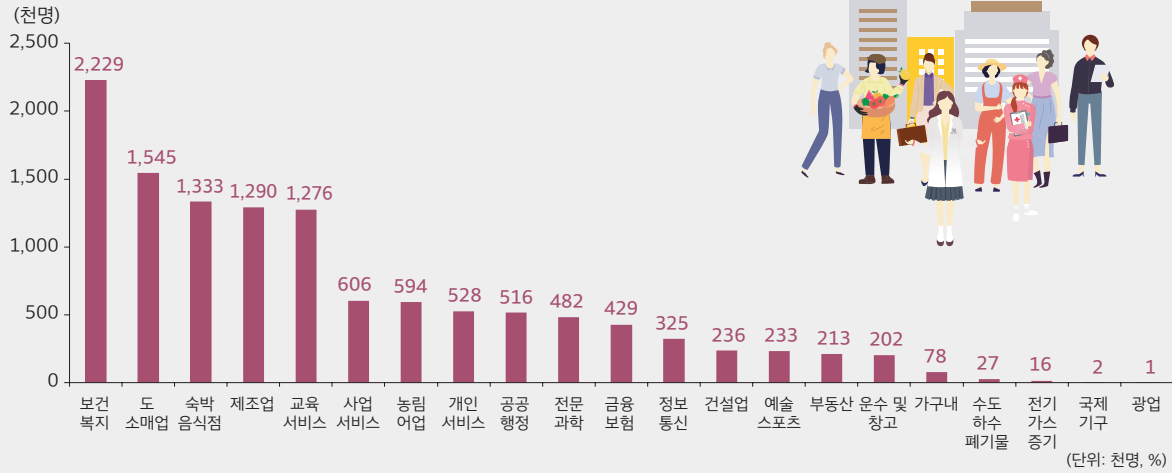
2022년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순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다만, 여성관리자는 0.5%수준으로 매우 적다.



산업별 취업자

2022년 여성은 보건복지,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에서 많이 종사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보건복지업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여성 산업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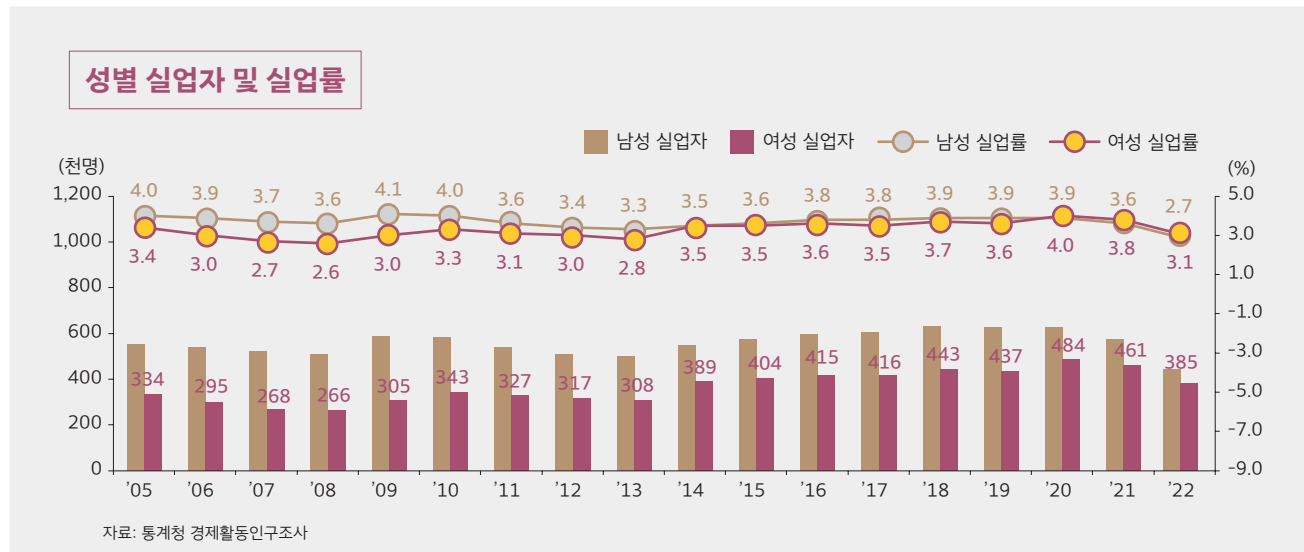
	'18	'19	'20	'21	'22
전 산업	11,450 (100.0)	11,660 (100.0)	11,523 (100.0)	11,725 (100.0)	12,161 (100.0)
농림어업	544 (4.8)	565 (4.8)	570 (4.9)	562 (4.8)	594 (4.9)
광업	3 (0.0)	2 (0.0)	2 (0.0)	2 (0.0)	1 (0.0)
제조업	1,310 (11.4)	1,271 (10.9)	1,239 (10.8)	1,257 (10.7)	1,290 (10.6)
전기가스증기	8 (0.1)	8 (0.1)	13 (0.1)	15 (0.1)	16 (0.1)
수도하수폐기물	22 (0.2)	22 (0.2)	23 (0.2)	30 (0.3)	27 (0.2)
건설업	210 (1.8)	202 (1.7)	208 (1.8)	215 (1.8)	236 (1.9)
도소매업	1,711 (14.9)	1,680 (14.4)	1,604 (13.9)	1,540 (13.1)	1,545 (12.7)
운수 및 창고	144 (1.3)	167 (1.4)	189 (1.6)	198 (1.7)	202 (1.7)
숙박음식점	1,420 (12.4)	1,432 (12.3)	1,323 (11.5)	1,284 (11.0)	1,333 (11.0)
정보통신	250 (2.2)	252 (2.2)	226 (2.0)	283 (2.4)	325 (2.7)
금융보험	456 (4.0)	439 (3.8)	421 (3.7)	445 (3.8)	429 (3.5)
부동산	202 (1.8)	207 (1.8)	197 (1.7)	203 (1.7)	213 (1.8)
전문과학	380 (3.3)	407 (3.5)	410 (3.6)	440 (3.8)	482 (4.0)
사업서비스	553 (4.8)	562 (4.8)	575 (5.0)	593 (5.1)	606 (5.0)
공공행정	439 (3.8)	439 (3.8)	477 (4.1)	479 (4.1)	516 (4.2)
교육서비스	1,249 (10.9)	1,264 (10.8)	1,198 (10.4)	1,231 (10.5)	1,276 (10.5)
보건복지	1,660 (14.5)	1,802 (15.5)	1,912 (16.6)	2,079 (17.7)	2,229 (18.3)
예술스포츠	212 (1.8)	236 (2.0)	239 (2.1)	227 (1.9)	233 (1.9)
개인서비스	631 (5.5)	626 (5.4)	597 (5.2)	554 (4.7)	528 (4.3)
가구내	47 (0.4)	72 (0.6)	95 (0.8)	84 (0.7)	78 (0.6)
국제기구	3 (0.0)	4 (0.0)	6 (0.0)	4 (0.0)	2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대비 비중
주) 10차 표준산업분류

3. 여성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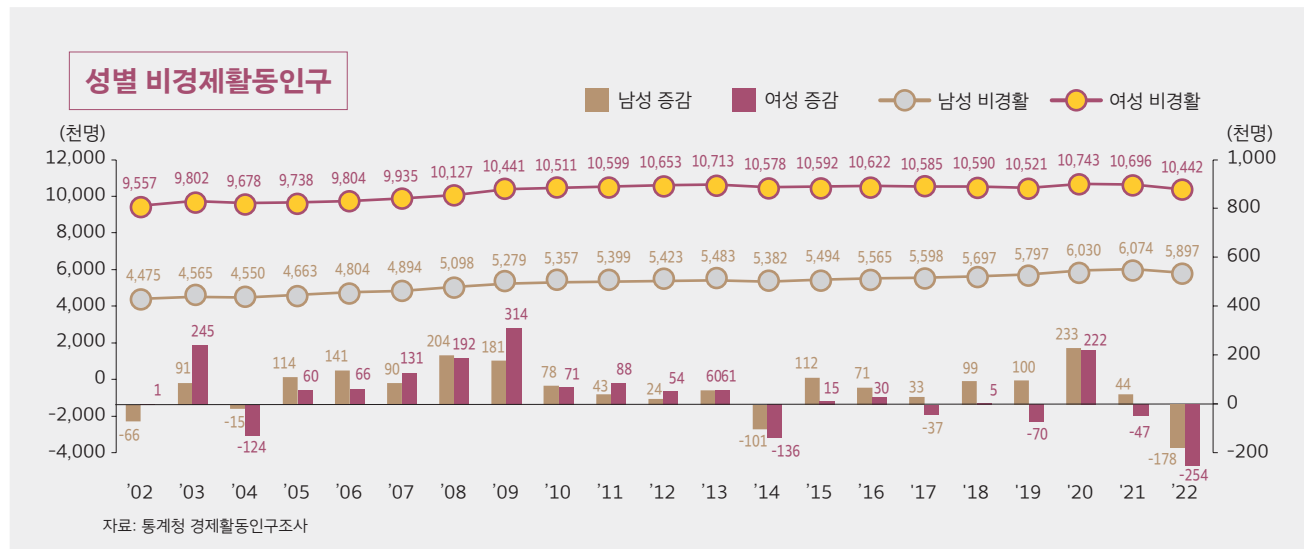
실업자 및 실업률

2022년 여성 실업자는 385천명, 실업률은 3.1%이고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 2.7%을 소폭 상회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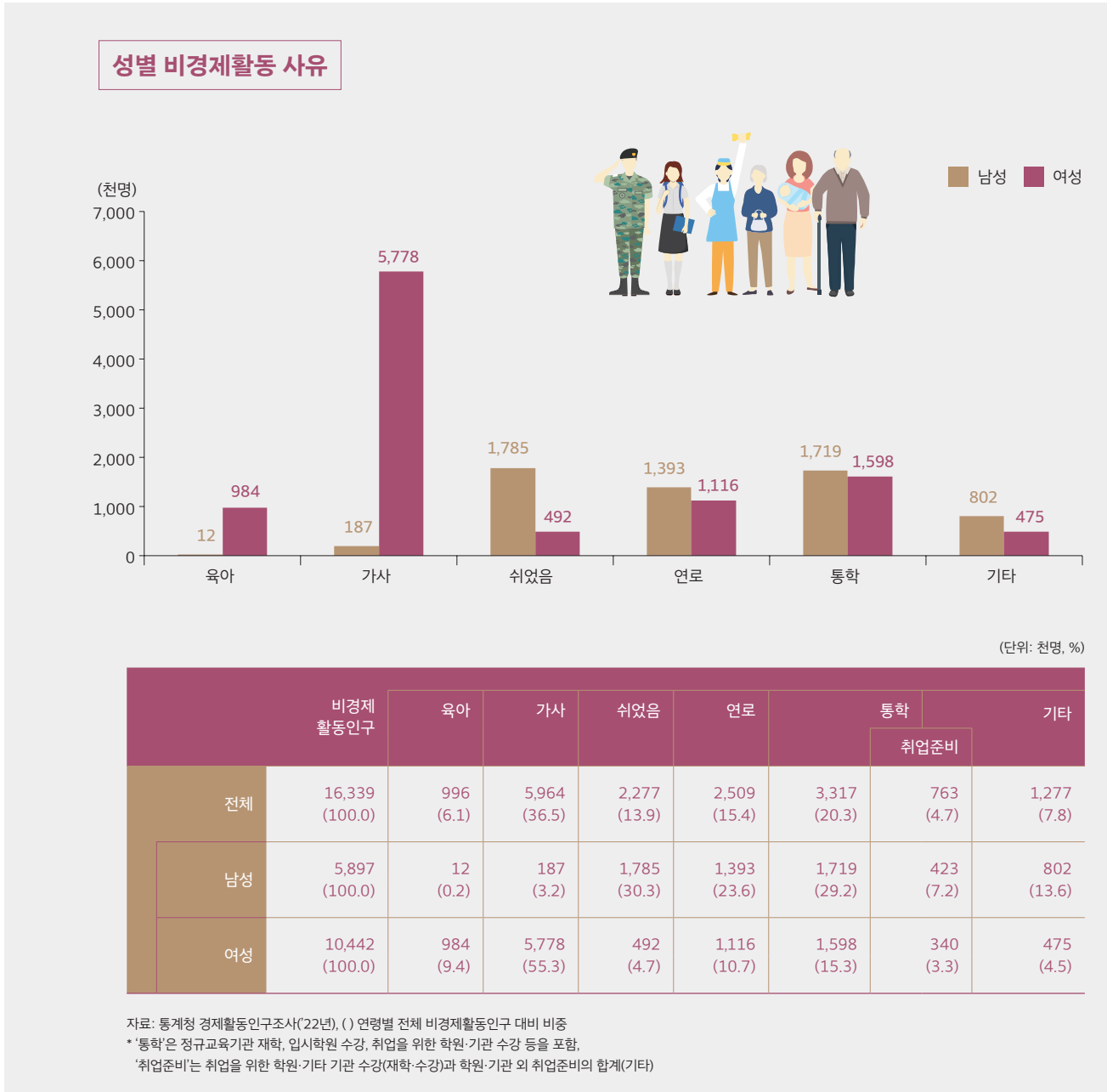
통상적으로 여성은 비경제활동인구에 많이 분포하면서 남성보다 실업률이 낮은 특징을 보여왔는데 2020년 이후에는 남성을 상회하고 있다.



+ 여성의 비경활 인구는 '98년 외환위기, '03년 카드사태, '09년 금융위기 시 남성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마다 여성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경제활동 사유

2022년 여성 비경제활동 사유를 보면 가사가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통학, 연로 순이다. 남성과 비교시 여성은 상대적으로 가사와 육아 사유로 비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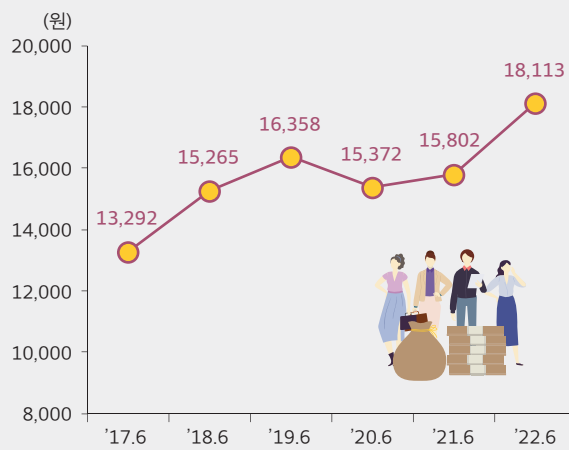
4. 여성 근로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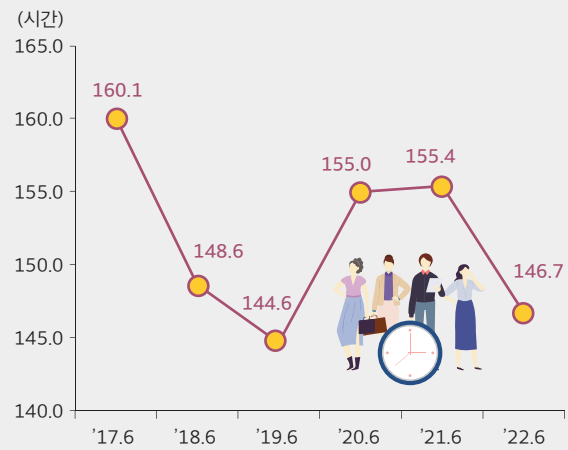
2022년 6월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8,113원으로 남성대비 70.0% 수준이고 월 근로시간은 146.7시간으로 남성(160.8)대비 91.2% 수준이다.

* 여성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여성 시간당 임금



여성 월 근로시간



(단위: 원, 시간)

		'17.6	'18.6	'19.6	'20.6	'21.6	'22.6
시간당 임금	전체	17,381	19,522	20,573	19,316	19,806	22,651
	남성	20,183	22,515	23,566	22,086	22,632	25,886
	여성	13,292	15,265	16,358	15,372	15,802	18,113
월 근로시간	전체	168.5	156.4	152.4	163.6	164.2	154.9
	남성	174.4	161.8	157.9	169.5	170.4	160.8
	여성	160.1	148.6	144.6	155.0	155.4	146.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17) 21→ ('18) 19→ ('19) 19→ ('20) 22→ ('21) 22→ ('22) 20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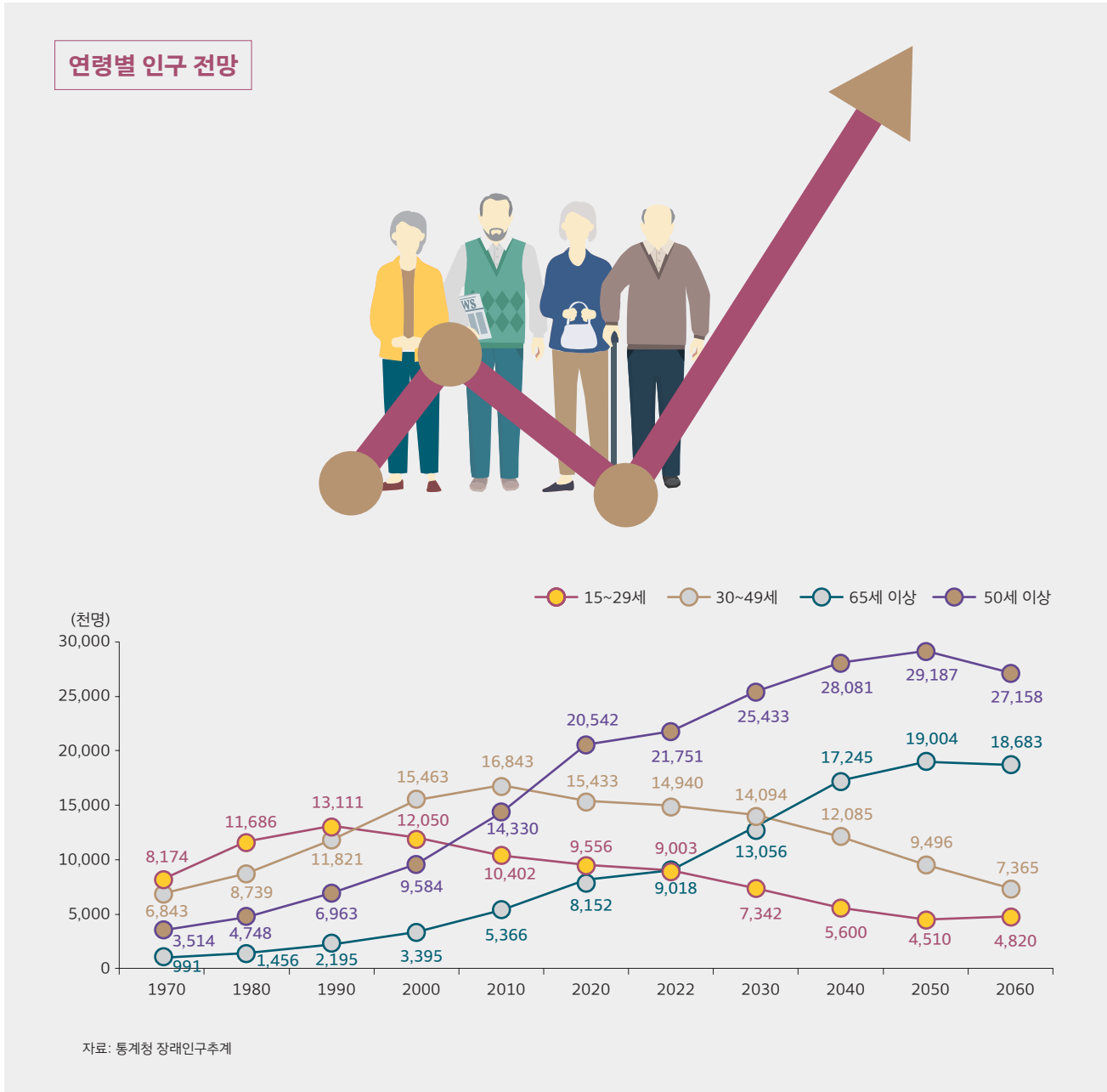
www.moel.go.kr

03 50세 이상

1. 인구 및 노동력 현황

50세 이상 인구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는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65세 이상 비중이 더욱 상승될 전망이다.



+ 50세 이상 인구는 1990년(=100)을 기준으로 2022년 312.4, 2030년 365.3, 2060년 390.0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특히 65세이상 인구는 1990년 대비 2030년에 594.8, 2060년에는 851.1로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이다.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18년 소요 → 초고령사회 8년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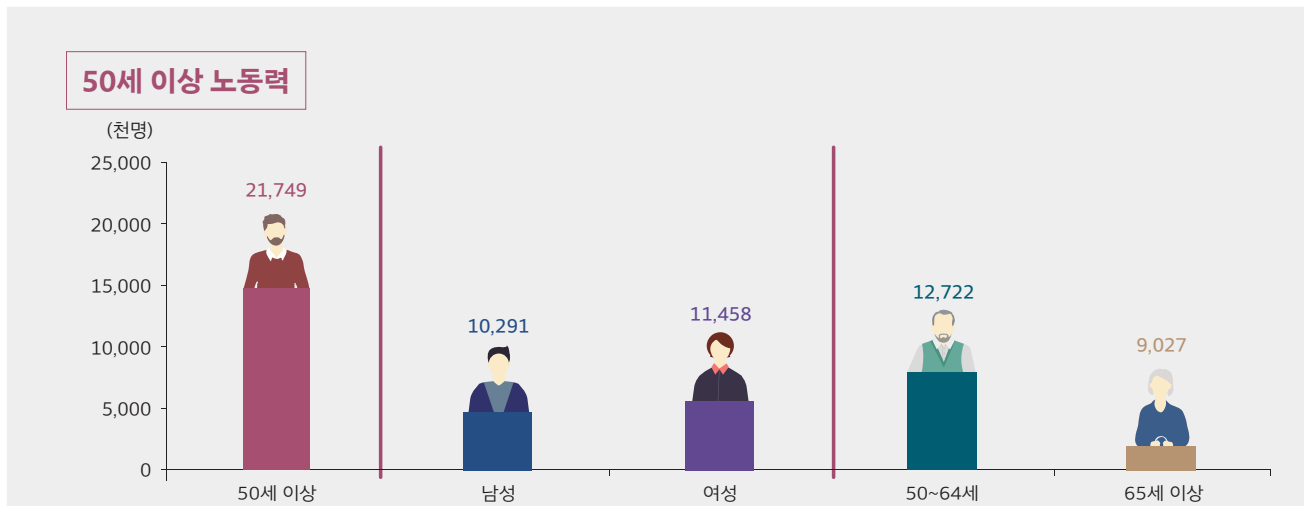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한국	2000년	18년	2018년	8년	2026년
일본	1970년	24년	1994년	11년	2005년
영국	1929년	46년	1975년	50년	2025년
미국	1942년	71년	2013년	16년	2029년
프랑스	1864년	126년	1990년	29년	2019년

자료: OECD, UN
※ 65세 이상인구의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

50세 이상 노동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는 21,749천명이며, 여성비중이 52.7%로 남성보다 더 많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인구'는 「인구추계」의 '인구'에서 군인, 재소자 등 숙박인구를 제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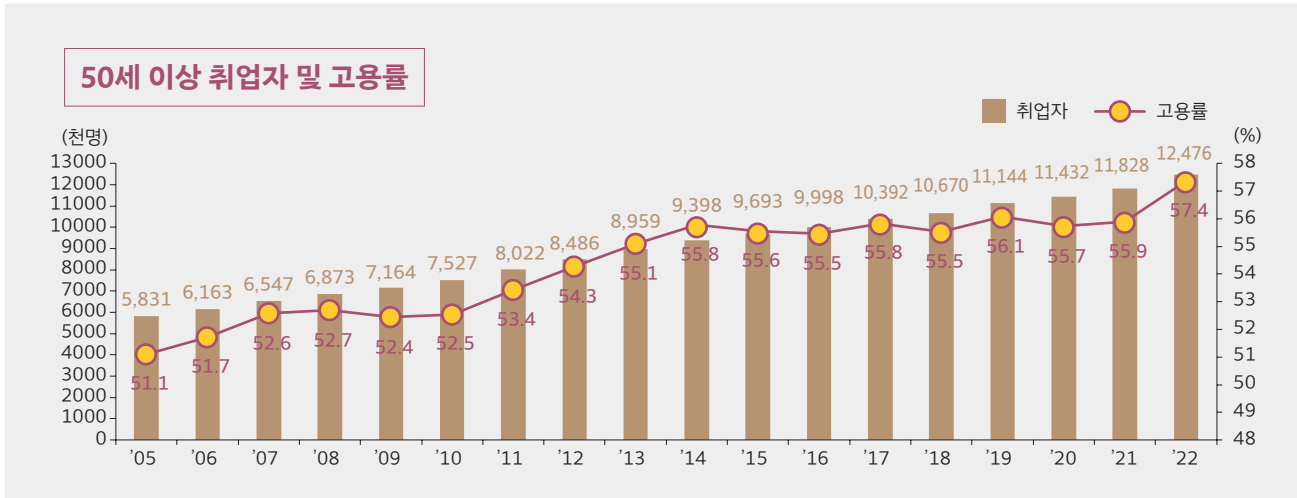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2년)

2. 50세 이상 취업자 및 고용률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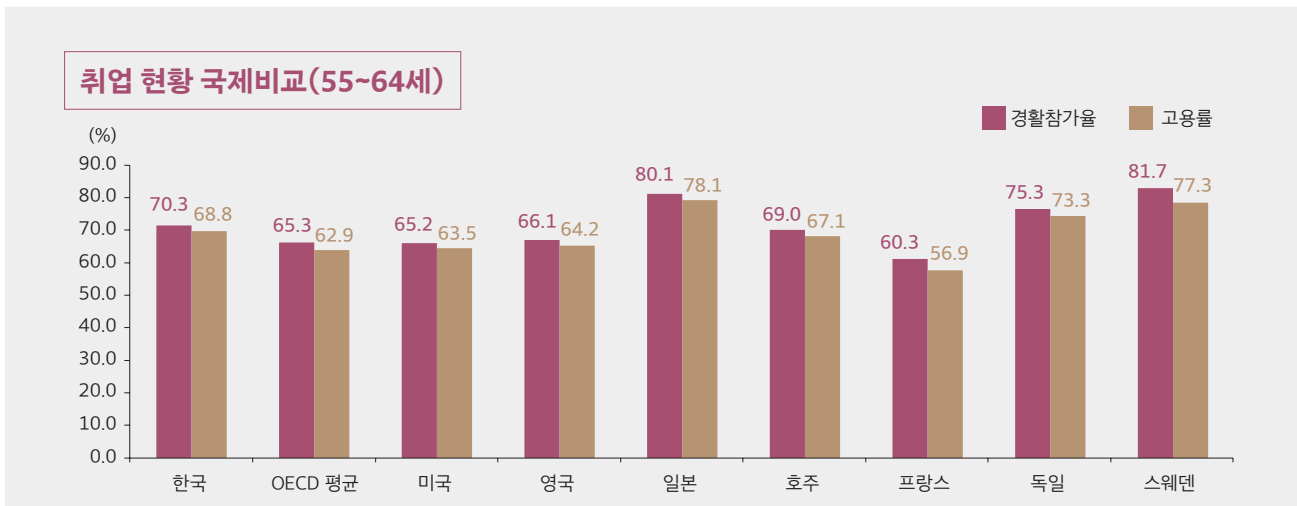
2022년 50세 이상 인구중 취업자는 12,476천명이고 고용률은 57.4%이다.
2022년 들어 50세 이상 고용률은 크게 상승하였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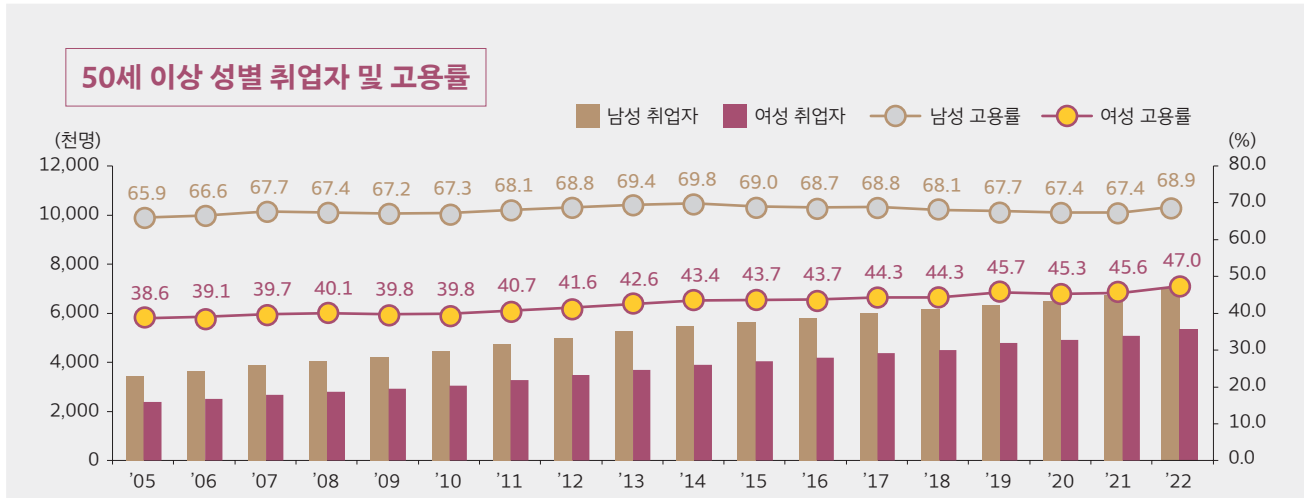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인데 이는 농업 및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자료:OECD.Stats(22)

성별 취업자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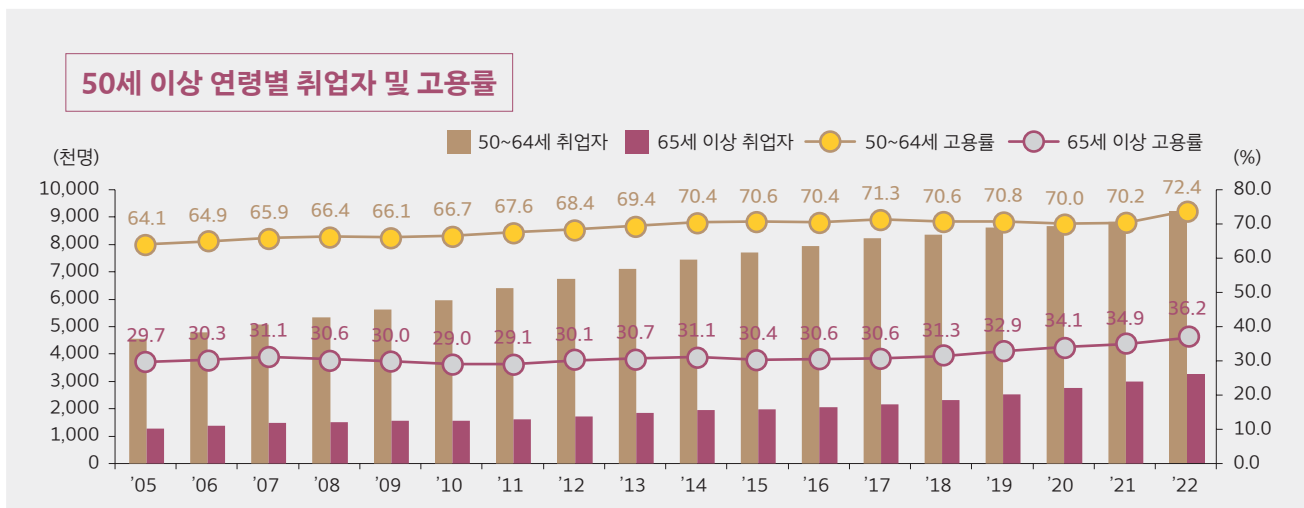
2022년 50세 이상 남성취업자는 7,093천명, 고용률은 68.9%이고 여성취업자는 5,383천명, 고용률은 47.0%이다. 2022년들어 남성고용률은 상승으로 전환되고, 여성고용률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이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취업자 및 고용률

2022년 50~64세 취업자와 고용률은 상승하였고, 65세 이상 고용률은 201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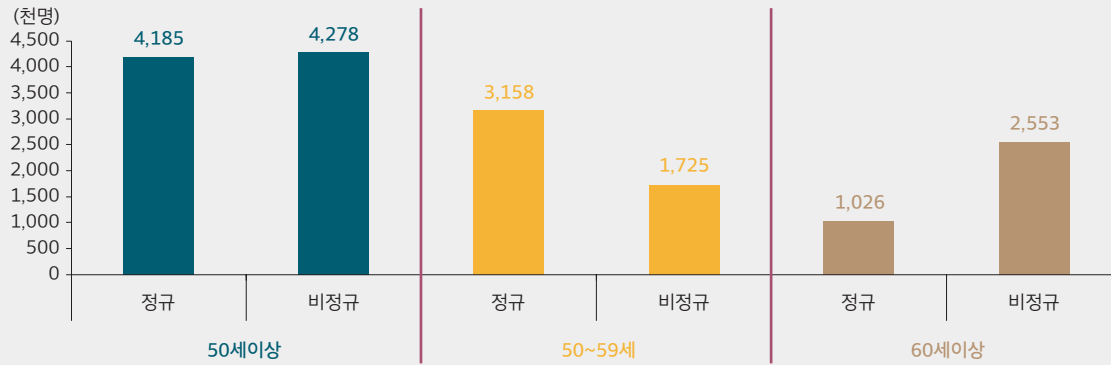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0세 이상 정규직·비정규직 분포

2022년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은 50.6%, 비정규직은 49.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50대(35.3%)보다 60세이상(71.3%) 비정규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50세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50세 이상 정규, 비정규직 수 및 비중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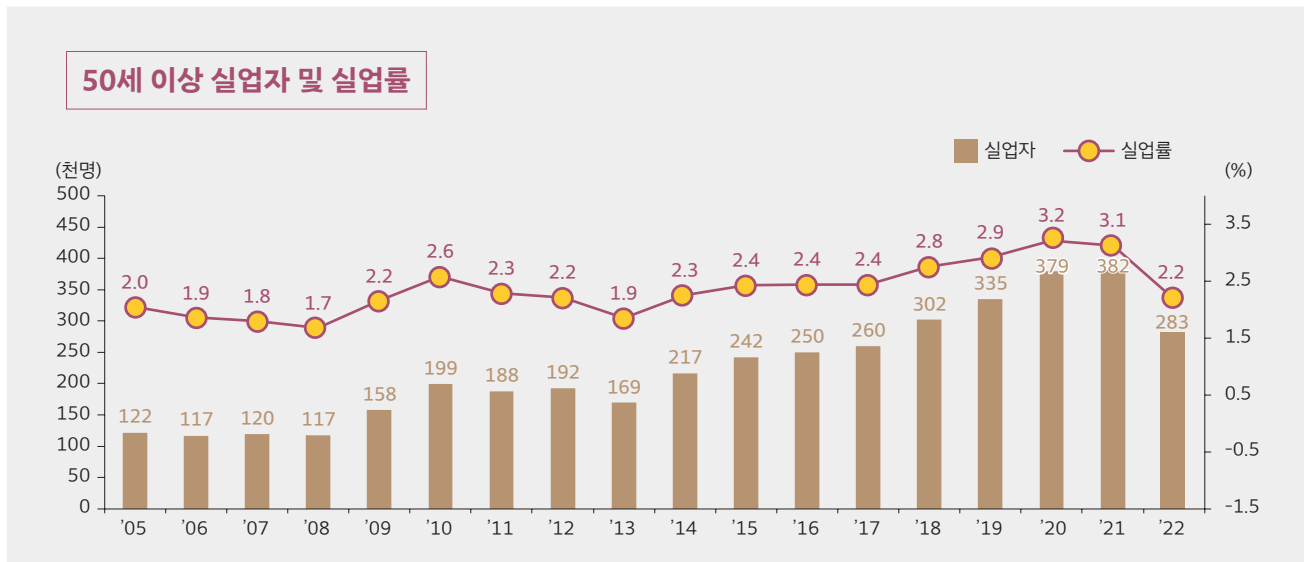
		'16.8	'17.8	'18.8	'19.8	'20.8	'21.8	'22.8
50세 이상	임금근로자	6,246	6,468	6,677	7,141	7,503	7,907	8,463
	정규	3,388	3,520	3,585	3,630	3,828	3,838	4,185
	비정규	2,858	2,948	3,092	3,511	3,675	4,070	4,278
		(45.8)	(45.6)	(46.3)	(49.2)	(49.0)	(51.5)	(50.6)
50~59세	임금근로자	4,099	4,205	4,247	4,435	4,501	4,649	4,883
	정규	2,698	2,779	2,803	2,861	2,958	2,982	3,158
	비정규	1,401	1,425	1,444	1,574	1,543	1,667	1,725
		(34.2)	(33.9)	(34.0)	(35.5)	(34.3)	(35.9)	(35.3)
60세 이상	임금근로자	2,147	2,264	2,430	2,706	3,002	3,259	3,580
	정규	689	741	782	769	870	856	1,026
	비정규	1,457	1,523	1,649	1,938	2,132	2,403	2,553
		(67.9)	(67.3)	(67.8)	(71.6)	(71.0)	(73.7)	(7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 ()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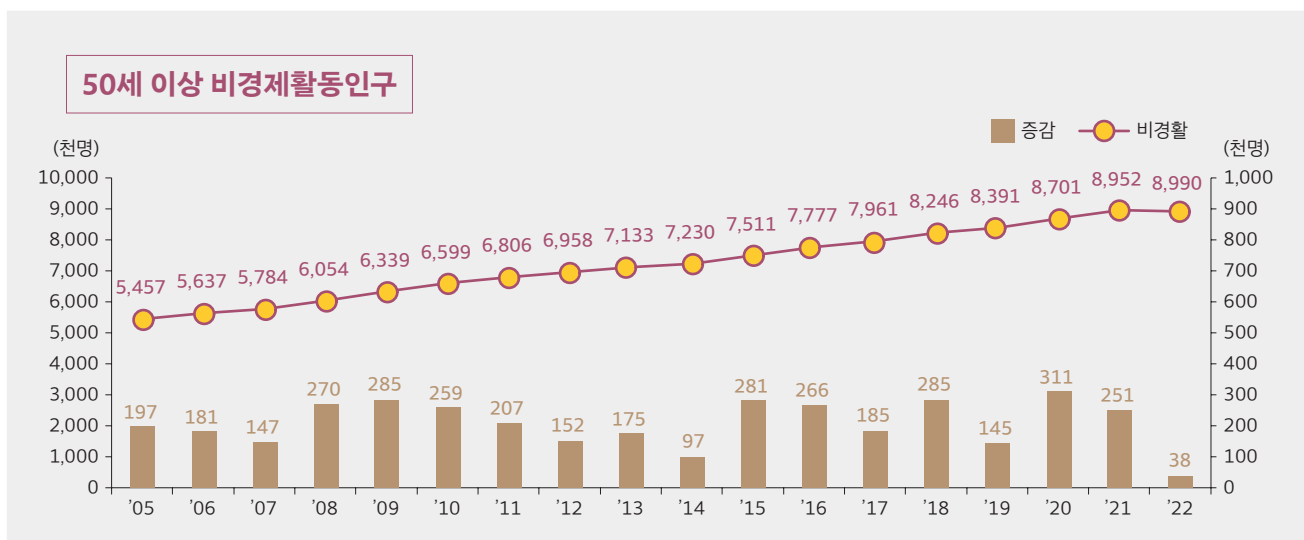
3. 50세 이상 실업 및 비경제 활동인구

실업자 및 실업률

2022년 50세 이상 실업률은 2.2%로 전년대비 크게 하락하였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도 크게 축소되었다.



비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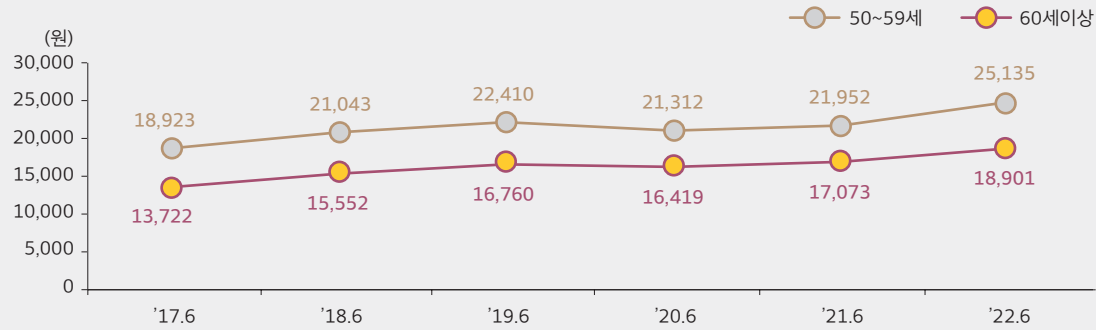
4. 50세 이상 근로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50세 이상 근로자는 50대가 60세이상 보다 시간당임금도 높고 월 근로시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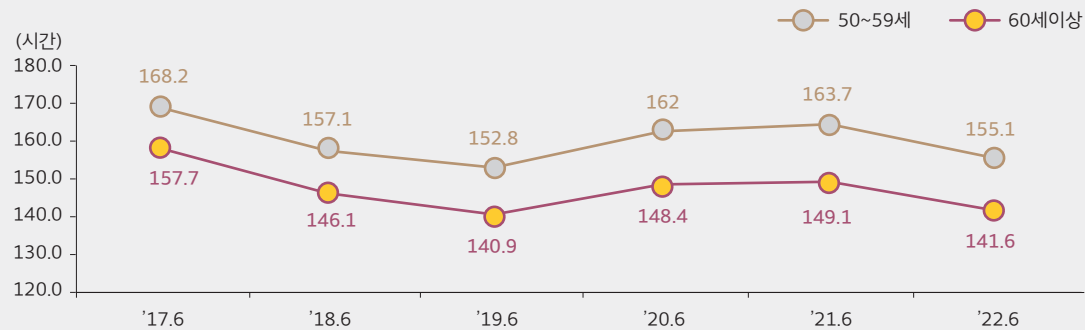
* 50세 이상의 근로조건은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를 이용한 것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50세 이상 시간당 임금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0세 이상 근로시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시간당 임금과 근로시간은 통상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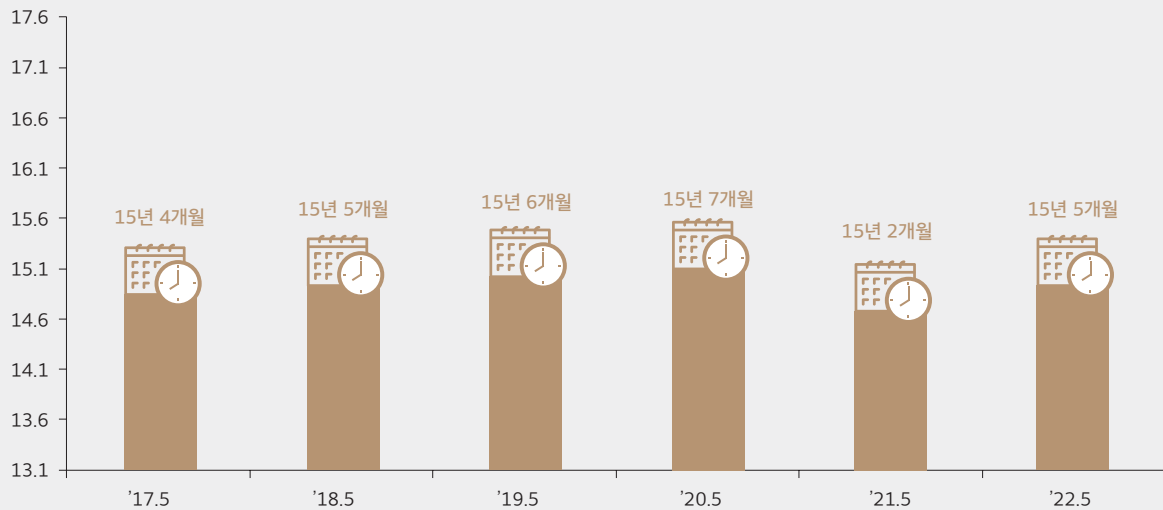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 ('17) 21→('18) 19→('19) 19→('20) 22→('21) 22→('22) 20

5. 정년 현황

근속기간

2022년 5월 기준 55~64세 취업 유경험자들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의 평균근속기간은 15년 5개월이며, 10~20년 기간이 30.3%로 가장 많다.

평균 근속기간(55~64세)



(단위: 천명, %)

	'17.5	'18.5	'19.5	'20.5	'21.5	'22.5
전 체	7,150 (100.0)	7,483 (100.0)	7,705 (100.0)	7,843 (100.0)	7,993 (100.0)	8,126 (100.0)
5년미만	1,225 (17.1)	1,215 (16.2)	1,214 (15.8)	1,222 (15.6)	1,287 (16.1)	1,216 (15.0)
5~10년미만	1,284 (18.0)	1,308 (17.5)	1,358 (17.6)	1,390 (17.7)	1,509 (18.9)	1,552 (19.1)
10~20년미만	2,147 (30.0)	2,283 (30.5)	2,348 (30.5)	2,353 (30.0)	2,407 (30.1)	2,465 (30.3)
20~30년미만	1,401 (19.6)	1,445 (19.3)	1,517 (19.7)	1,544 (19.7)	1,511 (18.9)	1,564 (19.3)
30년이상	1,094 (15.3)	1,233 (16.5)	1,268 (16.5)	1,335 (17.0)	1,280 (16.0)	1,329 (16.4)
평균 근속기간	15년 4개월	15년 5개월	15년 6개월	15년 7개월	15년 2개월	15년 5개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전체대비 비중

주) 55~64세 인구 중 현재 취업자와 취업경험 있는 미취업자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현재도 다니는 경우도 포함

2022년 5월 기준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폐업’, ‘건강이 좋지않아서’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직 연령은 49.3세이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 둔 이유(55~64세)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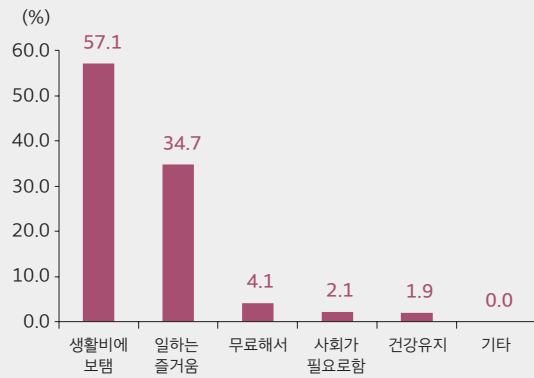
	'18.5		'19.5		'20.5		'21.5		'22.5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전 체	4,599	(100.0)	4,934	(100.0)	4,997	(100.0)	5,245	(100.0)	5,212	(100.0)
정년퇴직	346	(7.5)	350	(7.1)	392	(7.8)	394	(7.5)	417	(8.0)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514	(11.2)	602	(12.2)	622	(12.5)	639	(12.2)	569	(10.9)
사업부진, 조업 중단, 휴·폐업	1,468	(31.9)	1,628	(33.0)	1,658	(33.2)	1,733	(33.0)	1,611	(30.9)
가족을 돌보기 위해	728	(15.8)	683	(13.8)	698	(14.0)	738	(14.1)	788	(15.1)
건강이 좋지 않아서	898	(19.5)	979	(19.8)	966	(19.3)	987	(18.8)	996	(19.1)
일을 그만 둘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105	(2.3)	96	(1.9)	111	(2.2)	128	(2.4)	148	(2.8)
기타	540	(11.7)	596	(12.1)	550	(11.0)	627	(11.9)	683	(13.1)
평균 이직연령	49.1세		49.4세		49.4세		49.3세		49.3세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
 주) 기타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여가를 즐기기 위해,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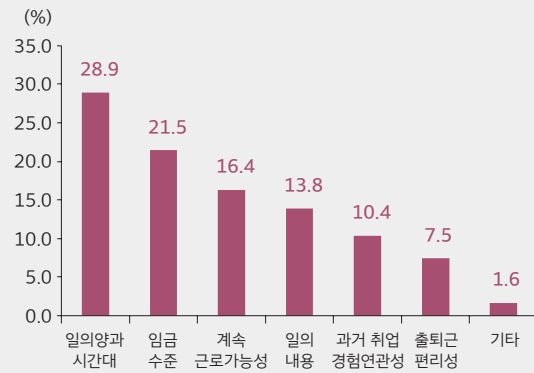
희망일자리

55~79세 인구 중 68.5%는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다. 구직 사유로는 생활비보탬이 가장 컸으며, 일자리 선택기준은 일의 양과 시간대가 주된 기준이었다.

일을 원하는 주된 사유



일자리 선택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2.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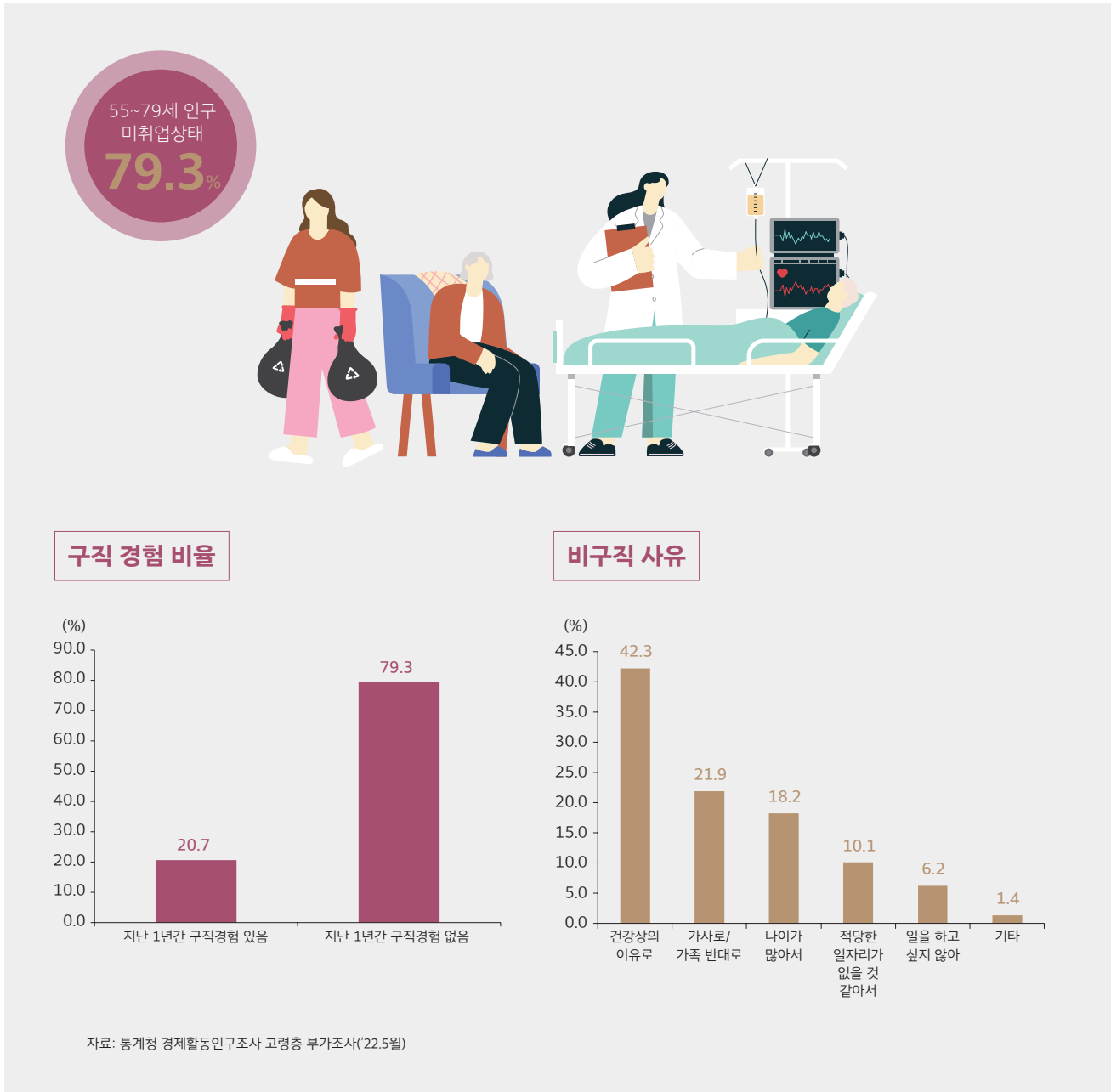
희망 임금수준

55~79세 인구의 희망임금수준은 150~200만원대를 가장 많이 원했고, 희망일자리 형태는 전일제뿐 아니라 시간제를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경험 및 비구직사유 현황

55~79세 인구의 79.3%는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없으며, 비구직 미취업자의 비구직 사유로는 '건강문제', '가사 또는 가족의 반대'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2022년 단일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61.5세이다.

(단위: 세)

	'18.6	'19.6	'20.6	'21.6	'22.6
평균 정년	61.2	61.4	61.5	61.5	61.5
300인 미만 사업장	61.2	61.4	61.5	61.5	61.5
300인 이상 사업장	60.2	60.2	60.2	60.2	60.2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 단일정년이 있는 사업장 기준

노동시장 은퇴

2020년 한국의 유효은퇴연령은 OECD평균보다 길다.
2010년에 비하면 은퇴시기가 빨라졌다.

(단위: 세)

		OECD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멕시코
남성	'10	62.5	67.1	62.9	67.2	61.1	62.9	58.9	66.9
	'20	63.8	65.7	64.9	68.2	63.1	63.7	60.4	66.2
여성	'10	61.3	66.1	63.4	64.5	61.1	61.3	59.1	65.7
	'20	62.4	64.9	64.7	66.7	63.2	63.2	60.9	62.5

자료: OECD

주) '유효 은퇴연령'은 OECD가 40세 이상 연령 계층의 5세 단위 구간별 경활참가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이며, 위 표에서 '20년', '10년'의 은퇴연령은 각각 '15~20년', '05~10년'의 평균 은퇴연령임

6. 50세 이상 동태 분석

취업활동 상태 변동

2006년 당시 취업상태에 있던 45세 이상 중 2020년도 에도 취업상태인 비중은 56.6%이다. 그중 동일직장 유지는 595명, 상용에서 임시·일용으로 이동한 경우는 13.7%였다.

(단위: 명, %)

'06년 \ '20년	표본수	전체		실업자	비경활
		취업자	동일직장 취업 상태		
취업자('06년)	2,316[100.0]	1,175[56.6] (100.0)	595 (47.7)	15[0.7]	1,126[42.6] (52.3)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주) 1차년도 취업 상태에 있는 3,922명 중 8차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1,328명과 7차년도 종단가중값이 결측치인 278명을 제외한 총 2,316명에 대해 분석

(단위: 명, %)

'06년 \ '20년	취업자	동일직장 취업 상태				비동일직장 취업 상태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취업자	595	133	88	16	29	402	60
임금근로자	133	100.0%	69.13%	16.20%	14.67%		
상용	95	77.87%	86.32%	11.45%	2.22%		
임시	11	7.86%	20.24%	75.87%	3.88%		
일용	27	14.27%	2.26%	9.20%	88.54%		
자영업자	397					97.63%	2.37%
무급가족	65					27.00%	73.0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단위: 명, %)

'06년 \ '20년	취업자	일자리 이동				비일자리 이동	
		상용	임시	일용	자영업자	무급가족	
취업자	569	368	180	118	70	171	30
임금근로자	324	74.52%	54.78%	27.93%	17.29%	17.28%	1.50%
상용	221	74.05%	61.72%	25.38%	12.90%	16.07%	1.85%
임시	45	77.72%	35.31%	44.35%	20.33%	14.10%	0.00%
일용	58	73.84%	43.43%	24.44%	32.13%	24.55%	1.28%
자영업자	206	53.94%	54.38%	25.60%	20.02%	43.31%	3.03%
무급가족	39	28.53%	11.45%	68.34%	20.22%	29.93%	28.30%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주) 1차년도 취업 상태에 있는 580명 중 응답거부 또는 무응답이라고 응답한 11명을 제외한 총 569명에 대해 분석

직업 변동

일자리 이동한 장년층 중에서 이전 직업과 현직업이 동일한 경우는 ⑨단순노무, ⑥농림어업 숙련근로자에서 높았다. ③사무직은 유지율이 가장 낮았다.

(단위: 명, %)

'06년 \ '20년	취업자	취업자								
		표본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취업자*	545	27	28	14	76	38	49	57	46	210
①	24	21.82%	8.28%	5.60%	0.00%	18.22%	0.84%	20.55%	11.93%	12.76%
②	52	8.48%	28.94%	2.26%	12.55%	10.68%	4.37%	6.19%	3.77%	22.77%
③	63	2.72%	5.79%	10.82%	15.09%	8.20%	3.72%	11.46%	8.67%	33.52%
④	56	5.91%	0.00%	0.00%	35.59%	12.45%	4.16%	0.00%	2.86%	39.03%
⑤	69	10.43%	0.00%	3.22%	12.87%	25.17%	3.43%	13.34%	2.20%	29.33%
⑥	36	2.25%	0.00%	0.00%	8.84%	0.00%	40.41%	0.00%	0.00%	48.50%
⑦	59	1.08%	5.73%	2.36%	4.34%	1.12%	1.78%	35.52%	7.09%	40.99%
⑧	60	2.37%	2.08%	0.00%	21.81%	3.18%	3.95%	10.06%	35.24%	21.32%
⑨	126	3.67%	1.48%	0.00%	12.87%	3.33%	4.04%	7.80%	8.04%	58.76%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주) ①관리자, ②(준)전문가, ③사무직, ④서비스근로자, ⑤판매근로자, ⑥농림어업 숙련근로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단순노무

산업 변동

일자리 이동에도 동일산업을 유지한 경우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다.

(단위: 명, %)

'06년 \ '20년	전체	전체					
		표본수	①	②	③	④	⑤
취업자	547	59	40	60	98	57	233
①	39	43.56%	4.72%	7.14%	11.08%	0.00%	33.49%
②	92	2.26%	29.78%	7.41%	7.25%	7.88%	45.42%
③	64	10.21%	3.09%	44.57%	7.22%	14.18%	20.74%
④	140	3.13%	6.08%	11.83%	35.98%	8.62%	34.36%
⑤	62	5.16%	3.56%	1.63%	10.89%	37.24%	41.53%
⑥	150	4.55%	3.68%	7.33%	13.59%	6.57%	64.27%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종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주) ①농림어업, ②제조업(광업 포함), ③건설업, ④도소매/음식/숙박업, ⑤전기/운수/통신/금융, ⑥기타서비스업

구직자의 희망직종

50세 이상 구직자의 희망직종은 단순노무가 가장 많았다.

(단위: 명, %)

		전체									
		표본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591	3.82%	1.99%	4.51%	27.93%	8.62%	5.62%	6.39%	2.50%	38.62%
성별	남	226	6.87%	3.10%	5.92%	17.64%	2.53%	5.97%	12.81%	5.92%	39.24%
	여	365	1.76%	1.23%	3.56%	34.90%	12.74%	5.38%	2.04%	0.19%	38.19%
연령	50~54세	-	-	-	-	-	-	-	-	-	-
	55~59세	91	3.91%	6.16%	10.24%	40.26%	13.01%	3.38%	4.95%	1.46%	16.63%
	60~64세	113	3.61%	2.76%	3.63%	32.25%	6.83%	5.69%	9.33%	2.67%	33.23%
	65~69세	126	4.93%	0.01%	5.89%	26.31%	8.07%	1.29%	9.31%	3.61%	40.57%
	70~74세	90	2.06%	0.00%	1.05%	15.38%	5.64%	7.17%	3.61%	4.55%	60.54%
	75~79세	76	4.76%	2.20%	2.10%	24.91%	11.79%	2.18%	3.69%	0.00%	48.37%
	80세이상	95	2.75%	0.00%	0.00%	19.10%	7.22%	22.96%	0.55%	0.85%	46.56%
학력	초졸이하	207	3.44%	0.00%	1.89%	18.73%	6.74%	9.19%	5.63%	1.68%	52.71%
	중졸이하	108	2.38%	0.00%	1.61%	27.34%	8.52%	4.70%	8.84%	0.00%	46.62%
	고졸	211	1.95%	0.72%	2.96%	33.58%	10.89%	4.62%	5.46%	4.59%	35.23%
	초대졸이상	65	11.09%	11.45%	16.99%	31.95%	6.46%	2.20%	7.63%	1.42%	10.81%
수입	1,200만원미만	156	4.13%	3.82%	2.43%	22.21%	7.96%	7.26%	2.55%	0.00%	49.64%
	1,200만~2,400만원미만	168	0.78%	0.89%	1.02%	24.63%	10.08%	5.30%	9.34%	4.28%	43.69%
	2,400만~4,250만원미만	128	4.46%	1.26%	7.63%	29.05%	9.74%	3.15%	6.12%	3.25%	35.34%
	4,250만원이상	138	5.88%	2.09%	6.96%	34.82%	7.00%	5.87%	7.04%	2.32%	28.01%
지역	대도시	301	2.83%	3.14%	4.17%	28.76%	11.32%	3.01%	5.86%	2.68%	38.23%
	중소도시	192	5.43%	0.48%	5.39%	30.06%	5.72%	4.59%	7.40%	3.21%	37.71%
	읍면부	98	3.27%	1.66%	3.47%	19.30%	6.21%	17.94%	5.72%	0.00%	42.42%
건강	보통이상	458	4.34%	2.17%	4.24%	29.93%	8.66%	5.28%	7.19%	2.21%	35.99%
	나쁜편	133	1.61%	1.20%	5.70%	19.35%	8.43%	7.07%	2.96%	3.75%	49.92%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고령화연구패널, 횡단가중값 적용,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

주1) ①관리자, ②(준)전문가, ③사무직, ④서비스근로자, ⑤판매근로자, ⑥농림어업 숙련근로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단순노무

주2) 수입은 조사 당해의 1년 전 가구소득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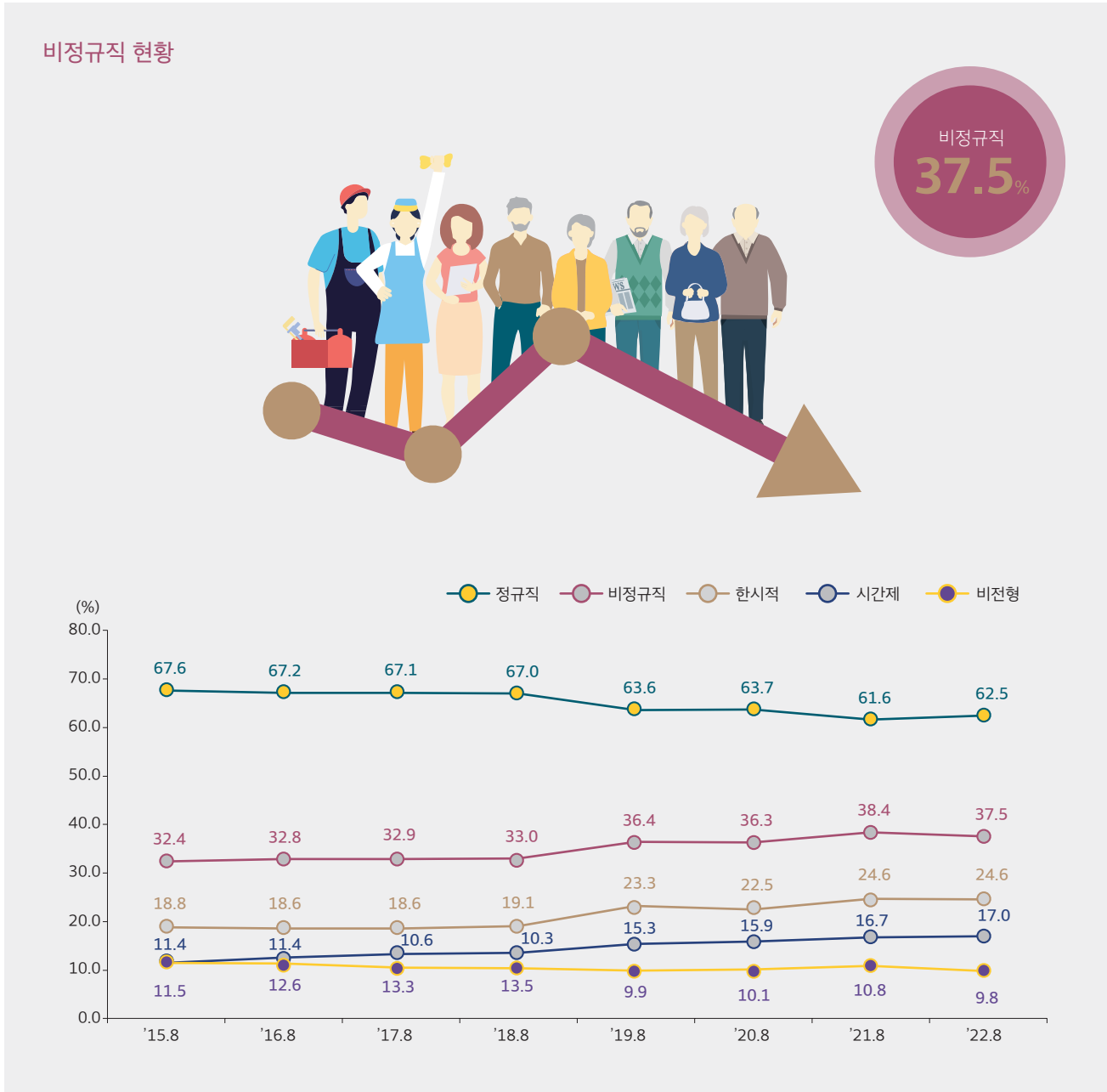
www.moel.go.kr

04 비정규직

1. 비정규직 취업 현황

비정규직* 현황

2022년 8월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21,724천명)대비 37.5% 수준이다.



* 이 자료에서 비정규직은 ①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포함), ② 시간제근로자, ③ 비전형근로자(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가내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를 의미하는 것임. 이는 근로자를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이며, 근로자를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분류하는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과는 서로 다른 개념임. 따라서 정규직을 상용직으로 또는 비정규직을 임시직·일용직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정규직 유형별 합계는(예, 기간제이면서 시간제인 경우 기간제와 시간제에 모두 집계되어 합산됨) 비정규직 전체 수(순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주) 2019년 조사에서부터 조사방식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가 추가포함됨. '19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규모에 영향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과 직접적인 비교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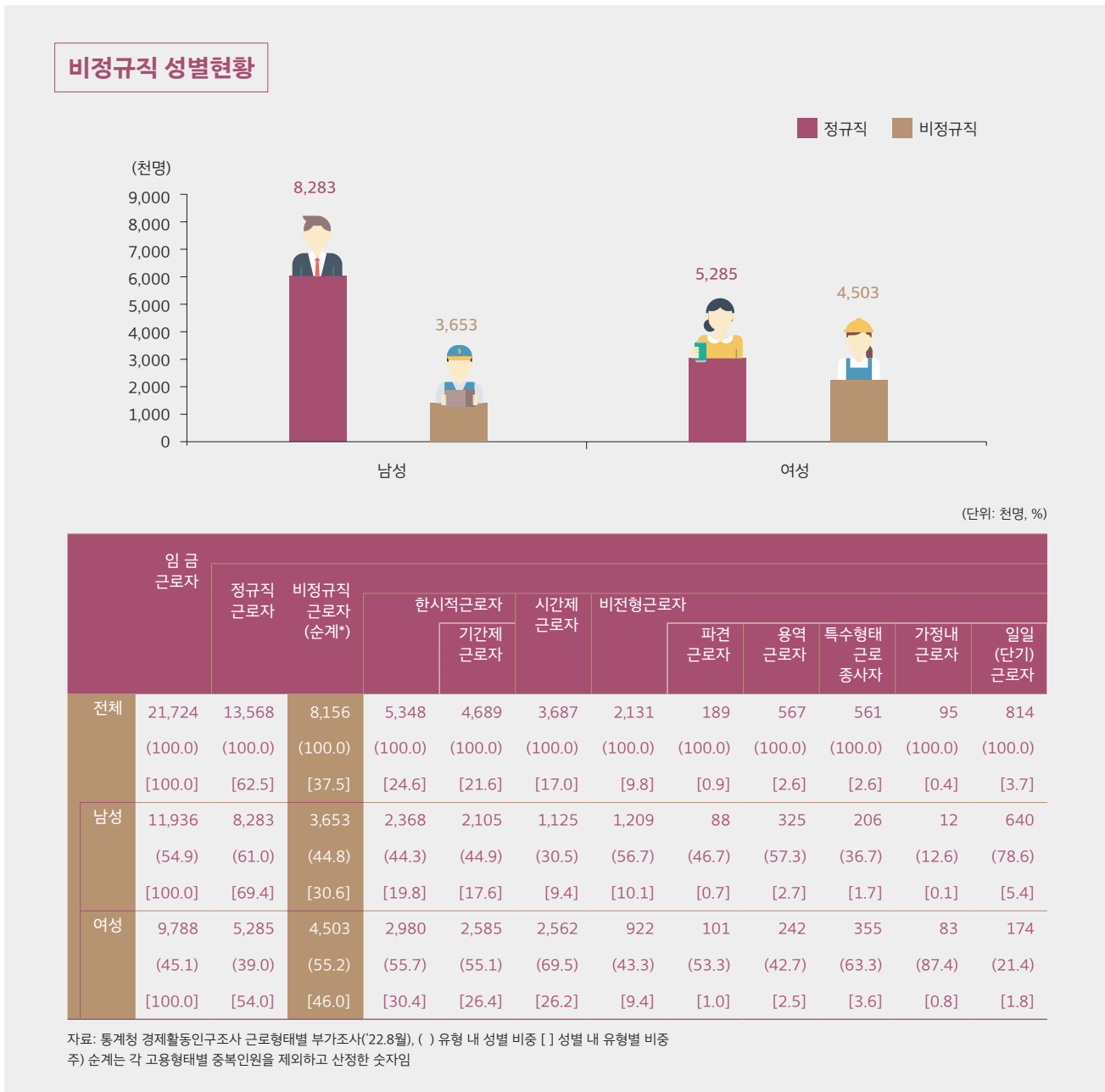
(단위: 천명, %)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용역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	일일 (단기) 근로자		
'15.8월	19,474	13,166	6,308	3,655	2,872	2,236	2,229	211	660	502	55	886
	(100.0)	(67.6)	(32.4)	(18.8)	(14.7)	(11.5)	(11.4)	(1.1)	(3.4)	(2.6)	(0.3)	(4.5)
'16.8월	19,743	13,262	6,481	3,671	2,939	2,488	2,245	201	702	502	42	874
	(100.0)	(67.2)	(32.8)	(18.6)	(14.9)	(12.6)	(11.4)	(1.0)	(3.6)	(2.5)	(0.2)	(4.4)
'17.8월	20,006	13,428	6,578	3,725	2,930	2,663	2,112	188	694	497	30	801
	(100.0)	(67.1)	(32.9)	(18.6)	(14.6)	(13.3)	(10.6)	(0.9)	(3.5)	(2.5)	(0.1)	(4.0)
'18.8월	20,045	13,431	6,614	3,823	3,005	2,709	2,071	189	596	506	53	801
	(100.0)	(67.0)	(33.0)	(19.1)	(15.0)	(13.5)	(10.3)	(0.9)	(3.0)	(2.5)	(0.3)	(4.0)
'19.8월	20,559	13,078	7,481	4,785	3,799	3,156	2,045	182	615	528	46	748
	(100.0)	(63.6)	(36.4)	(23.3)	(18.5)	(15.3)	(9.9)	(0.9)	(3.0)	(2.6)	(0.2)	(3.6)
'20.8월	20,446	13,020	7,426	4,608	3,933	3,252	2,073	164	552	498	49	896
	(100.0)	(63.7)	(36.3)	(22.5)	(19.2)	(15.9)	(10.1)	(0.8)	(2.7)	(2.4)	(0.2)	(4.4)
'21.8월	20,992	12,927	8,066	5,171	4,537	3,512	2,278	211	585	560	79	955
	(100.0)	(61.6)	(38.4)	(24.6)	(21.6)	(16.7)	(10.8)	(1.0)	(2.8)	(2.7)	(0.4)	(4.5)
'22.8월	21,724	13,568	8,156	5,348	4,689	3,687	2,131	189	567	561	95	814
	(100.0)	(62.5)	(37.5)	(24.6)	(21.6)	(17.0)	(9.8)	(0.9)	(2.6)	(2.6)	(0.4)	(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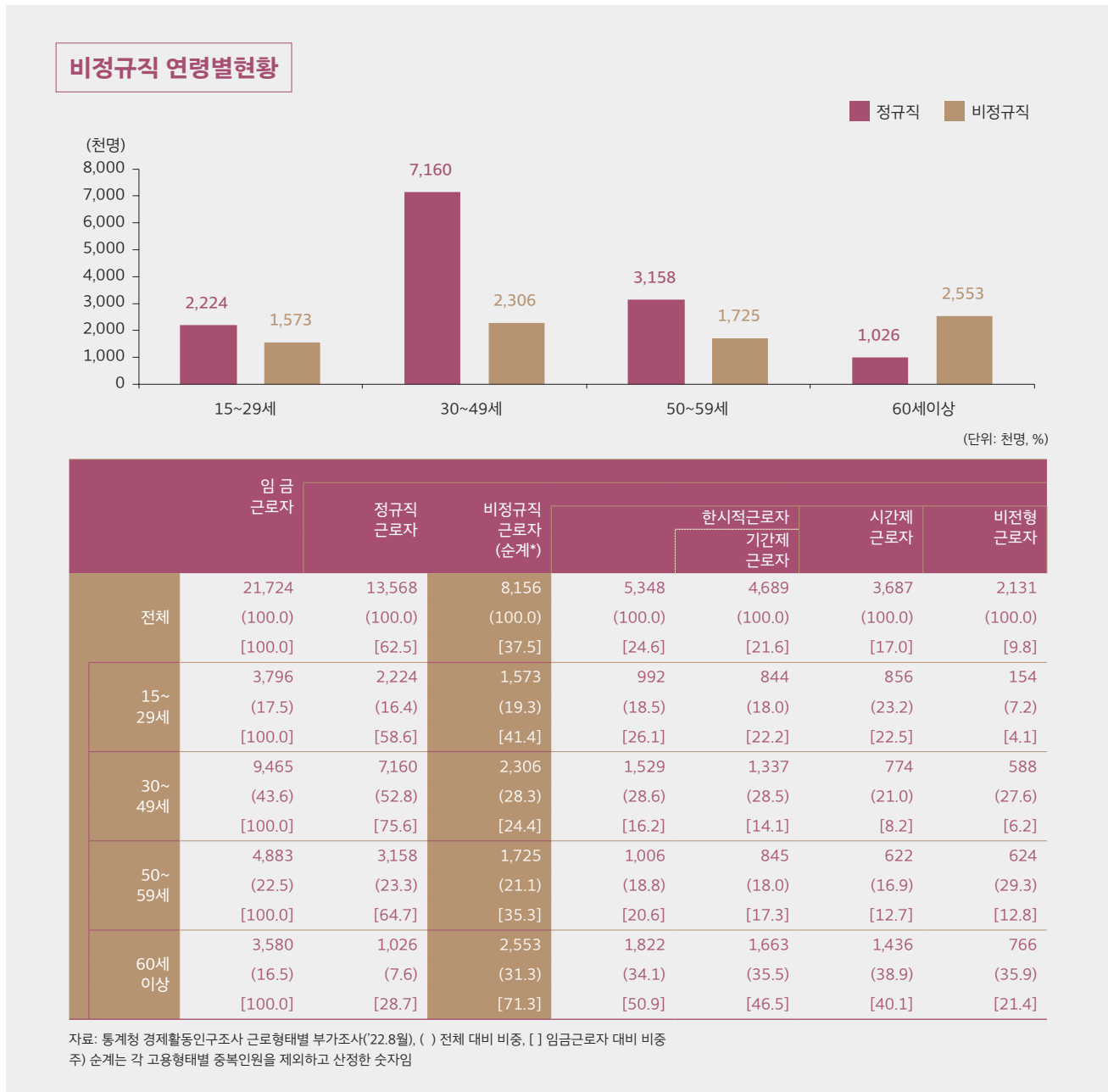
성별 현황

2022년 8월 비정규직의 성별분포는 여성이 55.2%로 남성 44.8%보다 많다. 특히 가정내근로, 시간제, 특수형태근로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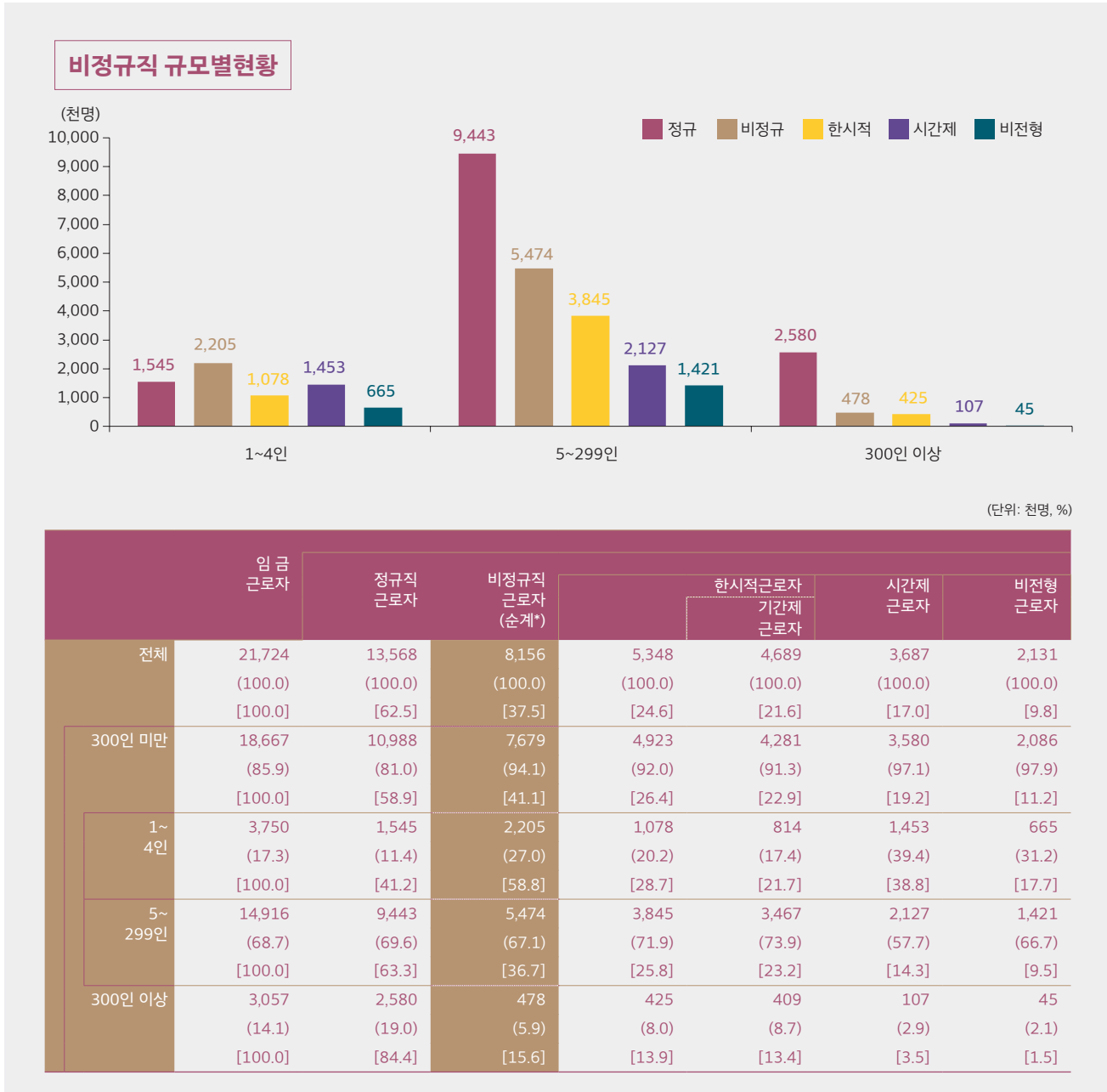
연령별 현황

2022년 8월 비정규직의 연령분포를 보면 30~49세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가 크게 차이난다.



사업체 규모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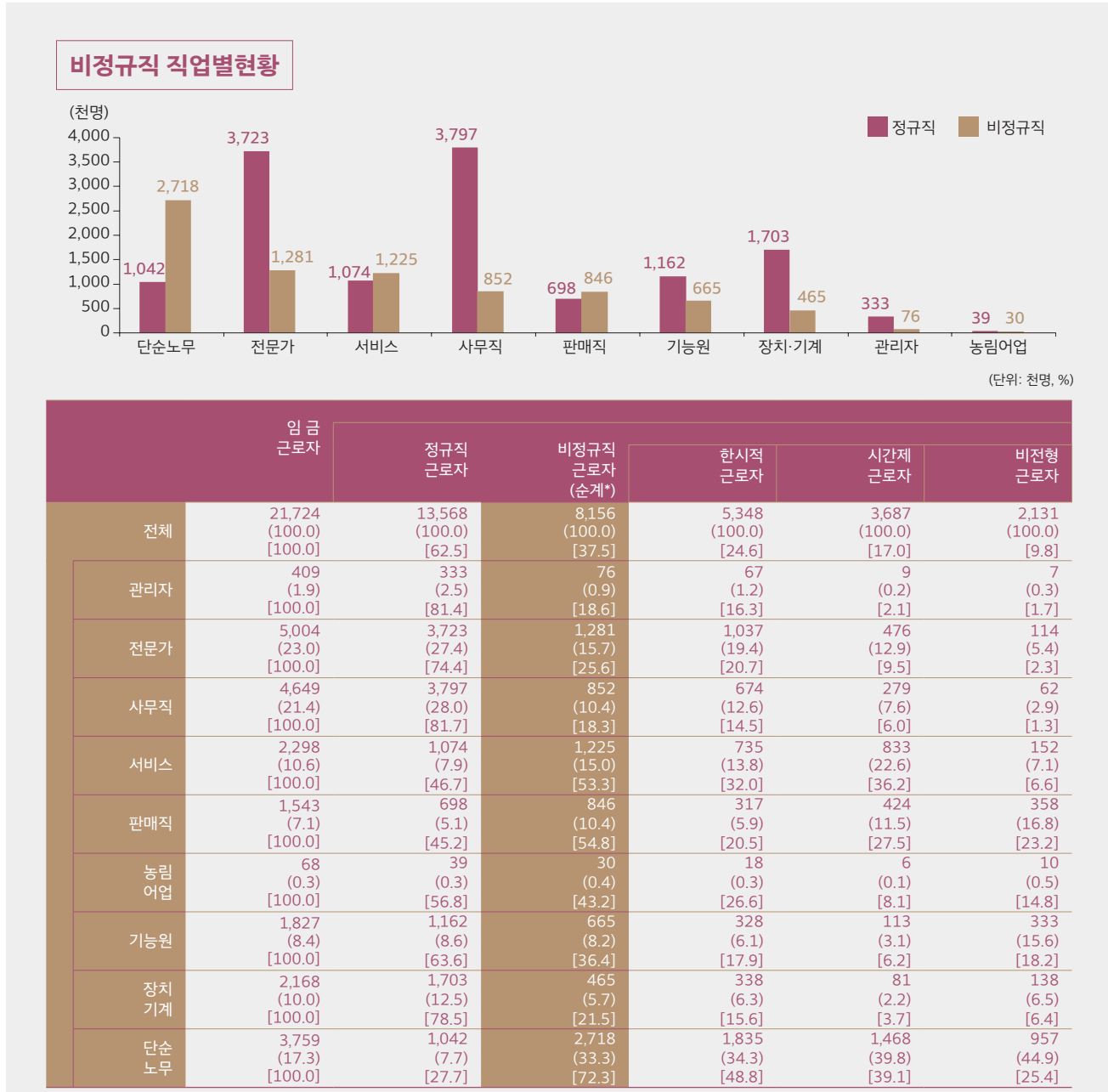
2022년 8월 비정규직의 규모별 분포는 300인 미만에 94.1%가 집중되어 있고, 특히 5인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비중(58.8%)이 높고 전체 비정규직의 27.0%를 차지한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2.8월), () 전체 대비 비중,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직업별 현황

2022년 8월 비정규직의 직종별 분포는 단순노무직이 33.3%로 가장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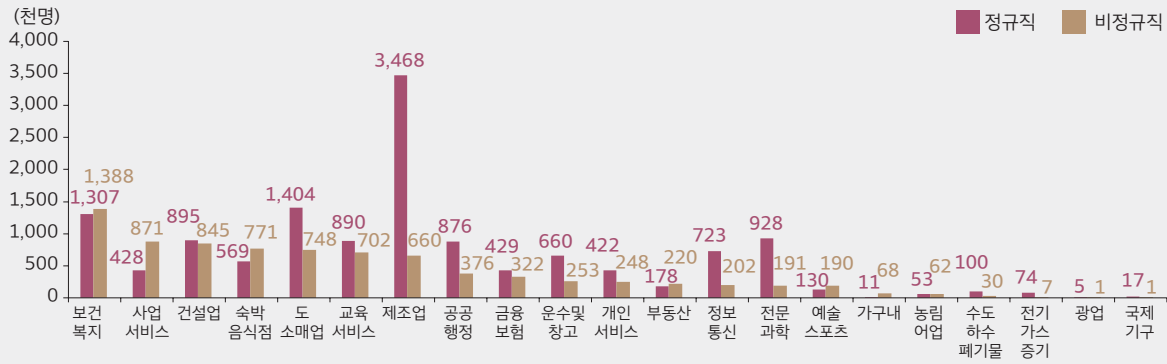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2.8월), () 전체 대비 비중,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산업별 현황

2022년 8월 비정규직의 산업별 분포는 보건복지업(17.0%), 사업서비스업(10.7%), 건설업(10.4%) 순으로 많다.

비정규직 산업별 현황



(단위: 천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순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전체	21,724 (100.0) [100.0]	13,568 (100.0) [62.5]	8,156 (100.0) [37.5]	5,348 (100.0) [24.6]	3,687 (100.0) [17.0]	2,131 (100.0) [9.8]
농림어업	115 (0.5) [100.0]	53 (0.4) [46.1]	62 (0.8) [53.9]	18 (0.3) [15.6]	26 (0.7) [22.4]	38 (1.8) [33.3]
광업	6 (0.0) [100.0]	5 (0.0) [80.6]	1 (0.0) [21.0]	1 (0.0) [21.0]	- - -	1 (0.0) [12.9]
제조업	4,128 (19.0) [100.0]	3,468 (25.6) [84.0]	660 (8.1) [16.0]	525 (9.8) [12.7]	142 (3.9) [3.4]	74 (3.5) [1.8]
전기가스증기	81 (0.4) [100.0]	74 (0.5) [90.8]	7 (0.1) [9.1]	6 (0.1) [7.5]	1 (0.0) [1.1]	1 (0.1) [1.7]
수도하수폐기물	130 (0.6) [100.0]	100 (0.7) [76.7]	30 (0.4) [23.3]	25 (0.5) [19.4]	7 (0.2) [5.0]	4 (0.2) [2.7]
건설업	1,740 (8.0) [100.0]	895 (6.6) [51.4]	845 (10.4) [48.6]	295 (5.5) [17.0]	151 (4.1) [8.7]	531 (24.9) [30.5]

(단위: 천명, %)

	임금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순계*)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도소매업	2,151 (9.9) [100.0]	1,404 (10.3) [65.2]	748 (9.2) [34.8]	374 (7.0) [17.4]	427 (11.6) [19.8]	149 (7.0) [6.9]
운수및창고	914 (4.2) [100.0]	660 (4.9) [72.3]	253 (3.1) [27.7]	145 (2.7) [15.8]	82 (2.2) [9.0]	94 (4.4) [10.3]
숙박음식점	1,340 (6.2) [100.0]	569 (4.2) [42.5]	771 (9.5) [57.5]	343 (6.4) [25.6]	587 (15.9) [43.8]	58 (2.7) [4.3]
정보통신	925 (4.3) [100.0]	723 (5.3) [78.2]	202 (2.5) [21.8]	169 (3.2) [18.3]	42 (1.1) [4.5]	23 (1.1) [2.5]
금융보험	751 (3.5) [100.0]	429 (3.2) [57.1]	322 (4.0) [42.9]	94 (1.8) [12.6]	46 (1.3) [6.2]	241 (11.3) [32.1]
부동산	399 (1.8) [100.0]	178 (1.3) [44.7]	220 (2.7) [55.3]	172 (3.2) [43.1]	63 (1.7) [15.8]	48 (2.2) [12.0]
전문과학	1,119 (5.2) [100.0]	928 (6.8) [82.9]	191 (2.3) [17.1]	158 (3.0) [14.1]	51 (1.4) [4.6]	11 (0.5) [1.0]
사업서비스	1,300 (6.0) [100.0]	428 (3.2) [33.0]	871 (10.7) [67.0]	630 (11.8) [48.5]	194 (5.3) [14.9]	626 (29.4) [48.2]
공공행정	1,252 (5.8) [100.0]	876 (6.5) [70.0]	376 (4.6) [30.0]	366 (6.8) [29.2]	239 (6.5) [19.1]	3 (0.1) [0.2]
교육서비스	1,592 (7.3) [100.0]	890 (6.6) [55.9]	702 (8.6) [44.1]	518 (9.7) [32.5]	446 (12.1) [28.0]	54 (2.5) [3.4]
보건복지	2,694 (12.4) [100.0]	1,307 (9.6) [48.5]	1,388 (17.0) [51.5]	1,220 (22.8) [45.3]	906 (24.6) [33.6]	56 (2.6) [2.1]
예술스포츠	320 (1.5) [100.0]	130 (1.0) [40.6]	190 (2.3) [59.4]	123 (2.3) [38.5]	98 (2.6) [30.5]	26 (1.2) [8.1]
개인서비스	670 (3.1) [100.0]	422 (3.1) [63.0]	248 (3.0) [37.0]	142 (2.6) [21.1]	130 (3.5) [19.4]	70 (3.3) [10.5]
가구내	79 (0.4) [100.0]	11 (0.1) [13.9]	68 (0.8) [86.1]	22 (0.4) [27.8]	50 (1.3) [62.9]	24 (1.1) [29.7]
국제기구	18 (0.1) [100.0]	17 (0.1) [93.4]	1 (0.0) [7.1]	1 (0.0) [7.1]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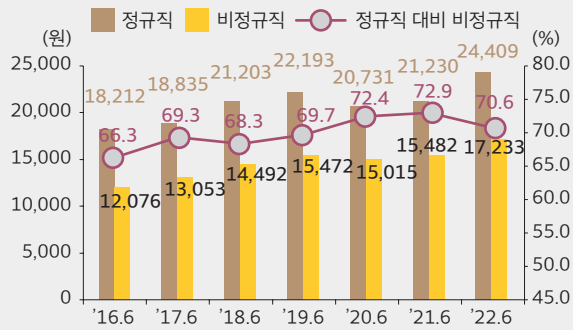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22.8월), () 전체 대비 비중,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주)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숫자임

2. 근로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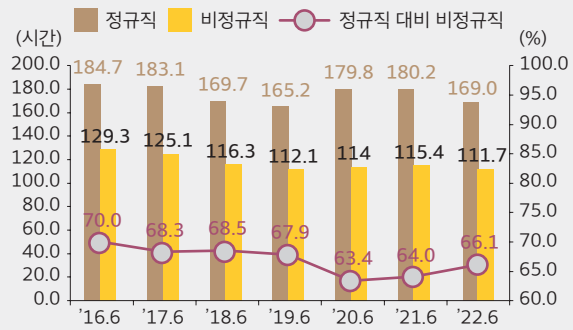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17,233원이고, 정규직 대비 70.6%이다.
 월 근로시간은 111.7시간이고 정규직 대비 66.1%이다.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16.6	16,709	18,212	12,076	12,028	8,960	11,270	9,512	10,513	14,905
'17.6	17,381	18,835	13,053	12,878	9,226	12,242	10,708	11,009	15,804
'18.6	19,522	21,203	14,492	14,680	10,046	13,402	12,021	12,694	17,180
'19.6	20,573	22,193	15,472	15,501	11,393	14,423	12,809	14,288	18,297
'20.6	19,316	20,731	15,015	14,719	11,566	13,594	12,338	13,744	18,499
'21.6	19,806	21,230	15,482	15,069	12,068	14,220	12,421	12,945	19,283
'22.6	22,651	24,409	17,233	17,517	12,638	15,515	13,558	13,762	21,41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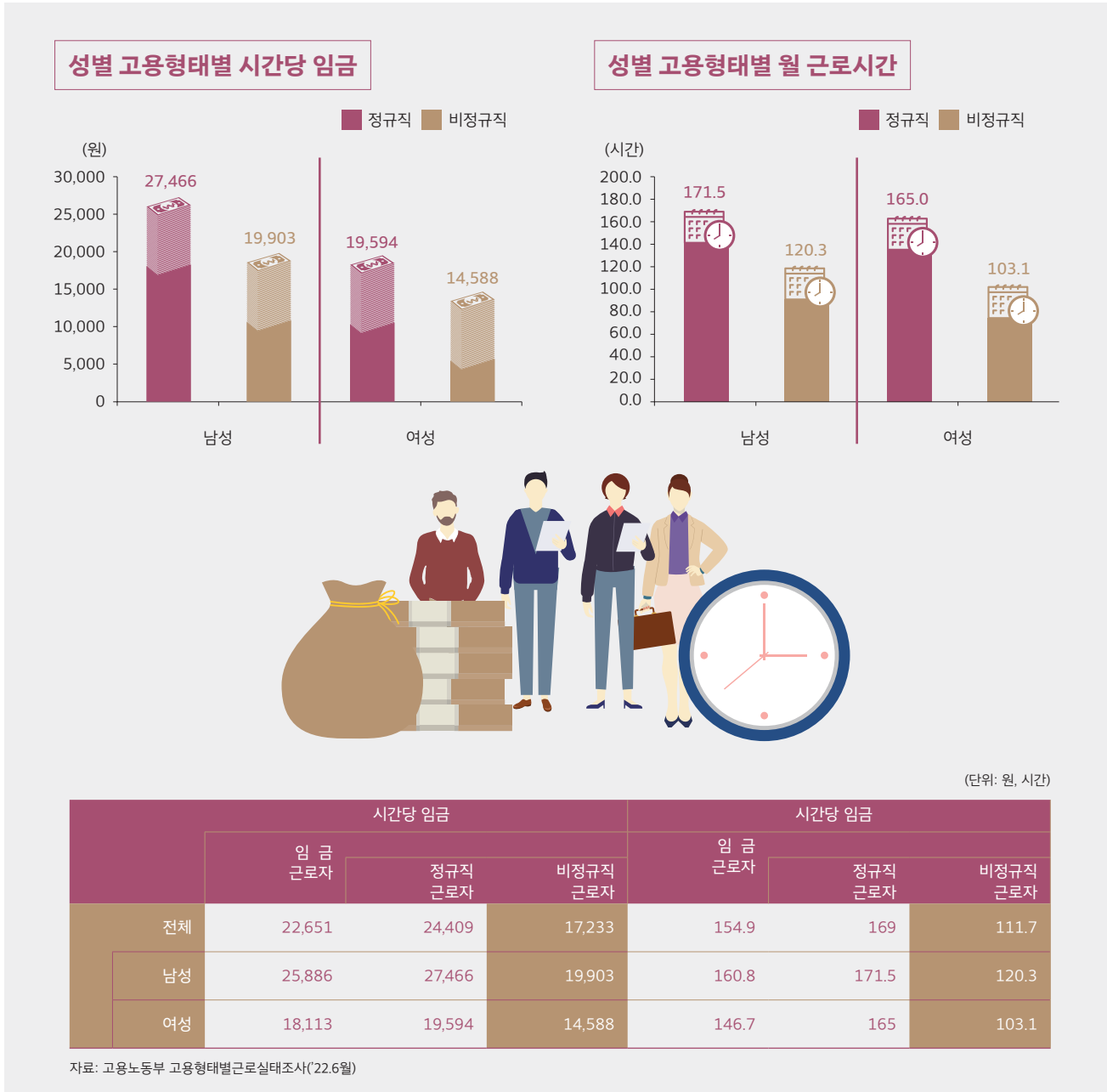
(단위: 시간)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 근로자	재택/가내 근로자	일일 근로자
'16.6	171.1	184.7	129.3	183.9	150.7	82.6	185.5	115.3	97.1
'17.6	168.5	183.1	125.1	182.6	152.3	82.1	181.8	124.8	93.9
'18.6	156.4	169.7	116.3	170.3	132.4	79.2	165.4	123.2	90.8
'19.6	152.4	165.2	112.1	160.6	112	76	163.7	112.5	85
'20.6	163.6	179.8	114	172.7	118.9	79.4	173.5	116.7	79.6
'21.6	164.2	180.2	115.4	175.7	118	78.6	173.3	117.2	80.2
'22.6	154.9	169	111.7	167.1	116.2	76.1	167.1	113	79.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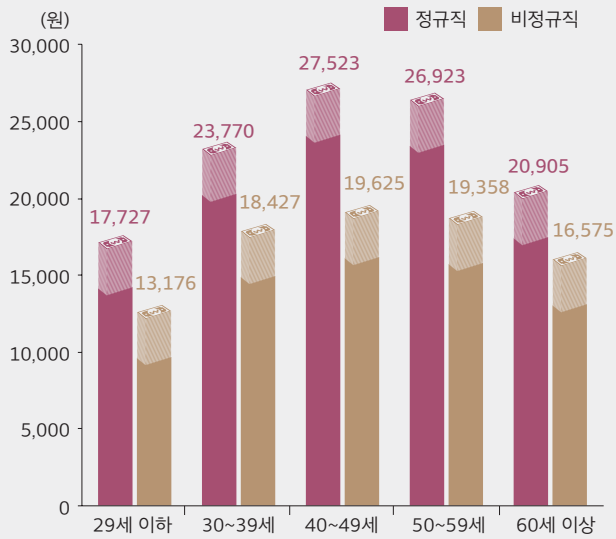
2022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남성 19,903원, 여성 14,588원으로 각각 정규직 대비 72.5%, 74.5%이다. 월근로시간은 남성 120.3시간, 여성 103.1시간으로 각각 정규직 대비 70.1%, 62.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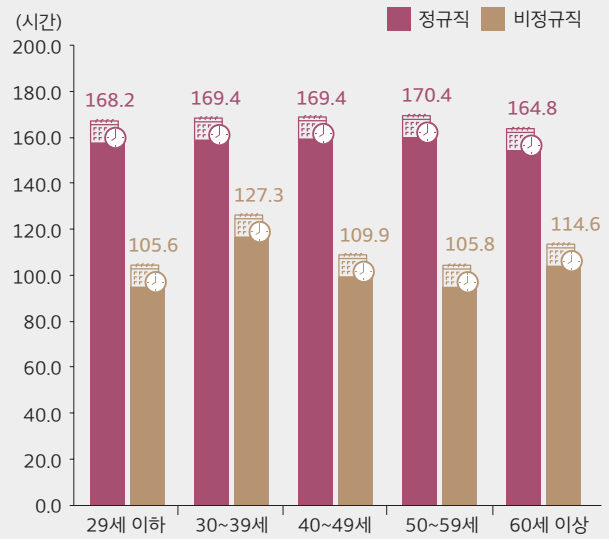
연령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은 40대 19,625원을 정점으로 50대부터 감소한다. 정규직 대비 임금수준은 40대가 71.3%로 가장 낮다. 월 근로시간은 30대 비정규직이 127.3시간으로 가장 긴 반면 정규직 대비 근로시간은 50대가 62.1%로 가장 짧다.

연령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연령별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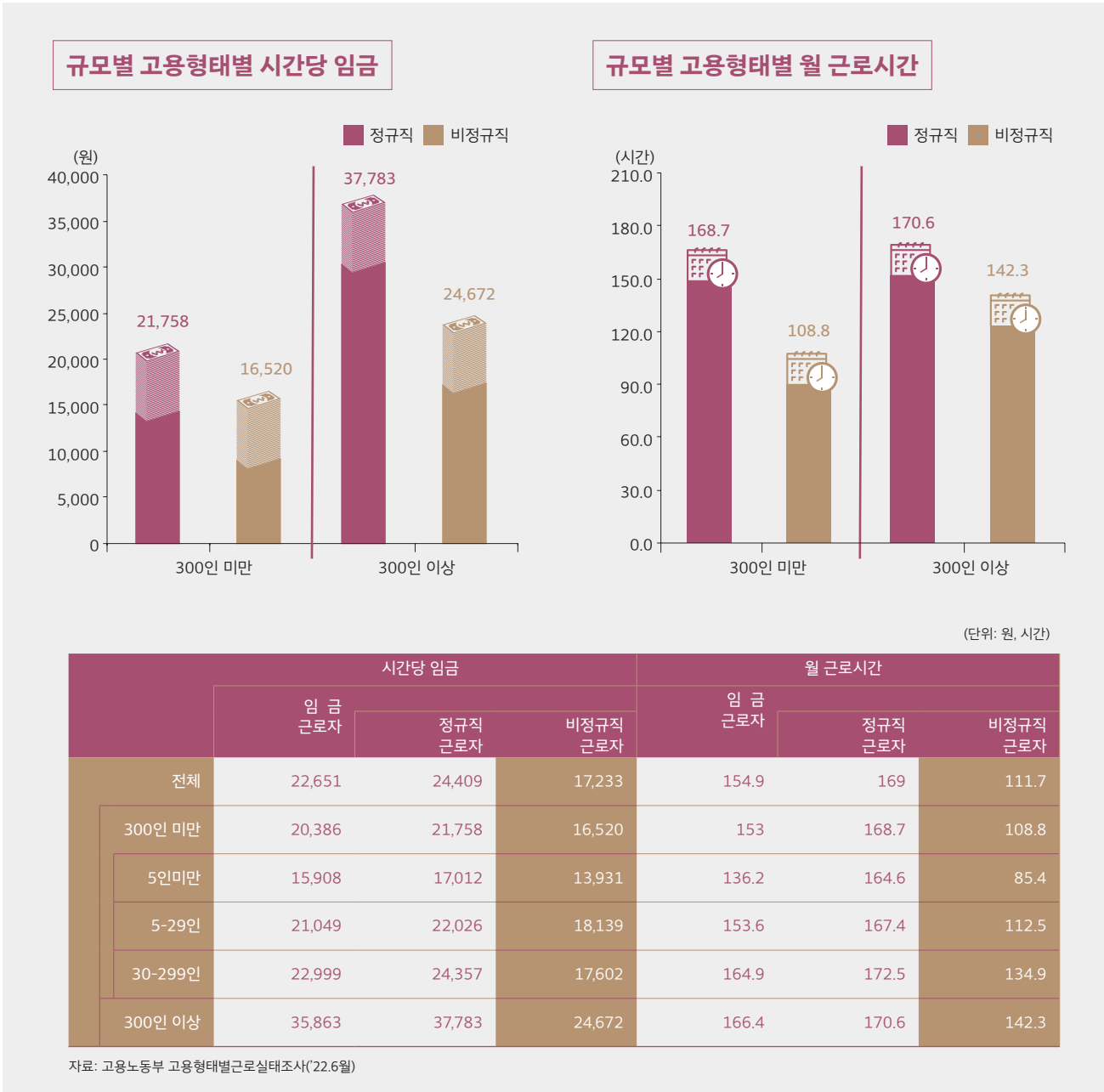
(단위: 원, 시간)

	시간당 임금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22,651	24,409	17,233	154.9	169	111.7
29세이하	16,248	17,727	13,176	147.8	168.2	105.6
30~39세	22,986	23,770	18,427	163.2	169.4	127.3
40~49세	26,272	27,523	19,625	160	169.4	109.9
50~59세	25,135	26,923	19,358	155.1	170.4	105.8
60세이상	18,901	20,905	16,575	141.6	164.8	114.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2.6월)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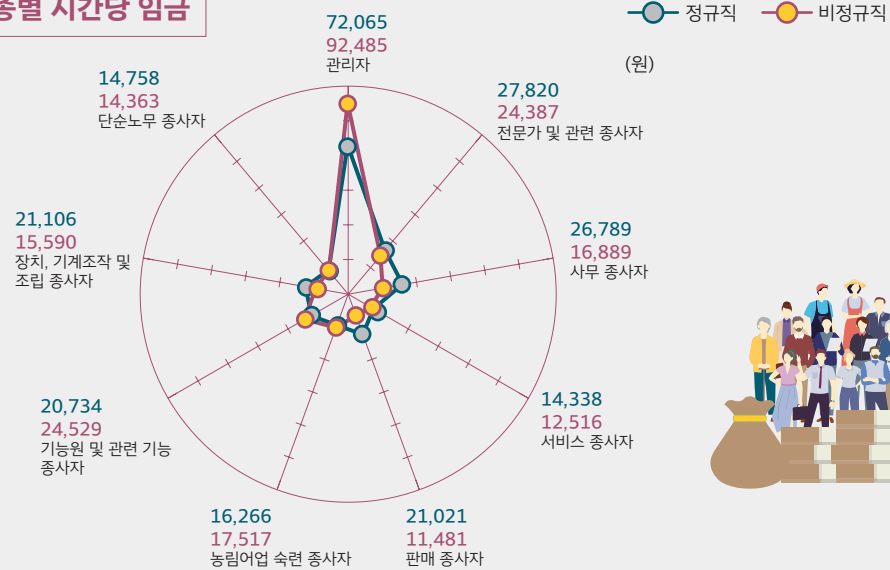
2022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은 300인 미만 사업장 16,520원, 300인 이상 24,672원이며 정규직대비 임금수준은 각각 75.9%, 65.3%수준이다. 월 근로시간은 300인 미만 108.8시간, 300인 이상 142.3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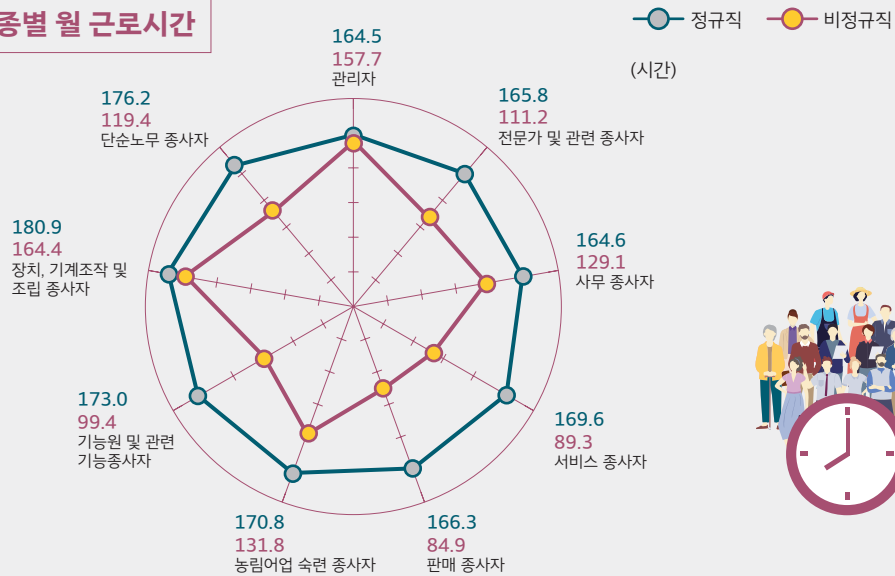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6월 비정규직 임금수준은 관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전문가 순으로 높고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순으로 낮다. 월 근로시간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가장 길고 판매 종사자가 가장 짧다.

고용형태별 직종별 시간당 임금



고용형태별 직종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22,651	24,409	17,233
관리자	73,158	72,065	92,48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328	27,820	24,387
사무 종사자	25,786	26,789	16,889
서비스 종사자	13,378	14,338	12,516
판매 종사자	18,625	21,021	11,481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6,875	16,266	17,51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22,345	20,734	24,52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20,322	21,106	15,590
단순노무 종사자	14,530	14,758	14,36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2.6월)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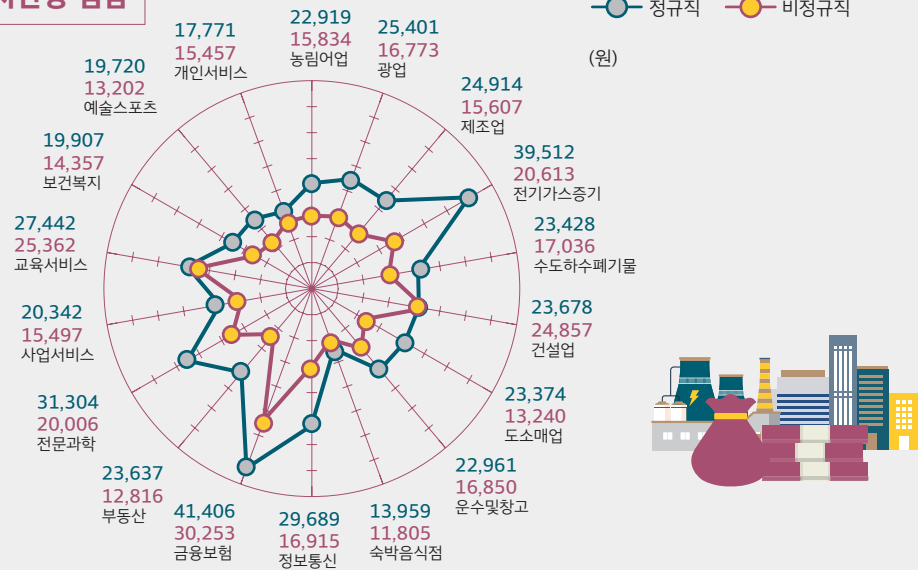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154.9	169	111.7
관리자	164.2	164.5	157.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58	165.8	111.2
사무 종사자	161	164.6	129.1
서비스 종사자	127.3	169.6	89.3
판매 종사자	145.9	166.3	84.9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51.8	170.8	131.8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141.7	173	99.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78.6	180.9	164.4
단순노무 종사자	143.4	176.2	119.4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2.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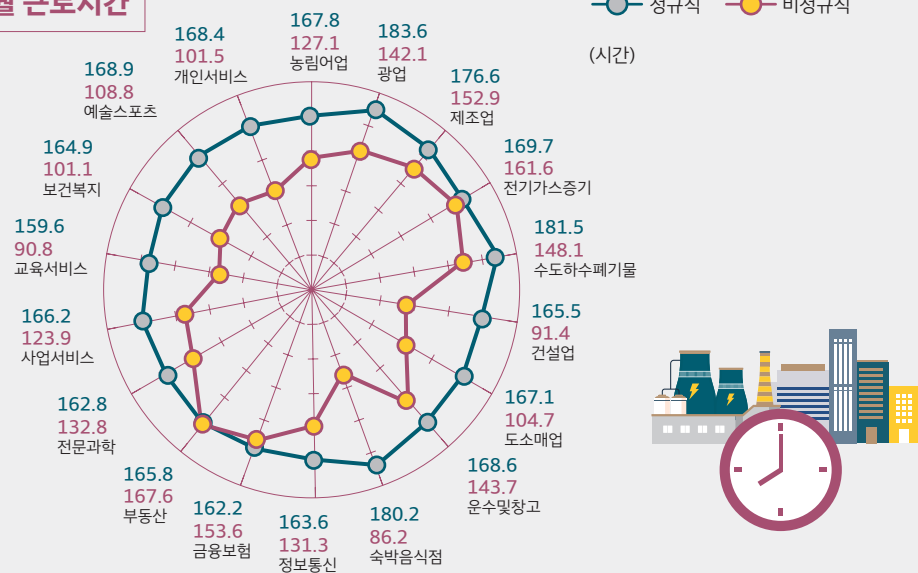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2022년 6월 비정규직 시간당임금은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순으로 높고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순으로 낮다. 월 근로시간은 부동산, 전기가스증기 순으로 길고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 순으로 짧다.

산업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산업별 고용형태별 월 근로시간



(단위: 원)

시간당 임금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22,651	24,409	17,233	
농림어업	20,469	22,919	15,834	
광업	24,662	25,401	16,773	
제조업	23,929	24,914	15,607	
전기가스증기	37,468	39,512	20,613	
수도하수폐기물	22,568	23,428	17,036	
건설업	24,261	23,678	24,857	
도소매업	21,563	23,374	13,240	
운수 및 창고	21,911	22,961	16,850	
숙박음식점	12,811	13,959	11,805	
정보통신	28,557	29,689	16,915	
금융보험	39,968	41,406	30,253	
부동산	16,844	23,637	12,816	
전문과학	30,091	31,304	20,006	
사업서비스	19,366	20,342	15,497	
교육서비스	26,502	27,442	25,362	
보건복지	18,254	19,907	14,357	
예술스포츠	17,069	19,720	13,202	
개인서비스	17,315	17,771	15,45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2.6월)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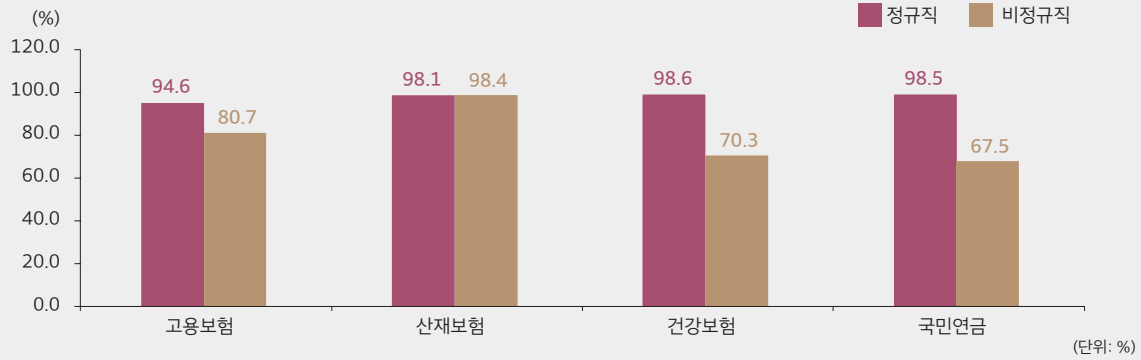
월 근로시간	임금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154.9	169	111.7	
농림어업	153.7	167.8	127.1	
광업	180	183.6	142.1	
제조업	174.1	176.6	152.9	
전기가스증기	168.8	169.7	161.6	
수도하수폐기물	177	181.5	148.1	
건설업	128.8	165.5	91.4	
도소매업	155.9	167.1	104.7	
운수 및 창고	164.4	168.6	143.7	
숙박음식점	130.1	180.2	86.2	
정보통신	160.7	163.6	131.3	
금융보험	161.1	162.2	153.6	
부동산	166.9	165.8	167.6	
전문과학	159.6	162.8	132.8	
사업서비스	157.6	166.2	123.9	
교육서비스	128.5	159.6	90.8	
보건복지	145.9	164.9	101.1	
예술스포츠	144.5	168.9	108.8	
개인서비스	155.2	168.4	101.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2.6월)

사회보험 적용

2022년 6월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80.7%, 산재보험 98.4%, 건강보험 70.3%, 국민연금 67.5%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정규직보다 낮으나, 산재보험은 비정규직 가입률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보험종류	연도	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한시적	단시간	파견용역	재택/가내	일 일	
고용보험	'16	90.7	95.7	72.1	86.9	45.1	69.0	93.8	58.9	57.4
	'17	89.1	94.7	68.7	85.7	41.1	67.5	93.1	62.8	50.2
	'18	89.6	94.6	70.8	84.4	39.1	73.2	93.3	74.0	53.2
	'19	90.3	94.4	74.0	85.0	50.3	76.8	95.6	75.1	57.0
	'20	90.3	94.4	74.4	86.2	43.9	81.1	96.2	76.2	55.8
	'21	90.5	94.2	76.1	89.3	46.3	80.3	95.0	79.9	58.6
산재보험	'22	91.8	94.6	80.7	91.5	51.2	84.4	94.8	81.7	64.3
	'16	98.1	98.3	97.4	98.8	93.0	95.5	98.0	95.8	98.1
	'17	97.6	97.8	96.8	98.5	92.2	93.4	97.6	96.4	98.5
	'18	97.4	97.5	96.7	97.9	91.2	94.4	96.7	99.8	98.3
	'19	97.7	97.8	97.3	98.5	87.9	94.9	98.3	99.2	98.4
	'20	97.8	97.9	97.5	99.0	85.4	95.7	99.7	100.0	97.7
건강보험	'21	97.8	97.8	97.6	98.9	86.6	95.9	98.5	100.0	98.5
	'22	98.2	98.1	98.4	99.2	93.3	97.6	98.6	100.0	98.5
	'16	89.7	98.3	59.4	94.9	36.4	65.6	94.0	56.6	11.1
	'17	88.9	98.0	58.1	92.7	35.0	65.3	92.2	70.6	12.0
	'18	89.4	98.1	59.5	93.6	34.9	71.8	91.6	79.4	10.9
	'19	90.9	98.2	64.2	93.4	43.7	75.8	95.3	77.3	18.1
국민연금	'20	91.1	98.5	64.9	93.1	41.4	79.0	96.1	78.7	20.2
	'21	91.5	98.5	66.4	93.6	42.8	79.1	95.4	78.9	22.9
	'22	92.5	98.6	70.3	95.7	44.3	83.5	95.3	83.1	24.9
	'16	90.1	98.2	56.7	89.7	35.0	63.7	92.5	59.4	11.1
	'17	89.1	97.8	54.9	86.9	33.9	63.0	88.1	71.9	11.0
	'18	89.7	97.9	56.5	86.5	34.3	69.9	89.7	78.6	11.2
국민연금	'19	91.1	98.0	61.0	85.9	44.1	73.7	92.2	75.4	17.5
	'20	91.3	98.3	61.7	86.6	39.5	77.6	94.9	80.2	20.5
	'21	91.7	98.3	63.0	88.7	41.9	76.5	93.2	82.5	22.9
	'22	93.0	98.5	67.5	91.8	41.5	81.4	93.7	87.4	24.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주: 고용보험은 교육서비스업, 65세이상, 3개월미만으로 근로하는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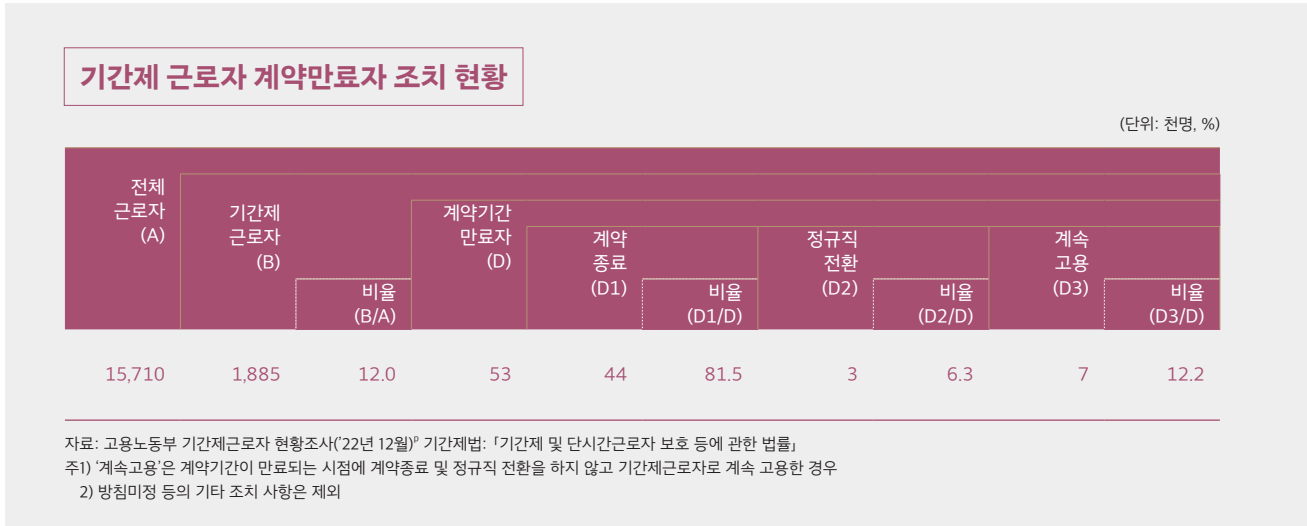
산재보험은 교육서비스업,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상용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제외

건강보험은 교육서비스업,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국민연금은 교육서비스업, 18세미만, 60세이상,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하, 60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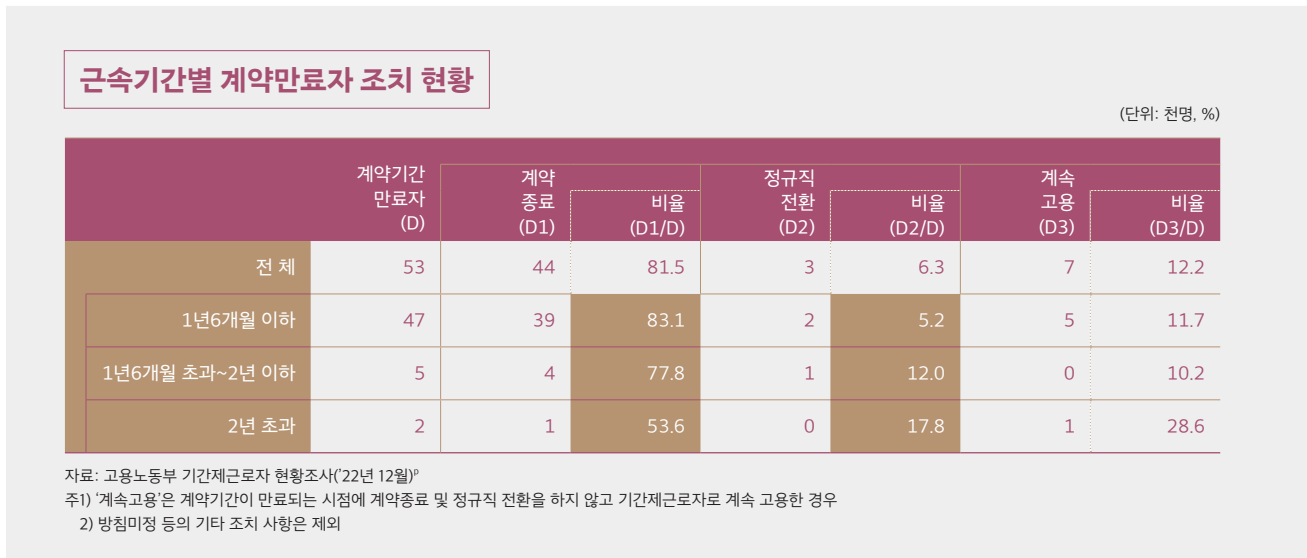
3. 고용형태 변화 정규직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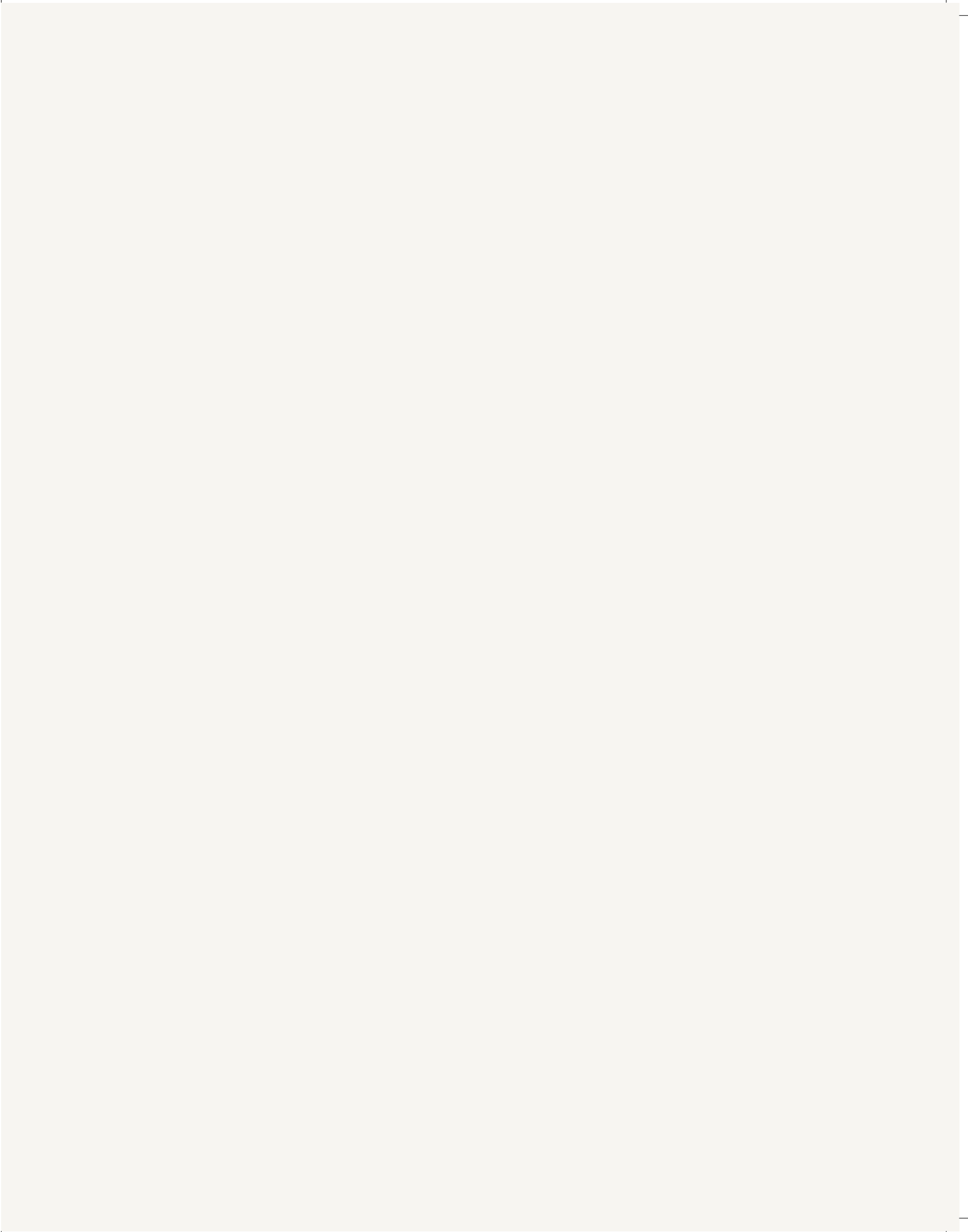
2022년 12월 전체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의 전체 기간제 근로자는 1,885천명이다.



근속기간별 정규직 전환

계약기간 만료시 정규직전환 비율을 살펴보면, 2년초과 근속기간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17.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2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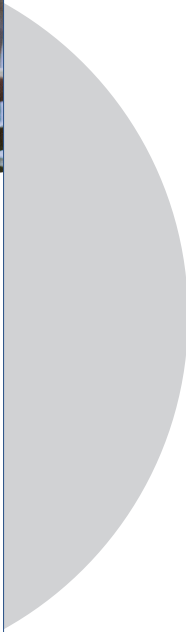


03

부록

Appendix

고용노동 관련 OECD 국제비교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2021년 기준)

Appendix

고용노동 관련 OECD 국제비교

OECD 국제통계 수록범위



1

+

OECD 통계 홈페이지에서 발표하는 국제비교 통계 중 고용노동 분야의 주요 지표 32개 항목을 수록하였음



2

+

본문 통계표에는 37개 회원국가 중 15~64세 이상 인구가 1,500만 명 이상인 13개 국가의 최근 자료를 수록하였음



3

+

국제비교의 필요성이 있지만 OECD에서 별도로 발표하지 않은 한국의 지표는 OECD 통계 DB를 이용하여 계산하거나, 2개 이상의 발표된 지표를 가공하여 생산하였음

이용 시 참고사항



1

+

모든 지표에 대하여 산정 기준과, 자료의 출처, 이용상의 한계 등을 숙지한 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



2

+

국가별 최신 자료 수록시점이 서로 다른 경우 23개국(회원국의 2/3) 이상의 자료가 수록된 최신 연도의 통계를 수록하였음



3

+

모든 자료는 2023.7.17.일 OECD통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해당 시점에 자료가 수록·발표되지 않은 국가는 미반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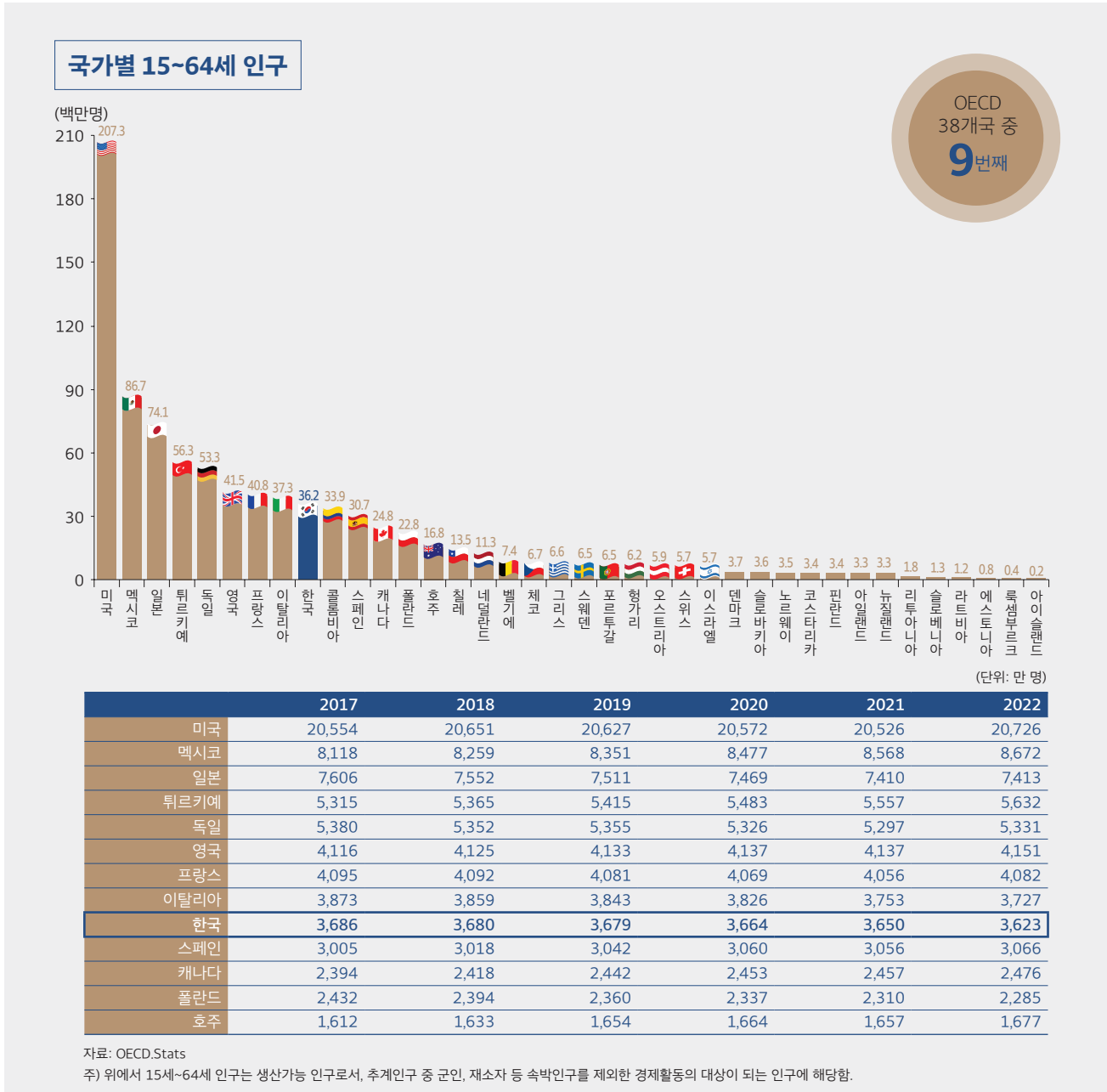
+

'OECD평균'이 발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발표된 지표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였으며, 통계표 하단에 이를 표기하였음

1. 인구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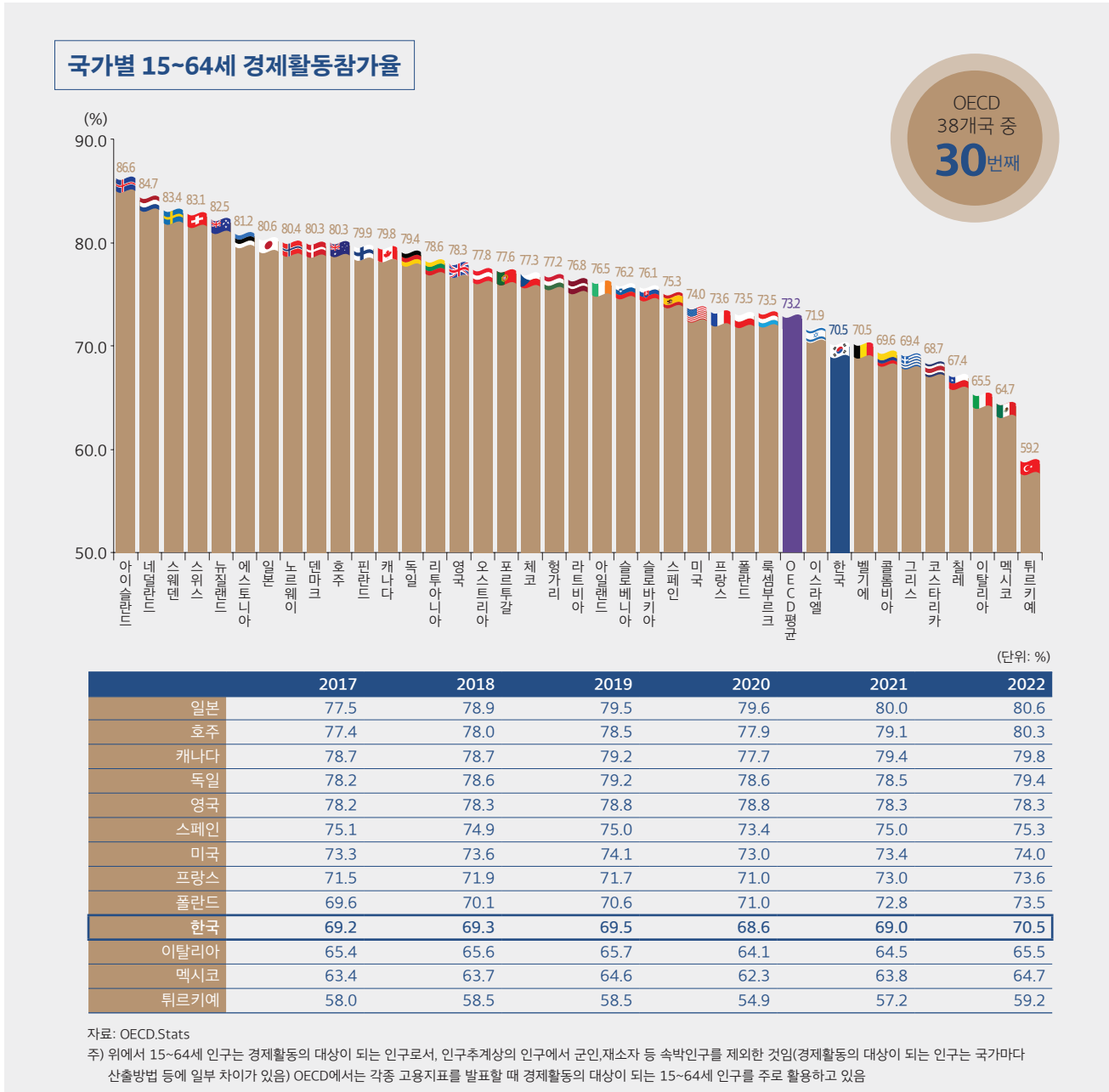
인구

OECD는 15~64세 인구는 노동연령대 인구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은 2022년 3,623만명으로 OECD 38개국 중 9번째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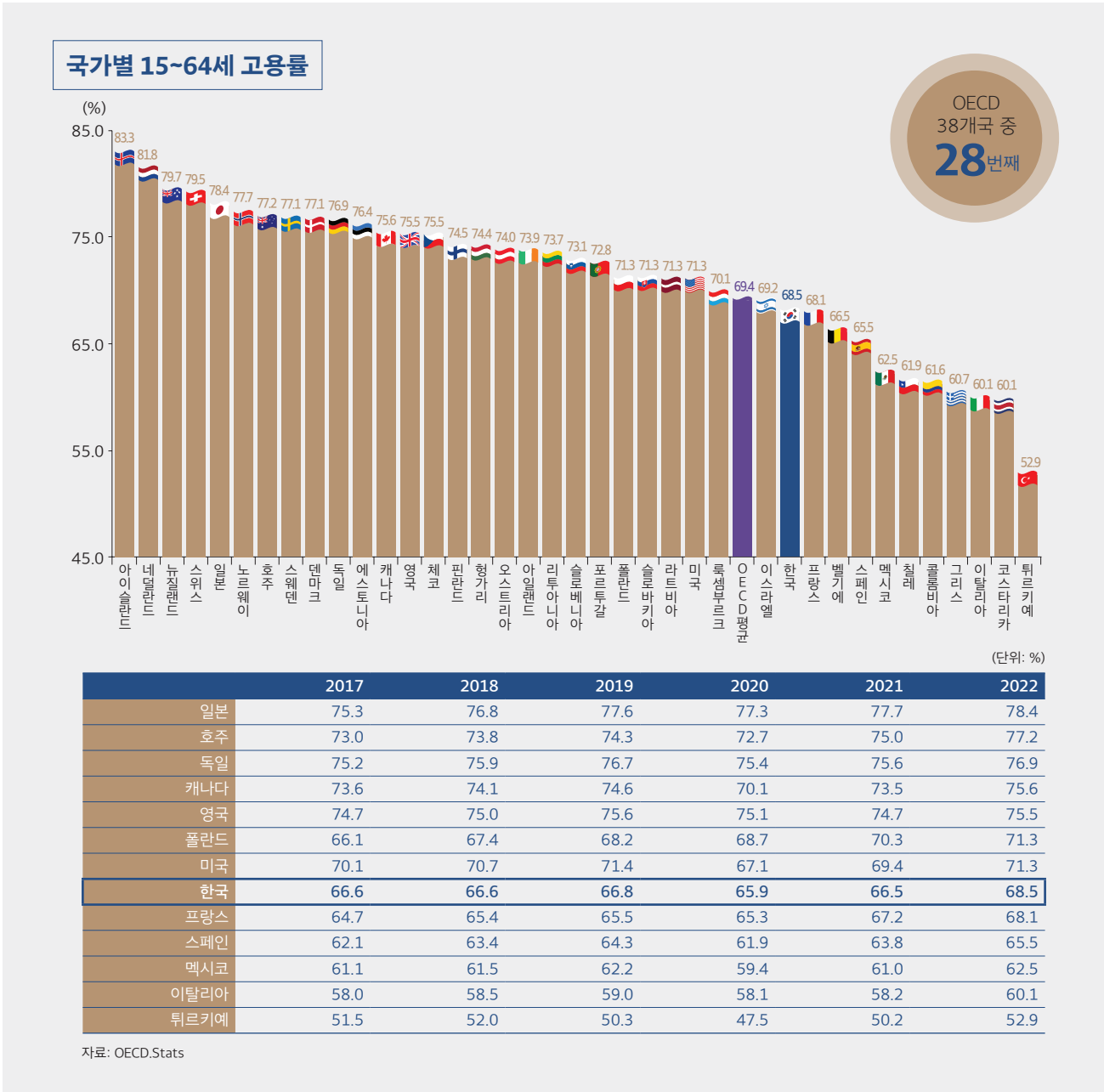
경제활동참가율

15~64세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에서 한국은 2022년 70.5%로 OECD 38개국 중 30위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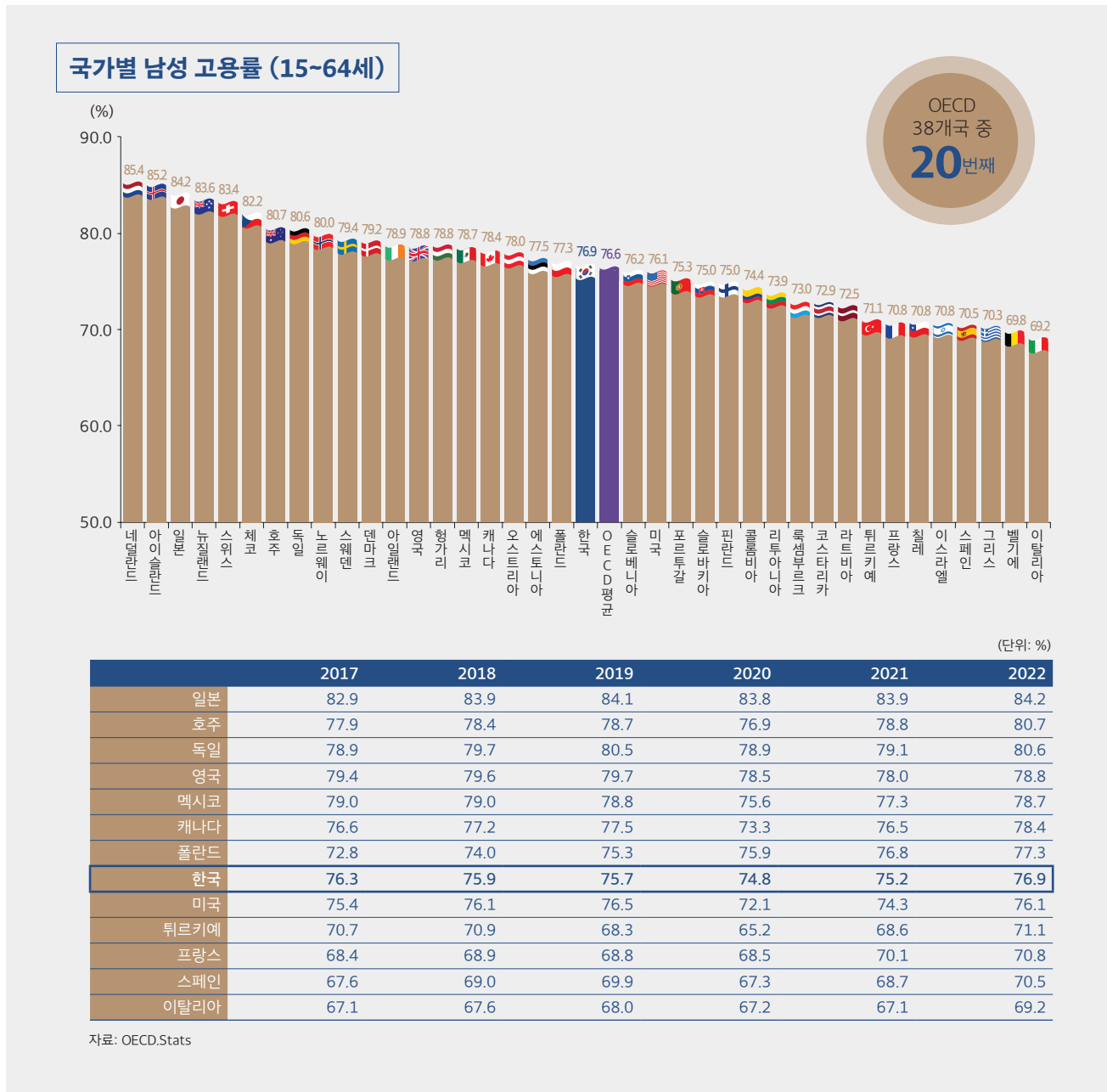
고용률

대표적 고용률 지표인 15~64세 고용률에서 한국은 68.5%로 OECD 38개국 중 28위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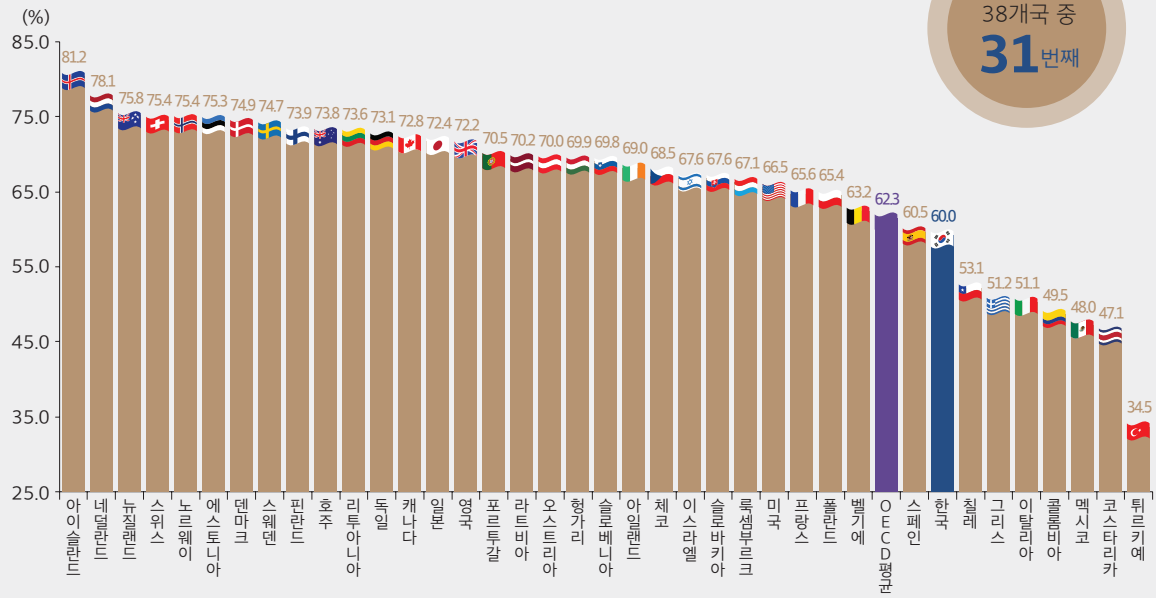


성별 고용률

한국의 15~64세 남성 고용률은 76.9%, 여성은 60.0%로, OECD 38개국 중 남성은 20위, 여성은 31위에 위치한다. OECD 평균에 비해 남성고용률은 높고, 여성고용률은 낮은 편이다.



국가별 여성 고용률 (15~64세)



OECD
38개국 중
31번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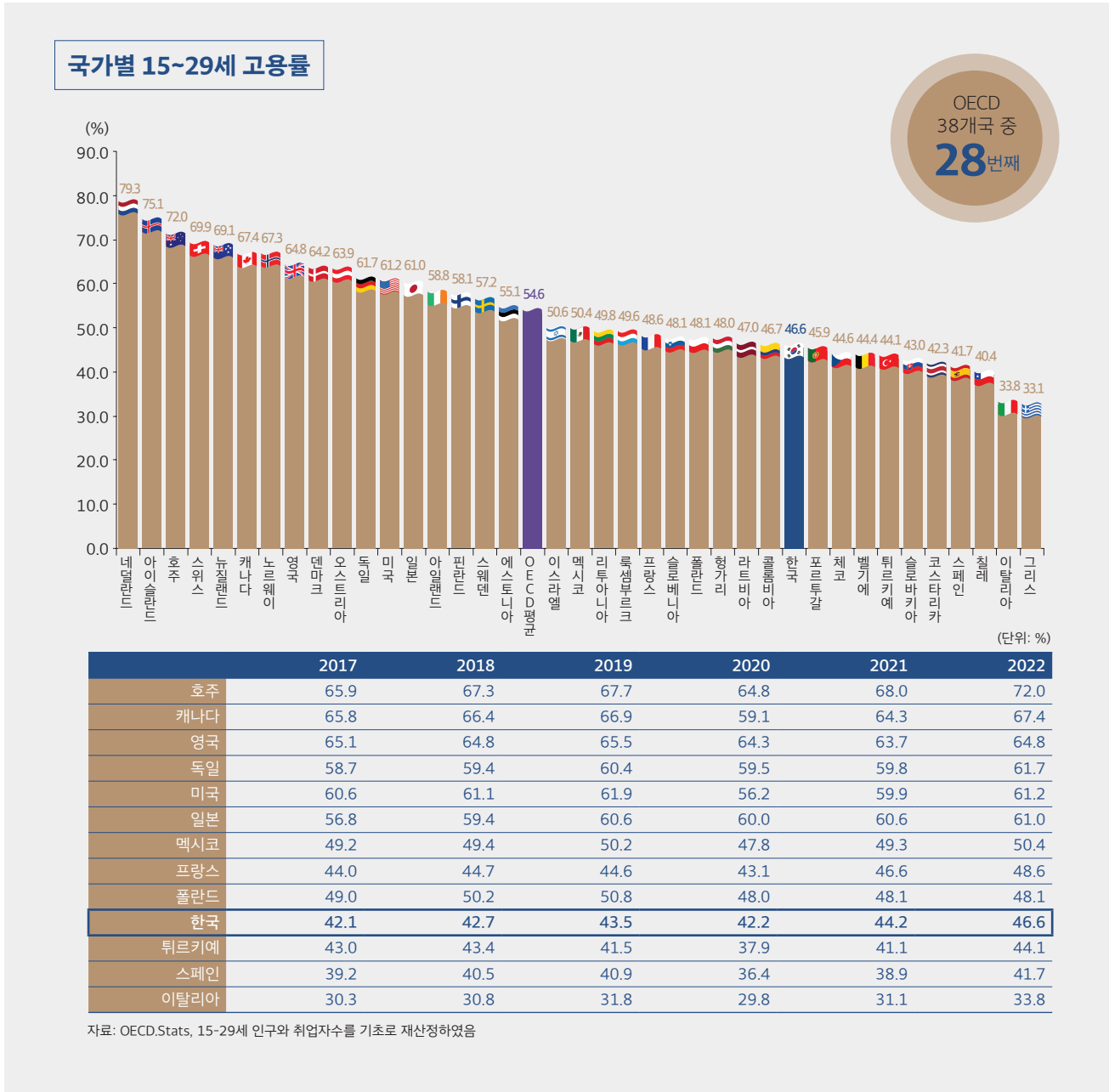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호주	68.2	69.2	70.0	68.6	71.2	73.8
독일	71.5	72.1	72.8	71.8	71.9	73.1
캐나다	70.5	70.9	71.7	66.9	70.5	72.8
일본	67.4	69.6	70.9	70.6	71.3	72.4
영국	70.1	70.5	71.6	71.7	71.5	72.2
미국	64.9	65.5	66.3	62.2	64.6	66.5
프랑스	61.2	62.0	62.4	62.2	64.5	65.6
폴란드	59.5	60.8	61.1	61.5	63.8	65.4
스페인	56.5	57.8	58.8	56.6	58.9	60.5
한국	56.9	57.2	57.8	56.7	57.7	60.0
이탈리아	48.9	49.5	50.1	49.0	49.4	51.1
멕시코	44.9	45.6	47.0	44.6	46.2	48.0
튀르키예	32.2	32.9	32.2	29.7	31.7	34.5

자료: OECD.Stats

+ 연도별로 한국의 남성 고용률은 '17년 이후 하락세였으나, '21년 이후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은 상승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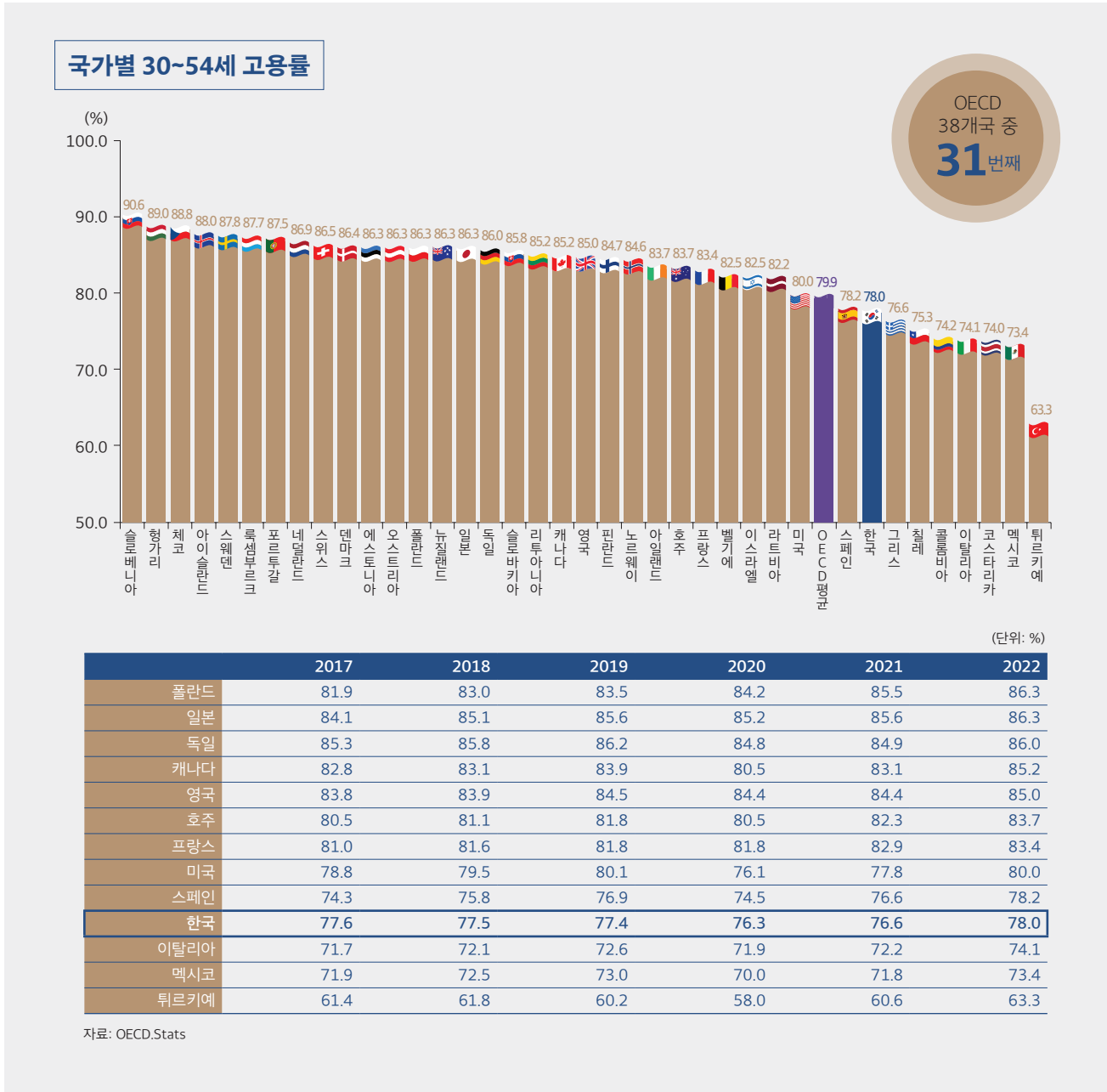
연령별 고용률*

2022년 한국의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6.6%로 OECD 38개국 중 28위로 낮은편에 위치한다. 높은 대학진학률, 군복무 등으로 취업시기가 늦어지는 환경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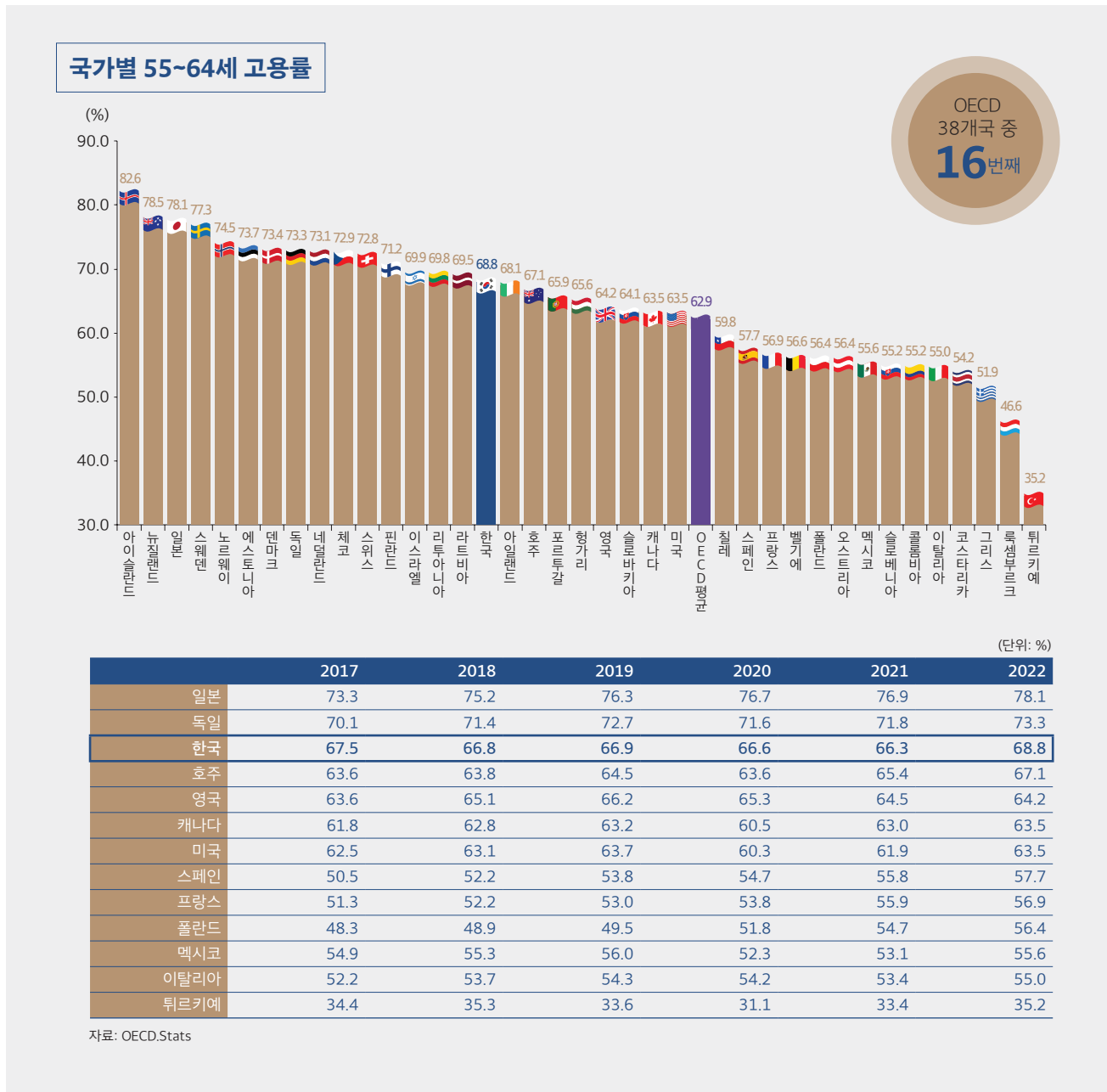


* OECD에서는 연령별 고용률을 15~24세, 25~54세, 55~64세로 나누어 제시. 우리나라는 남성의 군복무 등으로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기준을 15~29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는 OECD의 통계 DB를 이용하여 각 국가별 고용률을 15~29세, 30~54세, 55~64세로 나누어 재산정

2022년 한국의 30~54세 중년 고용률은 78.0%로
 OECD 38개국 중 31위로 낮은편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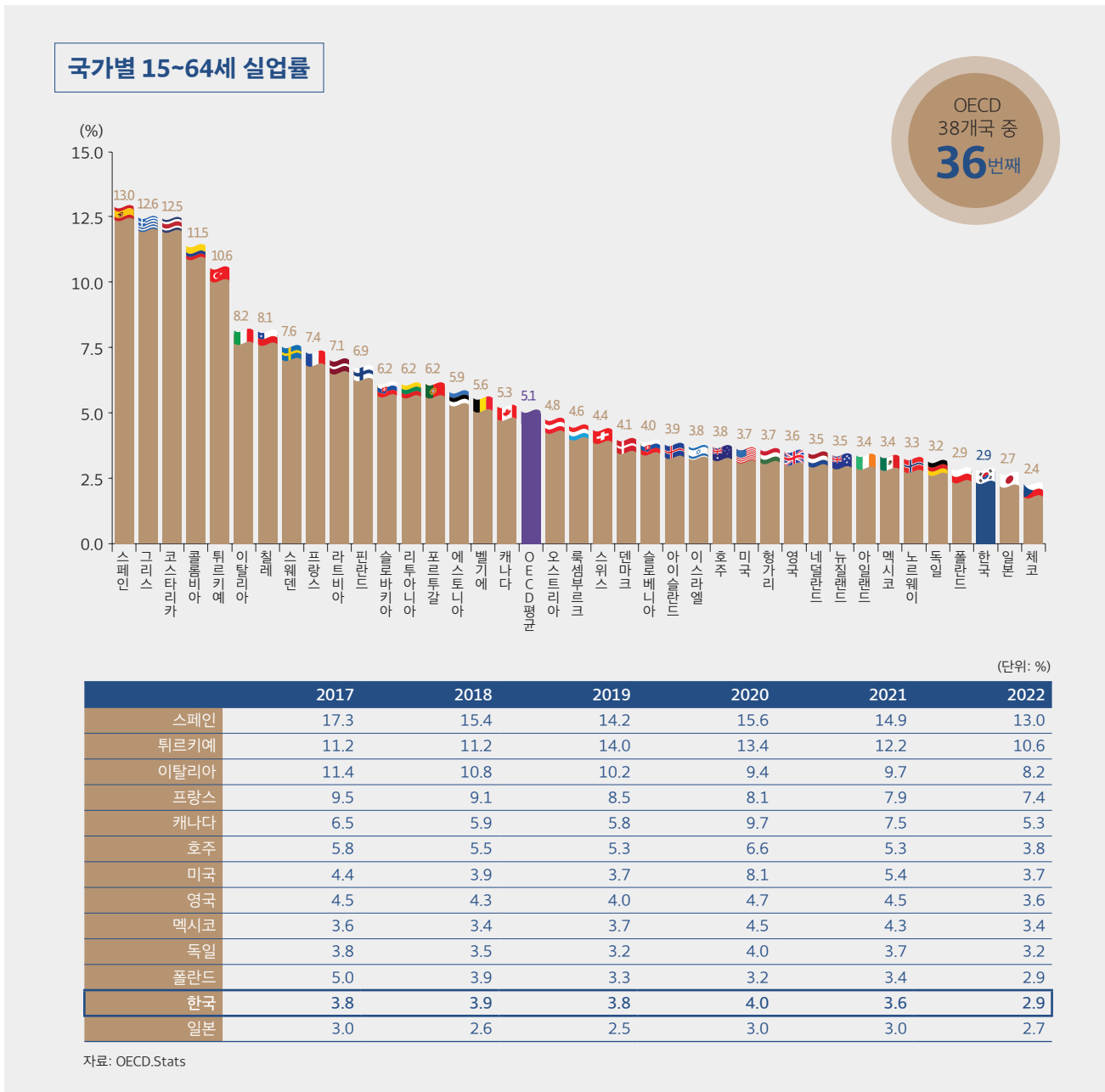


2022년 한국의 55~64세 고용률은 68.8%로
OECD 38개국 중 16위로 청년, 30~54세 고용률에 비해 높은편에 위치한다.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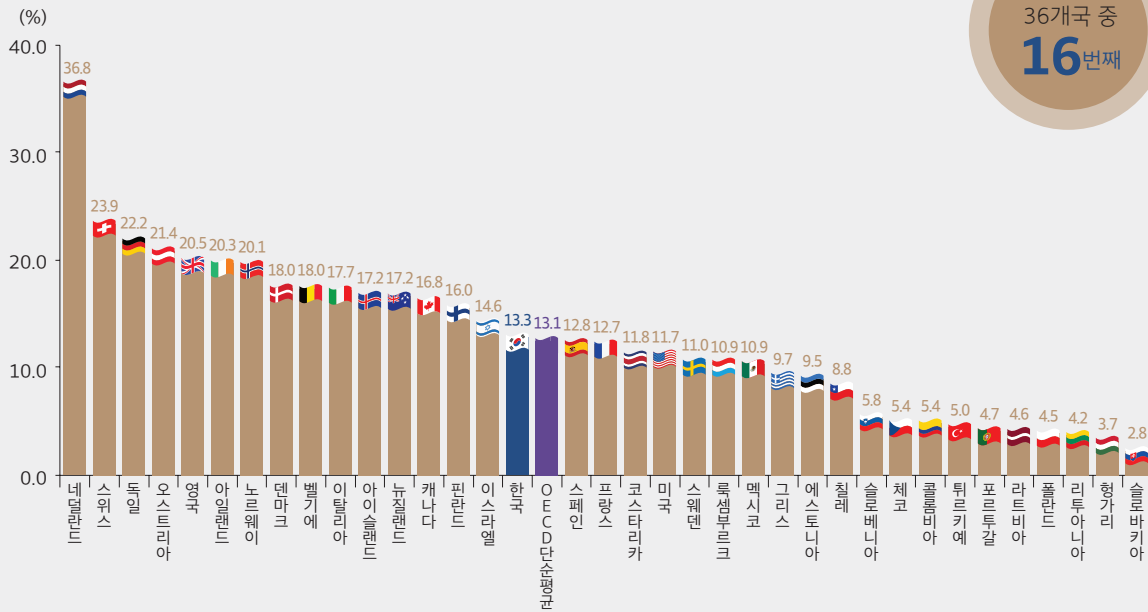
2022년 15~64세 실업률에서 한국은 2.9%로 OECD 38개국 중 36위로 낮은편에 속한다. 이는 한국의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구조

OECD는 주된 일자리의 평소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은 13.3%로 36개국 중 16위에 위치한다.

국가별 시간제 근로자 비중(15세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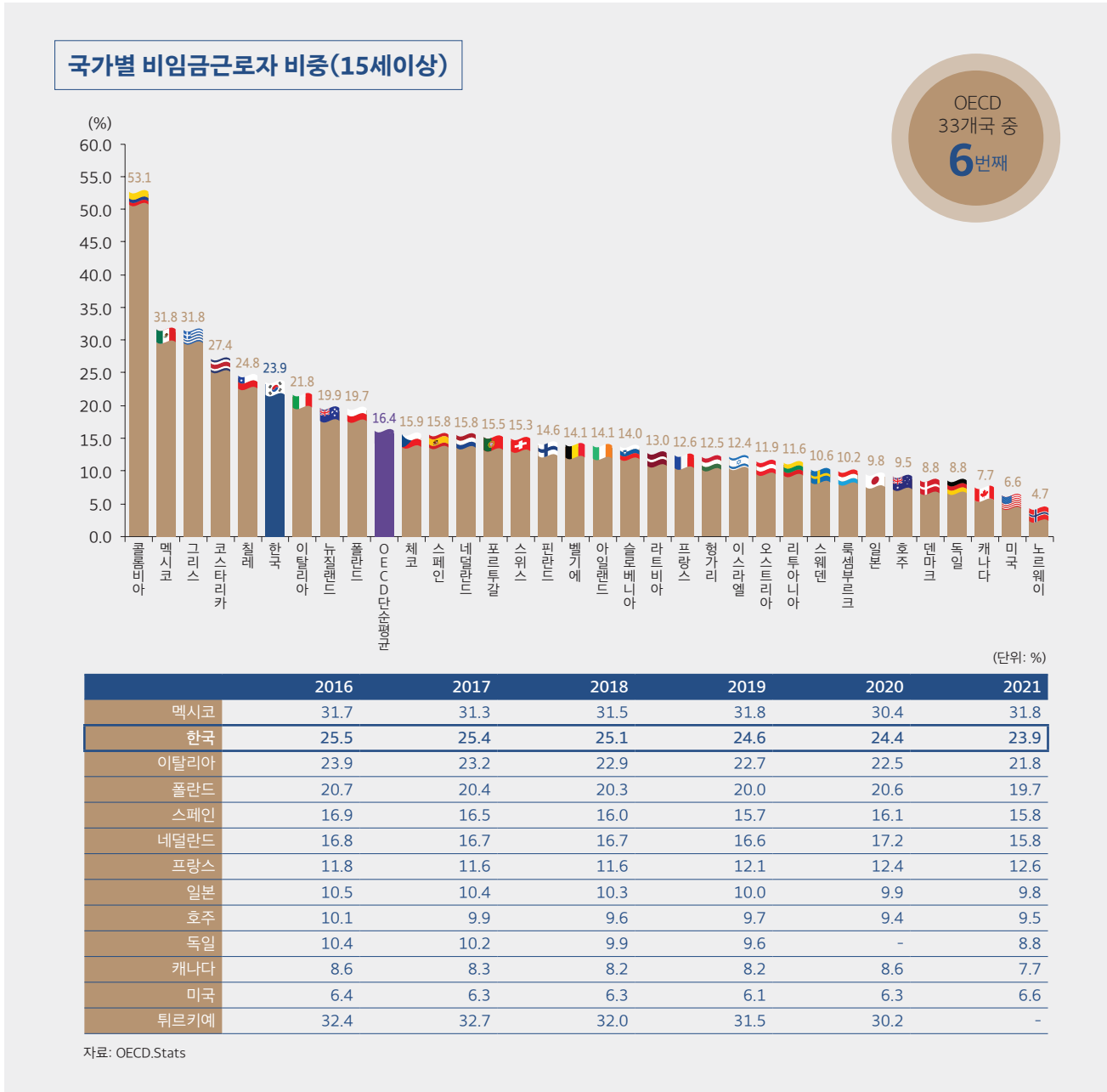
(단위: %)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네덜란드	38.7	38.7	38.3	37.8	37.7	36.8
독일	22.4	22.3	22.3	22.5	22.1	22.2
영국	22.6	22.2	22.0	21.3	20.3	20.5
이탈리아	19.9	19.3	19.4	19.2	18.2	17.7
캐나다	18.5	18.0	18.0	16.5	15.8	16.8
한국	9.6	9.9	11.8	12.7	13.4	13.3
스페인	14.2	13.7	13.6	12.8	13.7	12.8
프랑스	14.4	14.0	13.4	12.8	13.5	12.7
미국	12.9	12.7	12.4	11.7	11.7	11.7
멕시코	11.4	11.3	11.6	11.5	11.6	10.9
튀르키예	4.6	5.0	5.3	6.1	5.0	5.0
폴란드	5.4	5.4	5.2	5.1	4.6	4.5

자료: OECD.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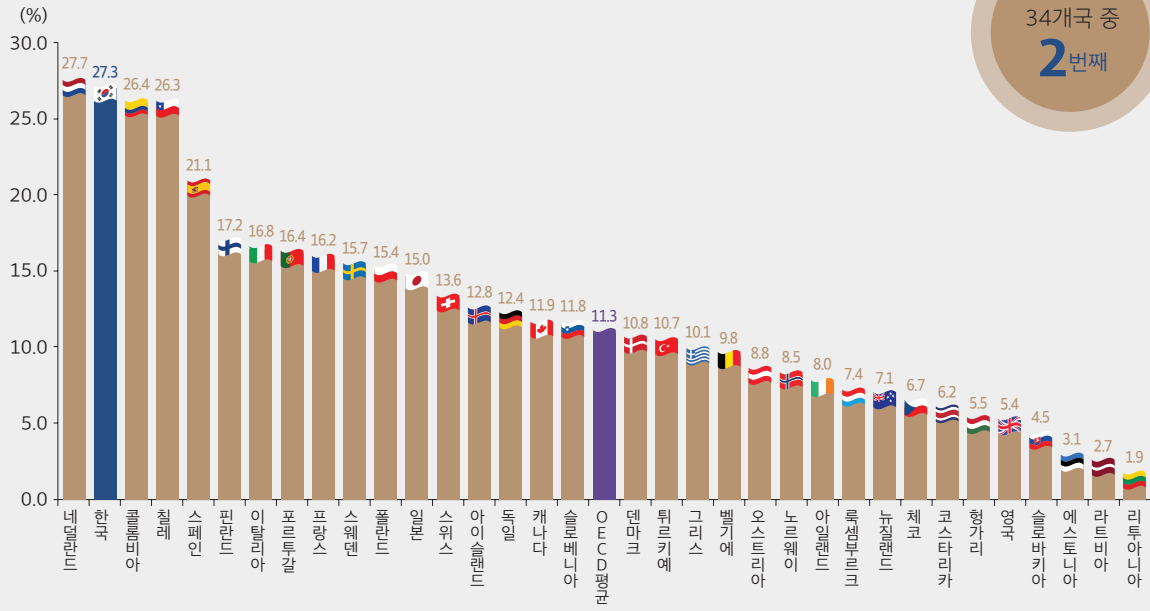
시간제근로자 : 주된 일자리의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인 임금근로자, 한국은 경찰 임금근로자의 주당 실근로시간 자료를 통해 별도로 포함. 그래프 상의 OECD 평균(13.1%)은 한국을 포함한 단순평균이고, 통계가 미제출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가중평균은 14.0%임

취업자중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인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을 비교하기 위한 참고지표이다. 2021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9%로 OECD 33개국 중 6번째로 높은편에 속한다.



OECD국가들의 고용 안정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임시직근로자 비중을 볼 수 있다.(국가별 임시직의 정의는 차이가 있음) 2022년 한국은 27.3%로 34개국중 2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고용 안정성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 임시직근로자(Temporary Employment) 비중(15세 이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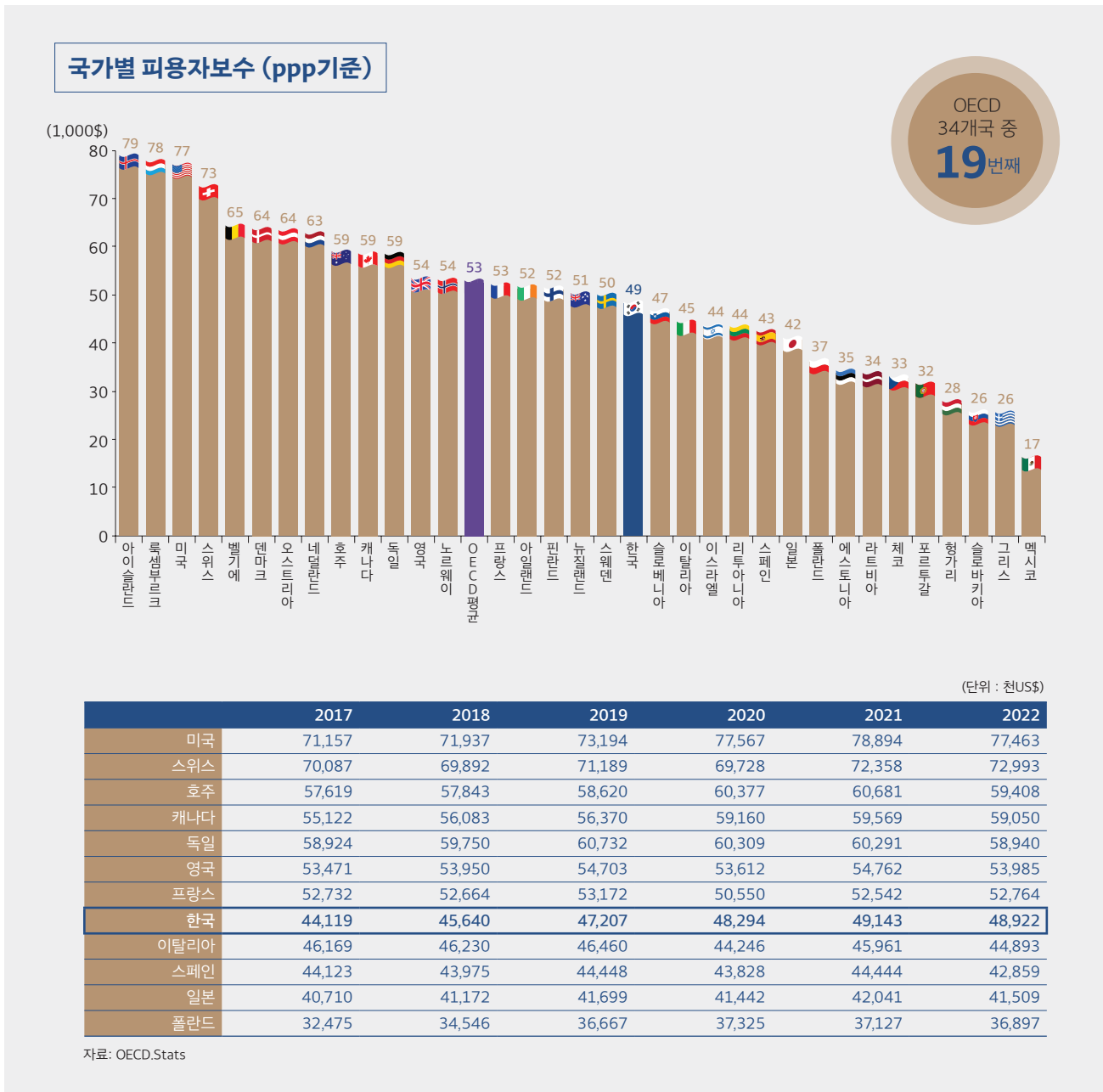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네덜란드	21.8	21.5	20.3	18.0	27.4	27.7
한국	20.6	21.2	24.4	26.1	28.3	27.3
콜롬비아	28.0	28.6	28.6	27.1	26.2	26.4
스페인	26.7	26.8	26.3	24.1	25.1	21.1
이탈리아	15.4	17.0	17.0	15.1	16.4	16.8
프랑스	16.9	16.7	16.3	15.4	15.1	16.2
폴란드	26.2	24.4	21.8	18.6	15.1	15.4
일본	-	15.7	15.7	15.4	15.0	15.0
독일	12.9	12.6	12.0	10.9	11.5	12.4
캐나다	13.7	13.4	12.8	11.5	12.0	11.9
튀르키예	13.3	12.6	11.6	10.9	11.6	10.7
영국	5.9	5.6	5.2	5.4	5.6	5.4

자료: OECD.Stats.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자료 활용
 주요국의 임시직 기준 : 한국(기간제+단기계약+파견+일일근로), 캐나다(종료일이 정해진 경우), 일본(1년미만 기간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14개국(일의 종류가 객관적으로 정해진 경우)

2. 근로조건

비용자보수*

OECD국가들의 1인당 비용자보수를 실질구매력 기준인 US\$ PPP환율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2년 한국은 연간 48,922달러로 OECD 34개국 중 19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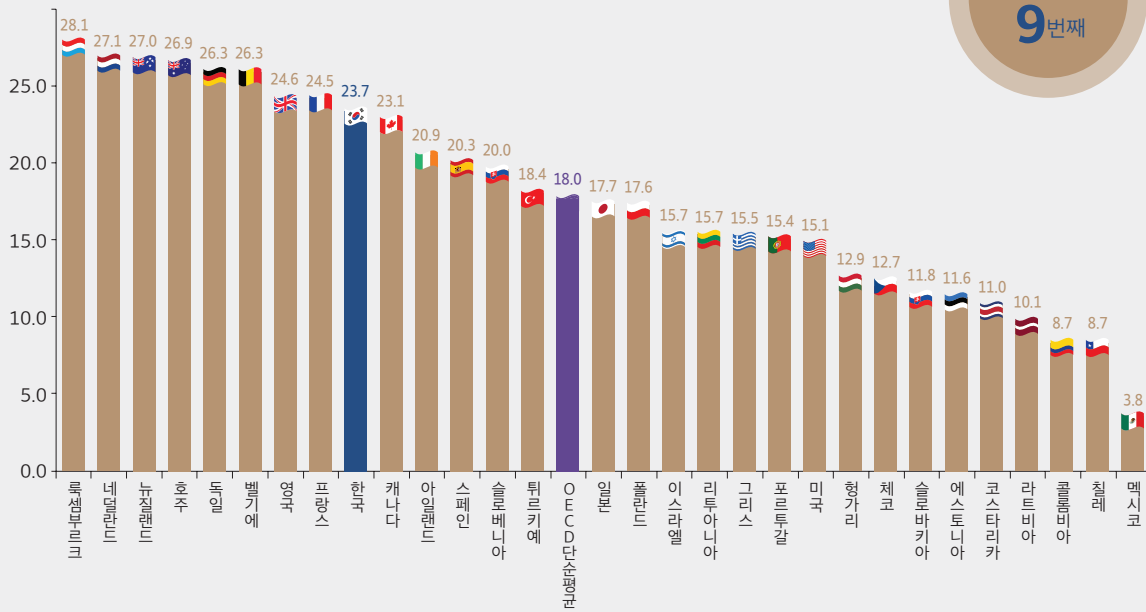
* 국민계정의 '비용자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는 개념적인 차이가 있어 국가별 임금수준 비교지표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실질 최저임금

2022년 OECD국가들의 실질최저임금액에서
한국은 23,730달러로 30개국 중 9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연간 실질 최저임금 (ppp기준)

(1,000 \$)



OECD
30개국 중
9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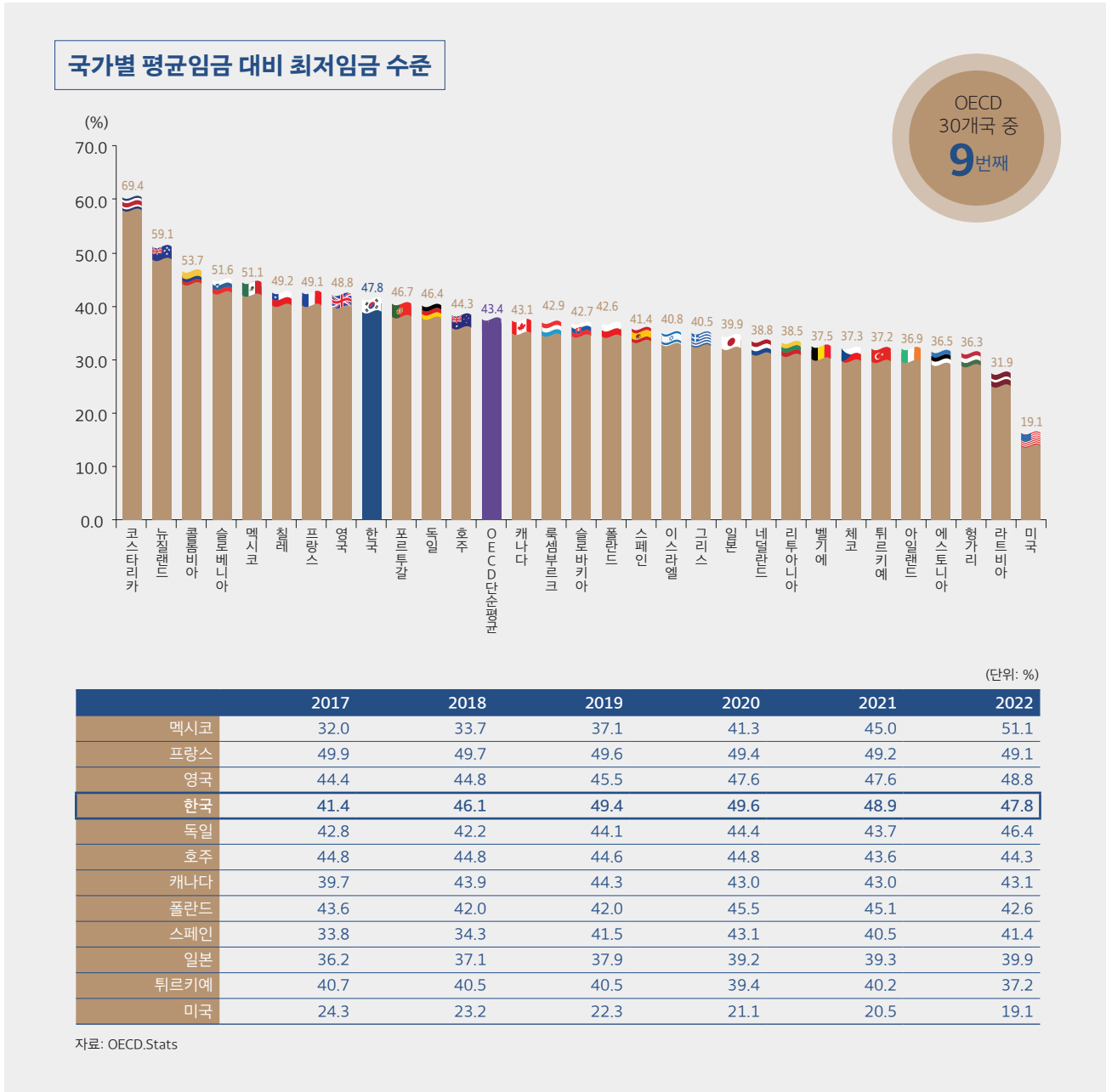
(단위 : US\$)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호주	26,569	26,957	27,390	27,804	27,605	26,895
독일	26,494	26,043	26,610	26,282	26,341	26,268
영국	22,671	23,120	23,812	24,958	25,120	24,551
프랑스	25,032	24,879	24,980	25,159	24,997	24,497
한국	18,490	21,206	23,425	23,970	23,739	23,730
캐나다	20,910	23,108	23,495	23,923	23,680	23,139
스페인	16,407	16,780	20,379	21,581	20,933	20,329
튀르키예	13,321	13,074	14,310	14,661	14,901	18,380
일본	16,210	16,543	16,969	17,362	17,559	17,668
폴란드	15,099	15,572	16,321	18,244	18,702	17,569
미국	18,004	17,575	17,262	17,052	16,287	15,080
멕시코	2,271	2,390	2,680	3,110	3,384	3,827

자료: OECD.St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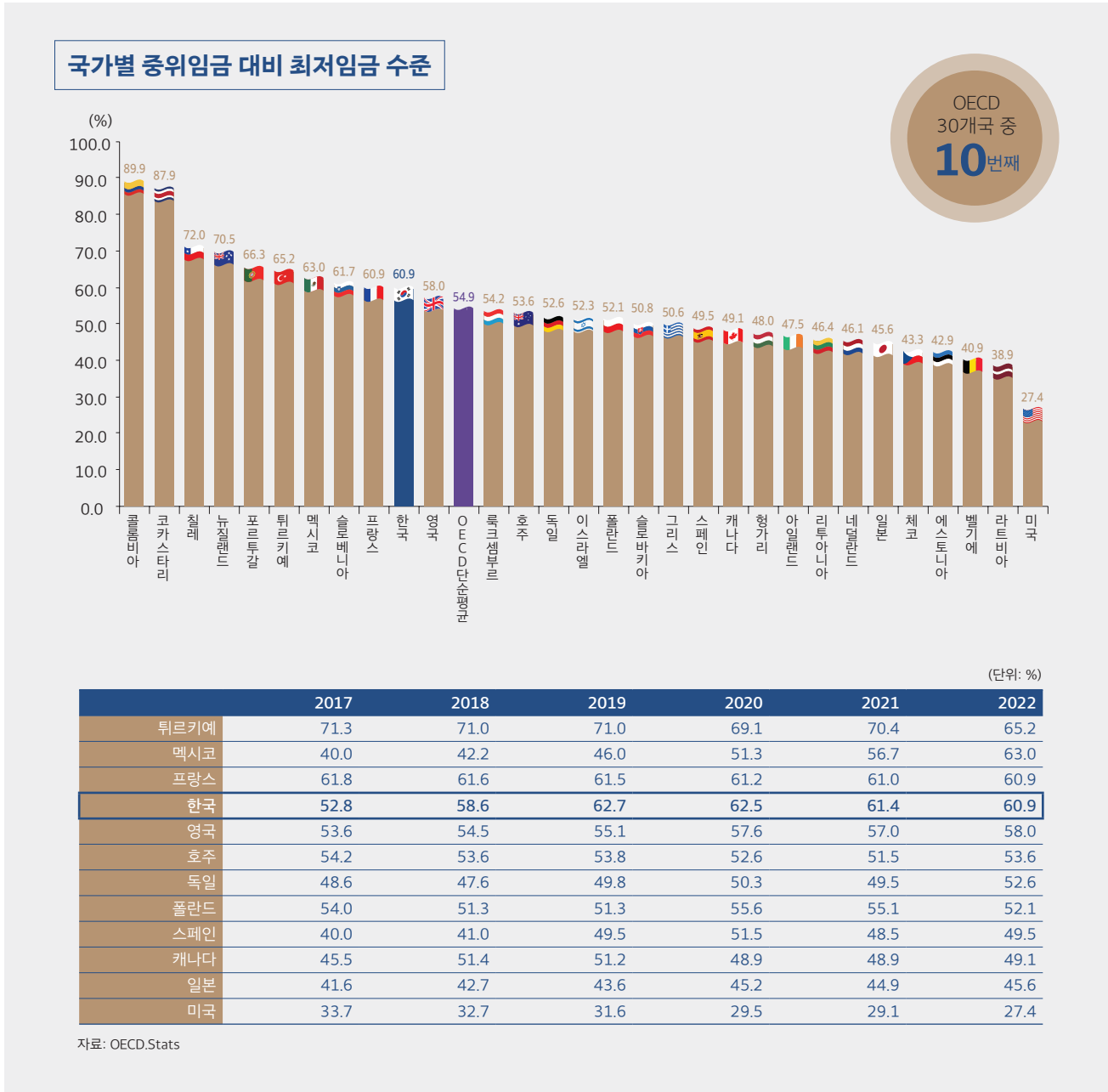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2022년 OECD국가들의 평균임금(Mean wage)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서 한국*은 47.8%로 30개국 중 9번째에 위치한다.



*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주40시간제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2022년 OECD국가들의 중위임금(Median wage) 대비 최저임금 수준에서 한국*은 60.9%로 30개국 중 10번째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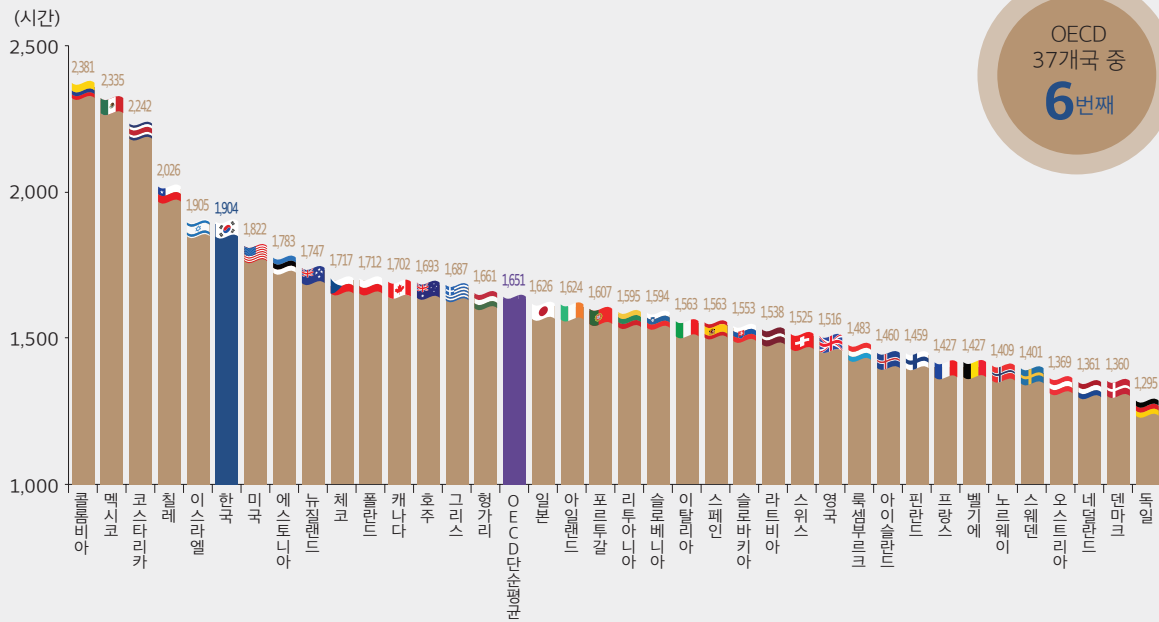


* 한국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주40시간제 기준 최저임금 월환산액을 비교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연간 근로시간 및 취업시간

2022년 OECD국가들의 임금근로자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에서 한국은 1,904시간으로 37개국 중 6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 (임금근로자,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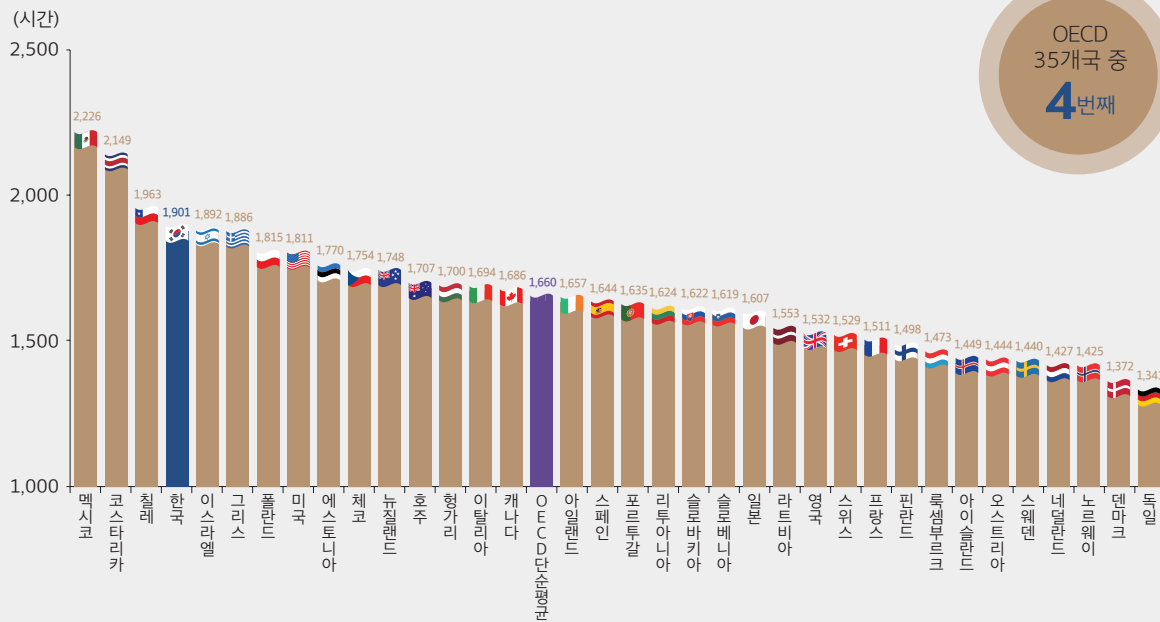
(단위: 시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멕시코	2,348	2,347	2,336	2,326	2,328	2,335
한국	1,996	1,967	1,957	1,927	1,928	1,904
미국	1,830	1,836	1,833	1,819	1,835	1,822
폴란드	1,718	1,697	1,692	1,685	1,725	1,712
캐나다	1,699	1,715	1,703	1,676	1,706	1,702
호주	1,707	1,706	1,696	1,670	1,681	1,693
일본	1,719	1,698	1,662	1,617	1,627	1,626
이탈리아	1,582	1,588	1,579	1,442	1,532	1,563
스페인	1,614	1,618	1,605	1,494	1,541	1,563
영국	1,509	1,510	1,513	1,365	1,487	1,516
프랑스	1,416	1,424	1,428	1,323	1,401	1,427
독일	1,331	1,326	1,320	1,276	1,295	1,295

자료: OECD.Stats

2022년 OECD국가들의 전체취업자(Total Employment)의 평균
연간근로시간에서 한국은 1,901시간으로 35개국 중 4번째에 위치한다.

국가별 연간 취업시간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취업자)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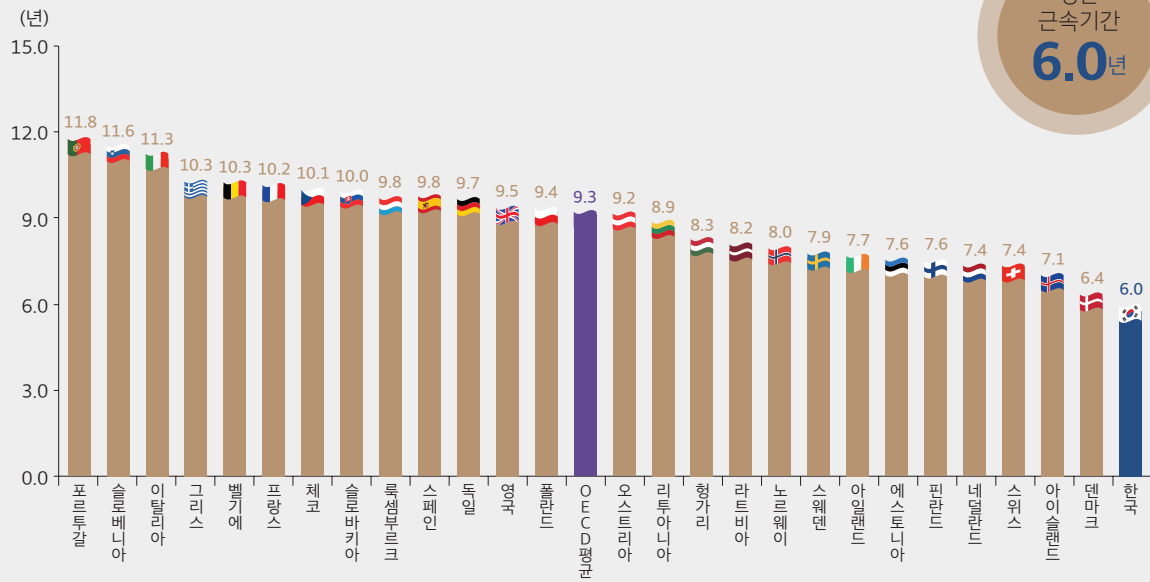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멕시코	2,238	2,238	2,228	2,207	2,216	2,226
한국	2,018	1,993	1,967	1,908	1,910	1,901
미국	1,821	1,827	1,824	1,800	1,820	1,811
호주	1,739	1,733	1,723	1,684	1,695	1,707
이탈리아	1,719	1,719	1,710	1,543	1,658	1,694
캐나다	1,689	1,702	1,691	1,653	1,685	1,686
스페인	1,692	1,698	1,677	1,552	1,623	1,644
일본	1,709	1,680	1,644	1,597	1,607	1,607
영국	1,536	1,536	1,537	1,364	1,498	1,532
프랑스	1,508	1,514	1,518	1,403	1,484	1,511
독일	1,389	1,381	1,372	1,319	1,340	1,341

자료: OECD.Stats

근속기간

2022년 OECD국가들의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에서 한국은 6.0년으로 27개국 중 가장 짧다.

국가별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단위: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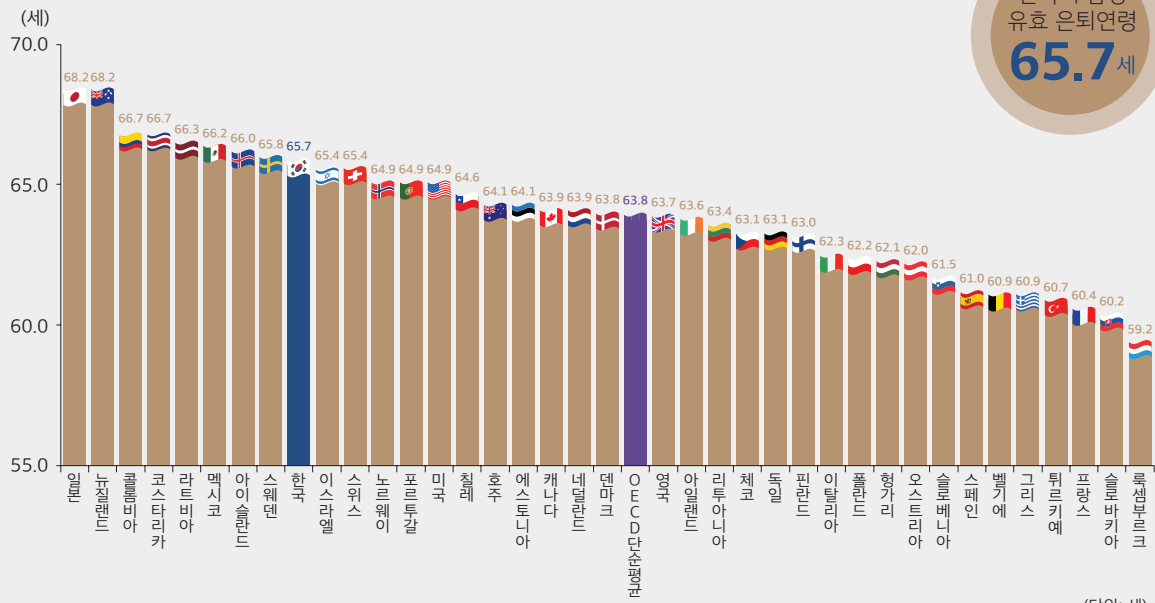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이탈리아	12.2	12.2	12.2	12.4	12.1	11.3
프랑스	11.1	11.0	10.9	11.0	10.7	10.2
스페인	10.2	10.1	10.0	10.6	10.5	9.8
독일	10.5	10.5	10.5	10.8	10.5	9.7
영국	7.8	7.8	7.8	9.6	9.7	9.5
폴란드	9.6	9.6	9.6	9.9	9.9	9.4
오스트리아	9.7	9.6	9.5	9.8	10.0	9.2
한국	5.9	6.0	5.9	6.0	5.9	6.0

자료: OECD.Stats. 한국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활용

은퇴연령

2020년(2015년~2020년 5년평균) OECD국가들의 유효은퇴연령에서 38개국 중 한국 남성은 65.7세로 9위, 한국 여성은 64.9세로 4위로 모두 OECD 평균 은퇴연령보다 높은 편이다.

국가별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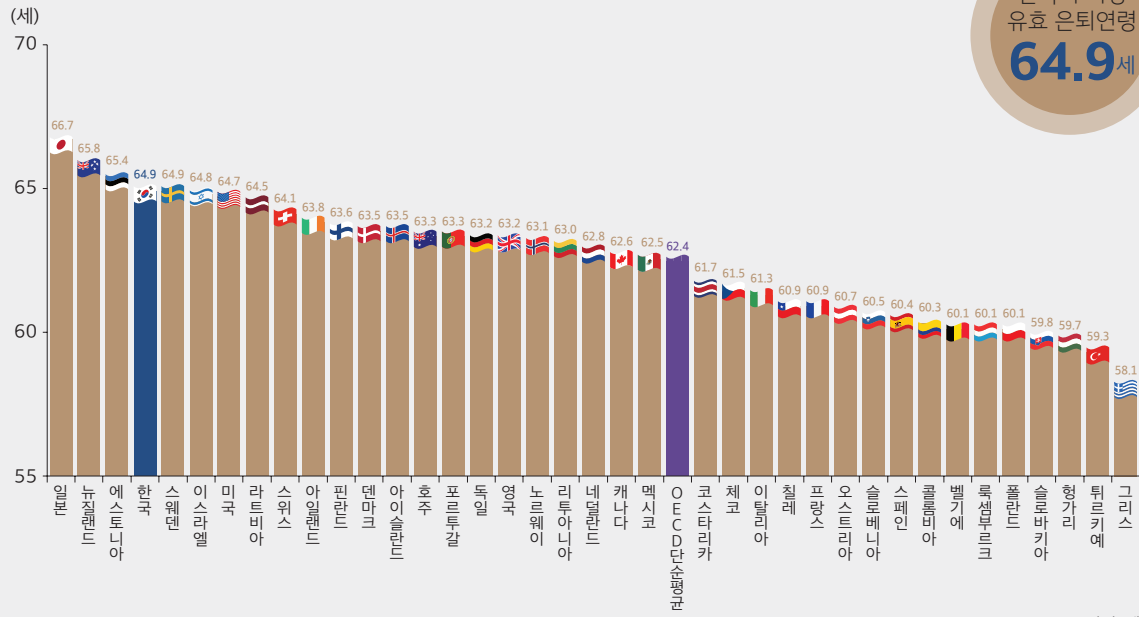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본	66.5	67.2	67.7	67.8	67.6	68.2
멕시코	67.5	67.4	67.7	67.2	67.6	66.2
한국	68.7	68.4	69.4	68.6	66.6	65.7
미국	63.3	64	64.6	65	65.3	64.9
호주	63.8	63.6	64.1	63.7	64.1	64.1
캐나다	63.4	64	63.9	63.6	64.7	63.9
영국	63	63.1	63.2	63.3	63.4	63.7
독일	61.9	62.3	62.6	63	63.4	63.1
이탈리아	60.4	60.7	61.1	62	62.6	62.3
폴란드	60.6	60.8	61	61.4	61.9	62.2
스페인	61.6	61.6	61.6	61.5	61.5	61
튀르키예	60.9	61.9	62.1	61.9	61.5	60.7
프랑스	58.9	59.3	59.9	60.3	60	60.4

자료: OECD,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주1) 각 연도의 통계치는 5년 평균 은퇴연령임. 예를 들어 '20년'은 '15~20년 평균 은퇴연령임

주2) "평균 유효 퇴직연령"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 수정되었음('21.11)

국가별 여성의 유효 은퇴연령



(단위: 세)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본	65.7	66.4	66.8	66.5	67.1	66.7
한국	68.5	68.5	69.5	68.4	67.9	64.9
미국	62.7	63.3	63.8	64.3	64.8	64.7
호주	62.1	62.5	63.1	63.2	63.5	63.3
독일	61.6	62.4	62.7	62.9	63.3	63.2
영국	61.8	62.1	62.2	62.5	62.8	63.2
캐나다	61.8	61.7	62.1	62.5	63.0	62.6
멕시코	64.5	63.7	62.6	63	64.9	62.5
이탈리아	59.9	60.7	60.2	60.7	61.7	61.3
프랑스	59.5	59.9	60.0	60.2	60.4	60.9
스페인	62.1	61.9	60.9	60.6	61.2	60.4
폴란드	58.4	58.7	59	59.7	59.6	60.1
튀르키예	62.3	62.6	63.2	62.8	62.6	59.3

자료: OECD,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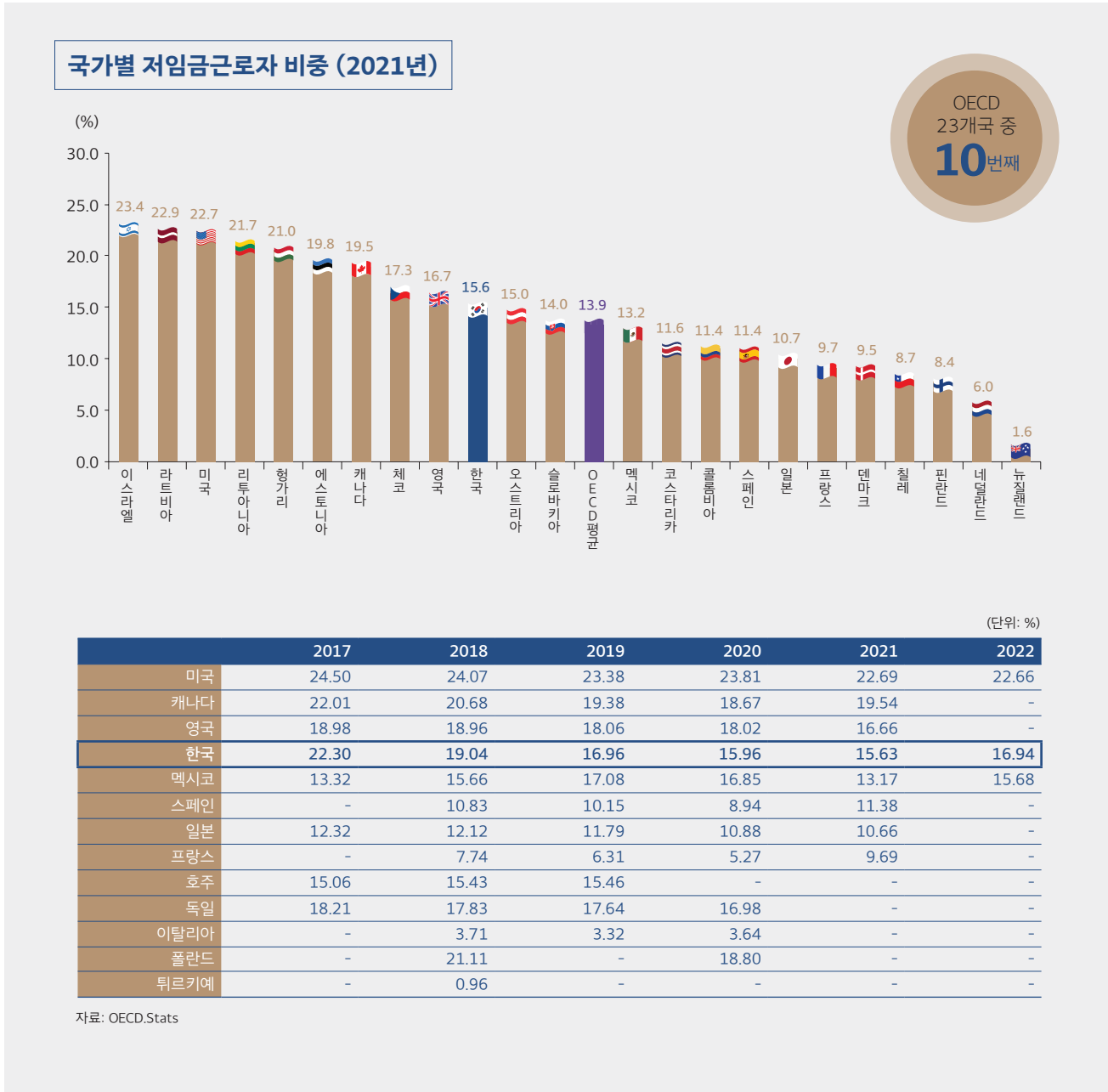
주1) 각 연도의 통계치는 5년 평균 은퇴연령임. 예를 들어 '2020년'은 '15~'20년 평균 은퇴연령임

주2) "평균 유효 퇴직연령"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방법론이 수정되었음('21.11)

3. 분배지표

저임금근로자 비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중위임금(Median)*의 2/3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2021년 OECD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비중에서 한국은 15.6%로 23개국 중 10번째로 OECD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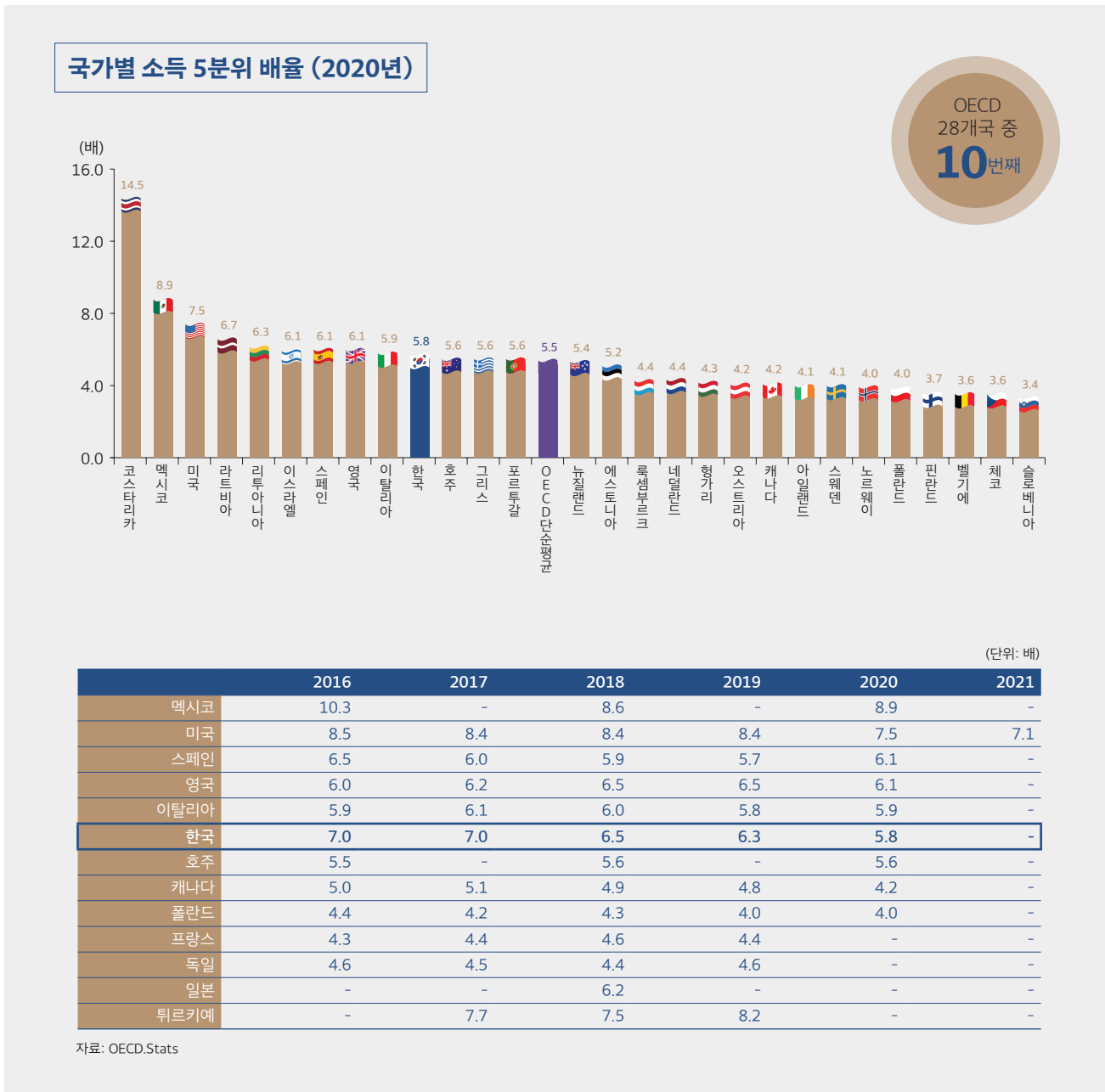


* 저임금근로자 비중 등 분배관련 지표는 나라마다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행정통계 등 출처가 다양하고, 대상자의 범위도 다양하여 직접비교 시 주의할 필요. 예) 일본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에 대한 정액급여만을 기준으로 지표를 산정

* 전일제(상용) 근로자의 임금총액 기준

소득 5분위 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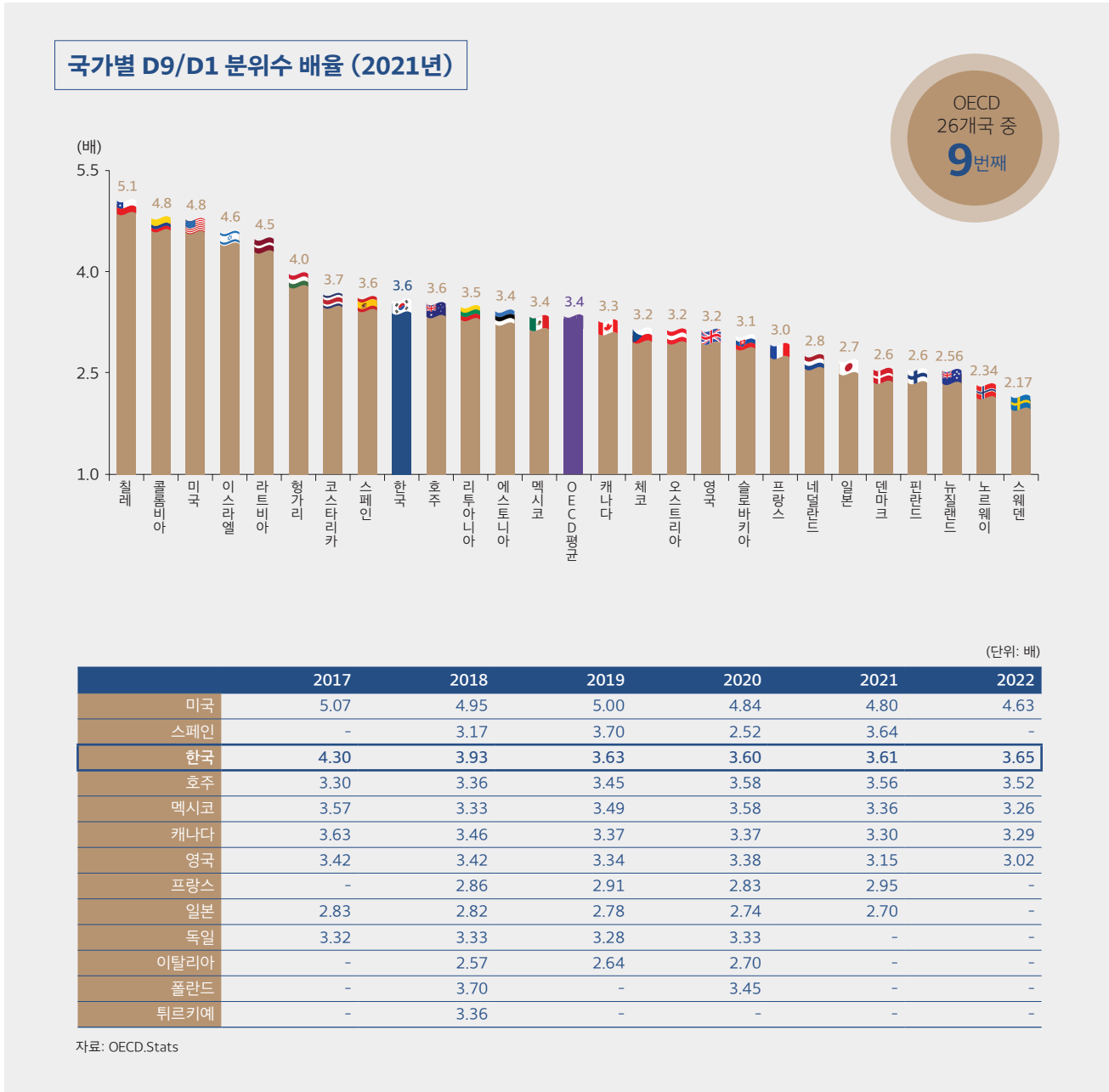
2020년 한국의 가계소득 5분위 기준 상위20%(5분위)/하위20%(1분위)의 배율은 5.8배로 OECD 2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 OECD는 소득분배를 판단하는 지표로서 1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중 조세, 연금, 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처분가능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눈 후 구간별 평균소득에 대한 배율을 지표로 제공한다.

임금 10분위수 배율*

2021년 한국의 임금소득 10분위 기준 상위9분위(D9)/하위1분위(D1)의 배율은 3.6배로 OECD 26개국 중 9번째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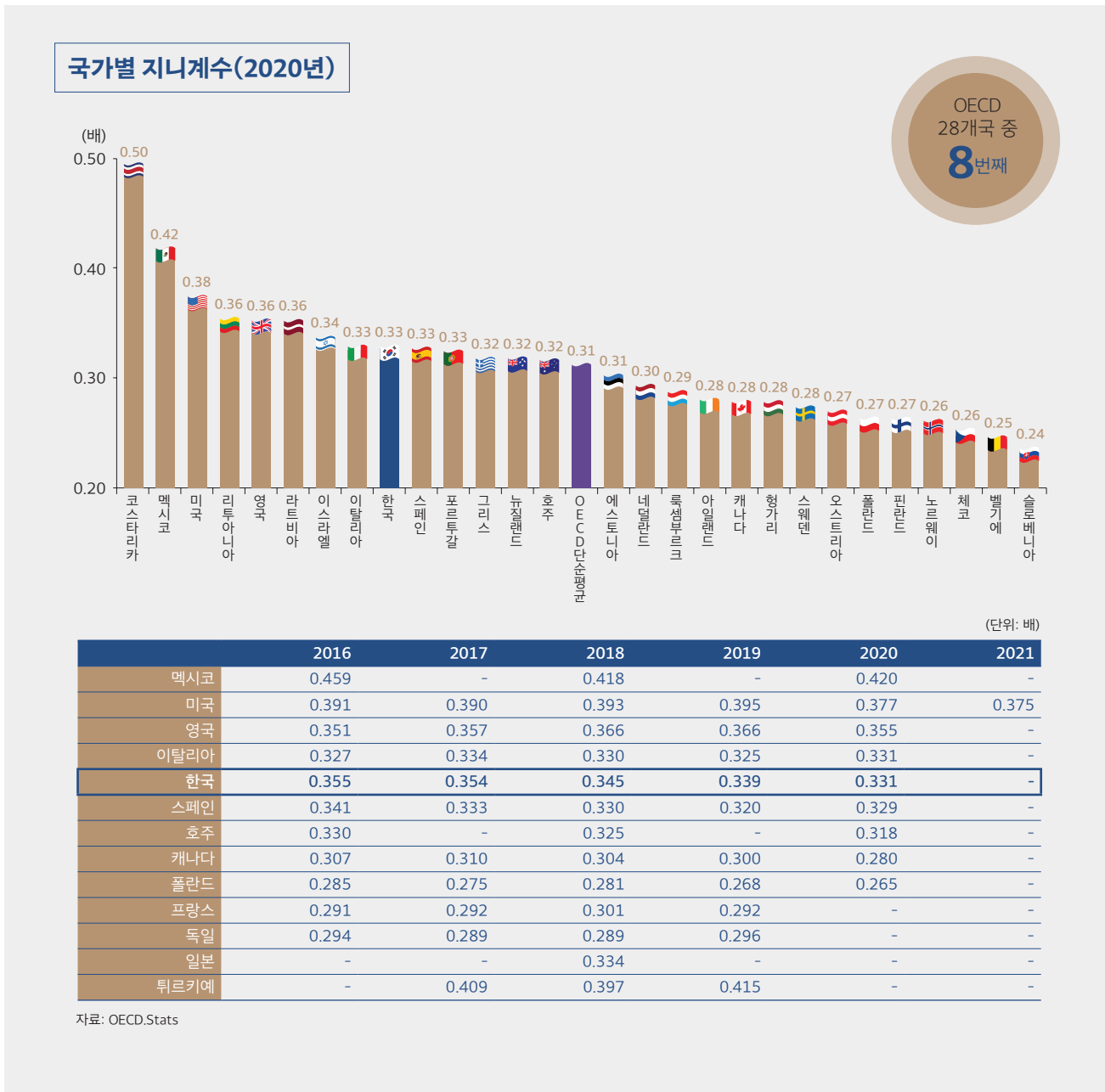


* OECD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분포를 '분위수 배율'(Decile Ratio) 지표로 발표하고 있다. 분위수 배율은 전일제근로자의 임금분포를 십분위로 나누고 분위별 경계값을 임금이 낮은 쪽부터 높은 쪽으로 D1~D9으로 정의한 후 이들의 배율로서 D5/D1, D9/D5, D9/D1 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니계수

지니계수는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써 0~1사이 값 중 '0'에 가까울수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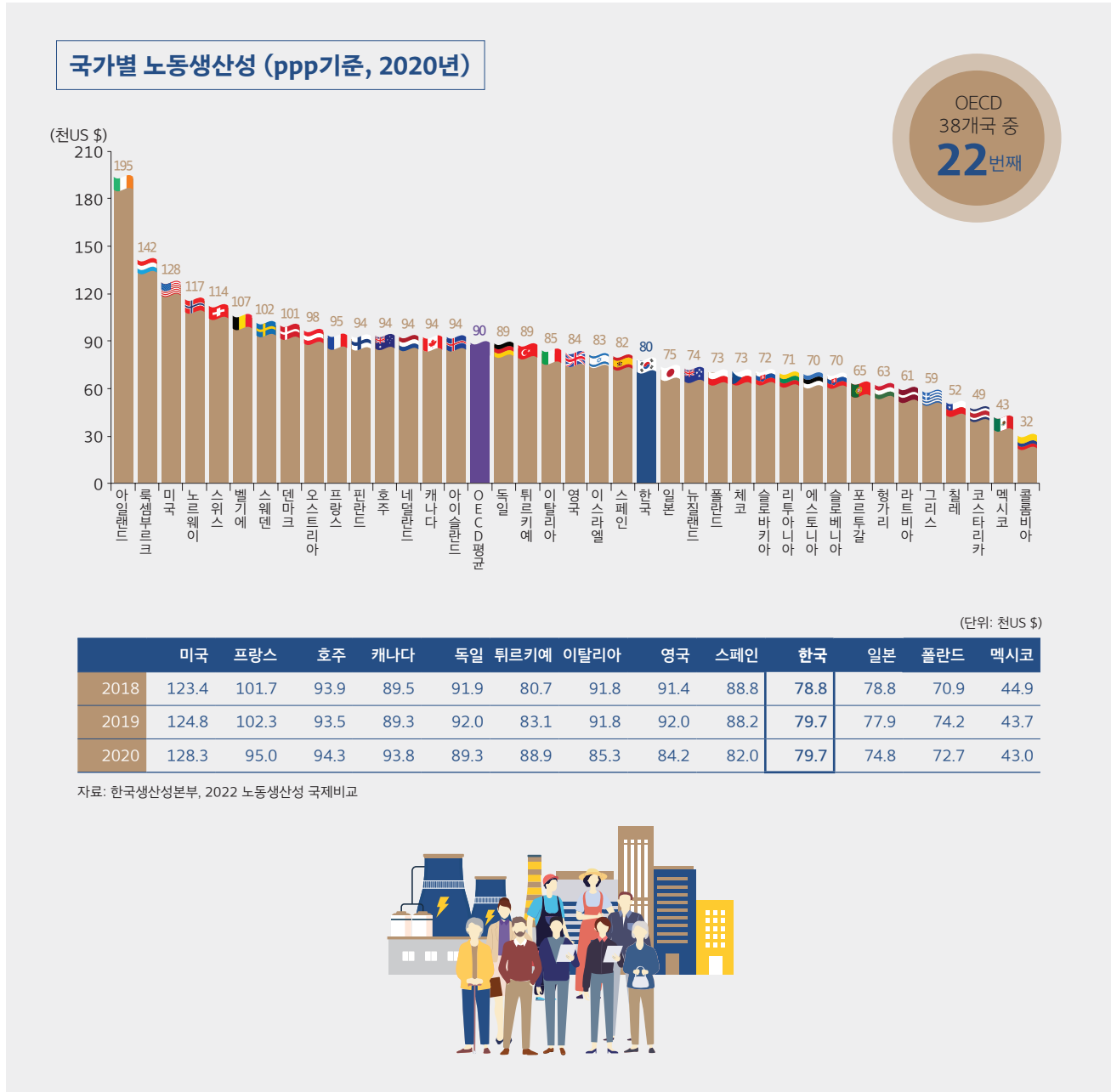
2020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3으로 OECD 28개국 중 8번째로 불평등도가 높다.



4. 기타 고용노동 지표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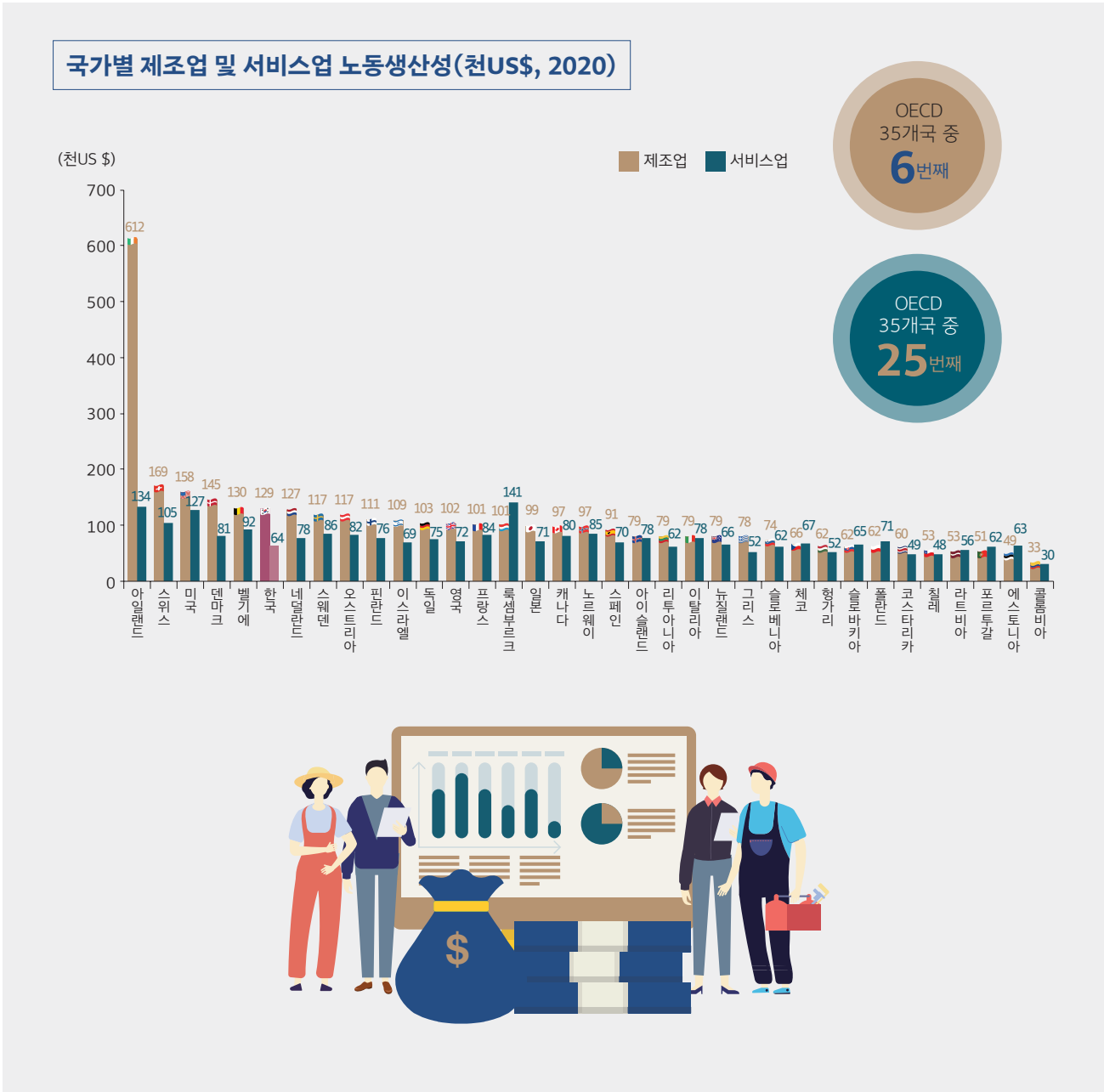
한국의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20년 US\$ PPP 환율기준으로 8만달러이며, OECD 38개국 중 22번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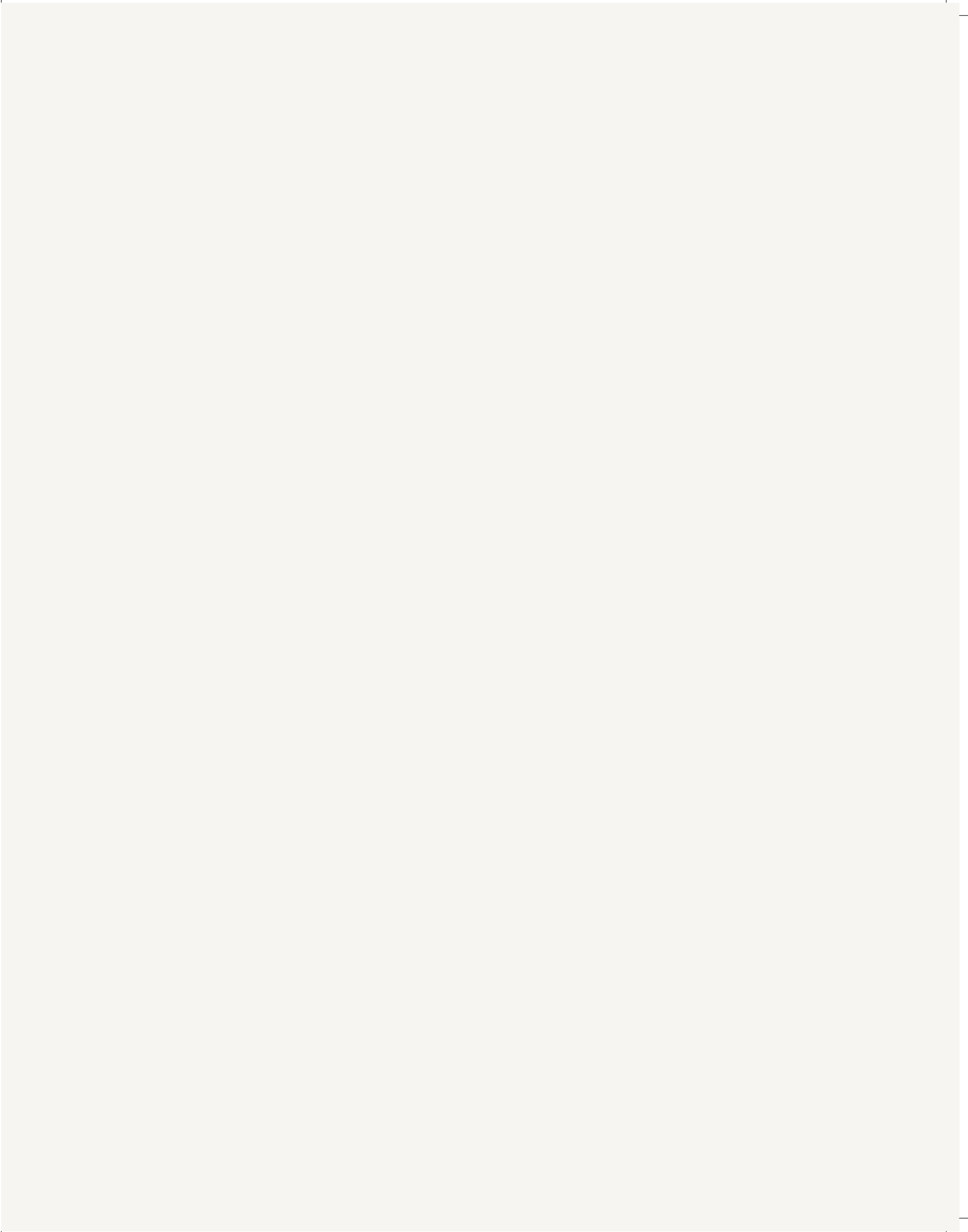


* 노동생산성은 노동투입량 1단위당 산출량으로 정의되며, 부가가치 창출에 노동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노동투입량 1단위를 취업자 1인으로 정의하는 1인당 노동생산성과 1시간으로 정의하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있다. 한편, 노동생산성 산식에서 '산출량'은 근로자의 근로능력은 물론 1인당 자본 장비율, 효율적 경영, 기술진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특정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높다고 하여 반드시 근로자의 근로능력이 높은 것은 아님

국가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은 '20년 12만9천 달러로 35개국 중 6위이며 서비스업은 6만 4천달러로 35개국중 25위이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편이다.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22년 기준

발행인 이 정 식
발행일 2023년 10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T. (국번없이)1350 www.moel.go.kr
디자인·인쇄 신성기획 044. 862. 1960

본 책의 내용을 가공·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이라고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